

방통융합미래
전략체계연구 지정2013-53

남북 방송통신 간접교류 협력방안 연구

Study on the North and South Korea Broadcasting &
Communications indirect exchange and cooperation

최 성/우성구/최상현/유갑상/최유진

2013. 11

연구기관 : 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이 보고서는 2013년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방통융합미래전략 체계 연구사업의 연구결과로서 보고서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출 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남북 방송통신 간접교류 협력방안 연구』의 연구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3년 11월

연구기관 : 남서울대학교

총괄책임자 : 최 성

참여연구원 : 우 성 구

유 갑 상

최 상 현

최 유 진

박 영 진

목 차

요약문	ix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 방법	2
제2장 북한의 방송통신 매체 실태	4
제1절 북한 방송의 개요	4
1. 북한의 방송 역할	4
2. 북한의 방송통신 변천과정	6
3. 북한 방송 조직과 방송인	16
제2절 북한의 방송 및 통신 실태	22
1. 북한의 텔레비전 방송 실태	22
2. 북한의 라디오 방송 실태	29
3. 북한의 유선 및 위성방송 실태	33
4. 북한의 영상미디어 보급 실태	36
5. 북한의 통신 실태 (이동통신 중심으로)	38
제3장 북한의 방송통신 관련 기관	44
제1절 북한의 방송관련 체계	44
1. 북한 방송과 조선노동당 및 내각과의 관계	44
2. 문화성 및 체신성 조직	51
3.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조직	55
제2절 북한의 방송통신관련 법령	59

제 4 장 북한의 방송이용 동향	64
제 1 절 북한 지역의 방송수신 환경	64
제 2 절 북한의 영상산업 및 뉴미디어 보급 현황	71
1. 북한의 영상산업 실태	71
2. 북한의 뉴미디어 보급 현황	72
제 3 절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 실태	76
제 5 장 통일전후 동서독 사례와 시사점	79
제 1 절 동서독의 통일과정 및 방송통신 교류 내역	79
1. 동서독의 통일과정	79
2. 동서독의 방송통신 교류협력	82
제 2 절 동서독의 통일관련 방송 내역	84
1. 서독의 통일관련 TV 방송 프로그램	84
2. 동독의 통일관련 TV 방송 프로그램	86
제 3 절 통일 동서독의 시사점 분석	88
제 6 장 남북한 방송통신 교류 현황	92
제 1 절 남북한 방송교류 현황	92
1. 남북 정상회담 이전의 교류 현황	92
2. 남북 정상회담 이후의 교류 현황	99
제 2 절 남북한 통신교류 현황	105
1. 남북한 통신망 개설 현황	105
2. 분야별 통신망 구축 내역	107
제 3 절 통일관련 방송편성 현황	111
제 4 절 대북방송 현황과 시사점	114
제 7 장 남북 방송통신 간접교류 방안	117
제 1 절 한반도 교류협력센터 중심의 교류 방안	117
1. 기술인력에 대한 직간접교류 방안	119

2. 장비, 서적, 기술서비스의 간접교류 방안	122
3. 교육, 문화 콘텐츠 및 사이버 도서관을 통한 간접교류 방안	123
4. 언어 및 기술 표준화의 직간접교류 방안	126
5. 한반도 교류협력센터의 설립 및 운영 방안	130
제 2 절 남북한 방송통신 교류협력 착안사항 및 개선안	132
1. 남북한 방송통신 교류협력 착안사항	132
2. 남북 방송교류의 문제점 및 개선안	134
제 3 절 남북한 간접교류 목표와 전략	138
1. 한반도 주변국의 방송 실태와 간접교류 전략	138
2. 남북한 방송통신 교류협력의 장애요인	146
3. 제 3국을 통한 관련된 장애요인 및 해결방안	152
제 4 절 통일 대비 방송통신 간접교류협력 전략적 대안	155
1. 남북한 방송통신 간접 교류협력 강점 및 약점 분석	155
2. 남북한 기술격차 해소방안	157
3. 남북한 간 방송통신 분야의 민간교역 활성화방안	159
4. 간접교류협력을 통한 단계별 추진방안	160
5. 남북 방송통신 교류의 제약과 중, 단기 교류 전략안	161

제 8 장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남북 간접교류 협력 **166**

제 1 절 남북 교류협력	166
1. 상생 공영으로 정리된 대북정책	166
2. 단계적 남북 경협	168
제 2 절 비핵 개방과 방송 통신의 연계	169
1. 기능접근을 통한 분단 통합	169
2. 북한 방송통신의 기초	171
3. 방송통신 시설 인력현황	172
제 3 절 방송통신 교류 가능성	174
1. 북한 방송통신의 환경변화	174

2. 교류의 몇 가지 전제들	177
3. 통합가능성 진단	178
제 9 장 결론 및 시사점	180
참고문헌	184
부록 1) 북한의 방송 스케줄	189
부록 2) 남북한 유엔가입현황 - 유엔 및 유엔 산하·전문·독립기구	194
부록 3) 남북한 유엔가입현황 - 정부간 기구	195
부록 4) 북한에서 연구 제작하여 중국기업에 판매한 HW 및 SW제품	198
부록 5) 중국 일자리를 찾기 위한 북한 개발팀의 제품개발이력	204
부록 6) 북한의 체신법	207
부록 7) 북한의 국가규격 : 건반배렬 부문	215
부록 8) 북한의 국가규격 : 방송 부문	219

표 목 차

<표 2-1> 북한의 정보화 발전 단계	15
<표 2-2> 북한의 지상파 TV방송 현황	25
<표 2-3> 조선중앙 텔레비전 방송의 편성 프로그램의 특징	25
<표 2-4>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 장르별 분석	27
<표 2-5>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 내용별 분석	28
<표 2-6> 조선중앙방송(北 대내용) 스케줄	31
<표 2-7> 조선중앙방송(北 대남용) 스케줄	31
<표 2-8> 평양FM방송(北 대남용) 스케줄	32
<표 2-9> 오라스콤사의 북한 이동통신 사업 진출일지	40
<표 2-10> 북한 이동전화 연도별 가입자 수	41
<표 2-11> 북한의 이동전화 소요비용	43
<표 3-1> 북한 문화성의 조직	52
<표 3-2> 체신성 조직 변천 과정	54
<표 4-1> 구국의 소리 대남 방송 시설	64
<표 4-2> 북한의 위성 기술관련 연도별 동향	67
<표 4-3> 남북한의 해외 위성 방송 비교	67
<표 4-4> 북한의 출력 100kw이상 중파방송 시설 내역	69
<표 4-5> 남북한 국제 방송 현황 대비	70
<표 4-6> 북한 내 디지털기기 보급실태	73
<표 4-7> 북한의 영상물 분포	74
<표 4-8> 북한에 유입된 뉴미디어 콘텐츠 종류	75
<표 5-1> 1989/90년의 국면에서의 시나리오 로드맵	81
<표 5-2> 독일 방송통신부문의 통일 단계	82
<표 6-1> 초창기(1989~1995) KBS 방송사의 대북 교류내역	98

<표 6-2> 초창기(1989~1995) MBC 방송사의 대북 교류내역	99
<표 6-3> 남북 방송프로그램 교류 - 공동제작 목록(1)	102
<표 6-4> 남북 방송프로그램 교류 - 공동제작 목록(2)	103
<표 6-5> 남북간 직통전화 연결 내역	105
<표 6-6> 남북간 전화 간접연결 현황	106
<표 6-7> 남북한 간 광케이블 구축 현황	107
<표 6-8> 라디오 민간대북방송 현황	115
<표 7-1> 남북 방송통신 교류협력 방안	131
<표 7-2> 남북한 방송통신 교류협력을 위한 착안사항	133
<표 7-3> 남북한 방송통신 교류협력에서 얻어지는 장점	155
<표 7-4> 남북한 방송통신 간접 교류협력 분석	156
<표 7-5> 남북한 방송통신 분야 표준화 통합 단계	158
<표 7-6> 남북 방송통신 간접교류를 위한 중장기 전략 방안	164
<표 7-7> 2014년 남북 방송통신 간접교류 관련 계획	165

그림 목 차

[그림 3-1] 북한의 방송체계	45
[그림 3-2] 북한의 조선노동당 조직도(2013.10월 현재)	48
[그림 3-3] 북한의 내각 조직도(2013.10월 현재)규모	51
[그림 3-4] 북한의 체신성 조직도	53
[그림 7-1] 교류협력 센터 중심의 간접교류	118

요 약 문

1. 제 목

남북 방송통신 간접교류 협력방안 연구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 남북관계 경색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에도 5·24 조치에 맞추어 남한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발굴 필요하며, 다자 또는 중재국을 통한 간접교류방안 발굴이 요망 됨.
- ◇ 중재국을 통한 남북한 방송 매체 교류협력은 남북한 경제교류와 통일의 시발점이 될 수 있어 정부 및 민간 차원의 실질적 교류를 여는데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함.
- ◇ 남북한 방송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북한의 방송 매체 관련 기술, 산업 현황 및 교류협력 환경 등을 중재국을 통하여 조사·분석 할 필요가 있음.
- ◇ 방송 산업은 직접적인 접촉이 없어도 다자간 교류협력을 가능하게 하여 남·북·중·러(한민족) 간 이질감을 해소시킬 수 있으며 통일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됨.
- ◇ 그러나 남북이 60년간 단절되다 보니, 방송부문이 다르게 발전되어 왔다. 일례로 TV 수신방식이 다르고, 방송체계도 다르다. 방송매체 사항들이 같아야 할 것이 다르고, 달라야 할 것이 같은 것이 많다. 이 상태에서 통일이 되면 혼란은 가중됨.
- ◇ 또한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 외부소식과 정보를 북한주민에게 효율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으나, 북한지역의 방송수신 환경이나, 북한주민의 방송수요에 대한 현황 파악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북한지역의 방송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정보전달에 효과적인 방송매체를 활용한 정보 접근권 강화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 ◇ 남북 방송매체부문의 교류협력은 반세기동안 단절되어온 남과 북의 사회, 문화적 동질감 회복과 경제협력의 활성화에 큰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인내를 가지고 협

력의 접점을 모색해나가야 함.

- ◇ 남북 방송매체 교류협력을 위한 정부의 효율적인 대북 정책수립과 민간기업의 대북 사업 추진에 관한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북한의 방송 매체부문 및 남북 방송 교류협력에 대한 정보제공에 주안점을 둔다.
- ◇ 본 연구는 중재국을 통하여 남북이 대화 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있어야한다.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 ◇ 남북 방송통신부문의 정책연구는 유화적 남북관계와 그에 따른 진전을 염두에 둔 남북간 직접교류협력방안 연구에 집중함.
- ◇ 정부의 효율적인 대북 정책수립과 기업의 합리적인 대북진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북한 방송부문과 관련 국내외 규제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여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북한의 방송부문 및 남북 방송매체 교류협력 현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정리. 분석함.
- ◇ 북한지역의 방송수신환경 및 북한주민의 정보접근실태를 분석함.
- ◇ 민간대북방송의 현황 및 문제점(편성전략, 송출환경 등)을 분석함.
- ◇ 대북방송 관련 해외사례조사 및 시사점을 분석함.
- ◇ 남북관계 정세변화에 따른 단계별 대북방송 접근방안 연구함.
- ◇ 북한지역의 방송관련 현황 파악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통일에 대비한 방송분야 준비과제를 발굴함.
- ◇ 인접국가(중국, 러시아, 일본, 몽골 등)를 통한 북한 방송통신에 대한 분석 연구

4. 연구 내용 및 결과

- ◇ 북한이 관계한 방송통신관련 국제기구 및 단체들의 대북지원 사례 검토 및 이들을 활용한 남북관계 경색 중에도 추진 가능한 간접교류 방안 및 시나리오 검토 분석.
- 북한이 관계한 방송통신 관련 국제기구 및 단체를 조사.

- 기존 대북 지원 사례 검토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
- 간접교류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방안을 도출.
- 도출된 간접교류 정책방안과 직접교류방안과의 연계한 남북 방송통신 직간접 교류 협력 시나리오를 도출.
- ◇ 대북방송 관련 문헌 조사 및 수집,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인터뷰 등을 통한 국내·외 현황 및 사례를 조사.
- ◇ 관련분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대북 관련 학계 전문가, 연구자 등으로 전담반을 구성하여 운영.
 - 북한 방송관련 보고서, 문헌 및 전문가 등을 활용한 실태를 조사·분석.
 - 북한 방송기술 분야 보고서, 문헌 등 자료 수집 및 분석.
 - 북한 방송분야 전문가(조선족, 탈북자 등) 면담과 인터뷰를 통한 현황 조사.
- ◇ 중국, 미국, 일본 등 3국에서 학술적 회의를 통한 연구 발표 자료를 수집.
 - 중국 연변 조선족자치주 연변방송, 연변TV, 연변일보, 흑룡강일보, 연변TV대학, 도문TV방송, 훈춘방송, 용정방송, 안도방송, 왕청방송, 장백방송 등 두만강주변의 방송국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 분석.
- ◇ 북한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는 독일 및 유럽 NGO(20여개 단체)를 통한 연구조사
- ◇ 중국 연변 및 동북3성의 대학교(연변대학, 연변과학기술대, 발해대학, 두만강기술전문학교, 도문대학 평생교육원 등 9개 대학교 방문 조사)의 전문가 및 교수들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 분석함.
- ◇ 중국 연변 IT벨리에 일하고 있는 조선족 동포를 통하여 연구 조사함.
 - 조선족 지식인과 북한에서 일하고 계신 재외동포를 통하여 면담조사.
 - 북한 탈북자(NK지식인연대 회원 : 약 300명)들을 통한 면담조사.
- ◇ 북한에 직접 들어가서 북한을 돕고 있는 사업가(재미동포)들을 통하여 자료 수집함.
- ◇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된 북한 방송통신부문 현황에 대한 문헌연구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현황자료의 신뢰성을 높임.
- ◇ 북한 IT전문 인력의 연변IT벨리내 거주하여 중국 업무 개발자(평양 프로그램 공동개발센터 파견) 평양과학기술대학(PUST)학자를 통한 자료수집, 특히 금번 연구에서는 북한이 자랑하는 CNC자료를 연변을 통하여 수집 할 예정

- ◇ 러시아 연해주 내 북한 IT개발인력 및 영업 나온 방송통신 전문 외화벌이 일꾼을 통한 자료수집(유스리스크 시 및 블라디보스톡 내 북한 IT인력 조사)
- ◇ Korea Computer Center Europe 및 Pyongyang Business School 등
- ◇ 독일계 SW개발전문기업으로서 NOSOTEK의 2개 기업으로 자료 수집
- ◇ 이집트 오라스콤社 및 중국 화웨이社를 통한 무선통신 체계 연구
- ◇ 정부의 효율적인 대북 정책수립과 기업의 합리적인 대북진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북한 방송부문과 관련 국내외 규제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및 관리하여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본 연구 결과보고서는 북한의 방송부문 및 남북 방송 교류협력 현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정리 분석을 함.

5. 정책적 활용 내용

- ◇ 남북관계 경색 시에도 지속가능한 남북 교류협력 방안으로 활용함.

6. 기대효과

- ◇ 북한 방송 매체 분야 실태 조사를 통해 단계적 교류 협력 방안을 도출하여 남북통일을 앞당기는 초석을 마련함.
- ◇ 북한 방송 매체 분야 기술 분석 및 교류 협력 방안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통일정책의 참조 모델로 활용 할 수 있음.
- ◇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방송매체 관련 통일 전 상호 협력과 통일 후 비용 감소를 기대할 수 있음.

SUMMARY

1. Title

Study on the North and South Korea Broadcasting & Communications indirect exchange and cooperation

2. Objective and Importance of Research

North-South relations, even if the duration of crunch 5.24 South Korea alone, according to the measures that can promote business opportunities is required, and multilateral exchanges or indirect intervention station excavation plan is needed.

Arbitration station broadcasts in North and South Korea exchange and cooperation through the ex change and economic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could be the starting point for governments and the private sector to open the first of the real exchange should be preceded.

North and South Korea exchange and cooperation to enable TV broadcasts in North Korea-related technology, industry status and working environment mediate the flow through the Bureau investigation. Analysis is needed.

Without direct contact with the broadcasting industry by enabling multi-party exchanges and cooperation inter China-Russia(Koreans) can resolve heterogeneity between and is a catalyst to accelerate the unification.

Be cut off, but looked 68 years, North and South, the broadcast division has evolved differently. For example, two different TV reception system, broadcasting system is different. Broadcast media, the same information would be different, as there are many things to be different. In this state, when reunification is the weighted confusion.

In addition, to improve the human rights of North Koreans to the outside of news and

information need to inform effective, but North Korea's broadcasting receiving environment and the status of North Koreans understand the demand for TV there are few. Thus, the current status of North Korea's broadcasting figure, and effective information delivery using broadcast media and to examine ways to strengthen access to information.

Civil broadcast media sector, which has been cut off for half a century, exchanges and cooperation in the South and the North of the social, cultural and economic cooperation in the activation of the chemistry recover a large role in that they have the patience to get out of the collaboration sought contacts.

This study Arbitration Bureau to talk through the North and South should have a new alternative.

3. Contents and Scope of the Research

Contact Broadcasting Ministry of Civil appeasement policy research progress in inter-Korean relations and the resulting direct exchanges between North and South in mind, focus on cooperation in research.

Arbitration station broadcasts in North and South Korea exchange and cooperation through the exchange and economic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could be the starting point for governments and the private sector to open the first of the real exchange should be preceded.

North Korean broadcast of the receiving environment and analyzes the status of access to information. Civil Status and Problems of the North shows (organized strategy, transmission environment, etc.) are analyzed. North Korean broadcasting overseas case studies and implications are analyzed.

Due to changes in inter-Korean relations situation in North Korea shows step-by-step approaches are studied. Status of North Korea's broadcasting over the medium to long term as identified in preparation for a unified field of broadcasting daunting task to prepare. Neighboring countries (China, Russia, Japan, Mongolia, etc.) through the analysis

of North Korea Communications research.

4. Research Results

On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Communications of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aid groups utilizing these practices review and promote inter-Korean relations during crunch scenario, examine possible measures and analyzes the indirect exchange.

North Korean broadcasting and collecting literature , interviews with experts and stakeholders through the domestic and foreign status and to investigate cases.

Comment related to a variety of areas related to North Korea for academic experts , researchers , such as the configuration of the task force operates. North Korean broadcasting reports, literature and utilizing experts examine the situation, Analysis North Korean broadcasting technology reports, including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literature. Should North Korea experts in broadcasting(ethnic Koreans, North Koreans, etc.) Survey is based on interviews with interviews.

Comment related to a variety of areas related to North Korea for academic experts , researchers , such as the configuration of the task force operates.

Germany and Europe are working in the North went NGO (20 over groups) through the research are investigated.

University of three related mutations and Northeast China (Yanbian University, Yanbi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Bohai University, Technical Education Tumen, Tumen 9 University College of Continuing Education, including research visits) by the experts and professors collected data are analyzed.

Russian Maritime Province in the North Korean IT development staff and sales workers came through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specialist foreign currency data collection (at risk youth and IT staff research Vladivostok in the North)

Korea Computer Center Europe and Pyongyang Business School etc. As a company

specializing in the development of German SW NOSOTEK other two companies, the data is collected.

North Korea's efficient government and corporate policies to support a reasonable decision to enter North Korea North Korean broadcasting sector and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gulations related to reliable information about the systematic collection and management necessary to provide the consumer and accordingly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report shows North Korea's broadcasting sector and inter-exchange and cooperation in gathering information on the state of organized analysis.

5. Policy Suggestions for Practical Use

Infarction in relation at Northern Inter-Korea Exchange and Cooperation of sustainable leverage.

6. Expectations

North Korea to survey the field of broadcast media exchanges and cooperation through the step-by-step plan to accelerate unification to derive the foundation is laid.

North Korea broadcast media sector cooperation and exchange technical analysis of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a unified policy can be used as a reference model.

Through the broadcast media related to ongoing research collaboration and unification unified all the costs you can expect.

CONTENTS

- Chapter 1. Introduction
- Chapter 2. Broadcast media situation
in North Korea
- Chapter 3. North Korea's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agencies
- Chapter 4. Trends in North Korea broadcast by
- Chapter 5. East and West Germany after reunification practices
and implications
- Chapter 6. North and South Korea exchange status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 Chapter 7. Indirect exchange inter-Korea Communications Plan
- Chapter 8. Indirect trust the process and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 Chapter 9. Conclusions and Implications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북한은 공산주의국가들 중에서도 특이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정치구조는 1인 독재 체제이며, 경제구조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이고, 사회구조면에서는 국가적 폐쇄체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체제 속에서도 남한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인내하면서 그들을 끌어내어 방송통신 교류 및 협력을 시도하여 왔었다.

그간 남북 방송통신부문의 정책연구는 유화적 남북관계와 그에 따른 진전을 염두에 둔 남북간 직접교류협력을 추구하여 왔으나 최근 북한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인하여 긴장 국면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북관계 경색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라도 5·24조치에 맞추어 남한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의 연구가 필요하며, 다자 또는 중재국을 통한 간접교류방안 발굴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 내용은 북한이 관계한 방송통신관련 국제기구 및 단체들의 대북지원 사례 검토하고 이들을 활용한 남북관계 경색 중에도 추진 가능한 간접교류 방안 및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첫째, 북한이 관계한 방송통신 관련 국제기구 및 특정 단체를 조사하고, 둘째, 기존 대북 지원 사례 검토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며, 셋째, 간접교류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방안을 도출하고, 넷째, 도출된 간접교류 정책방안과 직접교류방안과의 연계한 남북 방송통신 직간접 교류협력 시나리오를 도출하는 것이다.

또한 국내에서 단독으로 추진 가능한 간접교류 협력방안을 연구하는 것에는 첫째, 통일 및 북한실상과 관련하여 남한 내 방송 목적의 콘텐츠 제작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둘째, 남한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북한 내 주민의 시청권보호를 위하여 아리랑 국제방송이나 KBS 한민족방송 등의 대외방송에 대한 활용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며, 셋째, 남한의 통일부나 국정원 등 북한과의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한 방송통신 교류협력 방안을 검

토하는 것이다. 이 연구결과는 남북관계 경색 시에도 지속가능한 남북 교류협력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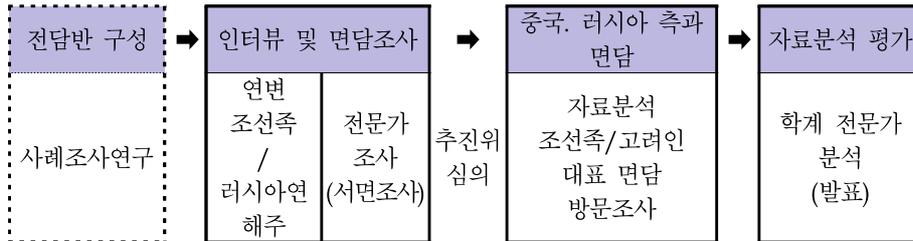
제2절 연구 방법

남북 방송통신 간접교류 협력방안을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우선 북한이 관계한 방송통신 관련 국제기구 및 단체들의 대북지원 사례를 검토하여 이들을 활용한 남북관계 경색 중에도 추진 가능한 간접교류 방안 및 시나리오를 발췌하여 분석한다.

그와 관련하여 북한이 관계되는 방송통신 관련 국제기구 및 단체를 조사하고, 기존 대북 지원 사례를 검토하여 그 문제점 도출하고, 전문가의 분석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간접교류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방안을 도출하고, 도출된 간접교류 정책방안과 직접교류 방안을 연계한 남북 방송통신 직간접 교류협력 시나리오를 도출하도록 한다.

대북방송과 관련하여 관련 문헌을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인터뷰를 통한 국내·외 현황 및 사례를 파악한다. 남북 방송통신과 관련하여 해당분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대북 관련 학계 전문가, 연구자 등으로 전담반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그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그림 1-1] 북한 방송통신 자료수집 체계



- 북한 방송관련 보고서, 문헌 및 전문가 등을 활용한 실태를 조사·분석한다.

- 북한 방송기술 분야 보고서, 문헌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다.
 - 북한 방송분야 전문가(조선족, 탈북자 등)의 면담과 인터뷰를 통한 현황 조사한다.
- 중국 연변 및 동북3성의 대학교(연변대학, 연변과학기술대, 발해대학, 두만강기술전문학교, 도문대학 평생교육원 등 9개 대학교 방문 조사)의 전문가 및 교수들을 통하여 자료수집 분석한다. 북한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는 독일 및 유럽 NGO단체(20여개 단체)를 통한 내용을 수집 정리하여 연구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했다.

제 2 장 북한의 방송통신 매체 실태

제 1 절 북한 방송의 개요

1. 북한의 방송 역할

북한에서의 방송은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을 위한 대중선전 선동수단이며 북한주민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고 일이다. 북한의 방송은 북한주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삶의 질 향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일례로 1985년 조선중앙방송위원회에서 발간된 “방송리론”에는 방송을 주체사상의 선전선동도구 및 직접적인 동원을 위한 도구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방송이란 대중적이며 종합적인 보도 선전수단이며 힘 있는 사상 문화교양 수단이며, 방송이 당의 목소리이고, 또 당은 방송을 통하여 수령님의 사상과 당의 방침을 내외에 선전하며 광범한 균중을 혁명투쟁과 건설 사업에로 힘 있게 불러일으키고 있는 매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¹⁾

또한 1984년 과학백과 사전출판사에서 펴낸 백과전서에는 “방송은 온 사회의 주체 사상화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 사명으로 하는 당의 위력 있는 사상적 무기”, “전파 또는 선로수단에 의거하여 말, 음악, 음향과 영상을 내보내는 방법으로 사회현실을 알려 주고 일정한 선전 목적을 실현하는 보도선전 및 사상 문화 교양수단”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1985년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펴낸 것으로 “방송은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남조선 혁명을 위한 위력 있는 선전도구”라고 규정하기도 하였다.

1) 김일성은 1956. 3. 1 중앙당 선전선동부 일꾼들과의 담화에서 “방송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대내외에 널리 해설·선전하여 인민대중을 혁명으로 조직·동원하는 선전·선동 수단의 하나다”라고 역설하였다.

한편 1973년 평양사회과학출판사에서 펴낸 정치사전에는 “국가방송으로서 김일성의 혁명 사상과 그 구현인 당 정책을 일상적으로 국내외에 널리 선전하며, 그 관철에로 인민 대중을 조직, 동원하는 조선로동당의 위력적 사상적 무기이며 가장 대중적인 보도 선전 및 문화 예술 선전수단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처럼 북한방송의 성격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실현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균중동원, 독재정당성 세뇌를 위한 목적에 활용되는 사회주의정권의 무기다. 오늘날 김정일 정권하에서 북한방송의 편재된 개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바, 북한방송은 설립되는 첫 시기부터 당과 국가의 강력한 통제 속에서 북한방송이 노동당의 선전선동수단, 북한주민들의 의식세뇌수단으로 발전되어온 과정이기도 하다.

초창기 북한의 방송은 국가방송으로서 마르크스·레닌의 언론관을 추구하고 인민에 대한 선전·선동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의 북한 방송은 주체사상 중심의 언론관으로 바뀌며 ‘주체사상의 방송’, ‘혁명의 방송’이라는 성격을 부여받고 있다. 다시 말하면 김일성·김정일 유일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조선로동당의 선전 선동 매체로서 언제나 당의 정책목표, 즉 체제 조건적 정책목표를 구현하는 도구, 정치 사상적 교양자, 문화 교양자로 성격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북한에서의 방송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공산주의의 혁명가로 교양을 개조하는 사상·문화·교양자적 역할’을 하면서 당의 노선과 정책을 집행하는 선전기구, 대중을 교양하기 위한 선전 수단, 유일체제를 강화시키는 수단과 함께 김일성의 혁명 사상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것을 주 기능으로 한다. 즉 북한 방송의 3대 기능은 ①이데올로기 무장을 위한 선전·선동 기능, ②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조직·동원의 기능, ③공산주의형 인간을 양성하는 문화·교양의 기능으로 요약 가능하다.

한편 북한방송의 역할은 조선노동당의 위력한 선전수단의 하나로서 전체 인민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며 그들을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투

2) 김정일은 1989. 9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과 한 담화에서 “방송은 당의 목소리이므로 정열 없는 화술로서는 인민을 혁명투쟁과 건설 사업으로 불러일으킬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쟁에로 불러일으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³⁾

그리고 북한 방송의 기본 사명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김일성과 김정일에게 끝없이 충직한 열렬한 김일성주의자로 만들며 사회를 김일성주의의 요구대로 개조하며, 김일성주의가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방송목적은 ‘주체의 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하는 것으로 온 사회의 주체 사상화와 주체사상의 전면적 승리를 위한 투쟁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동시에 당과 국가가 모든 매체와 출판물 독점하고 사전 사후 검열 등 완벽한 통제 체제를 갖추고 있어, 민영방송이나 생방송 등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북한에서의 방송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듯이 최고지도자의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조선노동당의 가장 유력한 선전 선동 매체로서 당의 노선과 정책을 구현하는 도구 이므로 방송정책 또한 매시간 당이 추구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반복 선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북한의 방송통신 변천과정

1) 북한 방송의 변천

① 방송시설 확장 및 복구기(1945~1960)

북한방송은 평양방송국(현 조선중앙방송국)에서 1945년 10월 14일 ‘조국개선 환영평양시 군중대회’의 김일성 연설 실황중계를 방송의 시작으로 정하고 있다. 당시 북한에는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평양(1936. 11. 15개국)등 주요도시에 방송국과 관련시설들이 있었으나 광복 후 안정적인 정권창출을 위한 선전도구로 활용되지 못하였다.⁴⁾ 인민위원회들이 방송국 및 관련 시설을 장악하였으나 일제에 의한 파괴, 방송 운영 인력 부족, 열악한 기술수준 등으로 방송개시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또한 한국전쟁으로 방송시설은 완전히 기능을 상실하였다.

3) 강현두(1997)

4) 박우용(2004)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시기가 도래하면서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에서 대중동원과 체제정당성 세뇌와 설파에서 방송이 가지는 중요성을 절감하게 되며 곧 당에서 직접 운영하는 북한방송체계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새로운 북한방송체계는 첫 시기에 전후 복구 작업을 위한 효율적인 주민 노력동원 수행과 주민들에 대한 선전·선동·조직·교육 등의 기능 강화를 위해 방송의 시설과 기능 회복에 주력하게 된다.⁵⁾

② 주체방송 정립기(1961~1970)

북한은 전후복구 및 사회주의 기초건설을 마친 뒤 조선노동당 제4차대회(1961. 9. 1~18)에서 전면적인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사회의 혁명화, 노동의 계급화 과업을 제시하며 이를 위한 사상적 이데올로기로서 주체사상을 제시한다. 따라서 북한방송은 북한사회와 북한주민들을 주체 사상화하는 데 주력하게 된다. 이시기 김일성은 “우리의 출판물, 라디오, 문예작품을 비롯한 모든 교양 수단이 당의 사상으로 대중을 교양 개조하는 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발동되어야 하며 모든 사업 단위들에서 사람을 교양 개조하는 것을 제1차적인 사업으로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라고 언급하면서 방송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주체방송으로 역할 할 것을 독려한다.

이 시기에 북한방송은 효율적인 대중 동원과 사상 선전을 위해 ‘전국의 유선 방송화’ 추진 및 달성하게 되다. 특히 라디오 수신기 보급이 저조했던 방송 도입 초기부터 유선 방송시설 확장에 주력하여 한국전쟁이후 평양 주요지역에서는 제3방송이 실시된다. 1965년에는 전 주민의 99.4%가 유선방송을 청취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인 전국 유선방송체계를 완성한다.

이와 함께 방송체계 개편 및 무선 라디오방송 역량 강화하는 데 집중하게 된다. 실제로 1967년 12월에는 무선 라디오 방송 시설확장으로 300kw 출력의 조선중앙 방송국으로 분리 개편된다. 또 ‘조선중앙방송국’을 ‘조선중앙 제1방송(대내방송, 300kw)’과 ‘조선중앙 제2방송(대외·대남방송, 500kw)’으로 분리 개편한다. 방송국의 증가와 함께 라디

5) 「우리당의 주체적 방송이론」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99.4)에서는 “ 1950년대 방송에 대한 당적지도체계 개편은 우리 방송이 당의 정책과 우리 인민의 새 사회 건설에서 달성하고 있는 성과들을 국내외에 광범히 소개 선전하며 원수들의 책동을 걸음마다 폭로하고 인민 대중의 새 조국 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데서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다.” 고 언급하고 있다.

오 수신기의 수도 증가하여 북한에서의 방송은 주체사상에 입각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데 중요한 언론매체로 자리 잡게 된다.⁶⁾

특히 이시기 텔레비전 방송국 설립 및 매일방송을 시작하게 된다. 1961년 12월 31일 조선노동당 제4차대회의 전야제에 첫 시험방송을 실시하였으며, 1963년 3월 3일 평양텔레비전방송국(현 조선중앙텔레비전방송국)으로 개국하였다. 1960년 이후 계속된 소련의 원조 중단과 기술 원조부진으로 TV방송은 1960년대 후반부터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매일 방송을 하게 된다.

③ 주체사상 방송 정립기(1971~현재)

김정일의 등장과 동시에 북한은 당의 지도사상을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 주체사상으로 바꾸면서 방송에 대한 새로운 과제 부여하게 된다. 방송에 부여된 과제는 첫째, 주체사상의 국내외 선전, 둘째, 사상·기술·문화의 3대 혁명 수행, 셋째, 남북통일을 위해 대중 조직 동원하는 것이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시키려는 목적 달성을 위해 ‘온 나라의 텔레비전화’를 추진되게 된다. 1974년까지 전 주민의 TV시청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였으나 계획은 크게 부진하였다.⁷⁾ ‘온 나라의 텔레비전화’를 위해 방송중계소들을 추가 설치하고 TV의 출력을 대폭 증강하였으며, 1974년 4월 15일부터는 컬러텔레비전방송을 시작하게 된다.

이후 방송 등 북한의 언론은 사회주의 완전 승리와 김정일 권력승계를 위한 김정일 우상화 및 업적선전 방송도구로 전략되게 되며 1989년 공산권 몰락과 1990년대 경제난 극복을 위한 사상동원, 선동수단으로 역할하게 된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도 TV방송은 상당부분 정치선전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주목할 것은 드물게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2013년 김정은의 신

6) 『우리당의 주체적 방송이론』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99.4) p20~22

7) 김정일은 1974년 ‘텔레비전 방송의 영향 범위 실태 조사 보고서’를 보고 TV 수신 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화질이 떨어지는 지역이 있다고 지적하며 해결을 촉구한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 난시청이 해결된 것은 1970년대 말이나 1980년대 초로 추정된다.

년사가 30분 동안 생방송으로 흘러나왔으며, 이러한 북한 최고지도자가 TV에 나와 육성으로 직접 신년사를 발표한 것은 19년 만의 일이라고 한다.

2) 북한 정보통신의 변천

정보통신은 방송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정보통신의 변천과정을 서술한다. 북한의 정보화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요소는 '체신'으로서 이는 우편통신, 전기통신, 방송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우리의 '통신' 개념에 가깝다. 즉 북한에서 체신은 컴퓨터를 제외한 정보화의 기본 요소를 모두 다 포괄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북한 정보통신 관련 주요내용의 요약이며, 1960후반부터 최근까지를 정보화 태동기(1969~1987), 정보화 토대 구축기(1988~1977), 정보화 본격 추진기(1998~현재)로 분류한다.

① 정보화 태동기(1969~1987)

북한에서 정보화의 태동기는 1960년대 후반으로 볼 수 있으며, 정보화에 대한 초보적인 관심을 보였던 시기였다. 기술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1969년에 중국의 문화혁명을 피해 북한으로 온 조선족 과학자들을 활용해 '전자계산기 제작집단'을 조직, '전진-5500'이라는 제1세대 디지털 컴퓨터를 최초로 제작한 것이 효시라고 볼 수 있다. 이후 북한은 1974년 폴란드제 오드라를 도입하여 사용하다가 1979년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제2세대 컴퓨터인 '룡남산 1호'를 제작하였다. 1982년에는 조총련을 통해 일본 등지에서 XT급의 주요 부품을 수입해 8bit급 개인용 컴퓨터인 '봉화4-1'을 조립 생산하였다. 또한 1980년대 말에 북한 전 지역의 유선방송화를 이루어냈다.

정보화 관련 기관으로 '프로그램 종합연구실'(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을 설립하였고, 1983년에는 각 대학의 '전자공업부' 교육과정을 확대 개편하였으며, 1985년에는 평양과 함흥에 '전자계산기 단과대학'을 설립하였다. 특히 1986년에는 김일성 종합대학에 '컴퓨터센터'를 설치하였고, '평양정보센터'(PIC: Pyongyang Informatics Center, 현 평양정보기술국)의 전신인 '평양프로그램개발회사'를 발족시켰다. 나아가 1986년에는 '전국과학기술축전'을 개최해 과학기술의 발전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켰다.

이처럼 196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중반 이후까지 북한은 정보화에 대한 구체적 계

획이나 준비가 미비한 시기였다. 그러나 컴퓨터 관련 기초적 기술을 발전시켰으며 각종 정보화 관련 기관들을 설립하였고, 또한 대학을 비롯한 정보화 관련 연구소들을 설립하기 시작하는 등 정보화에 대한 관심을 조금씩 가지게 되면서 북한에서 정보화가 태동하게 되는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② 정보화 토대 구축기(1988~1997)

북한은 1980년대 후반부터 정보화의 토대 구축을 위한 일련의 정책을 폈다. 1988년부터 '제1, 2차 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으며, 1990년에는 과학기술 중장기 계획(1991년~2000년)을 발표하였다.

컴퓨터의 경우, 16bit 이상의 컴퓨터를 생산하기 위해 1987년에 UNDP의 원조를 받아 조선과학원 산하 전자공학연구소에 집적회로 시험공장을 완공하고 다음 해부터 자체적으로 16bit 컴퓨터를 제작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1989년에는 '평양집적회로공장', '해주반도체공장' 등 컴퓨터 생산공장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1990년부터 32bit 컴퓨터를 조립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네트워크 분야에서는 망 현대화를 위해 1990년 8월 북한과 UNDP간의 광섬유통신 개발 합의에 기초해 평양-함북-강원-평안남도 주요 도시 간 광케이블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1992년 4월에는 UNDP의 지원을 받아 평양 광케이블공장을 건설하였다. 또한 1990년대 초반부터 과학원과 김일성대학 등 주요 기관에 내부네트워크인 LAN(local area network)을 설치했으며, 1997년 6월에는 인트라넷 개념의 초보적인 네트워크가 주요기관 간에 구축·운영되었다. 특히, 중앙과학기술통보사가 이 시기 '광명'을 개발했다. 한편 1995년 1월에는 평양과 함흥 간 광케이블공사(300km)가 완료되었으며, 1997년 말까지 평양과 70여개의 시·군과 단위에 전화 자동화가 실현되었다.

정보화 관련 기관으로 1988년에 '평양프로그램개발회사'가 '평양전자계산기운영회사'로 개편되었다. 또한 북한에서 컴퓨터 관련 중추기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조선컴퓨터중심'(KCC: Korea Computer Center)이 1990년 10월에, '평양정보센터'(PIC: Pyongyang Informatics Center, 현 평양정보기술국)가 7월에 설립되었다. 1995년에는 소프트웨어연구개발 기관으로 '은별컴퓨터기술연구소'(Silver Star Laboratories, 현 626기술봉사소)가

설립되었다⁸⁾).

이 시기에 주목해야 할 사실은 북한이 인터넷에 노출되기 시작한 것이다. 북한은 1993년 시험적으로 호주와 인터넷을 연결하였고, 1995년 UNDP는 평양사무소에서 외부세계와 인터넷을 처음으로 연결하였고, 북한 정보를 제공하는 최초의 사이트인 '김소프트'(Kimsoft.com)가 등장했다. 1997년 1월에 북한은 세계통신기구에 가입하였고, 북한 정부 조직이 개설한 최초의 웹 사이트인 '조선중앙통신'(www.kcna.co.jp)을 개설하였고, '조선신보'(www.korea-np.co.jp/korea)와 남아공서버를 이용 주체사상 연구소 호주협의회 명의의 '자주성'(www.chajusung.com)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는 아울러 김정일 위원장에 의해 컴퓨터 기술의 중요성이 제기되었는데, 김 위원장은 1993년 11월부터 여러 차례 조선과학원을 현지 지도했다. 특히 1996년 1월 1일에는 조선과학원 현지지도를 통해 '외국 컴퓨터 기술도입의 필요성을 강조' 하였다. 이 밖에도 '전국 청년과학기술전시회'가 1989년부터, 정보화 분야의 본격적인 경연대회인 '전국프로그램 경연 및 전시회'가 1990년부터 각각 시작되었다.

③ 정보화 본격 추진기(1998년~현재까지)

1998년부터 현재까지 북한은 정보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998년은 북한에게 큰 의미가 있는 해이다. 김정일 시대가 공식 출범한 해이기도 하며, 김정일 체제의 등장 에 따라 새로운 통치담론으로서 '강성대국론'이 제시된 해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광명성 1호'의 발사를 성공함으로써 과학기술적 측면에서 국제적으로 새로운 위상을 정립한 해이기도 하다.

북한은 1998년부터 5년마다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또한 제도적 측면에서도 정보화 관련 법률들을 수립하였는데 1998년 1월에는 「상표법」을, 6월에는 「발명법」을 제정하였고, 2001년 3월에는 「저작권법」을, 2003년 6월에는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법」을 각각 제정하였다. 컴퓨터 분야에서는 2002년 중국의 판

8) 현재의 명칭은 조선컴퓨터센터→조선컴퓨터중심, 평양정보센터→평양정보기술국, 은별컴퓨터기술연구소→626기술봉사소로 각각 명칭이 변경되었음

다회사와 '아침-판다컴퓨터 합영회사'를 설립하고 조업에 들어갔다.

이 시기에는 네트워크 부문에서 상당한 발전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1998년 2월에 평양과 신의주, 평안북도 내 16개 시·군 및 3개 노동자지구 사이의 400km 광케이블 공사 및 전자자동화공사를 완료함으로써 36개 시·군에 광섬유 통신망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00년에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기념하여 전국을 광섬유 케이블로 연결하는 인터넷을 완료하였다. 이와 함께 2007년에는 농촌 리 단위까지 광섬유 케이블공사가 완료되어 중앙정보통신망의 전송능력을 높였다.

아울러 내부 네트워크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는데, 1998년 중앙과학기술통보사는 컴퓨터 망인 '광명'을 여러 기관·기업소들과 연계시켜 과학기술원격검색체계와 자료통신체계를 수립하였고, 2000년부터는 과학기술통보사업의 컴퓨터화와 정보검색봉사체계를 완성하였으며, 광섬유 케이블에 의한 전화통신망이 정비됨에 따라 개별 컴퓨터들이나 기관·기업소의 컴퓨터들이 서로 연결되어 전국적인 통합정보처리체제로 확장되었다.

북한의 전자산업은 1998년 이전까지는 정무원의 '전자자동화공업위원회'에서 관할하였지만, 1998년 헌법 개정 이후 내각의 '금속기계성' 관할로 바뀌었다. 나아가 1999년 11월에 내각에 '전자공업성'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정보통신을 하나의 독자적인 산업부문으로 인정하여 정보통신 부문을 관리하는 독립적인 행정기관으로 설립한 것이다.

또한 교육성 산하에 '프로그래밍 교육 지도국'을 2000년 1월 신설하였다. 같은 해 김일성 종합대학에 컴퓨터 과학대학을 설치하였고, 평양과 함흥에 컴퓨터공학부와 정보공학강좌, 정보공학과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김일성 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컴퓨터 기술대학에 각각 정보센터가 설치되었다. 2001년에는 만경대 학생소년궁전, 평양학생소년궁전, 금성 제1, 2고등중학교 등에 '컴퓨터 수재양성기지'를 건설하였다.

2001년에는 '626기술봉사소'⁹⁾(구 '은별컴퓨터기술연구소'에서 독립한 기관)가 중국

9) '626기술봉사소'는 북한내의 인터넷에 등록되는 홈페이지에 관한 인증을 하는 북한의 국가인증기관인가를 담당한다. '626기술봉사소'는 국내망과 해외 인터넷 망을 연결하는 '실리뱅크'를 운영하고 있다.

선양에 설립되어 북한 최초의 이메일 중계 서비스인 '실리은행'을 개설하였다. 뿐만 아니라 '동북아전신회사'(NEAT&T)가 설립되어 이동통신서비스를 시작하였다. 2002년에는 과거 과학원 산하 정보부문 연구소에서 운영하던 프로그램학교와 집적회로공학교 등을 모체로 '정보기술학교'가 신설되었다. 또한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 리과대학, 평양컴퓨터기술대학, 교육성 프로그램교육센터들에 '조선식의 새로운 조작체계(OS) 개발센터'를 설립하였다. 한편 이 시기에는 정보화 분야에서 북한의 모범적인 서비스 형태로서 '전자도서관'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2005년 10월 김책공업종합대학 전자도서관이 개관된 것이다.

인터넷 분야에서는 2002년부터 인터넷을 이용한 다양한 대외협력이 이루어졌는데, 대표적으로 북권, 카지노, 바둑사이트가 개설되었다. 2003년에는 영문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www.chollima-group.com이 개설되었다. 주목할 만한 것은 2007년에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 The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가 북한의 인터넷주소관리기관으로 조선컴퓨터중심(KCC)에 'KP'도메인 사용권한을 위임하여 북한이 정식으로 인터넷주소 관리 기관을 갖추고 본격적인 'KP' 도메인을 운영해 나가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제도적·기술적 발전뿐만 아니라, 최고지도자 차원에서도 정보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들이 이루어졌다. 먼저 1998년에는 김정일이 컴퓨터 교육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1999년을 '과학의 해'로 지정하였다. 또한 2000년과 2001년에는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하여 정보통신 관련 기관들을 시찰하였다. 또한 1998년 2월 전국프로그램경연 및 전시장을 현지도도를 하였으며, 1999년 1월에는 과학원을, 3월에는 과학원합동분원을 현지도도 하였다. 또한 2000년 4월에는 인민군 '지휘자동화대학'을, 2001년 9월에는 김책공업종합대학을 현지 지도하여 '전자도서관' 건설을 지시하였다.

2008년부터는 이집트 오라스콤과의 합작으로 고려링크를 설립하고 이동통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선중앙TV에 따르면, "조선 체신회사와 이집트 오라스콤 전기통신회사사이의 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했습니다." 정보통신 분야 발전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체신성의 위상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다.

북한의 체신 분야 발전은 김정일 위원장 시대부터 강조됐다. 김정일은 체신 분야의 낡은 틀과 재래식 기술들을 현대화 흐름에 맞춰 혁신적으로 바꿀 것을 지시했다.

체신성은 북한 경제 산업에도 전반적으로 관련하고 있다. 북한 내각에 소속된 체신성은 외국과의 통신도 담당하는데 북한 발 사이버테러가 있을 때마다 거론되는 곳이기도 하다. 2009년과 2011년 디도스 공격 때도 사이버테러 근원지로 북한 체신성의 아이피 주소가 지목되기도 했다. 북한의 해커 부대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체신성의 역할과 그 중요성도 더욱 강조되고 있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체신 분야의 발전은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 가장 두드러진 것은 북한 이동통신의 변화다. 북한에서도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을 쉽게 찾을 수 있다. 2013년 5월 29일 현재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자 수는 오라스콤 회장의 발표에 의하면 200만 대가 보급되었다고 한다.

휴대전화 가입자는 평양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 주로 분포해 있는데 대부분 중국산 단말기를 사용한다. 단말기 가격은 평균 150달러이며 최신형 스마트폰은 400달러에 이른다. 북한 일반 주민의 한 달 급여가 4천 원 정도 된다고 하니 일반 주민들이 휴대전화를 사기엔 부담스런 가격이다. 금전적인 부담이 크데도 불구하고 북한 젊은 층으로부터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3세대 통신 이른바 3G망 이용으로 휴대전화로 신문을 보거나 영상통화까지 할 수 있게 됐다. 휴대전화의 보급은 북한 시장경제의 흐름을 뒤바꿔 놓았다. 쌀이나 생필품 등의 가격을 지역별로 비교하고 상인들끼리 교환해 물가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 주민들도 어느 시장에 가면 물건을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생활 전반에서 도움을 받게 됐다. 또한 북한 주민들은 외부 소식을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 중국 인접 국경 지역에서 퍼진 소문이 휴대전화를 통해 한두 시간 뒤면 평양에 전파된다고 한다.¹⁰⁾

국제사회의 제제가 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조업을 통해 산업을 일으키기엔 자원과

10) KBS뉴스(2013.09.29) [클로즈업 북한]의 내용 재편집

재원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단 기간에 경제를 회복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보통신 분야를 보다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보통신 분야의 경우 상대적으로 기술이 중요한데, 높은 수준의 기술과 인력을 가지고 있어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표 2-1> 북한의 정보화 발전 단계

구분	태동기	토대 구축기	본격 추진기
기간	1969년~1987년	1988년~1997년	1998년~현재
담론	사회주의 체신	과학기술의 담보	강성대국 건설 인민경제의 현대화
계획화	-	제1, 2차 과학기술발전 3개년 계획	제1, 2, 3차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
정책방향	기술혁신 체신의 현대화 강조	컴퓨터 도입 필요성 강조	컴퓨터 교육 강화지시 과학의 해 지정 강성대국론 강조
기술발전	1세대 컴퓨터 제작	자체적 컴퓨터 생산 32bit 공업화 완성	아침-관다컴퓨터 합영회사
네트워크	전국단위 유선방송화 완성	망 현대화(빛섬유화) 초보적 인트라넷 시험 인터넷 노출 시작	리단위까지 망현대화 완성 내부 네트워크 본격화(광명 서비스 본격화) 대외적 인터넷 활성화
주요기관 설립	프로그램종합연구실 전자계산기 단과대학 집적회로 시험공장	반도체 공장 조선컴퓨터중심(KCC) 평양정보센터(PIC) ¹¹⁾ 프로그램 강습소	전자공업성 프로그램 교육 지도국 각 대학 정보센터 수재양성기지
정책적 특징	정보화에 대한 초보적 관심 표명	과학화·현대화의 뒷받침으로서의 정보화	독립된 산업으로서의 정보화

※ 자료출처 : 박문우(2009), 한국정보화진흥원 연구자료(2010.12)

그리고 외자유치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이미 오라스콤과의 합작으로 외국 기업들이 안정적인 통신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 북한의 인력

11) 현)평양정보기술국

을 해외에 파견하는 길도 열렸기 때문이다. "북한이 지금 IT 인력이 약 3만 여명이 양성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인력들을 대거 중국이나 해외에 지금 파견해가지고 외화 벌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만 하더라도 북한의 IT 인력이 약 5천여 명이 파견이 되어가지고 실제적으로 연간 벌어들이는 외화만 하더라도 약 1억 달러 정도 될 정도로 그만큼 북한 입장에서는 경제에서 중요한 게 이 정보 통신 분야라고 하겠다. 북한은 또 더 이상 국제적인 흐름에 뒤쳐져 있지 않다는 점을 과시한 것으로 보인다.

3. 북한 방송 조직과 방송인의 구성

1) 북한의 방송 조직

북한의 초창기 방송은 마르크스. 레닌의 언론관을 추구하고 인민에 대한 선전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현재는 주체사상 중심의 언론관으로 변모하여 '주체사상의 방송', '혁명의 방송'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북한의 방송은 조선노동당의 선전 매체로서 정책목표를 추구하는 정치 사상적 및 문화 교양의 성격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북한의 방송관련 조직은 조선노동당과 내각의 이원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북한 내부의 모든 방송을 총괄하고 관장하는 조선중앙방송위원회는 표면적으로는 내각 문화성의 하부 기관에 속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조선노동당의 지휘. 통제. 감독 하에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방송시설 운영은 내각의 체신성이 담당하고 있다.

조선노동당 산하의 선전선동부와 통일선전부는 방송의 내용과 편성업무를 관장하며, 방송국과 각 방송위원회 책임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 방송과를 통해 조선중앙방송위원회를 전반적으로 통제하고 있으며, 대남방송에 대해서는 통일선전부가 관여하고 있다.

내각의 체신성의 주요업무는 체신정책 수립 및 집행지휘 감독기구, 각종 우편물 배포 업무 관장, 전신전화 시설계획과 설비관리, 무선전파 통제 및 감시감독.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통신업무 관장 및 정책수립, 우편분야의 시. 군별 체신소 마다 우편 통신용 자동

차와 수송 장비를 확충하며, 텔레비전을 모든 지역에서 선명하게 화면을 볼 수 있도록 화질개선 및 위성분야 발전, 국내 통신 시설 확충과 개선뿐만 아니라 해외로부터 신속 정확한 정보교환을 위해 국제 위성통신 시설을 현대화하고 있으며 체신 분야의 과학자와 기술자의 연구사업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체신성에는 무선 및 텔레비전 방송 지도국과 산하 텔레비전 중계소 등의 기구가 있어서 방송 분야의 방송국의 시성과 기자재를 관리하며, 방송국 운영에 관한 일반사무만을 담당하고 있다. 방송국 관리 체계는 체신성 산하에 시. 도 체신국이 있으며, 그 하부조직은 군체신소, 리 체신 분소 등을 통해서 각종 정책결정 과정을 관리하고 있다.

조선중앙방송위원회는 외관상으로는 내각의 문화성 직속 방송기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의 지위 및 통제 하에 지시사항을 이행하는 조직이다.

조선중앙방송위원회는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 선전의 조직 및 진행에 관련된 기관으로 방송 선전 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송기관이다. 방송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계획, 집행, 총괄하는 부서로서 방송을 송출하는 각 방송국을 관장하고 있다.

조선중앙방송위원회는 모든 방송 내용은 당의 사전검열을 받으며, 조직 편제 상 내각 문화성 산하기구로서 통일선전부가 직접 관장하는 “구국의 소리방송”을 제외한 모든 방송 기구를 총괄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산하의 선전선동부와 통일선전부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조선중앙방송위원회의 조직은 라디오 총국, 텔레비전 총국, 문예 총국으로 구성되었으며, 평양 모란봉 구역에 위치해 있으며, 그 하부 조직에는 각 시.도 방송위원회, 군. 리 방송위원회, 유선방송중계소 등이 있고, 직속기관으로는 방송예술단과 방송학원이 있다.

하부조직의 지방방송은 각 시.도 당 선전부 직속의 시. 도 방송위원회에서 관장하며, 각 군.리 당위원회 선전부 직속의 군. 리 방송위원회에서 유선방송중계소를 포함한 지역 유선방송을 관장하며, 지방방송위원회에서 11개소의 지방 방송국의 방송업무를 지도, 조정, 통제하며, 1970년에 발족된 지방유선방송위원회는 시. 도. 군. 리에 설치된 유선방송망을 운영하고 있다.

2) 북한의 방송인 구성¹²⁾¹³⁾

북한의 방송인은 당원으로 당성이 강한 인재로 구성된다. 북한에서 전문연예인이나 방송인이 되는 길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일반인으로 예술소조 활동을 통해 선발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례적인 일이며, 대부분의 경우 예술전문 과정을 거쳐야 한다.

방송작가나 방송 분야 종사원들의 대부분은 평양연극영화대학 출신들이다. 평양연극영화대학은 연극, 영화, 방송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1953년 11월1일에 종합예술학교로 출발하여 1972년 평양영화대학으로 다시 1988년부터 평양연극영화대학으로 개편되었다.

평양연극영화대학은 영화관련 학부, 연극관련 학부, 출판보도 관련 학부 등 크게 3개의 학부로 구성되어 있다. 이론과목과 함께 창작 실무를 병행하고 있다. 창작 인력을 양성하는 영화창작학부의 배우 방송원을 양성하는 영화배우학부, 영화기술 인력 양성을 기본으로 하는 영화기술학부가 있다.

세부학과로는 영화문학창작과, 영화연출과, 텔레비전 연출과, 영화촬영과, 영화배우과, 영화이론과, 영화녹음과, 필름현상과 등이 있다. 평양연극영화대학에는 부대시설로 녹음실, 영화편집실, 필름 현상실, 방송실기장, 녹화실 등이 있다. 특히 영화배우 양성만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배우양성소'를 두고 있으며, '전문영화문학통신원강습'이라는 특별과정을 통하여 아마추어 방송작가나 시나리오작가를 양성하기도 한다.

북한에서 방송인들 선발과 운용은 방송 초기부터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 했던 연설에서 김일성은 방송일군선발 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그는 "아무리 좋은 방송 시설을 갖추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방송국 일군 대렬을 잘 꾸리지 않고서는 방송사업을 잘하여 나갈 수 없습니다. 방송국 일군들을 좋은 사람들로 잘 꾸려야 방송국이 자기의 역할을 옹계 수행할 수 있으며 방송사업을 발전시켜나갈 수 있습니다. 당단체들은 방송국 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는 사업이 가지

12) 출처: 통일신문(2013.10.07), [북한 대중문화의 만남] 감독·작가 드라마 스텝 선발

13) 북한 방송통신부문 및 남북방송통신 교류협력현황 보고서(2009.12) 내용을 재편집

는 중요성을 똑똑히 인식하고 이 사업에 큰 힘을 넣어야하겠습니다”라고 주장하였다.¹⁴⁾

이러한 방송관련 종사자들 모두 대학 입학 과정에서부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산하 선전선동부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발되고 있으며, 대학 졸업 후에도 출신 성분과 당성을 근거로 직장이 배치되고 있다는 점은 북한 방송이 철저하게 당의 체계적인 통제 하에 사상적 무기로써만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방송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방송부문 일군들에 대한 사상교양과 선전사상의 튼튼한 무장을 강조하였으며, 또한 북한은 텔레비전방송의 수준을 높이고 선전, 교양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연출가의 수준과 기량을 높일 것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텔레비전 방송연출은 서로 다른 수법과 수단을 가지고 진행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편집물 형상작업을 통일적으로 지휘하여 하나의 형상체계로 종합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영화나 다른 예술 부문의 연출보다 다방면적인 지식과 예술적인 기량을 요구합니다. 텔레비전방송이 내용에서 정치사상이 있고 형상에서 예술성과 문화성이 보장된 품위있는 편집물을 내보내려면 연출가의 수준과 기량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합니다”¹⁵⁾

조선중앙방송 기술직은 김책공업대학, 김일성종합대학 자연과학부를 졸업한 사람들이고, 기자와 편집직은 최고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김일성 종합대학 신문학과, 역사학부, 철학부 등 사회과학부 출신들 가운데서 선발되고 있다. 북한의 방송원(아나운서)은 보도를 비롯하여 방송물의 화술 형상을 전문적으로 맡아보는 사람을 말하며 방송 매체에 따라 라디오 방송원과 텔레비전 방송원, 외국어 방송원으로, 전문분야에 따라 정치보도담당 방송원, 경제보도담당 방송원, 문예보도담당 방송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평양연극영화대학 방송과 졸업생 중에서 선발하고 있지만, 그 수는 매우 적으며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전국화술경연대회’에서 선발하는 경우가 많다. 방송원의 배치는 각급 당위원회에서 책임지고 하는데 중앙방송은 당 중앙위 간부부와

14) 1947년 5월 29일 김일성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 했던 ‘방송사업을 개선·강화할때 대하여’ 제목의 연설내용임

15) 1972년 8월 22일 김정일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및 텔레비전 방송 부문일군들과 한 담화 내용임

선전선동부, 도방송위원회는 각 도당위원회 간부부와 선전선동부에서 선발 배치하고 있다. 공로 방송원들에게는 영예상과 명예상을 수여하기도 하지만 오류를 범한 사람들에게는 부업농장 10일정도 노동처벌을 가하고 있으며, 여기서 오류란 방송에서 오독한 경우를 의미하며, 정치적 오류는 별도로 취급한다.

북한에서 기자는 '신문, 잡지를 비롯하여 방송, 통신에 기사를 쓰거나 보도할 내용을 편집하는 일 등을 하는 출판보도 일꾼'이라 정의 내리고, 특히 진보적기자는 '인민들에게 진실을 전달함으로써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김일성주의와 선진사상의 옹호자, 전파자이며, 사회 여론의 대변자, 조직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직무의 특성에 따라 기자를 기자, 특파 기자, 명예기자, 직외 기자, 종군기자 등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명예기자는 출판, 보도기관 상호간의 위임에 의하여 취재, 보도활동을 수행하며 직외 기자는 다른 부문에서 일하면서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 기자의 자격을 가지고 활동하는 기자를 의미한다.

기자는 혁명의 선도자로 당성과 성분을 중시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산하 간부부에서 선발과 임용을 주관하고 있는데 기자 채용은 일반적으로 김일성종합대학 사회과학부와 김형직사범대학 등 중앙급 사회과학부 졸업생과 김일성종합대학 어문학부에 설치되어 있는 신문학과와 여타 대학의 어문학과 졸업생 중에서 문장력과 학교 성적을 참작하여 해당학교 총장 및 학장이 추천하는 것이 1차 관문에 해당된다.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대상자에 대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산하 선전선동부 간부2과에서 엄격한 사상검토와 가정환경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임명하는 임명제 제도를 취하고 있으며, 그 밖에 김일성 종합대학 경제학부, 철학부, 역사학부, 문학대학, 법률대학 또는 김형직 사범대학 어문학부, 역사학부 졸업생도 우선적으로 선발대상이 되고 있다.

기자로 선발되어 채용되면 대부분 견습(초임) 기사를 거쳐 도일간지 등 지방신문사에 배치되며 4~5년간의 경험을 쌓은 후에 당성 심사와 능력 평가에 따라 중앙으로 재배치를 받는 것이 거의 일반적인 관례로 되어 있는데 조선중앙방송, 로동신문, 중앙통신사에 배치되는 것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선기자동맹은 3~4년에 한 번씩 기자급수 책정을 위한 이론 시험과 실기 시험을 주관하고 있으며, 이론 시험은 언론 부문에 대한 김정일의 지시와 당 정책, 기자 활동 원칙 등의 내용으로 문제가 제시되며 주관식으로 답을 적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실기 시험은 일정한 주제를 놓고 수필, 단상, 방문기, 보도 기사 등 각기 장르를 선택해 작성하는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다.

북한의 모든 기자들은 조선기자동맹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조선기자동맹은 기자들에 대한 정치사상 교양과 함께 당의 사상과 정책을 주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해설하는 글을 쓰도록 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삼고 있는데 이를 위해 매분기마다 1~2회의 강습과 연구 토론회 등을 실시하고 있다.

기자들의 재교육은 조선기자동맹의 부속기관인 기자학원을 통해 이뤄지며 정규 교육 과정 연수는 6개월 과정 단기반과 2년 과정 장기반으로 구분된다. 주로 철학, 경제학, 세계사, 조선문학사, 세계 문학사, 외국어(영어, 프랑스어) 등 일반 교양과목을 학습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외특파원은 러시아 모스크바 중심으로 동유럽, 중국 등에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통신, 로동신문사 기자들이 취재를 위해 소수 파견되어 있다.

북한의 각 언론사는 기자 취재원으로 기자나 해외 특파원 외에 통신원 제도를 제3장 북한 방송통신 현황을 운영하고 있는데, 각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기자처럼 해당 직장의 목표 달성 성과나 미풍 사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 대한 기사를 써서 신문, 방송사 및 잡지사에 송고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일컬어 '로농통신원'이라고 부르고 있다.

각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은 해당 직장의 성과를 신문, 방송, 잡지사에 송부하기 위해 노동자, 기술자, 사무원, 농장원들 중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통신원을 선발, 운용하고 있다.

통신원은 각 신문사와 방송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해당 직장의 당책임자가 추천하고 다시 각 신문사와 방송위원회가 해당자를 등록하는 절차를 밟아 임명되고 있다. 통신원 제도는 1955년 6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기관, 기업소 및 협동농장마다 통신원을 1명씩 두라”는 당의 지시에 따라 조직되었는데, 1957년 2월 전국로

농통신원대회 등을 계기로 더욱 체계적으로 조직화되고 대중적 운동으로 확대, 발전하였다.

통신원들은 당 정책 관철사례,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 사례, 공산주의 미풍 사례, 모내기 등 경제 활동 성과 등의 자료를 작성해서 언론사에 통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성우를 화술배우로 칭하고 있으며, 성우 양성을 위한 별도의 교육기관은 없으며 평양연극영화대학 방송과, 배우과 졸업생 중에서 화술배우로 선발되거나 각 부대 내의 예술선전대, 도예술선전대 등에서 활동 중인 배우 중에서 기량을 인정받아 선발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라디오 방송드라마 등 방송화술분야와 관련된 배우들의 절반 정도가 조선중앙방송위원회 문예총국 연극단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외화더빙 등 영화부문 화술과 관련된 배우들은 주로 조선 예술 영화촬영소 등 각 영화촬영소, 조선영화번역제작소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다.

제2절 북한의 방송 및 통신 실태

1. 북한의 텔레비전 방송 실태

북한 주민들은 열악한 경제 사정으로 전련 및 수상기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텔레비전의 시청 기회는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수상기의 보급률이 낮은 또 다른 이유는 정부의 정치적인 통제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텔레비전 수상기의 보급현황과 컬러·흑백 보급 비율에 대한 정확한 집계는 불가능하지만, 지역에 따라서 그 집계 및 비율이 높게 차이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의 2009년도 통계에 의하면 북한은 2003년 기준으로 383만 5천 대의 텔레비전이 보급되었으며 보급률은 17.22%인 것으로 추정된다¹⁶⁾. 2003년 기준 남한의 텔레비전 보급대수는 약 1,900만 대로

보급률 40% 정도이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서는 2003년도 기준으로 100명당 16대의 텔레비전이 보급되어 보급률을 16%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2003년도 북한 인구가 2,252만 명(한국은행 추정치)을 감안하면 텔레비전 보급대수는 약 360만 대로 추정된다.

2002년 7월 새로운 경제개선관리 조치 이후 북한시장에 중국으로부터의 컬러텔레비전이 본격 유입되고 여기에 상당량의 한국산 컬러텔레비전과 일본산 중고 텔레비전이 유입되고 있다. 최근 북한의 텔레비전보급대수는 탈북자의 토크 내용 중에서 설문조사를 분석 결과 대략 70% 이상 보급되었다고 추측하며¹⁷⁾, NK지식연대는 2010년 하반기 현재 북한 가구의 90%이상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방송시간이 저녁으로 한정되어 있고, 전력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경제적 여유가 있거나 간부들을 제외한 일반주민들, 특히 지방주민들의 경우 TV시청은 매우 어렵다.

1) 텔레비전 방송의 종류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는 전국 방송망을 보유한 '조선중앙 텔레비전 방송'과 지역방송인 '만수대 텔레비전 방송', '조선교육문화 텔레비전 방송' 등 국가소유로 모두 3개 방송사가 있다. 그리고 1997년 2월에 방송이 중지된 '개성 텔레비전 방송'이 있다.

① 조선중앙 텔레비전 방송

1963년 3월 3일에 평양 텔레비전 방송국으로 개국하였으며 1970년 4월 15일 현재의 이름으로 개칭하였다. 4년 뒤, 1974년 4월 15일에 컬러 방송이 시작되었으며 흑백방송도 유지하고 있다. 방송국은 평양시 모란봉구역 전승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14개의 송신소를 통해 북한 전역에 PAL방식으로 송출하는 유일한 전국 종합채널이다. 평일 6시간, 일요일과 공휴일은 11시간 30분씩 방송을 하여 주당 총 47시간 30분간 방송을 송출하고 있고 프로그램은 영화(기록영화, 선전영화, 영화뉴스), 뉴스, 음악, 스포츠, 어린이, 교양순으로 편성하여 왔다.

16) 최근 ITU 엑셀통계 2011년 TV보급률이 남한은 98.9%이나 북한은 밝히지 않음

17) [JTBC] 2013-10-17 토크내용 입력내용 중 인용함

② 만수대 텔레비전 방송

1983년 12월 1일에 평양시민과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문화프로그램 전문방송으로 개국하였으며 방송사는 평양 만수대에 위치하고 있다. 방송은 토요일(4시간)과 일요일(10시간 정도), 명절에만 실시하고 있으며 PAL방식으로 송출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스포츠, 예술 공연, 영화를 주로 방영하고 있으며 중앙 텔레비전 방송에서는 거의나 방영하지 않는 러시아영화와 중국드라마 등 연간 200여 편의 외국영화를 방영하고 있어 북한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프로그램 사이에 4~10여 분씩 수시로 최고통치자를 찬양하거나 체제고수 혹은 노역선동을 주제로 하는 노래를 송출한다.

③ 룡남산 텔레비전 방송

1997년 2월 16일 개국하였으며 방송사는 평양에 위치하고 있다. 평양을 가시청권으로 평일 3시간, 일요일과 명절에는 10시간씩 방송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크게 5가지 내용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그것을 분류하면, 외국어 강좌와 기초교육, 과학지식과 일반상식, 사회문화생활, 국내외 스포츠소식, 영화 및 예술 공연 등으로 이루어졌다. 2012년 조선교육문화 텔레비전 방송은 룡남산 텔레비전 방송으로 개칭하였다.

④ 개성 텔레비전 방송

1971년 4월 15일 개국한 대남선전용 텔레비전 방송국으로 남한과 같은 NTSC방식으로 전파를 송출하였다. 개성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 텔레비전 방송국으로 유일하게 대내용과 대남용의 2원 방송체제로 운영되기도 한다. 평일 7시간과 토요일 8시간 30분, 휴일 13시간 등 주간 총 56시간 30분을 방송하였다. 1997년 2월 15일까지 방송을 실시하였으나 2월 16일자로 방송이 폐지되었다. 방송의 폐지로 인해 개성 텔레비전 방송은 대남방송과 대내방송으로 분리되어 대남방송부문은 조선중앙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을 100% NTSC방식으로 바꾸어 송출했으며, 대내방송부문은 조선교육문화 텔레비전 방송으로 신설되었다.

<표 2-2> 북한의 지상파 TV방송 현황

구분	조선중앙TV	만수대TV	룡남산TV*	개성TV
방송 범위	전국	지역	지역	대남 방송
시청 대상	북한주민	평양주민, 외국인	평양주민	-
전송 방식	PAL	PAL	PAL	NTSC
설립 년도	1963년	1973년	1997년	1971년

* 1997년 조선교육문화TV방송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2012년 룡남산TV로 개칭함.

2) 방송프로그램 편성

<표 2-3> 조선중앙 텔레비전 방송의 편성 프로그램의 특징

방송시간대	편성 프로그램의 특징
17시~17시30분	모든 방송을 뉴스나 혹은 특집보도물로 편성함
17시30분~18시 (어린이 시간대)	아동영화와 스포츠를 주로 방송하며, 이 시간대 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은 북한방송에서 유일하게 정치성이 거의 배제된 것들로 편성됨
18시~20시 (교양·학습 시간대)	과학, 자연 및 생산력 증대를 위한 다큐멘터리 성격의 프로그램과 생활정보 성격의 프로그램, 우상화관련 사상물 등이 방송되고 있음
20시~20시30분 (보도 시간대)	종합뉴스에 해당되는 뉴스프로그램이 방송됨
21시~21시30분 (교양·학습 시간대)	연속극 형식의 드라마가 주로 방송되며 북한 텔레비전의 오락시간대에 해당됨
21시30분~21시40분 (시사해설 방송)	10분정도 분량으로 최근 발생한 사건을 해설방식으로 심층 보도함

북한의 대표 격인 조선중앙 텔레비전 방송은 일반 주민들이 시청하는 방송시간대는 평일 오후 5시부터 11시, 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4시부터 10시, 수요일은 오후 5시부터 10시 30분까지이다. 이러한 방송시간은 1998년과 동일한 것으로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방송시간대는 보도, 아동, 교양, 학습 등의 시간대로 구분되며, 보도시간대와 교양시간대가 큰 축을 이루고 있다.

조선중앙 텔레비전 방송 편성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장르로는 뉴스, 다큐멘터리,

주체사상 교육, 시사평론, 생활정보, 국제생활, 오락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뉴스프로그램 방송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전체 프로그램의 약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다큐멘터리 형식의 기록영화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1998년에 19.7%를 차지하였던 다큐멘터리 장르가 2000년에 21.4%, 2005년 29.6% 그리고 2008년에는 29.1%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2005년에는 다큐멘터리 편성 비율이 뉴스와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주로 통치이데올로기를 선전하는 내용으로 제작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05년에 북한당국이 방송을 통한 체제강화와 선전에 역점을 두었음을 볼 수 있다. 18)

생활정보 성격의 프로그램 비율은 대체로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며, 식문화, 패션, 도덕관습, 휴식에 대한 정보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오락형식에 해당되는 극영화, TV드라마 그리고 코미디, 스포츠 장르의 비율은 변화가 많이 나타났는데, 극영화의 경우에 1998년의 구성비 3.8%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에는 7.0%까지 높아져가고 있다.

한편 최근 들어 오락형식의 프로그램 다양성이 감소하고 영화중심의 오락편성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국가재정의 어려움으로 텔레비전 방송용 드라마 제작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으며, 영화관에서 방영되었던 영상물을 재활용하는 편성정책이라 분석할 수 있다.

내용별로 분석해 보면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프로그램에서 시사 프로그램이 연평균 30% 이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정치(우상화 포함) 프로그램, 사회, 생활정보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북한 사회의 선군체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군사관련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은 1% 정도로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18) 북한 언론전문가들은 중앙 TV장르를 편의상 뉴스, 다큐멘터리, 드라마, 만화, 문화예술, 버라이어티, 생활정보, 스포츠, 영화, 중간 노래, 방송야회, 시낭독, 캠페인 등 13개로 구분하고 있음

<표 2-4>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 장르별 분석

장르구분	연도별 방송 건수 및 구성 비율							전체 (%)
	1998	2000	2004	2005	2006	2007	2008	
뉴스	43(32.6)	31(27.8)	425(30.5)	435(29.6)	506(33.2)	453(31.0)	227(33.0)	31.3
다큐멘터리 (기록영화)	26(19.7)	24(21.4)	330(23.7)	435(29.6)	398(26.2)	371(25.4)	200(29.1)	26.6
극영화	5(3.8)	9(8.1)	57(4.1)	84(5.7)	108(7.1)	95(6.5)	48(7.0)	6.0
TV드라마	5(3.8)	7(6.3)	66(4.7)	28(1.9)	8(0.5)	35(2.4)	3(0.4)	2.1
아동만화 및 정보	5(3.8)	6(5.4)	69(5.0)	64(4.4)	63(4.1)	77(5.3)	36(5.2)	4.7
코미디	6(4.5)	1(0.9)	21(1.5)	19(1.3)	15(1.0)	16(1.1)	0(0.0)	1.1
스포츠	5(3.8)	5(4.5)	17(1.2)	5(0.3)	3(0.2)	10(0.7)	5(0.7)	0.6
생활정보	14(10.6)	15(13.4)	216(15.5)	223(15.2)	227(14.9)	217(14.9)	93(13.5)	14.9
문화.예술. 노래	6(4.5)	3(2.7)	77(5.5)	41(2.8)	47(3.1)	54(3.7)	21(3.2)	3.7
캠페인	8(6.1)	5(4.5)	7(0.5)	10(0.7)	0(0.0)	1(0.1)	0(0.0)	0.3
방송야회	1(0.8)	0(0.0)	11(0.8)	21(1.4)	30(2.0)	33(2.3)	3(0.4)	1.5
대담	2(1.5)	0(0.0)	26(1.9)	7(0.5)	10(0.7)	14(1.0)	6(0.9)	1.0
시낭송	4(3.0)	5(4.5)	35(2.5)	39(2.7)	39(2.6)	23(1.6)	23(3.3)	2.4
버라이어티	2(1.5)	1(0.0)	36(2.6)	58(3.9)	67(4.4)	61(4.1)	23(3.3)	3.8
전체	132	112	1,393	1,469	1,521	1,460	688	100.0

※ 자료출처 : 북한 방송통신부문 및 남북방송통신 교류협력현황 보고서(2009.12)

내용 구성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인 정치(우상화 포함)내용은 2004년에 19.6%, 2005년에 21.1%로 나타났으며, 2006년에 16.8%, 2007년에 10.6%로 급감하는 현상을 보였으나 2008년에는 20.3%로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6년, 2007년에 우상화관련 프로그램이 감소한 것은 체제위기를 극복했다는 자체 진단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2008년에 식량난을 비롯한 핵문제를 둘러싼 대외 환경의 악화로 체제불안이 증가하면서 우상화를 포함한 정치관련 프로그램의 비중이 높아졌다.

<표 2-5>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 내용별 분석

내용구분	연도별 건수 및 구성 비율 *건수(구성비%)					전체 (%)
	2004	2005	2006	2007	2008	
시사	428(30.6)	432(29.3)	479(32.1)	439(30.1)	215(31.3)	30.6
어린이	85(6.1)	83(5.7)	80(5.4)	99(6.8)	40(5.8)	6.0
정치(우상화 포함)	275(19.6)	310(21.1)	250(16.8)	155(10.6)	140(20.3)	17.4
경제	30(2.2)	28(1.9)	46(3.1)	30(2.1)	140(3.2)	2.4
생활정보	178(12.8)	225(15.3)	218(14.6)	221(15.1)	22(13.5)	14.4
사회	193(13.9)	259(17.6)	238(16.0)	285(19.5)	93(14.8)	16.6
군사	19(1.4)	4(0.3)	11(0.7)	19(1.3)	102(1.2)	0.9
예술·문화	110(7.9)	98(6.7)	127(8.5)	163(11.2)	43(6.3)	8.3
스포츠	22(1.6)	20(1.4)	33(2.2)	36(2.5)	24(3.5)	2.1
과학	53(3.8)	10(0.7)	10(0.6)	13(0.8)	1(0.1)	1.3
전체	1,393	1,469	1,492	1,460	688	100.0

※ 자료출처 : 북한 방송통신부문 및 남북방송통신 교류협력현황 보고서(2009.12)

우상화관련 프로그램의 편성 목적은 국내외에 조성된 경제적, 외교적 그리고 안보적 정권위기 상황에서 북한주민의 충성심을 강화하고 사상이탈을 막아내려는데 있으며, 특히 점진적인 개방에 따른 외부정부가 대량적으로 유입되면서 이로 인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의 동요, 집단주의의 훼손을 막기 위한 자구책으로 보인다.

3) 텔레비전 수신기 보급현황

북한에서 텔레비전은 가장 대중화된 미디어이다. 최근 북한 텔레비전의 보급률은 90% 이상으로 도시의 모든 가정에는 대부분 보급되어 있고 농촌가정에는 일부 없는 집들도 있다. 1990년 중반까지만 하여도 60% 정도밖에 안 되던 텔레비전 보급률이 15년이 지난 시점에 90% 이상 높아진 것은 시장화가 진척되면서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많은 양의 중고 텔레비전들을 수입하였기 때문이다.¹⁹⁾

1978년 흑색 브라운관 시험생산에는 성공했으나 그 후 칼라 브라운관 개발에서 실패

19) NK지식인연대

하면서 국산화 꿈을 접었다. 대신 조총련과 협력하여 “평양 텔레비전 수상기 공장”을 세우고 브라운관 방식 흑색 텔레비전 (“삼지연”, “대동강”), 컬러텔레비전(“목란”, “진달래”)을 생산하였다. 이 공장에서는 연간 1만대 정도의 브라운관 텔레비전을 조립 생산하다가 현재는 생산을 중단한 상태다.

텔레비전 가격은 기종에 따라서 천차만별하다. 가장 좋은 LCD 다체계 텔레비전(PAL 방식과 NTSC방식을 모두 수신할 수 있는 멀티시스템 텔레비전)은 2천불 이상에서 거래된다. 그러나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는 낡은 브라운관 텔레비전은 몇 천원에도 거래한다. 텔레비전은 국영 백화점, 외화상점, 공업품 위탁 판매소에서 주로 판매된다.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신상품 및 중고 텔레비전 판매 거래량이 많아졌으며, 특히 일본이나 중국에서 들어 온 값 싼 중고 텔레비전들이 많이 거래되고 있다.

2. 북한의 라디오 방송 실태

북한주민들이 라디오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 보다는 개인이 라디오를 소유하는 것에 대해 금지는 하지 않지만, 외국방송을 듣는 사람으로 오해를 받는 것이 싫어서 라디오를 공개적으로 보유하는 것을 꺼리는 실정이다.

그러나 1995년 이후, 중국에서 카세트음악플레이어에 라디오가 장착된 오디오설비들이 많이 수입 판매되고, 또 일본에서 수입하는 엄청난 양의 중고 오디오에 기본적으로 라디오가 장착되어 있어서 자연스럽게 보급률이 높아지게 되었다.

중앙당선전부는 주민들이 이런 오디오들에 내장된 라디오를 통해 한국방송 혹은 대북 라디오방송을 청취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오디오 설비등록제와 라디오의 주파수 튜닝부분을 의무적으로 고정시키는 제도를 실시해오고 있었다. 초기 라디오들은 대개 방송주파수를 맞추는 주파수다이얼을 돌릴 때, 가변축전기가 함께 돌아가도록 실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 실을 끊어버리고 조선중앙방송이 나오도록 가변축전기를 납땜해 버린다. 이후에 전자튜닝 라디오가 나오면서 부터는 주파수버튼을 파괴시키고 대신 축전기와 저항기를 중앙방송이 나오도록 납땜하는 식으로 고정시켰다. 최근에는 리모컨 튜

닝방식으로 주파수를 맞추는 라디오들이 수입되면서 주파수 튜닝회로를 파괴시키기가 어렵게 되면서 리모컨의 적외선 창을 막아버리거나 아예 라디오 부분을 파괴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대북 라디오방송을 청취하려는 북한주민들은 일단 보안서에서 라디오의 주파수를 고정시켜서 등록을 마친 다음 집에 가지고 와서는 주파수튜닝부분을 본래상태로 도로 복원시켜 외국라디오들을 몰래 듣기도 한다.

북한의 라디오 방송은 조선중앙방송(제1방송)과 대남방송인 평양방송(제2방송), 그리고 유선방송(제3방송)이 있다. 또한 중앙방송과 지방방송, 국제방송, 유선방송 방식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북한의 방송체계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방송체계([조선중앙방송], [유선방송](3방송포함))와 대남 방송체계([평양방송], [구국의소리방송]), 국제방송체계(러시아어, 영어, 프랑스어, 에스파니아어,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 등 어문별 외국방송)로 나뉜다. 그 밖에 1989년 1월 1일부터 시작된 평양 FM방송이 별도로 평일 13시간, 휴일에는 24시간 방송된다.

북한은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산하에 평양을 비롯하여 청진, 함흥, 원산, 사리원, 신의주, 개성 등지에 지방방송위원회(도 방송위원회)를 두고 중앙방송의 중계방송과 지역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중계방송은 라디오 중계방송과 유선중계방송의 형식이 목적과 내용에 따라 복합 또는 단독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조선중앙방송

1927년 2월 16일 설립된 '경성방송국'의 시설을 토대로 1945년 10월 14일 개국한 '평양방송국'의 모체다. 사실 1946년 5월 '평양 방송', 1948년 2월 '북조선 중앙방송' 등의 이름을 거쳐 1948년 11월에 현재의 '조선중앙방송'으로 개칭하였다.²⁰⁾ 대내용으로만 활용되

20) 1967년 12월부터 제1중앙방송(대내용, 300kw)과 제2중앙방송(대외·대남용, 500kw)으로 분리운영하고 있는바, 1972년 11월 10일 오전 5시를 기해 조선 제 1중앙방송은 '조선중앙방송'으로, 조선 제2중앙방송은 '평양방송'으로 개칭하였다.

고 있는 조선중앙방송은 개국 초기에는 1개 과장으로 1일 3시간 방송을 하였으나 현재는 중파 3채널과 단파 4채널로 하루 22시간 방송중이다. 방송국은 평양시 모란봉구역 전승동에 위치하고 있다.

프로그램편성을 본다면 뉴스보도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관영매체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보도하고 있으며, 우상화와 관영매체의 보도와 논평을 반복적으로 방송하고 있다.

<표 2-6> 조선중앙방송(北 대내용) 스케줄

방송시간	05:00 ~ 익일03:00
뉴스	06:00, 07:00, 10:00, 12:00, 15:00 17:00, 20:00, 21:00, 22:00
인터벌 시그널	김일성 장군의 노래
개시, 종료음악	애국가
지역방송	평일 14:00 ~ 15:00

2) 평양방송

평양방송은 1967년 12월에 조선중앙방송에서 조선 제2중앙방송(대남·대외 전담)으로 분리된 것이 시초이며, 1972년 11월 10일 오전 5시 기해 현재의 이름으로 개칭되면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9개 국어로 하루 23시간 30분간 총 90시간을 교양·보도·오락 프로그램 위주로 방송하고 있다.

<표 2-7> 조선중앙방송(北 대남용) 스케줄

방송시간	06:00 ~ 익일05:30
뉴스	07:00, 08:00, 10:00, 12:00, 15:00 17:00, 20:00, 21:00, 22:00
인터벌 시그널	김일성 장군의 노래
개시, 종료음악	애국가

프로그램 편성은 조선중앙방송과 비슷하나 김일성방송대학(방송통신대학 강좌) 등의 사상교육용 고정프로와 대남용 특수 내용이 고정 편성되어 있다. 북한체제의 우월성 선전과 남한사회상 비난 위주로 프로그램 편성하여 왔으나 6·15정상회담 이후 대남 모략 및 반정부 투쟁성격의 보도를 중지하고 순수 대남보도로 방향 전환되고 있다. 지난 5.24

조치이후부터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수위를 최고조로 높이고 있으며 남한정부를 “전쟁세력”으로 매도하면서 평화를 바라는 새로운 친북정권의 창출을 역설하는 방송을 매일같이 진행하고 있다.

3) 평양FM방송

평양FM 음악방송은 1989년 1월 1일 개국한 대남 청소년 심리전방송으로 개성과 해주에 중계소를 설치하여 남한의 중부지방까지 가시청권을 형성하고 있다. 방송시간은 평일 8시간(21:00~익일 05:00), 공휴일 24시간이다. 방송내역을 보면 음악이외의 문예물은 김일성의 항일빨치산투쟁을 찬양하는 내용과 한국·미국정부를 비난하는 내용의 연속극이 주류를 이룬다.

<표 2-8> 평양FM방송(北 대남용) 스케줄

방송시간	06:00 ~ 09:00, 16:00 ~ 익일05:00 (평일) 06:00 ~ 익일05:30 (일요일, 경축일)
인터벌 시그널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노래
개시음악	평양은 나의 심장
종료음악	매년 봄이 오면

4) 구국의 소리 방송

구국의 소리 방송은 1967년 3월 평양 순안에 개설된 ‘남조선 해방민주민족연맹방송’이 시초로서, 1969년 ‘통일혁명당 목소리방송’으로 개칭, 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에서 통일혁명당을 ‘한국민족민주전선²¹⁾’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현재의 명칭으로 개칭되었다.

구국의 소리 방송은 주요 청취자가 남한 대상이기 때문에 심리전의 성격과 흑색방송의 성격이 짙고 주파수사용에서도 많은 고려를 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ITU에 미등록된 주파수를 사용하여 해주의 기지에서 대남비방방송을 하였으며 남한 내에서 방송되고 있는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남한출신 입북자나 남북자를 방송요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21) ‘한국민족민주전선’을 줄여 ‘민민전’ 또는 ‘한민전’ 등으로 부르고 있음

특히 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에서 권장하고 운영하는 대남흑색방송으로서 북한은 구국의 소리방송이 속한 민민전이 남한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하당 조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상호 비방 방송 중단 방침을 밝히며 2003년 8월 1일부로 방송을 중단하기도 하였다.²²⁾

3. 북한의 유선 및 위성방송 실태

1) 유선 방송 환경 부문

유선방송은 북한 내부적인 체제선전을 목적으로 모든 가정들에 유선으로 설치된 스피커 방송시스템이다. 유선방송을 통해 북한은 조선 중앙방송 중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중앙방송에서 다룰 수 없는 주민내부용 강연, 해설, 논평, 비판방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유선방송은 각 도 방송국에서 권장하며 유선방송선 모든 기관과 단체, 가정들에 늘어 놓고, 스피커를 무상 보급하여 모든 주민들이 늘 유선방송을 듣도록 종용하고 있다.

한편 농촌의 군과 읍, 리들에서는 유선 방송실을 따로 두고 농촌가정과 기관들에 유선 방송선을 연결해 놓았다. 농촌에서는 전력용 전기선에 유선방송선으로 이용하고 있어서 유선방송선을 따로 연결했을 때보다는 음질이 매우 나쁘지만, 설치비용은 아주 싸다.

북한의 유선방송은 조선중앙방송(제1방송으로 라디오 방송)과 지방 라디오방송, 지방 유선방송, 제3방송의 혼합방송이다. 북한의 유선방송은 아침 5시부터 방송을 시작하여 밤 12시까지 한다. 보도 시간에는 조선중앙방송의 주요보도를 하고 지방방송의 보도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론, 논평, 연재, 해설 강좌 등 교양 프로그램은 중앙방송 프로그램을 재방송 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때로는 대남방송인 평양방송의 주체사상 해설 강좌 및 남조선 주민들의 반향(주로 왜곡된 내용) 등도 유선방송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제3방송은 특정한 시간대로 편성되어 "제3방송입니다."라는 멘트와 함께 진행된다. 제

22) 2003년 7월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제의한 내용을 재차 김령성 장관급회담북측단장이 남한 수석대표인 정세현 통일부장관에게 7월 30일 전화통지문으로 발송하였음

3방송의 방송 시간대는 북한주민들이 가장 많이 듣는 시간대로 편성되는데 주로 아침 새벽 식사준비 및 식사시간대에 편성된다. 방송시간은 보통 30분에서 1시간 최대 1시간 30분 정도이며 시기와 계절 등에 따라 방송 시간대와 시간의 변동이 있다.

유선방송(조선중앙 제3방송)은 1955년 4월에 전국방송 개시하였다. 평양 유선방송국은 1948년 8월 1일 창립하였고, 1961년부터 본격적인 보급을 추진하여 1995년 기준으로 99.4%가 보급되어 라디오 수신기 미보급지역의 중요한 정보전달 통로 역할을 해 왔다.²³⁾

유선방송프로그램은 조선중앙방송위원회 라디오총국 제3방송편집국에서 제작하며, 교양 및 체제의 유지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공장·기업소·협동농장의 유선 방송실을 통해 각 가정에 설치된 스피커로 유선 중계하는 방식이며, 주로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에서 녹음한 것을 방송하며, 하루 1~2시간은 지방소식을 전하고 있다.

북한은 외부에 공개하기 어려우나 주민들에게는 특별히 주입시켜야 할 사안을 아침 출근 전(06:20~07:00)에 방송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로 “비판방송”이라는 제목아래 북한의 개별적인 기관, 단체, 간부들이 범질서를 어기고 공공의 이익을 파괴하며 사회주의 문화질서를 따르지 않고 탐오(貪汚). 낭비하는 현상들에 대하여 이름을 지명하여 폭로하는 방송을 하였다.

각 도·시·군에서는 제3방송을 기본으로 방송하되 하루 2시간 정도씩 지역 방송에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별 편집프로그램 방송하는데, 지역방송은 각 도당위원회 선전부가 방송내용과 방송진행을 관장하게 된다.

조선중앙3방송을 송출하는 송신소 17개, 중계소 20개, 지방 10개소의 시도 유선방송국과 200개 군·구역 방송국이 있고 열차방송(1958년 시작)을 포함한 4,300여 개의 방송실이 있다. 유선으로 연결되어 북한 주민만 청취가 가능하므로 집단청취를 통한 선전선동효과의 극대화 목적에 최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것은 북한 전 주민들이 다 들을 수 있지만 절대로 외부세계에 전파되지 않는 폐쇄된 방송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23) 1977년 평양유선방송국은 수신기의 전국 보급률이 65 %, 총 175만 대라고 발표함

유일한 통로로 주민사상교양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²⁴⁾

유선 방송 중에서 제3방송은 북한주민들의 실생활에 관련된 정보들이 포함되고 또 그에 대한 처벌과 계도 등이 포함되는 관계로 청취율이 높다. 자신들의 주변에서 벌어지는 사회적 일탈에 대한 비판들이 있어 호기심과 재미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데다가 정부의 통제방침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2) 위성 방송 환경 부문

북한은 1998년 7월 2일부터 태국의 광대역 위성인 타이콥3호의 중계기를 임차하여 126개국과의 송수신 매체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알려졌다. 태국의 광대역 위성인 타이콥3호²⁵⁾는 by Satellite, 스위스 제네바에서 5개 위성채널(14, 16, 18, 20, 22)을 확보하고 있는바, 남한과 같은 동경 110°의 적도궤도 상공에서 아시아 전역에 기존 방송사 프로그램을 중계하는 형태의 위성방송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1998년 9월, 자체기술로 위성발사에 성공했다는 보도가 있었으며 위성에 관한 일정한 기술수준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북한의 독자위성을 활용한 사례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1999년 7월 2일부터 조선 중앙 텔레비전 프로그램으로 시험방송을 하였으며 10월 10일 창건 54돌을 기해 위성 중계방송을 시작하였다. 또 1999년 10월에 예는 연구기관과 언론사에 위성방송을 개방하기도 하였다. 조선 중앙 텔레비전 방송과 동일한 내용으로 오후 4시30분부터 밤11시까지 방송하며 주요 명절에는 오전9시부터 밤11시까지 방송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종래의 태국 타이콥위성에 의한 위성방송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바, 2003년부터 태국 타이콥위성을 통해 유럽형 디지털방식(MPEG-2/DVB)으

24) 조선중앙3방송을 통하여 2009년 3월부터 우상화, 업적칭송,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의 필요성 등 3대 권력승계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한 대주민세뇌방송을 하루에 4시간 이상씩 해오고 있음

25) 체신청 산하 조선체신회사는 1998년 태국 시나와트라와 통신위성 타이콥3의 중계기를 통한 방송을 위한 계약 체결 - 1977년 개최된 WARC(World Administrative Radio Conference Broadcasting)에 의거함

로 '조선중앙텔레비전' 1개 채널 방송을 실시함으로써 수신 영상 품질을 다소 개선하는 성과를 내기도 하였다. 북한이 위성방송을 입차한 목적은 ①평양과 지역을 연결하는 텔레비전 중계시설(마이크로웨이브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전면적인 교체가 필요한 시점에서 투자비용이 저렴한 위성방송으로 대체한 것, ②타이콤 위성이 세계 126개국을 커버하고 있으므로 이들 지역에 북한 방송을 송출함으로써 체제선전 등의 대외 홍보 효과 및 영향력 확대를 노리는 것으로 추정된다.²⁶⁾

4. 북한의 영상미디어 보급 실태

북한에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는 영상 미디어는 CD플레이어라고 말할 수 있다. 최근에는 CD보다 DVD플레이어가 더 선호되고 있긴 하지만 보급대수를 보면 아직도 CD가 더 많다. 이러한 비디오 플레이어를 연결시키는 것은 합법이다. 단 플레이어 기기를 연결하기 전에 인민보안서에 사전에 설비를 등록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플레이할 수 있는 CD나 테이프는 반드시 북한에서 제작한 것만이 허용된다. 외국산 콘텐츠를 플레이 하는 경우에는 기기와 CD를 전량 회수당하거나, 벌금을 물고 심한 경우 도시에서 추방되거나 감옥행까지 각오해야 한다.

영상 미디어로는 그밖에도 카세트 Tape 영상 플레이어, 휴대용 MP3, MP4, PMP 등 디지털 콘텐츠 플레이어 기기들이 보급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미디어 플레이어들이 북한에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부터이며, 처음엔 북한은 외부로부터 이러한 기기들이 입수되는 것에 대하여 엄격하게 통제하고 차단하였다. 그러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어 식량부족 때문에 중국조선족들이 식량을 가지고 북한에서 장사하는 것을 허용하기 시작하였고 이런 과정에서 중국조선족들은 식량뿐만 아니라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은 보따리장사를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싸구려 전자기기들까지 가져다 팔기 시작하였다.

26) 황성진 외 「북한 방송통신부문 및 남북방송통신 교류협력 현황 보고서」(서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9) p87

북한 당국도 무작정 국경을 폐쇄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느슨하게 이러한 기기들의 반입에 대하여 대처하였으나 이러한 기기들의 반사회적 영향에 대하여 당황하여 강력 통제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때가 늦었으며, 그 후로 외국의 영화나 드라마가 수록된 CD나 DVD, USB, 음악카세트 등은 엄격히 통제하지만, 미디어 플레이어 기기 장치의 반입과 시장에서의 판매거래는 허용하고 있다.

그렇다고 디지털미디어 플레이어 기기들을 누구나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돈만 있으면 대도시들에는 큰 시장들이 많고, 많은 상품들이 거래되기 때문에 이러한 전자기기들을 구입하는 것은 큰 어려움은 없다. 반대로 소도시, 농촌지역에는 시장이 작고, 공급도 원만하지 못하여 구입이 조금은 어렵다. 그러나 돈만 있으면 주변 도시에 와서 사가기도 한다.

현재 디지털 미디어 플레이어 기기들을 북한 내에서도 사고 팔수 있는 데 주요한 경로는 다음과 같다. 우선 국영 무역회사들에서 공식적인 무역을 통해 수입하여 국영 백화점이나 외화상점에서 파는 경우이고 다음은 무역회사들에서 외화벌이를 위하여 상품을 외화원천(송이, 약초, 고급수산물)과 교환하기 위하여 이러한 전자기기들을 공급하는 경우다. 그리고 중국조선족 또는 국경선에 있는 북한 밀매업자들이 밀수형식으로 이러한 전자기기들을 북한경내에 들여오기도 한다. 밀수에 의한 제품들이 가장 많이 거래된다. 왜냐하면 값이 싸기 때문이다.

최근의 수요를 보면 USB와 MP3가 대량으로 유입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컴퓨터를 통해서 많은 디지털콘텐츠들을 플레이할 수 있으며, 저장되는 콘텐츠의 양이 CD나 DVD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크고 화질도 좋을 뿐 아니라 다루기 쉽기 때문이다.

북한에 중국산 '노트텔'(EVD 플레이어)이 대량 보급되면서 북한 주민들이 당국의 단속을 쉽게 피하면서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시청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13년 10월 22일 북한전략센터(대표 강철환) 주최로 서울 한국기독교교회관에서 열리는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미디어의 역할'이란 주제의 학술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중국에서 생산된 EVD 플레이어가 2005년부터 북한지역에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 유통됐으며 "EVD의 장점은 CD, DVD 재생은 물론 USB까지 바로 재생할 수 있고 게임을 할 수 있는 단

자도 내장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전략센터측은 2013년 7월부터 9월까지 북-중 국경지역에서 친지 방문이나 장사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한 북한 주민 25명을 만나 이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외부 미디어 수용실태를 조사했다. 인터뷰한 한 북한 주민은 "최근에는 남조선 영화를 메모리(USB)로 많이 본다"라며 "검열 그루빠(그룹)가 와도 (한국영화가 저장된) 메모리를 뽑아 감추고 조선영화 CD를 (EVD에) 넣어놓으면 문제없다"고 전했다.

북한 주민들의 증언을 인용해 EVD가 북한 전역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확산됐으며 중국에서 거래되는 EVD 가격은 보통 한화 6만원, 중국에서 복제된 한국 영화·드라마 DVD의 장당 가격은 한화 1천원 정도라고 밝혔다. 중국으로부터 빈 USB가 대량 유입되면서 컴퓨터가 있는 북한 젊은이들은 USB에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저장해 유통시킨다며 "애초에 중국으로부터 한국영화나 드라마가 들어 있는 USB가 전문적으로 밀수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5. 북한의 통신 실태 (이동통신 중심으로)²⁷⁾

2013년 5월 29일 북한에 이동전화 통신망을 제공하는 이집트 통신회사 오라스콤(Orascom)의 회장 나기브 사위리스(Naguib Sawiris)는 성명 발표를 통해 현재 북한의 이동전화 가입자 수가 2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북한은 1998년 7월 나진·선봉지역에 무선호출 150회선과 이동전화 500회선을 개통함으로써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이후 다양한 계층으로 꾸준히 가입자 수가 증대되며 활성화 바람이 불고 있다.

북한에서 이동통신 사업은 거시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유치하고 외화벌이라는 실리적 목적을 취하기 위함이며, 현재 북한의 이동통신 서비스는 이동전화에 국한되어 제공되고 있다.

27) 서소영(2013), “북한 이동통신시장 동향 - 이동전화시장을 중심으로”인용 재편집

1) 북한의 이동통신 구축 동향

북한의 이동통신은 최초 개통 시 나진·선봉지대 안에서의 통신 체신사업을 위해 태국의 록슬리 퍼시픽(Loxley Pacific)社와 북한의 조선체신회사가 설립한 '동북아 전기통신회사(Northeast Asia Telephone and Telecommunication; NEAT&T)에서 사업권을 소유하였다. 그 후, 1998년 8월에 LHL(Lancelot Holdings Ltd.)이 북한 조선우전총공사와 30년간 국제자동전화(IDD) 및 이동통신을 독점 제공하는 사업계약을 체결한 후 1999년 홍콩의 명주홍업진흥공사(POH, Pearl Oriental Holdings Ltd.)와 공동 진출하였으며 POH가 LHL의 사업권 50%를 약 300백만달러에 매입하여 양사가 공동투자를 하였다.²⁸⁾

2002년 8월 1일부터 동북아전기통신회사는 평양지역에서 안테나 기지국을 설치하고 주위 4km로 전파를 발신해 통화시험을 하는 등 이동전화 시험운용을 거쳐 2002년 11월 11일부터 유럽의 GSM방식²⁹⁾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³⁰⁾

2003년까지 이동통신 기지국이 건설된 곳으로는 평양, 나선, 남포, 개성, 원산, 함흥, 향산 등의 주요도시와 평양-원산, 평양-개성, 평양-향산, 평양-남포, 원산-함흥 등의 주요 도로구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7년 9월 록슬리사의 대표단이 '동북한전기통신회사' 이사회 제22차 회의에 참석하여 2004년 이후 이동전화 서비스의 장기간 정지에 따른 설비 및 운영 문제 등을 협의하였고 2008년 12월 15일 이집트의 통신회사 오라스콤텔레콤(Orascom Telecom Holding, OTH)에 의해 이동전화서비스가 재개통 되었다.

CHEO테크놀로지의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의 이름은 '고려링크(Koryo Link)'이며 남한과 동일한 '광대역 부호 분할 다중접속'(WCDMA, Wideband Code Division Multiple

28) KOTRA(2000. 7. 15), '홍콩업체, 북한 IDD/이동통신사업 독점진출', KOTRA 북한 경제속보.

29)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가장 널리 사용되는 개인 휴대통신 시스템으로 TDMA 기반의 통신기술이며 국내에서는 GSM방식의 휴대전화를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30) 김주진(2004), '북한의 정보통신망 구축 전략과 남북한 연결방안', 북한연구학회 2004년 하계학술회의

Access)방식으로 3G 서비스를 제공한다. CHEO테크놀로지는 북한에서 25년간의 사업권과 초기 4년간 독점권을 보장받았고 초기 3년간 이동통신 사업자 면허취득과 설비투자 등에 총 4억 달러 규모를 투자하고 2034년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표 2-9> 오라스콤사의 북한 이동통신 사업 진출일지

일자	추진 내용
2007. 1. 19	북한-오라스콤텔레콤 협조문 체결
2007. 7. 16	오라스콤그룹 건설부문, 北상원시멘트공장 투자발표
2007. 9. 3	동북아전기통신회사(NEAT&T) 이사회 제22차 회의 개최
2008. 1. 31	오라스콤텔레콤, 북한 이동통신 운영권 획득(25년간)
2008. 2	오라스콤그룹 시멘트계열사 프랑스 라파즈社에 매각
2008. 5	오라스콤텔레콤, 이동통신망 시험통화 성공 발표
2008. 10. 27	오라스콤텔레콤, 노키아와 서비스(음악, 동영상 등) 협약 체결
2008. 12. 4	오라스콤텔레콤 대변인, "12월 15일 北 휴대전화 서비스 개시 예정" 발표
2008. 12. 15	오라스콤텔레콤, 북한 휴대전화 서비스 개시

※ 자료출처: NK테크 홈페이지(<http://www.nktech.net>)

2) 북한의 이동통신 서비스 동향

북한의 이동전화는 나진·선봉지역 등의 경제특구와 군부, 사회안전부 등에서 국방 및 체제유지용으로 제한적인 사용을 하였으며, 사업초기인 2002년 11월에 약 3,000명의 가입자로 이동전화 보급되기 시작하였으나 2003년 말 약 2만 명까지 급속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가입자 수가 4만 여명을 기록한 2004년 4월 중국 접경지역인 용천역에서 휴대폰을 통해 원격조정된 것으로 추정되는 폭발사건³¹⁾이 발생하여 특정계층과 외국인 일부를 제외한 휴대전화 일반서비스를 금지하였으며 3만 여대의 휴대폰을 회수하였다.³²⁾

31) 중국방문 후 돌아오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전용열차 통과 30분전 발생하였으며 이후 진행된 원인조사에서 기폭장치로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접촉테이프가 붙어 있는 휴대전화가 발견됨.

32) 이홍열(2008), '북한의 휴대전화', 『TTA 저널』 117호.

이후 북중 화교 무역업자와 국경지대 주민, 중개업자 등이 중국 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동전화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북한 당국은 무선 전파 탐지기를 사용하여 중국 이동통신사 주파수 대역을 추적하여 단속을 강화³³⁾하였다. 이후 2008년 12월 15일 이집트의 오라스콤 텔레콤에 의해 이동전화 서비스가 재개통되었다.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 9월 기준 809,000명의 가입자를 기록하였지만 약 2,435만 명 정도의 인구대비 휴대전화 보급률은 약 3.3%로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CHEO는 평양과 전국 8개 주요도시에 13개의 직판점과 조선체신회사를 통한 13개 간접판매점을 운영하여 가입자를 모집 중이며, 신규 가입자 중 50% 정도는 평양 이외의 지역 가입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론에서 밝혔듯이 공식적인 자료는 아니지만 최근 CHEO의 이동통신 가입자가 200만을 상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표 2-10> 북한 이동전화 연도별 가입자 수

연도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5월	2013년말 예상
누적 가입자수 (명)	1,694	91,704	431,919	약 90만	약 150만	약 200만	약 200만

※ 자료출처: 오라스콤(Orascom)社 실적보고서 2008~2013

3) 북한의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 방식

① 단말기 구매 절차

북한에서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체신성의 허가로 체신무역회사가 설립한 평양국제통신센터빌딩의 휴대전화 전문 판매점에서만 단말기를 구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때 휴대전화 단말기 구매를 위해서는 평양시의 전신국에서 사전가입수속을

33) 북중 국경도시인 신의주에 2007년 10월 1일부터 평양 국가안전보위부 검열단 40여 명이 파견돼 독일산 이동통신 신호 감지 장비를 동원, 핸드폰 사용을 집중 단속함(The Daily NK 홈페이지: <http://www.dailynk.com>), 2007. 10. 12.

밟은 후 디자인 및 대금 지불 방식, 유심카드 구매, 사용 전 테스트 등의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단말기 구매 후 휴대전화 분실, 파손에 대비하여 보상을 위한 보험 상품 가입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 민간단체 한스자이텔재단이 2012년 초 촬영한 손전화기보험 안내문에 의하면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 후 손해금액이 이동전화 구입가를 초과하지 않는 한, 횟수에 관계없이 1년간 손해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험료는 약 5~11달러이며 등록비와 유심카드 구매금액을 제외한 단말기 가격의 5%에 해당한다.³⁴⁾

② 국번호 부여 체계

이동전화의 번호는 남한과 유사한 10자리 체계로 구성되어 사용하고 있으며, 국번호는 김일성 주석이 태어난 해를 의미하는 1912를 사용하고 있다. 이후 2011년 10월부터는 1913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휴대전화번호를 부여하여 사용하고 있다. 고려링크는 음성, 영상통화, SMS(단문 문자서비스), MMS(멀티미디어 메시지서비스), 음성메일, WAP(Wireless Application Protocol, 무선응용규약),³⁵⁾ HSPA(High Speed Packet Access)³⁶⁾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③ 이동전화 소요비용

북한에서 이동전화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선불카드를 구입해야하며, 요금부과는 수발신시 모두 요금을 내는 쌍방향 요금제를 채택하고 있다. 통화시간에 따라 A(850원), B(1,700원), C(2,500원)의 3가지 카드 구입이 가능하며, 특히 B와 C카드는 125분, 400분의 무료통화시간이 부여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3년 12월을 기준으로 가입비는 약 930달러와 전화기 구입비 약 372~446달러 등 총 1천유로 이상이 필요했지만, 2008년 오라스코 텔레콤의 이동전화 서비스 가격에 맞추어 노키아 전화기를 대당 700달러 수준에

34) 통일뉴스(2013. 6. 3), “휴대전화 200만대 돌파, 북한은 지금 통신혁명 중”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791>

35) 이동통신기거나 개인휴대단말기(PDA), 무선터미널 등 이동형 단말기에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안된 통신규약임.

36) 하향 14.4Mbps/상향5~6Mbps의 전송속도를 나타내는 3세대 이동통신 기술이 적용된 서비스를 의미함.

서 가입희망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장 최근인 2009년 4월 조선신보에 따르면 가입비 및 단말기 가격이 많이 하락하여 가입비는 약 50유로 단말기 가격은 110~240유로로 카메라 기능이 있는 기기도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표 2-11> 북한의 이동전화 소요비용

가입비	기기값	선불카드		
		A	B	C
약 69\$	약 152\$ ~ 330\$	850원	1,700원 * 125분 무료통화 제공	2,500원 * 400분 무료통화 제공

※ 자료출처: 통일부, '월간 북한동향', 2009. 4.

제3장 북한의 방송통신 관련 기관

제1절 북한의 방송관련 체계

1. 북한 방송과 조선노동당 및 내각과의 관계

북한의 언론과 방송에 대한 당과 내각의 지휘 및 감독 관계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북한의 언론은 국가가 독점하고 당의 통제 아래 이른바 김일성 유일사상과 남조선혁명 관철을 위한 조선노동당의 강력한 사상적 무기로써의 기능을 가진다. 즉 뉴스의 보도는 객관성보다는 당성을, 속보성보다는 교양성을 강조하고, 언론의 자유나 영리사업으로서의 운영이 일체 금지되고 당의 지휘와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언론은 자유롭고 자연스러운 여론형성이나 사상과 정보의 교환 및 공개를 거치지 않은 채 상부로부터의 일방적인 의사전달식 커뮤니케이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북한의 방송은 조선노동당과 내각³⁷⁾의 이원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북한 내부의 모든 방송을 총괄하고 관장하는 조선중앙방송위원회는 표면적으로는 내각 문화성의 하부 기관에 속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조선노동당의 지휘, 통제, 감독 하에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방송시설 운영은 내각의 체신성이 담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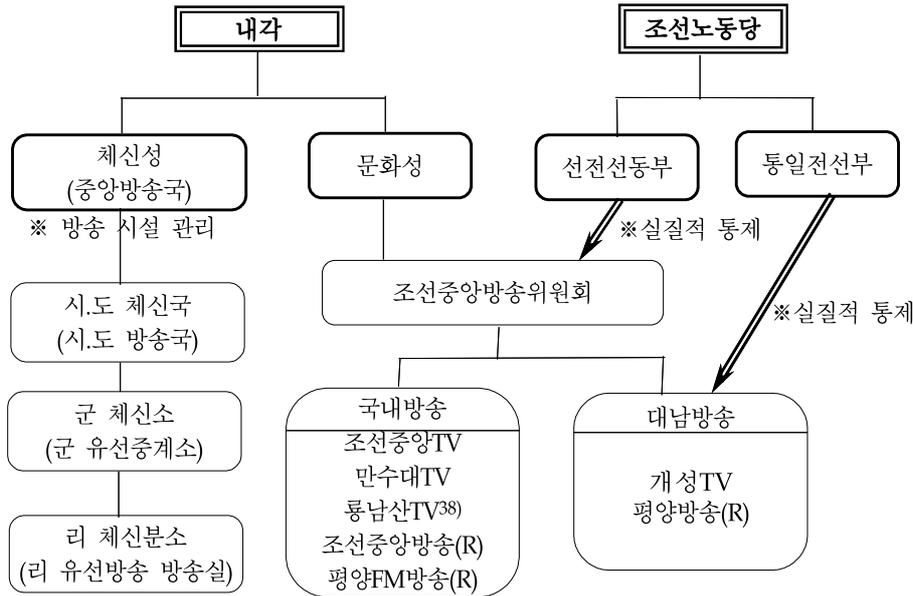
조선노동당 산하의 선전선동부와 통일선선부는 방송의 내용과 편성업무를 관장하며, 방송국과 각 방송위원회 책임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 방송과를 통해 조선중앙방송위원회를 전반적으로 통제하고 있으며, 대남방송에 대해서는 통일선선부가 관여하고 있다.

방송은 현재 정규방송인 조선중앙방송과 대남방송용인 평양방송, 그리고 대남선전을 주요임무로 하는 구국의 소리 방송과 개성TV 등이 있으며, 이들 방송은 모두 조선노동

37) 1998년도에 정무원을 내각으로 명칭 변경함

당 선전선동부와 문화부의 지도를 받고 있다. 또한 각 도에 1개씩의 지방방송국과 10개의 유선방송국이 설치되어 있으며, 200여 개의 군·구 방송국과 2개의 텔레비전 방송국 및 4,300여 개의 방송시설이 있다.

[그림 3-1] 북한의 방송체계



※ 자료출처: 북한 방송통신부문 및 남북방송통신 교류협력현황 보고서(2009.12) 재편집

1) 조선노동당의 조직과 기능³⁹⁾

조선노동당의 최고의사결정기구는 당대회다. '80년 노동당 6차 대회에서 결정된 바에 따르면, 당대회는 5년에 한번씩 소집하도록 돼 있는데, 6차 당대회 이후 소집된 적이 없

38) 조선교육문화텔레비존방송이 2012년 룡남산텔레비존방송으로 명칭이 변경됨

39) 자료출처: 북한 포커스(안정식 기자)

http://www.e-nkfocus.co.kr/bbs/board.php?bo_table=politics02&wr_id=1

다.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에는 당중앙위원회가 모든 당사업을 조직 지도하게 돼 있다. 당중앙위원회가 조선노동당의 실질적인 핵심인 것이다. 당중앙위원회는 '당의 노선과 정책 및 전략 전술에 관한 긴급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기 위해 당대표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당대표자 회의는 '58년 3월과 '66년 10월, 2010년 9월, 2012년 4월 네 차례 개최되었다. 당중앙위원회는 전원회의를 6개월에 한번 이상 소집하도록 돼 있는데,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93년 12월 6기 21차 전원회의 이후 (공식적으로는) 열리지 않다가 2010년 9월과 2013년 3월 소집됐다.(북한은 이들 회의를 6기 22차 전원회의라고 명명하지 않고, '2010년 9월 전원회의' '2013년 3월 전원회의'라고 명명했다.)

당중앙위원회는 정치국과 비서국, 검열위원회로 구성된다. 정치국은 북한 권력의 실질적인 최고 핵심체로 모든 정책 방향과 지도지침을 수립한다. 정치국은 상무위원과 정위원, 후보위원으로 구성되는데, '80년 노동당 6차 대회 당시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김일성과 김일, 오진우, 김정일, 이종옥 등 5명이 선출됐다가 김정일을 제외한 4명이 사망해 한동안 상무위원으로는 김정일만이 남아있었다. 북한은 2010년 9월 3차 당대표자회와 전원회의에서 김정일, 김영남, 최영립, 조명록, 리영호를 상무위원으로 선출했다. 사망자가 많아 몇 명 남아있지 않던 정위원과 후보위원도 2010년 9월 회의에서 보강돼 정위원은 17명, 후보위원은 15명으로 확충됐다. 북한은 이 밖에도 당중앙위원, 당중앙 후보위원, 당중앙군사위원 등 유명무실했던 당조직을 상당 부분 복원했다. 2012년 4월 4차 당대표자회에서는 정치국 상무위원에 김정은, 김영남, 최영립, 최룡해, 리영호가 선출됐다.

북한이 당조직을 상당 부분 복원한 이상 당중심의 정치가 부활하느냐가 관건인데, 김정은 집권 이후 정치국 회의가 몇 차례 개최되었다. 김정일 시대에 비해 김정은은 당의 공식적인 조직을 활용한 통치를 펼치는 양상이다.

정치국이 유명무실한 상태에서 조선노동당은 그동안 비서국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비서국이 조선노동당을 움직이는 실질적인 최고 권력기관이었던 것이다. 비서국은 정치국에서 만들어진 정책방향과 지도지침을 산하의 전문부서와 하급 당조직을 통해 정책적으로 지도하는 기관인데, 부문별로 담당 비서들이 자기 분야를 관장하고 있다.

비서국 산하에는 당과 국가, 군대, 사회조직을 관장하는 수많은 전문부서가 있는데,

이것들을 비서들이 기능에 따라 몇 개씩 묶어서 관할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문부서들이 실질적으로 조선노동당을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비서국의 전문부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조직지도부이다. 조직지도부는 북한 사회 전반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부서로, 북한내 모든 조직에 설치돼 있는 당위원회를 직접 지도통제하면서 당 조직생활 전반을 지휘하고 있다. 조직지도부는 별도의 부장이 없이 김정일이 직접 관할하고 있으며, 본부당, 전당, 군사, 행정 부문별로 4명의 제1부부장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선전선동부는 사상학습과 사상검토를 담당하는 부서로 조직지도부에 버금가는 파워를 자랑하고 있다.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 유일사상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죽음을 뜻하는 만큼, 사상문제에 대한 검열 감독권을 갖고 있는 선전선동부의 위상은 엄청나다. 북한내 모든 기관의 당위원회에 조직(조직비서)과 선전(선전비서) 기능만은 반드시 있으며,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는 서로 충성을 경쟁하는 갈등 관계에 있다. 두 기관의 우열을 따지자면, 조직과 인사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지도부가 선전선동부보다는 위에 있다고 봐야 하겠지만, 선전선동부가 '사상검토'라는 칼을 뽑아 '반혁명종파 분자'로 몰아버리면 대책이 없기 때문에 조직지도부도 선전선동부를 무시할 수 없다. 김일성은 '조직부가 병을 진단하는 의사라면, 선전부는 처방을 내는 약제사와 같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간부부는 당 핵심간부들의 인사 문제를 담당하며, 기계공업부는 군수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대남 분야 부서로는 통일선전부가 있다.(노동당의 대남 분야 부서로는 통일선전부, 대외연락부, 작전부, 35호실 등이 있었는데, 2009년 작전부와 35호실은 인민무력부의 정찰총국으로 흡수되고 대외연락부는 대외교류국으로 축소돼 내각에 배속된 것으로 알려진다) 재정경제 부문을 맡고 있는 부서로는 계획재정부와 39호실 등이 있는데, 39호실은 당의 외화벌이 사업을 관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군사위원회는 원래 당중앙위원회 산하에 있었으나 '84년부터 당중앙군사위원회로 격상돼 당중앙위원회와 같은 반열에 속하게 됐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 당군사정책 수행방법을 토의결정하며, 인민군을 포함한 전무장력 강화와 군수산업 발전에 대

한 사업을 조직 지도하고, 군대를 지휘하도록 돼 있다. 2010년 9월 전원회의에서는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직이 신설되면서, 김정은과 리영호가 부위원장에 선임됐다.

[그림 3-2] 북한의 조선노동당 조직도(2013.10월 현재)



※ 자료출처: 통일부 웹사이트 북한자료실
 ※ 북한의 방송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선전선동부와 통일전선부 조직

2) 북한 내각의 조직과 기능⁴⁰⁾

북한의 내각(-內閣)은 북한의 최고주권의 행정집행기관이다. 1998년 9월에 '정무원'에서 내각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좁은 의미의 정부는 내각만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공화국 정부'는 넓은 의미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내각, 최고인민회의, 사법

40) 자료출처 : 위키백과, - 재편집

부(최고재판소)를 통틀어 일컫는 말일 수도 있고, 좁은 의미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만을 일컫는 말일 수도 있다.

내각은 북한의 헌법 제6장 4절 117조에 의해 '최고주권의 행정(行政)적 집행기관인 동시에 전반(全般)적 국가관리 기관'으로 규정된 내각은 119조에 의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국가 정책 집행을 위한 대책 수립
2. 헌법과 부문법에 기초한 국가 관리와 관련한 규정의 제정 또는 수정, 보충
3. 내각 위원회와 성, 내각 직속기관, 지방인민위원회의의 사업 지도
4. 내각 직속기관과 중요 행정 경제기관, 기업소의 설립과 해체 및 국가관리 기구의 개선을 위한 대책 수립
5. 인민경제 발전계획의 작성 및 실행대책 수립
6. 국가예산의 편성 및 집행대책 수립
7. 공업과 농업, 건설, 운수, 체신, 상업, 무역, 국토관리, 도시경영,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노동행정, 환경보호, 관광, 그 밖의 여러 부문의 사업의 조직집행
8. 화폐(貨幣) 및 은행 제도 확립을 위한 대책 수립
9. 국가 관리질서 수립을 위한 검열 및 통제 사업
10. 사회질서 유지와 국가 및 사회 협동단체의 소유 및 이익의 보호, 공민(국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 수립
11. 타국과의 조약 체결 및 대외사업
12. 내각 결정과 지시에 어긋나는 행정 경제기관의 결정 및 지시의 폐지

북한 헌법 118조에 따라 내각은 총리와 부총리, 위원장, 상과 그 밖에 필요한 성원으로 구성되고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와 같이 하며 120조에 따라 총리는 내각 사업을 조직 지도하고 북한 정부를 대표한다.

북한 헌법 121조에 따라 내각성원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회의와 총리, 부총리, 총리가 임명하는 내각성원들로 구성된 상무회의를 개최하며 122조에 따라 전원회의는 행정경제 사업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고 상무회의는 전원회의에서 위임한 문제들을 토

의 결정한다.

북한 헌법 123조에 따라 결정과 지시를 내고 124조에 따라 사업에 필요한 비(非)상설 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125조에 따라 사업에 대해 최고인민회의와 휴회 중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을 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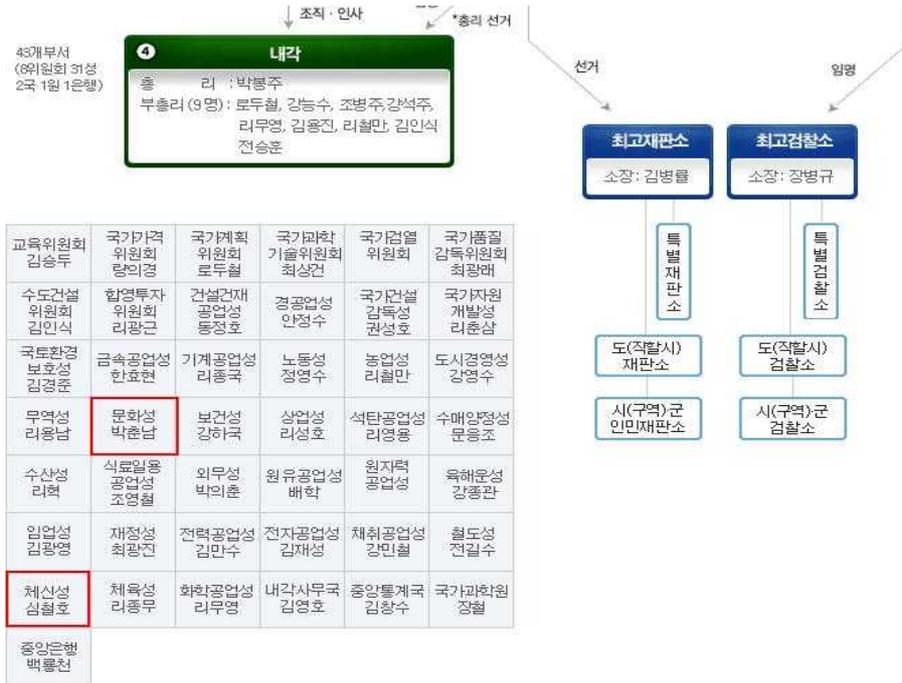
북한 헌법 126조에 따라 선임된 내각총리는 내각성원들을 대표해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서를 하며 127조에 따라 내각의 부문별 집행기관인 위원회와 성은 중앙의 부문별 관리기관으로 규정한다.

북한 헌법 128조에 따라 위원회와 성은 내각의 지도 밑에 해당 부문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 관리하며 129조에 따라 위원회와 성은 위원회 회의와 간부회의를 운영하고 내각 결정과 지시 집행대책, 그 밖의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며 130조에 따라 지시를 낸다.

북한 헌법 제6장 4절 119조에 명시된 대로 내각은 김정일의 꼭두각시 단체인 최고인민회의에서 제정 및 개정되는 헌법에 따라 전반적인 국가 행정을 책임지며, 내각 총리는 헌법 상 북한의 국가대표 역할을 한다. 내각의 산하 부서들 중 특히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는 외무성이며, 외무성은 북한 외교의 중추를 이루는 핵심 부서로서 김정일은 지난 1980년대 중반 어느 해 1월 1일, 친필지시를 통해 “외무성의 나의 외무성”이라고 규정한 뒤 “외무성은 나의 지시를 제외한 그 어떤 말도 들어서는 안 되고 앞으로 외무성 내에 군대와 같은 강철 같은 규율을 더욱 철저히 확립해야한다”고 강조해 자신의 직속 기관으로 편입시켰다.

북한의 내각은 8위원회, 31성, 2국, 1원, 1은행 등 43개의 부서로 조직되어 있다(통일부 북한자료센터, 2013.10.11 현재). 따라서 내각은 국방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 행정 및 경제 관련 사업을 주도하고 관할한다.

[그림 3-3] 북한의 내각 조직도(2013.10월 현재)



- ※ 자료출처: 통일부 웹사이트 북한자료실
- ※ 북한의 방송과 관련된 문화성과 체신성 조직

2. 문화성 및 체신성 조직

북한의 문화성은 무대예술지도, 문화보존, 극장 및 회관관리, 미술, 영화, 국립민족예술단 등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조직이며, 조사 내용에 의하면 조선중앙방송위원회의 직속 상위기구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방송시설을 담당하는 부서는 내각 산하에 있는 '체신성'이다. 체신성의 사업분야는 전기통신, 우편통신, 방송분야로 구분되어 있다. 전기통신분야에서는 담당회사로 '조선체신회사'를 두고 있으며, 그 밑에 평양의 '국제통신센터'와 시. 군별로 산하 '전신'

전화국'이 있다. 우편통신분야는 대략 1,500개 정도의 '우체국'이 우편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방송분야에서는 '조선중앙TV방송', '만수대TV방송', '개성TV방송', '룡남산TV방송' 등 4채널이 운영되고 있다.

<표 3-1> 북한 문화성의 조직

부처	부처
청년동맹(위원장)	자재상사(사장)
직장동맹(위원장)	경제선동대(대장)
계획생산국	문화보존연구소
교시편찬국	5.18영화연구소
교육국	당창건기념탑관리소
군중문화국	개성시문화유적관리소
극장및회관관리지도국	개성시왕건왕릉문화유적관리소
대회사업국	동명왕릉문화유적관리소
무대예술지도국	자강도문화유적관리소
문화보존지도국	평안남도명승지및문화유적관리소
- 건설및보존처	평안북도명승지및문화유적관리소
- 계획처	평양시문화유적관리소
- 박물관및천연기념물지도처	함경북도명승지및문화유적관리소
문화유적유물보존관리국	함경남도문화유적관리소
미술지도국	황해북도명승지및문화유적관리소
영화총국	문화성혁명사적관(관장)
- 계획처	문화예술사적관(관장)
- 국가검정처	
- 기술및설비지도처	
행정조직국	
국립민속예술단(단장)	
무대작품국가심의위원회(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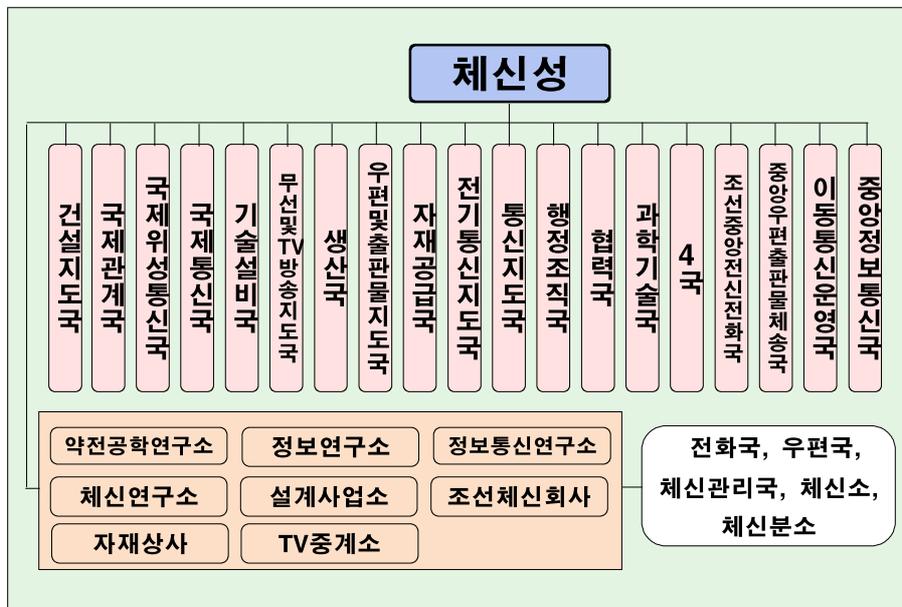
※ 자료출처 : 통일부의 북한 주요 기관·단체 인명록(2013년1월 기준)에서 발췌

※ 위의 괄호로 표시치 않은 기관장은 상, 국장, 처장, 소장 등이 있다.

체신성의 산하조직으로는 '통신지도국', '국제관계국', '협력국', '국제통신국', '기술국', '행정조직국', '조선중앙우편국', '중앙우편출판물체송국', '조선중앙전신전화국', '약전공

학연구소', '평양전화국', 그리고 근래에 신설된 '이동통신운영국', '중앙정보통신국' 등이 있다. 그리고 각 도 및 직할시에 '체신관리국', 시·군에는 '체신소', 리 단위에는 '체신분소'가 설치돼 지방의 체신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체신성 산하 220여개의 '전신전화국'은 북한의 각 도·시·군에 배치돼 있으며, 전신전화국 밑에는 2,200여개의 '전화분국'이 각 동·리 단위로 배치되어 있다. 체신성의 정보통신과 관련한 산하기관으로 전기통신을 담당하는 '조선체신회사'가 있는데, 이는 북한의 광케이블망 구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선국제통신센터'도 두고 있는데, 이곳에서 중국 단둥(丹東)을 거쳐 신의주로 들어오는 인터넷을 관리하고 있다. 한편 북한 통신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 이는 '체신성'소속의 '전기통신지도국', '빛섬유통신운영국', '조선중앙전신전화국' 등의 부서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다.

[그림 3-4] 북한의 체신성 조직도



※ 자료출처 : 통일부의 북한 주요 기관·단체 인명록(2013년1월 기준)에서 발췌

이처럼 제도상으로는 체신성이 북한의 통신뿐만 아니라 방송 전 부문을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북한사회주의체제의 특성상 통신의 기능이 기본적으로 당과 정부, 군사적인 면에서 독점적으로 이용된다는 점에서 볼 때 체신성이 통신방송정책과 사업의 모두를 총괄하여 추진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즉 실제 정책집행 및 관리에 있어서는 체신성 이외에도 당과 국가의 중앙집권적인 통일적 지도를 보장하기 위하여 조선로동당이나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등이 통신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전파관리를 보면, 체신성의 ‘전파관리국’과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가 함께 관리하고 있다.

북한의 체신에 대한 정의는 사회간접자본으로서의 통신과 전신, 전화, 우편 등을 접수, 전달하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며 사회적 생산과정과 주민생활에 복무하는 경제부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표 3-2> 체신성 조직 변천 과정

시기	체신성 조직 변천 내용
1946년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산하 체신국 발족
1948년	정권이 수립되면서 체신국이 체신성으로 승격(9. 9)
1963년	체신관련기구를 체신성으로 통합
1972년	체신성에서 체신부로 개편(중앙인민위원회)
1976년	중앙인민위원회로부터 체신부로 분리(정무원)
1998년	기존의 정무원을 폐지하고 내각이 출범하여 체신성으로 재편하였으며, 동년 5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 회의에서 기존의 중앙인민위원회와 정무원을 폐지하고 새로운 정부조직으로 내각이 출범됨

북한의 체신관련 부서는 1946년 2월에 조직된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 산하에 체신국이 발족되면서 체계화 되었으며 1948년 9월 9일 정권수립과 동시에 체신국이 체신부로 승격되었다. 1963년에는 체신업무에 대한 지휘제도와 집중화를 위하여 모든 체신기구를 통합시켜 단일운영체계를 갖게 되면서 각종 우편물 및 출판 배포 업무까지 관장하도록 하였다.

1972년 헌법이 채택됨에 따라 내각이 정무원으로 개편된 후 행정통제기관인 중앙인

민위원회 산하에 철도성과 해운 및 육운성을 통합하여 교통체신위원회로 단일화시키면서 체신성도 체신부로 개편되었다. 1976년 12월 다시 중앙인민위원회에서 정무원산하의 체신부로 분리되었다.

이에 따라서 체신부는 체신성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중앙행정기관인 내각의 소속으로 재편되게 되었다. 한편 체신성 행정조직의 주요기능은 북한 체신법에 의거하여 국가지휘통신을 우선으로 보장하고 전기통신, 우편통신, 방송 등 체신의 현대화를 적극 주도하는데 있다. 체신성의 기본 기능은 살펴보면, 체신성은 우편, 전신·전화, 방송, 예금, 간행물 배달 등의 업무를 관장하며 각 도 및 직할시에 체신(관리)국이, 각 시·군에는 체신소가, 리(里) 단위에는 체신분소가 설치되어 지방의 체신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체신성은 전신전화국(소), 중계소, 방송국 등의 운영 기업소를 관리하며 체신설비 및 장비들에 대한 기술적인 관리 운영, 보수·보강 사업을 수행한다. 체신관리국이 각 도와 직할시를 관할하고 체신소는 각 시·군의 체신업무를, 체신분소는 지방의 체신업무를 담당하며, 군단위의 체신소는 군내의 전신전화, 우편, 유선 방송의 증폭, 중계 등의 업무와 각 리 단위의 체신분소를 지휘·감독한다.

3.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조직

북한 조선중앙방송(朝鮮中央放送, Korean Central Television, KCTV)은 북한의 국영 방송으로, 평양방송공사와 더불어 2대 국영방송이자 텔레비전·라디오 방송국이다. 정식 명칭은 조선중앙방송위원회(朝鮮中央放送委員會)이며, 조선중앙방송공사(朝鮮中央放送公社)로도 부른다.⁴¹⁾ 북한 내 방송으로는 유일하게 라디오, 텔레비전국이 있다. 운영하는 방송으로는 조선의 소리 방송(외국어 라디오 방송)이 있으며, 또 평양방송(문화어 텔레비전 방송과 라디오 방송)도 일부 관장, 지원하고 있다.

중앙방송위원회는 북한 방송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계획·집행·총괄하는 부서로서

41) 통일부 정책모니터링조사 패널(수집): CIA bear 허관 2012.10.02 11:51
<http://blog.daum.net/007nis/15864502>

방송을 송출하는 각 방송국을 관장하고 있다. 북한 방송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계획 집행 총괄하는 부서로서 방송을 송출하는 3개의 방송국을 관장하고 있다.

소련의 방송통제구조를 '전동맹라디오위원회(BPK)'를 모방하여 1945년 10월 설치한 조직이다. 1945년 김일성의 귀환을 환영하기 위한 조국개선환영군중대회 중계방송을 위해 일제하의 평양방송국의 기능을 정비하여 조선중앙방송국이라 개칭하고 500W의 출력으로 방송을 실시한 것을 조선중앙방송위원회의 시발로 삼고 있다.

조직편제상으로는 내각 문화성의 직속기구로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의 지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 즉, 방송위원회 위원장과 간부들은 내각에 속해 있지만, 위원장은 당중앙위원회에서 임명함은 물론 방송요원 모두가 당원 및 국가 관리이다.

중앙방송위원회는 운영상 특징은 첫째, 모든 방송 내용이 당의 사전검열을 받으며,⁴²⁾ 둘째, 조직 편제 상 내각 문화성 산하기구로 형식상 구국의 소리방송(통일선선부가 직접 관장)을 제외한 북한의 모든 방송을 총괄하는 기구로 되어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산하 선전선동부·통일선선부의 지시와 지도·통제를 받는다. 셋째, 조직은 크게 라디오총국, 텔레비전총국, 문예총국 등 3개의 총국으로 구성되며, 넷째, 평양 모란봉 구역에 위치하였고, 하부조직으로 각 시·도 방송위원회(지방방송 관장), 군(리) 방송위원회(지역 유선스피커 방송 담당), 유선방송중계소가 있고, 직속으로 방송예술단과 방송학원이 있다.

북한방송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 방송과 직속으로 '중앙방송위원회', 인민군 총정치국 직속 '인민군 제3방송', 적공국방송, 노동당 중앙위원회 3호청사 직속 '구국의 소리방송', 호위사령부(호위총국) 이외 각 도당 선전부 직속 '도 방송위원회', 철도성 정치국 직속 '철도방송위원회'와 각 군당위원회 선전부 직속으로 '군 방송위원회'가 있다.

42) 조선중앙방송위원회의 모든 활동과 창작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노동당 선전선동부 방송과가 지도함

이렇게 여러 계통의 방송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해당부문의 특성에 맞게 각기 고유
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가운데 북한방송의 중심이
라고 할 수 있는 조선중앙방송위원회는 크게 세 개의 총국과 10여 개의 직속 국 처들로
구성되어 있다. 총국들로는 라디오총국, 텔레비전총국, 문예총국들이 있으며 직속 국 처
들로는 행정편집국, 화술형성국, 진행국, 음악국, 조정국, 대외사업처, 소설복사처 등이
있다. 방송원 선발은 원칙적으로 평양연극영화대학 방송과 졸업생들로 충원하지만 1년
에 한 번씩 진행되는 전국화술경연대회 우승자들 중에서도 선발한다. 북한은 1954년 11
월 29일 '국제 라디오 및 TV방송기구'(IRTO)에 가입했으며 1991년 9월에는 아시아태평
양지역방송연맹(ABU)에도 가입했다.⁴³⁾

조선중앙방송 및 평양방송에서는 방송 개시 때 애국가 연주 후에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보내는데, 이는 2003년 4월 15일(김일성 생일)
이후 개정된 것이며, 그전까지는 1998년 2월 16일(김정일 생일)을 전후로 해서 각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만세!>,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만세!>, <위대한 수령 김
일성동지의 혁명 사상 만세!>,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만세!> 라는 슬로건이 사용되
었다. 2011년 정부부터는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 만
세!>라는 슬로건이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영광스러운 조선로
동당 만세!>로 바뀌었다.

1) 중앙방송국

중앙방송국은 산하에 중앙방송편집국, 평양방송편집국, 제3방송편집국, 대외방송편집
국, 보도국, 주체사상선전국, 기술국, 음악국, 화술형상국, 진행국, 조정국, FM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부서들의 직능은 다음과 같다.

43) 자료출처: 통일 한걸음더 - <http://heewooel.blog.me/150143327028> , NK Chosun
중앙일보 평화재단의 내용을 재편집

- 중앙방송편집국, 평양방송편집국 및 제3방송편집국은 국 별로 사용하는 방송과장의 특성에 맞는 편집물을 계획, 제작, 방송함
- 단 보도물은 라디오총국 보도국에서 단일체계로 방송 주파수별 특성에 맞게 제작하여 각 방송에 공급함
- 대외방송편집국은 편제 상 라디오총국에 소속되어 있지만 주파수별 특성에 따라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위원장에 직속되어 라디오총국의 특별한 관장을 받지 않고 자체로 편집물을 제작 방송하며 방송되는 어문은 8개(영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 임
- 화술형상국, 진행국, 조정국은 라디오방송의 진행을 맡아 수행하는 부서이며 화술형상국은 각 방송의 방송원들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FM국은 평양FM방송에 대한 업무를 수행함
- 1990년대 공산권의 붕괴와 '94년 7월 8일 김일성의 사망을 계기로 주민 교양용으로 기존의 조선중앙방송보다는 우선라디오방송(제3방송)에 정책적인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2) 텔레비전방송총국

텔레비전방송총국 산하에 편성국, 보도국, 주체사상선전국, 음악국, 경기경연조직국, 연출촬영국, 중계녹화처, 기술국, 방송진행국, 방송문예국, 텔레비전소설제작처, 방송연극단, 텔레비전방송편집 등이 편제되어 있다. 텔레비전방송총국 각 부서들의 직능은 다음과 같다.

- 주체사상선전국은 주체사상에 대한 선전을 기본으로 수행하며 정치선전처는 북한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경제선전처는 북한경제정책 선전을 주 업무로 수행함
- 9호 문헌편집처와 대외선전프로교환국은 외형상으로는 텔레비전총국 소속이 지만 활동은 완전히 독자적으로 하는 부서임
- 대외선전프로교환국은 재외교포들과의 사업을 전담하며 주로 교포들의 북한 방문 시 수행, 촬영 및 녹화물 판매, 우상화 선전물 배포 등으로 외화를 벌어들이며 체제선전

도 병행함

3) 문예총국 및 지방방송위원회

문예총국은 라디오와 TV로 나가는 모든 문예물을 제작·방송하는 일을 수행하며 산하에 라디오문예처, 텔레비전문학처, 배우단, 합창단, 방송대학 등이 있으며 연출가, 작가, 만담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후방국, 종합국, 지방지도처, 텔레비전극창작단은 모두 방송과 TV의 방영을 지원하는 부서이며 특히 지방지도처는 전국 각도에 있는 지방 방송들을 지도·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각 지방방송위원회로 각 시·도 방송위원회와 군 방송위원회가 존재하며, 군 방송위원회는 유선방송을 실시하며 별도로 군 방송이 실시되고 있다.⁴⁴⁾ 각 시·도 방송위원회는 각 시·도 당위원회와 군 당위원회의 직접적인 지도하에 운영되며 조선중앙방송위원회와는 방송중계의 연계만 유지되고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각 시·도 방송위원회는 하루 1.5시간 자체 제작 프로그램을 방송하며 나머지는 중앙방송위원회의 방송을 중계하거나 쉬기도 한다. 각 시·도 방송위원회는 위원장과 편성부(부장 1명, 편성원 1명), 기자실(기자 2명), 방송실(방송원 2명) 등 6~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2 절 북한의 방송통신관련 법령

북한의 방송통신 특성상 기본적으로 당에서 독점적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볼 때 체신성이 방송통신정책과 사업의 모두를 총괄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체신성 이외에도 당과 국가의 중앙집권적인 통일적 지도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당이나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성 등에 의해 방송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파관

44) 『북한』 (서울, 북한연구소, 2003) p98

리도 체신성의 전파관리국과 국가안전부위부와 인민보안성이 함께 관리하고 있다.

방송과 관련하여 규제 기관은 조선중앙방송위원회에서 텔레비전, 라디오 등 모든 방송을 총괄하고 있으며, 조선중앙방송위원회는 중앙조직으로 라디오 총국, TV 총국, 문예총국이 있다.

라디오 총국은 500명 규모, 편집국, 보도국, 기술국, 음악국 등이 있으며, 텔레비전 총국은 1000명 규모, 편성국, 보도국, 주체사상 선전국, 음악국, 연출촬영국, 중계록화처, 기술국, 방송진행국(조정부), 방송문예국, 방송연극단 등의 조직이 있다.

문예총국은 라디오와 TV로 나가는 일체의 문예부문을 제작하여 방송을 수행하는 기관이며, 지방방송위원회는 11개소의 지방방송국의 방송업무를 지도, 조정, 통제하는 기관이며, 지방유선방송위원회는 1970년 발족되어 시. 도. 군. 리에 설치된 유선방송망을 관리 운영하고 있다.

북한은 방송과 관련된 사항을 체신법에 담고 있으며, 1997년 2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의 결정 제82호로 채택되고, 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3호로 수정되었다. 이 법에는 전기통신, 우편통신, 방송 등을 관리하기 위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으며, 관련된 종합행정법인 체신법은 총 6장 52조로 구성되었으며, 각 장의 제목 및 법 조항은 다음과 같다.

- 제1장 (10개조)
- 제2장 전기통신(8개조)
- 제3장 우편통신(11개조)
- 제4장 방송시설운영(8개조)
- 제5장 체신의 물질기술적토대 강화(10개조)
- 제6장 체신사업에 대한 지도통제(5개조)

제1장 체신법의 기본규정(1~10조)의 주요 내용은 체신법은 체신부문의 규율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 전기통신, 우편통신과 방송을 원만히 보장하는데 있으며, 체신은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실현하는 지휘수단이며 체신 기관, 기업소는 국가만이 소유하고, 국가는 체신부문에서 사령체계를 바로세우고 기업관리를 정규화, 규범화한다는 것이다.

제2장 전기통신(11~18조)의 주요 내용은 체신 기관, 기업소는 전기통신 조직 운영을 통해 국가지휘통신, 산업통신, 인민생활통신을 보장하여야 하며 국가지휘통신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야하고, 체신 기관, 기업소는 전기통신회선수를 늘이며, 통신선로를 현대화하고 전국의 전기통신망을 자동화해야 한다. 그리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하는 과정에 국가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제3장 우편통신(19~29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체신 기관, 기업소는 우편물취급공정과 배송수단을 기계화, 자동화하며 점차 전자우편을 실현하여야 하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정해진 우편물의 규격, 형식, 기준질량, 포장방법 등을 지켜야 하고, 교통운수기관과 체신기관은 배송, 전달 도중에 생긴 우편물사고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제4장 방송시설운영(30~37조)의 주요내용은 체신기관, 기업소는 방송시설운영과 방송프로의 전송, 중계를 차질없이 해야 하며, 체신기관과 해당 기관은 경보방송체계를 세워야하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주민들이 방송을 청취할 수 있도록 우선방송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국제기구대표부와 다른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 국민은 무선방송 설비, 위성통신 송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제5장 체신의 물질기술적 토대 강화(38~47조)의 주요내용은 체신 기관, 기업소는 전국적인 디지털종합통신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실시해야하며 우편물취급시설을 기계화, 자동화해야하며, 체신부문의 연구기관과 교육기관 등은 체신의 현대화를 뒷받침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계획기관과 노동행정기관, 전력공급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은 체신부문에 필요한 노동력, 전력, 설비, 자재, 자금을 보장해야 한다.

제6장 체신사업에 대한 지도통제(48~52조)의 주요내용은 체신사업에 대한 통일적 지도는 중앙체신지도기관이 하며, 체신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체신활동의 신속성, 정확성, 안정성을 보장하며 비밀을 엄격히 지키도록 감독통제 해야 한다. 그리고 통신, 방송에 지장을 주는 행위, 비밀 누설행위 등은 행정적 또는 형사적 처벌을 받는다.

북한 체신법은 법률제정 당시의 현실과 당면과제 등을 반영하고 있는바, 체신(정보통신) 발달단계 관점에서 매우 초보적인 수준의 법률로 평가되며, 체신(통신, 우편, 방송)이 국가독점으로 운영되고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가 많지 않고, 이해관계자가 많지 않

아 상대적으로 법이 규정하고 있는 범위와 깊이가 매우 초보적인 수준이다. 체신사업이 아직까지 국가독점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체신법은 사실상 내규에 가까운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남한의 통신발전사는 국가독점→전기통신법 제정(1961)→통신현대화계획실행(1962~1981)→정책과 사업의 분리(1980)→통신시장 경쟁도입(1990)→민영화(2002) 등으로 발전해 왔다.

체신법의 전반적인 특징은 경제적 기능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북한에서 통신은 철저한 국가독점 아래 당 및 국가 경제기관들의 지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체신법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했고, 북한에서 통신 인프라가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 중의 하나도 북한정부의 이러한 체신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체신법은 장기간 침체되어온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으로의 통신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투자비와 기술 측면에서 북한의 자체적인 역량으로 실질적인 통신망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국기업 참여, 특히 남한 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체제유지를 위한 통신의 통제와 통신망 현대화 추진을 위한 통신 개방이라는 서로 상충되는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는가에 따라 향후 북한 체신(통신)산업의 발전경로가 결정될 것이다.

방송통신과 관련이 있는 북한 형법에는 과학기술의 보호 및 개발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체신관련 범죄를 제재하고 있다. 북한 형법규정은 2004년 4월 29일 대폭 개정되었으며 2004년에 개정된 형법(이하 개정형법이라고 함)상 과학기술 관련규정은 구법에 비해 보다 구체화 되었다.

개정형법은 '체신사업을 무책임하게 한 죄'를 신설 체신사업에 대한 운영을 강화하여 "체신부문 일군이 전기통신, 우편통신보장을 무책임하게 하였거나 방송시설의 점검보수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아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고 하고, 이어 "앞항의 행위로 통신, 방송을 상당한 기간 중지한 경우에는 3년 이

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제166조)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화설치 및 사용을 방해한 죄를 규정하여 제167조에서 “리기적 목적으로 여러 차례 승인되지 않은 전화를 설치하여 주었거나 승인된 전화설치를 제때에 하여

주지 않았거나 정상적인 통화를 할 수 없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정형법에는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과 관련한 과학기술 규정을 신설하였다. ‘컴퓨터침입죄’을 신설하여 제201조에서 “국가관리, 국방건설,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컴퓨터망에 침입한 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컴퓨터의 사용과 이를 이용한 범죄에 대한 조치를 명시한다. ‘허위정보입력 유포죄’를 신설하여 제203조에서 “탐욕, 질투 그밖의 비열한 동기에서 컴퓨터망에 허위정보를 입력시켰거나 유포시켜 정보처리에 장애를 조성한 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개정형법상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관련 규정은 북한에서의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분야에서의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는 조치를 마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컴퓨터를 통한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함으로써 현재 북한이 강조하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정보통신분야의 개발정책을 뒷받침하는 자세를 엿볼 수 있다.

제 4 장 북한의 방송이용 동향

제 1 절 북한 지역의 방송수신 환경

방송 매체 중 중파방송이나 FM방송 그리고 해외 방송 등은 방송방식에 있어서 남북한이 모두 같은 방식인데 다만 TV방송만은 북한의 대남방송인 개성 TV방송만이 방식이 같을 뿐 대내 방송은 컬러 방송방식과 표준시스템이 한국의 방식과 상이하여 남북한 방송 교류 내지 상호 개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나 대남전선방송인 개성 방송은 세계방송사상 유례가 없는 방송 행태로서 남북방송교류 이전에 해결해야 될 문제이며 전파의 기본질서에도 벗어난 사례이다.

북한은 대남 흑색선전을 전달하는 '구국의 소리'방송(구 통일혁명당방송)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이는 북한이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 내의 지하 운동권에서 운용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ITU에 등록도 하지 않고 있다. WRTH에서도 이 '구국의 소리' 방송은 북한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그 송신 점은 해주라고 명시하고 있다.

<표 4-1> 구국의 소리 대남 방송 시설

구분	주파수(Khz)	출력(KW)	송신위치	방송시간
중파	1053	1500	해주	1일 16시간
단파	3480	50	원산	"
"	4450	100	평양	"
"	4557	50	해주	"
"	4120	100	평양	1일 7시간

'구국의 소리방송'은 지난 1970년 '통일혁명당 목소리 방송'으로 출발, 1985년부터 현재의 이름으로 개칭한 북한의 대표적인 대남 비방방송으로, 북측이 남측에 존재하는 것으로 선전하는 대남 흑색선전조직인 '한국민족민주전선'에 의해 운영돼 민민전 방송으

로도 불리기도 했다. 즉, '구국의 소리'는 방송시작 첫 머리는 "여기는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한국민족민주전선의 구국의 소리 방송입니다"라고 시작했으며, 1994년 7월 10일부터 보름동안 6개 국어로 해외선전방송을 하면서 "여기는 평양입니다"로 출처를 밝혀 평양에서 운영하고 있음을 드러냈었다. 북한은 2003년 7월 남북장관급회담 남측 수석대표 앞으로 전화통지문을 보내 대남방송인 '구국의 소리방송'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뒤, 그 다음 달 1일부터 방송을 중단했었다.

그러나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2012년 11월 29일 "해내외 여러분에게 알려드린다. 2012년 12월 1일부터 '통일의 메아리' 방송이 시작된다"며 "(방송 시간은) 매일 오전 7~9시, 오후 1~3시, 오후 9~11시"라고 밝히면서 대남심리전 방송 재개를 선언했다. 우리민족끼리는 '통일의 메아리'에 대해 "무소속 민간방송"이라고 소개하면서 "민족적 단합과 조국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과 염원을 전하게 될"이라고 덧붙였다. 군 당국은 사실상의 대남방송으로 파악하고 있다. 반면에 남한은 대북방송과 관련하여 지난 10년 사이 인력은 7분의 1, 주요장비는 20분의 1로 줄어들면서 우리 군의 대북심리전 라인이 사실상 붕괴됐다고 평가했다.⁴⁵⁾

북한은 남한과 다르게 사회주의 이념 우위의 체제 승리를 위하여 모든 사고가 존재하며 이에 지향된다. 북한방송의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여론 형성에 가장 영향력 있는 방송의 이용이 예외가 될 수 없으며 대외적으로는 방송의 전파 특성을 이용한 대 전력 전파의 대남침투를 위하여 대내적으로는 이와 반대로 북한 내의 라디오 수신기 보유를 제한하기 위한 유선방송의 전국화 등 국가차원의 철저한 계획방송의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지상파 방송 역사를 간단히 정리하면, 1966년 8월, 구소련의 기술협력 하에 "평양TV방송국"의 설비를 구축하였으며, 북한의 모든 TV 제작 시설은 구소련과 동독에 의해 구축되었다. 그리고 TV중계 설비가 원산과 자강도에 추가적으로 설치되었으며, 1974년 4월 15일, 김일성의 생일에 맞추어 정규 컬러 TV 방송 개시했었다.

45) 문화일보, 對北심리전 라인 붕괴(2013년 06월 05일)

위성방송은 군사적 목적으로부터 시작하여 지금은 우주산업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1977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무선 관련 회의(WARC⁴⁶)에서 한국에는 6개의 채널(2, 4, 6, 8, 10, 12), 그리고 북한에는 5개의 채널(14, 16, 18, 20, 22)이 할당되었다. 남북한에 배정된 방송위성의 가청구역은 울릉도, 독도를 포함한 한반도 전역으로 하였다⁴⁷).

남한의 경우 1995년 8월 11일 방송용 중계기와 통신용 중계기가 탑재된 무궁화위성을 동경 116도 적도 상공 36,000km 궤도에 올려놓았다. 방송방식은 지상파 TV 방식인 아날로그 방식을 배제하고 디지털 방식을 채택했다. 아날로그 위성에서 하나의 채널 대역은 6MHz이며, 이것으로 디지털 표준 4개의 채널이나 HDTV 1개의 채널 운용이 가능하다.

남한의 KBS 위성1, 위성2 채널과 교육방송 위성1, 위성2 채널을 위성방송으로 송출하고 있으며, 또한 전문 케이블 채널인 아리랑TV는 1999년 8월 12일 방송개시 전파를 발사하여 본격적인 해외 위성방송을 시작하였다. 아리랑TV 해외 위성방송은 아시아, 호주, 동부유럽, 북아프리카 등 60개 국가들을 시청가능지역으로 송출하였다.

1998년 7월 2일부터 북한은 해외 위성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광대역 위성인 태국의 타이콤 3 중계기를 임차하여 세계 126개국으로 위성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그 특징으로는 첫째, 조선중앙방송의 국내중계시설의 노후로 인한 경제적인 전송방식의 모색을 들 수 있다. 평양과 지역을 연결하는 마이크로웨이브 중계시설의 전면교체가 필요한 상황에서 과도한 비용이 드는 교체보다는 비용이 저렴한 해외위성채널의 임차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둘째, 해외위성방송의 활용을 통해 남한 주민과 재외동포 대상의 선전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이다. 한편 1999년 10월 22일 연구기관, 언론사 등에 북한 위성방송이 개방되었다.

46) World Administrative Radio Conference Broadcasting by Satellite

47) 송재극(1999), 전파진흥원(2008), 신동국(2000)

<표 4-2> 북한의 위성 기술관련 연도별 동향

연도별	위성 방송 관련 내역
1985	중국 지원으로 평양에 기상정지 위성 수신국 완공
1986	인텔셋(국제전기통신 위성기구)에 대한 기지국 건설 - 프랑스 기술 도입
1999	조선중앙TV 위성방송 시작 - 태국 시나와트 새털라이트사와의 타이콤 위성 입차
2001	미국 워싱턴 인텔셋에 가입함으로써 인공위성을 통한 북한의 국제전화, 위성중계 방송이 가능해짐
2003	조선 중앙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 전체를 북한 전역 위성으로 중계

그리고 남북한의 해외위성 방송에 대한 개시일자, 사용위성과 그 위치, 시청할 수 있는 지역, 방송시간, 사용언어 및 방송 프로그램을 비교내역⁴⁸⁾은 다음과 같다.

<표 4-3> 남북한의 해외 위성 방송 비교

구분	아리랑 TV	북한방송(KCTV)	비고
개시일자	시험방송: 1999. 6. 7 본 방송: 1999. 8. 12	시험방송: 1999. 7. 2 본 방송: 1999. 10. 10	아리랑 TV가 25일 빨리 시작함
사용위성	Asia Sat 3S	Taicom 3	
위성위치	105.5 EAST	78.5 EAST	
가 시청권	아시아전역, 호주(뉴질랜드 포함), 동유럽, 북아프리카	아시아전역, 호주(뉴질랜드 제외), 북아프리카	아리랑 TV가 뉴질랜드 및 동유럽을 커버함
방송시간	24시간 / 일	평일: 6시간, 휴일: 14시간	아리랑TV가 종일 방송으로 커버리지 내 7시간 시차 극복
방송 사용언어	영어, 한국어, 영어자막, 중국어자막	한국어	아리랑TV는 영어권, 중국어권 시청자를 흡수함
프로그램	드라마, 영화, 스포츠, 뉴스 등 다양한 장르	체제홍보를 위한 선전이 주류	

48) 신동국(2000), 전파진흥원(2008)

남한의 디지털 위성방송 역사는 1993년 7월 디지털방식이 결정되고, 1995년 5월 디지털 위성방송의 전송기술이 제정되었으며, 1995년 8월 무궁화 위성을 발사했다. KBS는 1996년 7월에 위성 상용방송 2개 채널을 시험서비스를 실시했으며, 1997년 8월에는 EBS 교육방송 2개 채널이 시험서비스를 시작하였다.

그 뒤 한국디지털 위성방송사 SkyLife는 국내 위성방송사업의 독점권을 확보하고, 2001년 11월 1일 시험방송을 개시하였으며, 2002년 3월부터 상업적 위성방송시대가 시작되었다. 위성DMB방송은 SK그룹의 TU미디어가 일본위성사업자 MBCo와 합작하여, 위성DMB방송을 위한 한별위성을 2004년 3월 발사하였으며, 2005년 5월 1일 비디오 7개 채널과 20개 오디오 채널로 본 방송을 시작하여 핸드폰으로 이동하면서도 비디오와 오디오 수신이 가능한 이동수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위성방송은 방송사나 프로그램 공급자(program provider)로부터 비디오와 오디오 신호를 받아서 MPEG2로 인코딩을 수행하고, 인코딩된 비트스트림을 MPEG2 트랜스포트 인코더로 패킷 다중화하여 에리정정과 변조⁴⁹⁾ 후에 위성으로 전송되며, 다중화→에리정정→변조 과정을 거친다.

중파방송은 그 전파의 특성상 비교적 원거리까지 도달되며 특히 야간에는 공간파에 의해 제 2서비스 영역이 형성되어 국내 방송뿐만 아니라 인접국까지 포함할 수 있으므로 이념분쟁에 이용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한반도는 동쪽으로 일본, 서쪽으로는 중국, 북으로는 러시아로부터 강력한 전파 침투가 초래되고 있으며 더욱이 남북이 분단되어 있어 전파전은 치열할 수밖에 없다.

한반도는 지구상에서 중파방송의 전파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인식되어 있다. 그런데 휴전선을 중심으로 남북한의 전파통과 경로를 보면 북한의 서남부인 황해도와 경기도 서부지역에서 발사되는 전파는 서해바다와 남한의 광활한 평야지대인 서북부를 통해 전파의 손실이 거의 없이 남한의 3분의 1의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과 인구밀도가 높은 서반 부를 공략하고 있다.

49) QPSK변조: Quadrature Phase Shift keying(4상 위상 편이 변조)

<표 4-4> 북한의 출력 100kw이상 중파방송 시설 내역

지 역	주파수(Khz)	등록출력(kw)	비고
평 촌	531	100	
사리원	621	1000/500	
청 진	639	500/250	
강 남	657	1500/750	
삼 고	684	250/125	개성으로 이전추진
위 원	720	500/250	
신 상	738	100	
평 양	783	1000/500	
화 대	801	500/250	
청 진	819	500/250	정주로 이전추진
상 원	855	500/250	해주로 이전추진
신의주	864	250/125	
원 산	882	250/125	
웅 진	954	100/50	
평 양	981	500/250	
함 흥	999	250/125	
재 령	1044	400/200	
철 원	1071	100	
웅 진	1080	1500/750	
정 주	1179	100	
김 화	1188	500/250	
송 화	1395	100/50	
남 포	1440	100	

* ITU에 등록된 100KW 이상의주파수 23개 과 시설용량은 10,600 KW

이에 반해 북한은 휴전선 근처에는 특별히 조직된 군대를 제외하고는 인구밀도가 극히 희박하고 북한의 수뇌부인 평양은 황해도를 가로지른 멸악산맥으로 막힌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남한의 전파로부터 비교적 보호되고 있다. 이는 전파경로 상 감쇠가 심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ITU에 등록하여 운용하고 있는 중파방송은 총 130여개파이며 이중에서 주야

간에 걸쳐 강력한 전파로 남한에 광범위한 전파 월경을 주는 100KW이상의 송신 출력을 가진 주파수가 23개 파나 되어, 100KW이상의 중파 송신 시설 용량은 남한의 약 2.5배 정도나 된다.

<표 4-5> 남북한 국제 방송 현황 대비

구분	라디오 코리아	라디오 평양
명칭		
방송언어	12개 언어 한, 영, 일, 인나, 아랍, 불, 서, 독, 노, 포, 이태리	9개 언어 한, 영, 일, 중, 노, 불, 독, 서, 아 랍
1일 송출시간	127시간 15분	153시간(추정)
주파수(단파)	21개 색크밀 주파수 3개 포함	28개
송출시설	250KW x 3 100KW x 6 10KW x 2	400KW/200KW.100KW 14 ~ 17 대 추정
송신소	김제, 화성 2개소 해외 중계소 -캐나다색크빌(Sackville) 1개소	평양,강계,구장 3개소 해외 중계소(추정) -쿠바 하바나 -불가리아 소피아등 2개소

ITU의 IFRB에 등록된 북한의 1990년 5월 단파방송 주파수 일람표(통상 등록된 주파수의 60~70%가 실제 방송되고 있음)와 WRTH(1991년 판)자료에 의하면 북한은 평양, 강계 및 구장 등 3개 송신소에 100KW, 200KW, 및 400KW의 송신시설을 활용하여 해외 방송을 실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외방송 외에도 북한 내 지방 중계용과 대남용 단파 방송이 별도로 운용되고 있다.

또한 북한에서도 쿠바의 하바나와 불가리아의 소피아등 2개소의 해외 중계소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북한은 해외방송에 있어서도 선진, 선동을 강화하는 사회주의 국가의 특징을 그대로 살려 방송시설 용량이 한국보다 3배가 넘는 대출력 방송시설을 보유, 운영하고 있다.

제 2 절 북한의 영상산업 및 뉴미디어 보급현황

1. 북한의 영상산업 실태

먼저 북한의 영상산업을 살펴보면, 1년에 약 30~40편의 영화를 제작한다. 200~300본 가량은 복사본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으며, 제작된 모든 영화는 보관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이를 국립 아카이브인 “중앙영화필름관리소”에서 관리하고 있다. 여기에는 1만 5,000여 편이 넘는 세계 유수의 컬렉션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젠 국내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한국영화들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영화필름관리소는 영화필름 전용 아카이브로서 국제필름아카이브연맹의 회원이다. 북한에서 생산된 영화는 의무적으로 여기에서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필름을 수집 보관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대량의 아카이브와 북한 영화들은 국내 콘텐츠 수급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북한 영상콘텐츠는 지상파의 통일방송시간대 나 케이블의 제3세계 전문채널, 또는 콘텐츠 내용별로 각 케이블 채널에서 활용할 수 있다. 위성방송의 경우, 공익적 성격의 채널을 통해 북한관련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과의 공동제작이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면, 콘텐츠를 통한 교류는 궁극적인 공동제작 단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상호 신뢰회복과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북한 콘텐츠는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 다양성을 보충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영상산업에 의미가 있다. 북한 영상물은 사상성이 문제가 되지만 국내 방송이 보이는 특정 국가의 문화적 편식현상을 해소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과학다큐멘터리는 국내 제작 유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장르이지만 북한은 교육용으로 많이 제작하고 있어, 이러한 영상물을 수입함으로써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 드라마나 극영화의 경우도 미풍양속이나 민족성을 드러내는 것들이 상당수 있다.

2. 북한의 뉴미디어 보급 현황

북한에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는 영상 미디어장비가 바로 CD플레이어라고 말할 수 있다. 최근에는 CD보다 DVD플레이어가 더 선호되고 있긴 하지만 보급대수를 보면 아직도 CD가 더 많다. 이러한 비디오 플레이어를 연결시키는 것은 합법이다. 단 플레이어 기기를 연결하기 전에 인민 보안서에 사전에 설비를 등록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플레이할 수 있는 CD나 테이프는 반드시 북한에서 제작한 것만이 허용된다. 외국산 콘텐츠를 플레이하는 경우, 기기와 CD를 전량 회수당하거나, 벌금을 물고 심한 경우 도시에서 추방되거나 감옥행까지 각오해야 한다.

영상 미디어로는 그밖에도 카세트Tape 영상플레이어, 휴대용 MP3, MP4, PMP등 영상 및 디지털 콘텐츠 플레이어기들이 보급되고 있다. 북한청소년들에게는 휴대용 기기를 가지는 것이 하나의 소원이다.

이러한 디지털미디어 플레이어들이 북한에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부터다. 처음엔 북한은 외부로부터 이러한 기기들이 입수되는 것에 대하여 엄격하게 통제하고 차단하였다. 하지만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어 식량부족 때문에 중국 조선족 동포들이 식량을 가지고 북한에서 장사하는 것을 허용하기 시작하였고 이런 과정에 중국 조선족 동포들은 식량뿐만 아니라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을 보따리장사를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싸구려 전자기기를 가져다 팔기 시작하였다. 북한 당국도 무작정 국경을 폐쇄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느슨하게 이러한 기기들의 반입에 대하여 대처하였으나 이러한 기기들의 반사회적 영향에 대하여 당황하여 강력 통제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때가 늦었다. 그 후로 외국의 영화나 드라마가 수록된 CD나 DVD, USB, 음악카세트 등은 엄격히 통제하지만 미디어 플레이어 기기 장치의 반입과 시장에서의 판매거래는 허용하고 있다.

그렇다고 디지털미디어 플레이어 기기들을 누구나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돈만 있으면 대도시들에는 큰 시장들이 많고, 많은 상품들이 거래되기 때문에 이러한 전자 기기들을 구입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다. 반대로 소도시, 농촌지역에는 시장이 작고, 공급도 원만하지 못하여 구입이 어렵다. 하지만 돈만 있으면 주변 도시에 와서 사가기도 한다.

<표 4-6> 북한 내 디지털기기 보급실태

정보기기명	추정대수	추정 근거
컴퓨터 (노트북포함)	150만대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2년까지 컴퓨터설치대수(펜티엄급): 1,500,000여대 정도 • 2002년 이후 "아침-판다"컴퓨터공장에서 연산⁵⁰⁾ 13만대이상 생산 (북한 내: 5만대 잔류) • 일본, 중국 중고컴퓨터 수입: 연 1만대이상 • KCC등 12개 무역회사들 연 5천대이상 수입
DVD플레이어	2만 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10월 북한회령시장에서 팔리는 중국산 DVD플레이어는 대당 100만원 호가 (회령에만 100여대 설치추정)
CD영상플레이어	10만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1월 북한회령시장에 나온 CD플레이어 대당 가격: 50만원 호가 (회령시에만 300여대 보급된 것으로 추정)
TAPE영상플레이어	1만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9월 북한회령시장에 팔리고 전시된 TYPE플레이어 3대 좌우, 가격: 100만원 호가 (회령에만 100여대설치추정, 북한지식 정보센터 확인)
휴대용CD플레이어		
음악Tape플레이어		
MP3 플레이어		
라디오		
카 오디오		

현재 디지털 미디어 플레이어 기기들을 북한 내에서도 사고 팔수 있는 데 주요한 경로는 다음과 같다. 우선 국영 무역회사들에서 공식적인 무역을 통해 수입하여 국영 백화점이나 외화상점에서 파는 경우이고 다음은 무역회사들에서 외화벌이를 위하여 상품을 외화원천(송이, 약초, 고급수산물)과 교환하기 위하여 이러한 전자기기들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중국 조선족동포 또는 국경연선에 있는 북한 밀매업자들이 밀수형식으로 이러한 전자기기들을 북한경내에 들여오기도 한다. 밀수에 의한 제품들이 가장 많이

50) 인터넷검색, 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
홈페이지 www.nktech.net/inform/newsletter/nl_tend_v.jsp?record_no=6

거래된다. 왜냐하면 값이 싸기 때문이다.

북한의 2010년 말 근래 수요를 보면 USB와 MP3가 대량으로 입수되고 있다. 이유는 컴퓨터를 통해서 많은 디지털콘텐츠들을 플레이할 수 있는데 저장되는 콘텐츠의 양이 CD나 DVD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크고 화질도 좋을 뿐 아니라 다루기 쉽기 때문이다.

대북용 미디어라고 함은 외부세계에서 제작되어 북한 내부에 배급되는 디지털영상 정보들을 일컫는 말이다. 북한에 현재 가장 많이 유입되고 있는 디지털영상정보로는 영화, 뮤직비디오, E-book, 애니메이션, 게임 및 각종 학습프로그램 등이다.

2010. 4월 NK지식인연대 대북정보센터는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에 은닉해 있거나 중국에 사사여행을 온 북한주민, 그리고 남한에 살고 있는 탈북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현재 북한에서 광범하게 쓰이고 있는 대북영상물의 종류는 6가지다.

<표 4-7> 북한의 영상물 분포

종류	유입매체	분포, 특징
영화 및 드라마	CD나 DVD, TAPE, USB	40% <
다큐 및 교양시사물	CD나 DVD, TAPE, USB	20% <
음반 및 뮤직비디오	CD나 DVD	20% <
전자도서 (E-book)	USB, CD나 DVD	10% <
만화 및 애니메이션	CD나 DVD, USB	5% <
게임, 학습프로그램	USB, CD, DVD	5% <

* 자료출처: NK지식인연대(2010)

대북영상물가운데서 가장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당연히 영화 및 드라마다. 중국 조선족 동포들이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하여 거의 15년 이상 상업적 목적으로 엄청난 양의 CD와 TAPE 조.중 국경 지역을 통해 밀매해 왔다. 한국영화 ‘모래시계’와 할리우드의 ‘람보’, 영국의 ‘007’를 비롯한 당대의 베스트 작품들은 북한주민들 속에 가장 인기 있었던 영화들이다. 한편 “가을동화” “영웅시대” “제5공화국”을 비롯해 엄청난 양의 드라마도 비밀리에 유포되었다. 인민보안원(경찰)들에 발각되지 않기 위해 휘장이나 모포로 등화관제까지 하고 볼륨을 낮추어 은밀하게 가족이나 친구끼리 모여 돌려보는

남한 드라마와 다큐들은 북한주민들에게 개인주의에 기초한 기쁨과 눈물, 사랑과 증오, 삶에 대한 심오한 고민과 이슈를 인식시키는 데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

<표 4-8> 북한에 유입된 뉴미디어 콘텐츠 종류

콘텐츠 형식	내용 사례	설명
e-book	“세계문학작품선”, “카네기전서” 등 수백 가지	조선어코드에 맞춘 텍스트기반 매체
디지털 매거진	NKIS가 제작한 “지구촌의 창” 등 다수 작품	전용뷰어, PDF파일
동영상	뮤지컬 “요덕스토리” 공연실황 녹화물	AVI, WMV형식
전자사전	“위키 백과” 등 best 사전류	오프라인 판
영화	최신 베스트작품	번안된 할리우드 작이 다수
다큐멘터리	“천의 계단을 넘다”, “21세기 병기” 등 작품	군인, 안전부, 보위원들이 선호
TV프로	“615남북정상회담”, “김정일 방중”	지난 프로그램을 수합한 작품
전자앨범	세계 각국의 문화, 다양한 주제의 앨범집	압축해제파일 첨부
스토리 텔링 작	NKIS가 제작한 “쿠바는 사회주의인가”	종합적인 뉴미디어 작품
애니메이션	best작, 남한 교양적 주전자신문제의 애니메이션	저작권 양해, 플레이어 첨부
음성소설	세계적인 Best작품의 음성파일	플레이어 첨부
게임	“삼국지” 무료 배포 판을 비롯하여 다수의 게임	북한의 일반적 컴퓨터사양 고려
프리웨어	컴퓨터 유지보수, 파일관리, 원격지원툴 등	북한의 컴퓨터사양 고려
e-러닝 교재	수학, 영어, 물리 등 각 과목 교육용 교재	북한 교과내용에 준함
디지털 성경	기독교, 가톨릭 성경	최근에 수요가 급증
기타	“사주백과”, “토정비결”	최근에 수요가 급증

컴퓨터를 활용하여 플레이할 수 있는 e-Book과 애니메이션, 만화작품을 보는 것이 지식계층과 청소년, 대학생들의 큰 흥밋거리다. 금년 7월 경, 자유아시아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평양시내 대학생들과 지식인들 속에서 오프라인판 “위키 백과”를 보는 것이 큰 유행이 되었다고 할 정도로 대북용 뉴미디어 작품들이 엄청나게 유포되고 있다.

NK지식인연대 북한지식 정보센터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어떠한 콘텐츠들이 북한내부에서 유도되고 있는지 그 윤곽을 확인할 수 있다.⁵¹⁾

제3절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 실태

대북용 영상물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반향은 한 마디로 말하여 대단하다. 그 반향을 총칭한다면 대북용 영상물을 통해서 북한체제의 본질에 대한 인식과 자신들의 삶의 재발견, 외부세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이다. 폐쇄적인 사회에서 세뇌를 위하여 특별히 고안된 콘텐츠나 선전물만 접해오다가 대립되는 매우 다양한 주제의 이슈와 감성, 증거와 사실들에 접한 북한주민들은 대북영상물들을 그저 흥미본위로서만이 아닌 콘텐츠 자체에 열광할 수밖에 없다.

전체주의국가의 가치관은 지극히 단조롭고 분명하다. 하지만 대북용 영상물이 전하는 가치는 천태만별이다. 개인주의에 입각하여 국가화 사회, 가정과 개인, 경제와 문화의 모든 영역들을 신랄하게 보여주는 대북용 영상물의 모든 장르들이 충격적이지만 사회성이 강한 북한주민들에게 강렬하게 인지되는 것은 자유와 방종, 사랑과 애정, 업기와 개인주의적 도덕성을 보여주는 영상물들이다.

그렇다고 대북용 영상물들이 처음부터 북한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문화에 대하여 패륜패덕으로 규탄하는 당국의 선전에 세뇌되었기 때문이다. 대북용 영상물들을 보다가 발각되는 경우 받게 될 엄한 처벌이 대북용 영상물들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게 하였다. 하지만 한 편, 두 편, 대북용 영상물들을 보면서 자신과 주변의 삶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가치와 삶의 현장들을 지켜보면서 깊은 충동을 받게 되며 더욱더 많은 사실들과 증거들을 발견하기위해 대북용 영상물들을 찾게 된다. 이러한

51) NK지식인연대는 2010 6~9월 기간에 북.중 국경연선에서 북한을 갓 탈북하여 온 탈북자 50여명을 만나 북한에서 유행되고 있는 외부미디어의 종류와 활용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과정에 시청자들은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된다. 남한이나 국제사회의 모습이 북한의 그 체제와 너무도 판이하며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놀라울 정도로 다르다는 사실이다. 그 차이는 바로 인권과 자유의 차이이며 결국은 정치의 차이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인식이 북한식의 학습과 강연, 일방적인 세뇌교육으로가 아니라 다양한 감성과 정서, 가치를 가지고 전개되는 대북용 영상물은 분명 북한주민들에게 자신들의 알아왔던 역사와 현재가 얼마나 비속적이고 거짓이었는데에 대하여 통감하게 된다.

무엇보다 대북용 영상물들은 한결같이 재미있고 흥미롭다. 멜로디는 신비할 정도로 흥취를 돋우고 함께 흥얼거리게 하며 리듬에 맞추다 보면 절로 신이 난다. 다큐멘터리에서 보여주는 사실들은 진실성이 강하고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게 만든다. 이처럼 대북용 영상물들이 주는 강렬한 인상과 이해는 오늘날 북한주민들에게 새로운 삶의 활력소를 만들어 준다. 그것은 오늘날에는 어렵지만 미래에 만들고 싶은 하나의 꿈을 만들어 낸다. 그 꿈은 바로 3대를 거쳐 세습되는 사회주의 북한이 아닌 최소한 한국이나 미국사회처럼 국민이 자유롭고 풍요롭고, 문명한 북한이다. 이를 반영하는 하나의 사실이 있다. 2009년 10월에 북한의 최고의 대학인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을 상대로 아침 등교시간에 일제히 책가방을 비롯한 소지품 조사를 하였는데 1만 8천명의 대학생 중 2천여 명에게서 대북용 영상물이 든 CD와 USB가 발견되었다고 한다.⁵²⁾

북한당국은 체제유지와 주민세뇌를 목적으로 북한을 외부세계와 철저하게 차단시켜 왔다. 관문들에 설치된 국경세관 검사체계, 대북라디오 전파차단, 불시적인 가택검사로 인해 북한주민의 외부정보접근성은 세계 최하위수준이다. 북한당국의 이러한 강력통제에도 불구하고 대북영상물들은 여러 경로와 방법으로 북한의 안방들에 유포되고 있어 당국자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다. 이제 북한주민들의 생활에서 대북용 영상물은 떼어낼 수 없는 생활의 한 부분이 되어버려서 북한당국의 어떠한 단속과 처벌, 통제도 그것을 철저히 막아내기 어렵게 되었다. 이를 반증하는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기로 한다. 최근 평북 정주시에서 고등학생 4명이 친구 집에 모여 외국영화를 시청하다 130상무에 적

52) 인터넷검색, NK지식인연대 사이트
<http://www.nkis.kr/board.php?board=kkknewsmain&page=4&command=body&no=281>

발되는 바람에 정주사가 발각 뒤집혔다고 한다. 일이 이 정도로 심각해 진 것은 4명의 학생 중 시당 책임비서의 아들도 함께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도 130상무조가 급파되어 책임비서의 가택을 수색한 결과 여러 편의 외국 및 한국영화 CD를 압수했다고 한다. 4명의 학생들은 소년교양소에 보내졌고, 시당책임비서는 가족혁명을 못한 책임으로 해임철직 되었다고 한다.

2010년 새로 조직된 '130상무단속조'는 보위부와 당 일꾼, 보안원 뿐 아니라 IT기술자들도 망라되어 있고 CD플레이어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수신하여 비밀시청여부를 확인하는 기계까지 활용하여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주민들은 전자파 발신을 차단하는 차폐장치를 고안해서 CD플레이어에 설치하는데 이것만 설치하면 검열을 무난하게 회피할 수 있다고 한다. 대북용 영상물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열광과 이를 단속하는 검열당국사이의 치열한 공방전을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이다.⁵³⁾

외부세계로 향하는 북한주민들의 갈망과 욕구는 날이 갈수록 강렬해 지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북한주민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식량뿐만 아니라 북한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문화적 지원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53) 인터넷검색, NK지식인연대 사이트
<http://www.nkis.kr/board.php?board=kkknewsmain&page=4&command=body&no=264>

제5장 통일전후 동서독 사례와 시사점

제1절 동서독의 통일과정 및 방송통신 교류 내역

1. 동서독의 통일과정

1969년 10월 서독 사회민주당의 브란트(W. Brandt) 총리는 ‘동방정책’을 제안했으며, 그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는, 동독을 국제법상의 국가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동독과 서독이라는 두 국가가 존재하고 있고, 두 국가의 관계를 ‘특수 관계’로 규정한 것이었다.

동방정책이 추진되면서, 1972년 5월 동서독은 ‘통행협정’을 체결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동서독의 관계정상화를 주요 내용으로 ‘동서독 기본조약’에 합의했다. 이 기본조약은 당시 야당인 기민당과 기사당은 이 조약의 조인에 반대했고, 바이에른 주는 연방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1973년 연방헌법재판소는 한정합헌 판정을 내림으로써, 동서독 기본조약이 서독의 기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후 동서독의 교류와 협력은 서독 내부의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었다.

동방정책의 시작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의 동서독 관계는, ‘점진적 통합(integration)’의 시기로 평가될 수 있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이성의 연합’, ‘책임공동체’와 같은 용어들이 동서독 정상들에 의해 사용되기도 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동서독의 ‘통일’에 관한 논의는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민족의 재결합을 의미하는 통일논의가 동서독 관계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독과 서독에 두 민족이 존재하고 있다는, ‘이민족화’(Bi-Nationalisierung) 테제가 나타나기도 했다⁵⁴⁾. 1977년 12월 북한을 방문한 호네커(E. Honecker) 수상에게 김일성 주석은 독일과 같은 두 국

54) 이동기, “1989/90년 독일통일 과정에서 좌파의 비판과 대안들,” 독일통일의 정치, 2010년 10월 학술회의

가론이 한반도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말하기조차 했다. 녹색당과 평화운동 내의 일부 '민족좌파'들은 적극적으로 통일의 형태로 '국가연합'을 제시했고, 유럽평화는 독일문제의 해결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⁵⁵⁾

그러나 1989년 8월 동독주민들이 탈출을 위해 헝가리 주재 서독대사관에 들어가면서부터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다. 소련 및 동구사회주의국가의 체제전환과 동독내부의 문제가 맞물리면서, 독일은 급격하게 통일의 '과정'에 진입했다. 1989년 9월에는 동독에서 전국적 규모의 저항조직인 '뉴포럼'이 결성되었다.

1989년 10월에는 동독의 라이프치히와 동베를린에서 대규모 반정부시위가 발생하기도 했다. 서독 텔레비전은 동독의 시위를 방송했고, 서독 텔레비전을 시청할 수 있었던 동독주민들이 이 시위에 참여함으로써, 동독 내부에서의 반정부시위가 확산되었다. 소련의 고르바초프(M. Gorbachev)의 개혁요구와 내부의 반정부시위에도 불구하고 호네커는 개혁정책을 수용하지 않았다. 1989년 10월 호네커는 실각했다.

1989년 11월 8일 동독은 베를린 장벽과 동서독 국경의 개방을 선언했고, 정치국을 개혁세력을 중심으로 재편했다. 11월 9일 '신여행법'이 공포되면서, 베를린 장벽은 붕괴되었다. 11월 10일 서독의 콜(H. Kohl) 수상은, 서독 연방의회에서 베를린 장벽개방에 관한 정부성명을 발표하고, 동독의 근본적 개혁을 촉구했다. 1989년 11월 13일 동독에서는 중도개혁 성향의 모드로우(H. Modrow) 총리가 취임하면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동독 공산당과 비밀경찰인 슈타지(Stasi)의 해체 그리고 자유총선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다. 11월 17일 모드로우 총리는 조약공동체의 체결을 통한 동서독 통일방안을 제시했다. 11월 28일 서독의 콜 총리는, 10개 항목의 통독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3단계로, 동독의 자유총선, 통독 공동위원회 및 공동입법기구의 설치, 통일국가로 가는 과정이었다.

1990년 3월에는 동독에서 자유총선이 실시되었고, 1:1 화폐통합을 주장했던 우파 정당들이 승리했고, 연립정권이 탄생했다. 공산당의 후신이었던 민사당은 제3당이 되었다.

55) 이동기, "1989/90년 독일통일," p.170.

독일통일 문제를 논의한 제2차 동서독 정상회담 이후 화폐통합의 방식을 둘러싸고 서독 내부에서 논쟁이 전개되었지만, 1990년 3월 동독총선 이후 1:1 화폐통합은 돌이킬 수 없는 정책이 되었던 것처럼 보인다. 결국 5월 18일 ‘화폐, 경제, 사회 통합조약’이 서명되어 임금과 연금에 대해서는 동서독 1:1 화폐통합이 확정되었다. 결국 7월 동독 마르크를 폐지하고 서독 마르크를 공동통화로 하는 화폐통합이 단행되었고, 동독이 시장경제로 이행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었다. 1990년 7월에는 통독을 위한 총선이 합의되었다. 1990년 8월 동독의회는, 동독을 서독에 편입할 것을 결의했고, 8월말에는 동서독 통일조약이 체결되었다. 결국, 1990년 10월 3일 서독 기본법 23조에 따라 동독이 서독에 편입되는 형태로 독일통일이 이루어졌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전후로 하여 동서독은 통일과정에 진입하게 되면서 미래의 경로를 결정할 ‘두 변수’가 작동하게 되었다. 하나는, 서독의 대동독 정책이었다. 서독정부와 시민사회는 통일독일이 주변국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음을 설득해야 했다. 통일외교는 통일정책의 주요한 구성요소였다. 다른 하나는, 동독주민의 요구였다. 동독주민은 점진적 통일인가, 아니면 급진적 통일인가를 선택할 수 있었다. 동독의 내부 개혁을 수행한 후 통일과정에 진입하는 길과 무조건적인 통일로 가는 길, 두 길이 경쟁하고 있었다. 즉 동독주민의 ‘길거리 정치’가 핵심 변수 가운데 하나였다.⁵⁶⁾ 이 두 변수를 활용하여 1989/90년의 통일국면에서 시나리오 로드맵을 재구성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1> 1989/90년의 국면에서의 시나리오 로드맵

구 분		서독정부의 정책	
		평화공존정책	통일정책
동독주민의 선택	점진적 통일	(1)	(2)
	급진적 통일	(3)	(4)

동독지역의 재건을 위한 ‘전략적 계획’이 부재한 상황에서, 독일은 급격한 통일과정에

56) 구춘권, “독일 통일의 정치경제와 한반도 통일,” 독일통일의 정치, 2010년 10월 학술회의 발표문.

진입하게 되었다. 서독정부의 통일정책과 동독주민의 급진적 통일요구가 맞물린 결과, 동독이 서독에 편입되는 형태로 통일이 되어 <표 5-1>의 (4)의 길이 선택된 것이다. 1:1 화폐통합과, '선 반환 후 보상' 원칙에 기초한 소유권 회복, 신탁관리청의 매각 일변도의 사유화 과정은, 동독지역의 경제를 피폐화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⁵⁷⁾ 예측 가능했던 급진적 통일의 부정적 효과였다. 독일통일에 대한 평가는, 결국 누구의 시각에서, 어떤 정치사회세력의 시각에서 통일을 볼 것인가라는 중요함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다.

2. 동서독의 방송통신 교류협력

1969년에 서독 정부가 동독의 각종 매체 유입을 허가하기 시작한다는 공표를 하면서부터 동독과 서독은 교류협력관계를 구축하기에 이른 것이다. 독일이 통일에 이르기까지 방송 교류협력 단계는 시기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2> 독일 방송통신부문의 통일 단계

구분	주요 내용
수신제한시기 (1945~19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서독이 각각 1952년 처음으로 텔레비전을 방영하기 시작한 이래로 초기에는 철저하게 통제정책을 실시함 - 각국의 국민들 간에 서로의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 - 1969년 서독의 경제약화로 동서독의 관계는 점차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됨
암묵적 허용시기 (1971~19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독에서는 서독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시청을 암묵적으로 허용했으나 공식적으로는 시청에 대한 엄격한 반응을 함 - EBU, OIRT라는 동, 서유럽 방송공동체를 통한 간접적인 방송교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짐
수신개방 및 통합 (1980~19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독의 프로그램이 동독의 케이블망에 연결되어 대부분의 정보물이 주민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게 됨 - 1990년에 동서독 사이에 독일통일조약이 성립되면서 방송부분 역시 통합됨

57) 송태수, “독일 경제통합의 과정과 효과: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독일통일의 정치, 2010년 10월 학술회의 발표문; “통독 과정에서 신탁청에 의한 사유화 정책과 그 대안,” 한국정치학회보

① 방송 수신 제한 시기(1945년 ~ 1970년)

동독에서 1950년대에 폭발적으로 텔레비전 수신기가 증가하자 국민들은 동독 텔레비전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서독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이후 동독에서는 서독의 방송 프로그램 수신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기 시작하였고, 서독의 방송 프로그램을 통하여 국가질서에 저해하는 자는 법으로 엄격하게 다스릴 것이라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서독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한 통제가 심화되자 국민들의 불만은 증폭되어 갔으며, 이후 1969년 브란트 수상이 취임하면서 동서독간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② 암묵적 허용시기(1971년 ~ 1980년)

1972년에는 동서독 간의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졌는데, 이를 통해 “독일 민족에게 두 개의 국가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방송에 있어서도 동독에서 서독의 방송 시청을 암묵적으로 허용하게 되었다. 1973년에는 동독의 공산당이 “누구든지 기호에 따라 서독의 텔레비전을 켜거나 끌 수가 있다”고 언급하여 텔레비전 시청의 자유를 허락하였으나, 이는 서독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 직접적인 의미에서의 허용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서진영이 구성한 방송공동체 EBU⁵⁸⁾와 OIRT⁵⁹⁾을 통하여 1970년 이후에는 간접적으로 방송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③ 수신개방 및 통합시기(1980년 ~ 1990년)

1980년대에 이르러서 서독의 방송 프로그램이 동독의 케이블망에 연결되어서 동독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동서독의 통일문제와 정치,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뉴스에 대한 시청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집계된 바가 있다. 1987년에는 서독의 공영방송에서 가장 큰 방송사인 ARD와 동독의 국영방송인 DDR-TV 사이에 방송 협정이 체결됨으로서 사실상의 방송 통일 협정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 서비스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동서독 국민들 사이에 교류가 확대되었고 서로의 차

58) EBU: European Broadcasting Union

59) OIRT: Organization International Radiodiffision et Television)

이를 인식하고 화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제 2 절 동서독의 통일관련 방송 내역⁶⁰⁾

1. 서독의 통일관련 TV 방송 프로그램

서독의 방송매체와 언론인들은 통일 이전에 다양한 정보프로그램 및 토론, 뉴스 등을 통해 동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폭넓게 종합적으로 보도하였다. 1989년 헝가리 서부 국경 개방 현장을 서독 방송이 동독으로 생중계 보도는 동독주민의 탈출을 재촉하는 촉매제 역할을 했고, 동독 집권당이었던 사통당(SED) 정권이 붕괴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경이 열리기 전 서독 TV는 동독주민들에게는 '세계의 창'에 비유되었고, 서독 언론인들은 이와 같은 역할을 잘 인지하고 있었다.

먼저 독일 제1공영 TV방송국인 ARD(아-에르-데, 1번 채널⁶¹⁾)에 대해서 살펴보면, 1961년 8월 베를린 장벽 건설 사건은 서독 TV의 통일방송 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베를린 봉쇄에 직면해 정치권과 사회단체로부터 통일관련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요구 받았던 ARD는 그 방안들을 논의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1961년 9월부터 국경지대의 송출시설을 이용해 동독의 야간노동자를 대상으로 전일 ARD의 저녁시간 프로그램 가운데 뉴스, 스포츠, 오락물들을 선별해 편성하여 오전 방송을 시작했다.

1972년 12월 12일에 체결된 동서독 기본화해조약으로 동독은 서독에 의해 국가로 인정받게 되었고, 이것이 서독의 통일방송정책에 커다란 전환점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동독지역 보도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공영방송사 가운데 하나인 WDR의 von Bismarck 사

60) 박주연, 분단 저널리즘 해외사례: 독일, 관훈클럽(2011) 자료 및 이우승, 독일 통일과 언론의 역할, 1999 등의 내용을 기반으로 재편집

61) ARD의 발음을 잘못하게 되면, 유선방송국 "Arte (아르테)"와 혼동하게 되며, 대다수 독일인들은 ARD를 "Die Erste (디 에어스테: 1번 채널)"로 칭함

장은 74년에 민족의식이 공영방송국의 통일지향적 방송임무를 수행하는데 새로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문제제기를 통해 통일방송의 새로운 방향설정을 제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분단이 고착화된 시점에서는 국민들의 의식 속에 존재하는 문화민족의식을 강조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위해 독일민족의 역사와 역사의 공유성을 인식시키고 이것을 통일 관련 프로그램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종전까지의 TV 프로그램에 분단문제를 반영하는 것이 통일이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졌다면 이제 동독이 주권국가로 인정된 다음부터는 문화민족이라는 개념을 부각시켜 최소한 양 국민의 이질감이 심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하나의 민족이 두 개의 독립 국가로 나누어진 분단 상황이 공영방송에게 부여하는 시대적 의무를 1945년 전까지의 독일의 공통된 역사를 독일 국민 각자의 의식 속에 살아 숨 쉬게 하고 양 국가에서 이러한 공통된 역사가 어떻게 다르게 해석되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에 관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데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von Bismarck의 통일방송관은 90년 독일 통일 때 까지 ARD 방송사의 통일방송 정책에서 일관되게 반영되어 왔다. 82년 ARD의 프로그램 국장인Dietrich Schwarzkopf는 TV에서 방송되는 역사가 동서독 국민들의 정신적인 공동체 의식을 조성한다면서 독일문화와 역사를 소재로 한 프로그램 제작을 통해 끊임없이 국민들의 관심을 환기시킬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독일 제2공영 TV방송국인 ZDF(첸테에프, 2번 채널)⁶²⁾는 1965년에 동독정보를 서독인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상호이해를 추구한다는 목적으로 매거진 프로그램 ‘건너편’(Drüben)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송하기 시작했다. 내용면에서 ARD의 ‘Rote Optik’이 동독 방송의 프로파간다에 맞대응하는 성격을 보였다면 ‘건너편’은 서독인들이 갖는 동독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고 동독사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출발했다.

‘건너편’(Drüben)은 ‘주제’, ‘건너편에서 바라볼 때’, ‘발췌’(동독TV프로그램을 편집해

62) ZDF(첸테에프)는 Die Zweite(디 츠바이테) 2번 채널이라고 불림

제작한 것), “당신은 소련군 점령지역에 관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와 같은 코너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이 코너에서는 설문조사 결과와 동독의 실제 사회와 비교해 그 차이점을 보여줌으로써 서독인들이 동독에 대해 갖는 오해와 선입관을 개선시키려는 의도에서 제작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프로그램은 60년대 중반의 정치 및 통일관을 대변하면서 서독인을 대상으로 한 정치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선구자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건너편’(Drüben)이라는 보도프로그램과 함께 그 후속 프로그램인 ‘표식 D’(Kennzeichen)은 대표적인 통일 및 동독 관련된 프로그램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 프로그램들은 처음에는 통일관련 방송 의무 구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제작되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분단된 독일의 현실의 객관적 자료를 제공하면서 동독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동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에서 탈피하는데 기여한 프로그램 이었다.

1972년 동독과의 기본화해조약이 체결된 이후 동독은 독립 국가로서 인정받게 되었다. 이후 서독 공영방송국은 독일분단이 합법화된 상황에서의 체제경쟁은 양 독일 국민의 이질감만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관점에서 문화민족 개념을 강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작 방향을 전환했다. 즉 국가는 유한하지만 민족은 영원하다는 시각에서 독일역사에 관한, 특히 동독지역에 바탕을 두었던 독일 역사에 대한 다큐멘터리와 극화를 제작하거나 동독 공산당이 독일 역사를 서독과 어떻게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방송함으로써 독일역사가 양 국민의 의식 속에서 살아 숨 쉬게 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통일관련 정책은 1989년 동독혁명까지 변치 않고 일관되게 진행돼 왔음을 알 수 있다.

2. 동독의 통일관련 TV 방송 프로그램

동독은 1960년부터 대서독 비방 프로그램인 흑색채널(Schwazkanal)방송을 시작하였다. 1971년 SED의 제8차 전당대회는 동독 TV프로그램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SED서 기장으로 선출된 호네커는 전당대회에서 동독TV프로그램을 ‘지루’하다고 비난하면서

자체TV에 오락성 향상 프로그램을 촉구하였다. 그 당시 서독 TV시청을 금지하였던 중전의 대서독 방송정책을 폐지하고 “동독 국민들은 자유의지에 따라 TV채널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선언함으로써 동독 국민들의 서독 TV시청을 허용하였다.

1980년대 동독의 방송정책은 서독방송들과의 경쟁에 역점을 두었다. 서독방송의 전과월경과 동독인들의 호응은 동독체제에 위협적인 요소로 다가왔다. 이러한 위기감이 프로그램에 반영되어 경쟁 중심적 제작 및 편성의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다.

동독의 방송프로그램에서 드라마와 오락 부문을 살펴보면, 제1TV 프로그램 내에서 가장 많은 방송시간을 차지하였던 드라마는 동독인들의 오락 욕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제1TV가 방송하였던 영화 및 TV드라마, 시리즈물에는 서독이 제작하였거나 참여하였던 드라마가 일부 차지하였다. 해외에서 수입된 영화, TV드라마들의 대다수는 구조권을 비롯하여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제작된 것들이었다.

1980년대 들어와서 악화된 동독 경제 사정상 외국 프로그램을 수입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나치 하에서 제작된 오락 영화를 방송하는 경우가 많았다. 동독TV는 1년에 약 500편의 국내 및 해외에서 제작된 영화를 방송하였다.

오락 프로그램 가운데 쇼, 무용 및 퀴즈, 대담 프로그램들은 높은 시청률을 보였다. 이들 프로그램들은 서독TV에서와 마찬가지로 주요시간대에 방송되었다. 이들 프로그램들은 동독의 유명 연예인들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진행방식과 형태 등이 전체적으로 서독 프로그램과 유사하게 구성되었다.

다음으로 뉴스정보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시사뉴스(Aktuelle Kamera)와 정보 프로그램(다큐멘터리, 매거진 프로그램, 생활정보 프로그램)은 각각 제1TV, 제2TV 전체 방송시간의 14%를 차지하고 있었다. 시사 뉴스 프로그램은 국가행사를 선전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시청자의 관심을 끌 수 없었다. 매거진 프로그램의 정치 보도 형태도 프로파간다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제1TV가 월요일 21시 25분부터 20분간 방송하는 흑색채널(Schwarzer Kanal)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1960년부터 방송되기 시작한 흑색채널은 월요일에 방송되었고 제1채널, 제2채널에서 재방송되었다. 흑색채널은 동독인들이 서독 사회에 대해 갖는 동경심의 허구성을 밝히

면서 동독인들이 서독 TV를 시청함으로써 발생하는 정치 사회적인 부정적 영향을 중화시키려는 의도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진행자인 Schnitzler는 서독 부호 출신으로 2차대전후 서독방송사에서 종사하다 동독으로 이주한 경력을 가진 인물로 주로 대서독 흑색선전 프로그램을 제작, 진행함으로써 동독TV의 정치 프로파간다의 대명사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이 프로그램에서 서독을 비판하면서 자본주의 몰락과 호전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일방적인 흑색선전은 교묘한 진행 방법을 통해 마치 동독 사회주의당의 노선과는 무관한 동독인 전체의 의견인 것 같은 인상을 시청자들이 갖도록 제작되었다.

1980년 이래로 동독 TV방송사는 주요 방송 시간대에 흥미 위주의 오락 프로그램 방송을 강화한다는 기조로 프로그램을 개편해 왔다. 이러한 동독 TV방송사의 프로그램 개편은 1978년에 서독의 ARD와 ZDF가 단행한 프로그램 개편 내용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써 1982년 말 이래로 동서독의 TV에서 20시부터는 오락 프로그램이 방송을 지배하는 방송문화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프로그램 편성은 1983년 제 1TV 프로그램은 주 평균 약 92시간 방송하였으며 제2TV 프로그램은 58시간 방송하였다. 제1TV, 제2TV는 상호보완적으로 편성되었고 대평 쇼프로그램과 같은 오락 프로그램과 스포츠 중계는 주말에 편성되었다. 정보 프로그램은 주로 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교육 프로그램은 주로 제2TV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방송되었다.

제 3 절 통일 동서독의 시사점 분석

동독은 1960년부터 대서독 비방 프로그램인 흑색채널(Schwazkanal)방송을 시작하였고, 당시 서독은 동독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하면서 서독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계몽차원의 프로그램에 주력하였다.

동서독 관계에서 큰 전환점을 가져온 것은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체결이다. 서독 사민당(SPD)의 빌리 브란트(Willy Brandt)총리는 동독을 사실상 국가로 인정하였고, 정치 및 경제, 그리고 사회와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교류 및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1945년~1970년대는 동서독이 수신제한시기였으며, 특히 1950년대에 폭발적으로 텔레비전 수신기가 증가하자 동독에서는 방송 프로그램 수신을 엄격히 통제하기 시작했고, 1971년부터는 침묵의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1980년 이루는 관용적 국면으로 평가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동독정권은 서독의 라디오나 텔레비전 수신을 금지하는데 실패하였고, 침묵과 묵인 속에 동독주민들은 서독 방송 프로그램을 수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1980년대 이후에는 서독 방송매체 수신행위가 동독에서 엄격하게 처벌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일 전 독일의 상황이 남북한의 현실에 그대로 적용되기는 힘들다. 우선 남한과 북한의 TV 전파 송출 방식이 전혀 다르고, 주파수를 사실상 고정시킨 라디오를 보급하는 북한을 상대로 온전한 형태의 교류는 매우 어렵다. 1989년 동구권이 붕괴됐을 때 북한의 관영매체들은 사실 보도는 외면하고 김정일에게 보내는 '충성의 편지 이어달리기' 행사를 보도했다. 북한에 언론다운 언론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동서독의 모델을 북한에 적용할 수 없다. 통일에 관련되어 독일의 사례와 국내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독일은 베를린이라는 정치적 통풍구도 있었고 우편 교환과 방송 청취도 가능했던 데 비해 상대적으로 남북한의 상호 상대에 대한 이해의 결여는 통일과정에서 큰 장애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독일통일 과정에서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수신하는 데 큰 장애가 존재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서독의 방송미디어는 동독 주민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서독의 라디오와 텔레비전은 동서독의 현실과 사회, 문화를 소통하게 하였고, 동서독에 있는 독일민족의 이질성을 극복하녀 독일통일을 촉진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된다.

독일에서 방송이 영향을 준 사회통합적인 측면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독일의 방송 프로그램을 분석해 보면, 서독주민이 동독을 이해시키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제작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사회문화적 통합을 견인하는 기능을 하였다

고 보인다. 즉 남북 양측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상호 사회체제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 상호교류를 통해 공통분모를 만들어내는 것이 통일을 준비하는 방송의 중요한 자세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강조할 것은 남북한 방송사 간의 협력은 방송체제와 운영방식, 내용이나 제작자 의식면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 먼저 차이보다 공통적인 관심과 필요가 있는 분야를 파악하고 관련분야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방송 프로그램을 통한 다양한 측면에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제공되어 사회·문화적 이해와 공동의식 형성에 기본적인 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동서독 통일 이전에 서독의 대표적인 통일 및 동독 관련 프로그램은 제2공영방송 ZDF에서 방송을 시작한 '건너편'(Drüben)이라는 보도프로그램과 함께 그 후속 프로그램인 '표식 D' (Kennzeichnen)라고 볼 수 있다. 이 프로그램들은 처음에는 통일관련 방송 의무 구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제작되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분단된 독일의 현실의 객관적 자료를 제공하면서 동독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동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에서 탈피하는데 기여한 프로그램 이었다.

보도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통일에 대한 방송의 역할은 의식적으로 통일을 다루지 않았다는 것이 강조될 수 있다. 즉 서독방송의 동독에 관한 보도는 양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특별히 취급되지 않고 여타 나라와 같은 뉴스가치에 의해 판단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브란트의 동방정책 이후 동독과의 분단 상황을 수용하고 동독을 한 국가로서 인정한 사회 전체의 의식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통일에 대한 과잉반응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통일언론이라는 것은 개념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서독언론에 있을 수가 없었다. 따라서 독일 통일에 서독언론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보다는 간접적으로 통일의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서독방송은 통일에 대한 의식보다는 보다 가까운 이웃나라로서 평화롭게 같이 살아야 할 관계로서의 동독을 상정했다고 보여진다.

지금에 와서 평가해 볼 때 당시 서독방송의 통일에 대한 중요한 기여는 한 사회에서 언론이 가진 본연의 기능으로서 환경감시와 논평이나 해설을 통한 사회적 상관관계 조

절 등을 통해 서독 사회가 자유민주적인 복지사회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를 통해 동독인들이 바람직한 사회인 서독과 통일을 해야겠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즉 동서독 통일을 의식하지 않고 원칙적이고 사회적 책임감이 강한 언론의 정도를 밟아온 것이 역설적으로 통일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다.

지금 북한은 과거의 동독보다 훨씬 낙후한 환경에 처해 있다. 남북간에 서로가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속속들이 내부사정을 많이 알아야 하고, 쉽게 포기하지 말고 인내를 가진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한 상황에서 서로의 신뢰도 조금씩 구축되어 나간다고 본다. 남북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극단적인 방법보다는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제 6 장 남북한 방송통신 교류 현황

제 1 절 남북한 방송교류 현황

1. 남북 정상회담 이전의 교류 현황

남북 방송교류에 관한 논의는 지금까지 방송의 통일지향적 역할이라는 범주 속에서 진행되어왔다. 이러한 교류의 대표적인 방안으로 남북한 방송개방이 제시되었고, 이것이 한반도 통일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방송교류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1957년에 '북한 전국기자대회 준비위원회'가 '남한 언론인'을 초청한 데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⁶³⁾ 이후 간헐적으로 또 끊임없이 남한과 북한이 언론교류를 제의하였지만 성사된 적은 없었고 대부분 통일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말았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정치적 접근없이 언론교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남북한이 방송교류를 한다는 그 자체가 신뢰회복과 동질감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송교류는 1998년부터 첫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시기를 개척기라고 한다면, 그 이후 지금까지를 남북교류 진입기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개척기에 남북 방송교류 현황부터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1998년 남한 정부는 북한영상물의 국내 반입을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하고 1999년에는 북한 위성TV의 시청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 같은 조치와 사회분위기의 영향으로 남한의 방송사들은 북한이 제작한 영상물을 중개업자 등을 통해 구매하여 방송하기 시작하였다. SBS가 1998년 9월 최초로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를 방송했으며, KBS는 같은 해 10월 『립격정』을, MBC는 1999년 1월 『온달전』 등을 방송했다. 당시 방송

63) 이정춘(1996), 이주철(2001) 등

사들은 북한에서 제작한 영상물에 깊은 관심을 보였으나, 비용문제와 저작권 분쟁 우려 등으로 인해 소극적인 태도로 바뀌었다.

북한 관련 취재 프로그램도 방송되었다. MBC의 '압록강에서 만난 사람들', KBS의 '북녘산하기행', SBS의 '김승규의 평양리포트'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들 프로그램은 중개업자 등으로부터 촬영 테이프를 구매해 편집·방송한 것으로 방송사의 방북을 통한 직접 취재·제작이 아니었다. 이 시기 중앙일보의 문화유산답사에 이어 세계일보, 경향신문, 동아일보, 한겨레 등이 각종 사업을 명목으로 방북 취재활동을 벌였다.

실질적인 남북 방송교류는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진행되었으며, 당시 교류는 나름대로 한계가 있었는데, 그것은 언론 방송사간의 직접교류 형식이 아니었다. 대부분이 남북 중개업자와 북측의 대남협력기구인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사이에 이뤄진 영상물 수입, 북한 취재 성사 등이었으나 극히 제한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남한 언론사가 직접교류의 주체로 나선 것은 정상회담 전까지 MBC와 중앙일보사에 불과했다. 이 과정에서도 남북 방송사가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접촉하거나 협력하는 형태가 아니라 북한당국으로부터 취재허가와 제작 안내인력을 지원받는 수준에 불과했으며, 때로는 수입된 북한 영상물을 방송하거나 북한을 취재한 언론사의 영상물을 국내에 소개하는 식으로 국내 방송사가 교류에 참여해왔다.

북한 영상물은 방송사가 직접 수입한 것이 아니라 제작분야와 마찬가지로 중개업자가 확보한 방영권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방송되었다. 마지막으로 방송교류가 진행된 영역이 북한에서 개최된 문화행사를 중계 방송하는 것이다. 일례로 평양에서 개최된 대중음악, 고전음악 합동공연을 녹화 중계 한 바 있다.

첫째, 영상물 교류 내역을 살펴보면, '국민의 정부' 출범 후 소위 "햇볕정책"에 의해 남북한 교류에도 큰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이전까지도 북한농산물, 휴 등의 물품이 반입되어 유통되었지만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큰 힘이 되는 문화교류가 시작되는 기초가 마련될 수 있었던 것이다. 통일부는 1998년 5월 1일부터 남북교류 협력법의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북한 영상물의 국내 반입을 사안에 따라 허가하고 상업적 활용을 배제한 활용을 허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TV방송이 가능해져 이전부터 또는 이 시점부터

북한 영상물의 수입을 추진하던 수많은 업체와 단체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2000년 6월 정상회담 전까지 유화적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일련의 북한방송의 개방을 위한 전 단계 조치를 취했다. 예를 들면, 국가정보원은 25분 분량의 TV드라마 북방의 겨울을 방송국에 제공했고, 통일부는 1998년 6월 1일부터 북한 텔레비전 방송을 직접 수신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정부에서는 1998년 6월 13일 남북교역 활성화조치에 따라서 북한의 도서, 음반, 비디오 등을 남북교역 대상물품으로 고시함에 따라 남북문화교류는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당시 정부는 SBS에게는 '안중근-이동박문을 쏘다'를, KSB에게는 '임꺽정'을, 그리고 MBC에게는 '온달전'을 방영하도록 전향적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정리해 보면, 당시 국내 방송사가 방송한 북한 영상물은 '안중근, 이동박문을 쏘다', '온달전', '특선 북한 서커스', '임꺽정' 등이었다.

당시 언론교류는 제대로 성사되지 못했다고 본다.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PD연합회 등 언론 3단체는 1991년에 '남북언론인 교류추진협의회'를 발족시켰으나 언론교류 시도는 무산되었고, 1995년 남북언론인회담을 제의했으나 그 역시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 해 언론 3단체는 평화통일과 남북화해, 협력을 위한 보도준칙을 제정하였으나 그 역시 선언적 입장에 머물고 말았으며, 언론사는 북한지역 취재를 추진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둘째, 제작협력 분야의 교류내역을 살펴본다. 남북교류협력법이 제정된 이래 1997년까지 순수하게 취재 및 촬영을 위한 방북은 사례가 없었으나, 1998년에는 스포츠 아트가 최초로 영상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하여 방북 한 바가 있었다.

주요 언론사들의 방북이 이루어지면서 그 과정에서 촬영된 영상물들이 남한 방문자들의 손에 의해 직접 제작될 수 있었다. 그러나 1999년 들어서 분위기는 일변하여 정상회담 전까지 제작 분야의 협력은 미진했다고 볼 수 있었다. 다만 방송사를 비롯한 여러 업체에서 명분과 희귀성이라는 상업성에 매료되어 꾸준히 사업을 추진하였었다.

현재와 마찬가지로 당시에 방송, 영화, 음악 등 제작협력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을 담당하는 기관은 한국의 통일부와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이하 아태평화위원회)라 할 수 있다. 북한과의 사업을 추진하는 국내 업체는 먼저 통일부에 북한주민 접촉승인을 받아 북한측 통로와 협상을 해야 한다.

북한의 가장 확실한 통로는 '아태평화위원회'이다. '아태평화위원회'와 합의가 되어 합의를 작성하고 북한 내각문화성의 확인서가 첨부되면, 통일부는 그 서류가 북한의 의사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협력사업 승인신청을 접수하고 승인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이었다. 이 때 통일부, 국정원 그리고 문화 분야는 문화관광부와 협의를 거쳐 사업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북한과의 정식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계약서는 아태평화위원회가 아닌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관장하는 북한기관과 체결하게 된다. 음악의 경우라면 평양예술단, 영화의 경우 조선대외영화합작사나 조선영화수출입사 등이 주체가 될 것이다.

이 당시 북한방문을 신청한 신청자는 신문사나 방송사인 경우가 많았다. 1997년 5월 합작제작을 위해 처음으로 방북을 신청한 사람은 심현우(현 방송제작인협회 회장)로,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 및 방송교류를 협의하고자 방문을 신청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이어 8월 18일에는 유홍렬(MBC 이사) 등 2명이 금강산 촬영 등 TV프로그램 제작을 협의하고 현지답사를 하기 위해 방북을 신청하여 10월 25일에서 11월 1일에 걸쳐 영상물 제작과 관련한 첫 방문을 이루었다. 이들은 평양과 묘향산을 방문하였다. 뒤이어 다음달인 9월2일에는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장인 권영조 등 5명이 문화유적답사를 협의하고 현지답사를 하기 위한 방북을 승인받았다.

이후 1998년까지 권영조, 김승규(스포츠아트 대표), 홍석현(중앙일보 회장) 등의 방북 신청이 받아들여져 총 7건이 승인 받았다. 이들은 주로 평양과 개성, 금강산, 백두산, 구월산 등의 관광지를 방문하여 북한의 유적이거나 유물을 답사하였고, 방송영상물을 제작하고 문화교류를 협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1999년 1월 23일에 김승규(스포츠아트 대표) 등 3명이 북한의 역사유물 및 풍물기행 관련 방송영상물을 제작하기 위해 낸 신청은 성사되지 않았다.

남북정상회담이 방송교류에 미친 영향 가운데 우선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김정

일의 초창에 의한 남한 언론사장단의 방북일 것이다. 이는 동서독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사건으로 경제협력과 긴장완화를 위해서는 남측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북한 당국자가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언론사장단 방북에서 성사된 합의사항 가운데에는 언론과 언론인 교류가 포함되어 있다. 긴장완화와 경제협력이 추진력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남북협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남북한 상호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언론교류가 반드시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고무적인 결과였다고 본다.

그러나 다소 아쉬운 점은 합의문이 구체적인 세부협력과 교류방안을 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소한의 교류가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라도 합의가 도출되었다면 좀 더 구체적인 교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방송교류는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질적인 변화를 맞게 되었다. 정상회담 기간 동안에 다수의 북한영상물이 소개되었다. 정상회담관련 보도에서도 협력이 진행되었는데, 특히 정상회담 이후에 진행된 각 분야에서의 남북 당국 간 회담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에서도 보도지원 형태의 협력이 있었다. 따라서 정상회담 이후에 진행된 방송교류는 영상물 교류보다는 제작 및 보도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제작 분야에서 이산가족 상봉기간인 2000년 8월 15일부터 17일 사이에 KBS가 총3부작으로 150분간 방송하였던 특별기획 '북녘땅, 고향은 지금'은 KBS가 기획을 담당하고, 조선중앙 TV가 제작하는 일종의 외주제작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종전의 협력수준을 뛰어넘어 남북 방송교류가 시작된 지 3년여 만에 외주제작 형태의 협력이었다는 점에서 남북 방송 교류사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다. 또한 9월 추석에는 KBS가 북한과 공동으로 남북한을 연결하는 공동 프로그램 '백두에서 한라까지'를 방송한 바 있다. 이 프로그램은 북한에서는 방송되지 않았지만 남북한 방송이 공동으로 제작하였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방송교류를 보여주었다고 볼 수 있다.

보도 분야에서는 방송 3사 가운데 SBS가 창사 10주년을 맞아 국내 방송사상 처음으로 평양에서 특별 생방송을 진행하였다. 단장, 취재기자 6명, 카메라기자 9명, 기획제작 중계 세트담당 미술팀 등 29명으로 구성된 특별취재단은 2000년 10월 9일과 10일에 김일

성 광장 주체탑 앞에 별도로 마련된 세트에스 'SBS 8시 뉴스'에 취재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2000년 10월 16일~18일까지 북측과 일정한 협의를 거쳐 신의주, 사리원, 개성 등 북한 곳곳을 찾아 주민들의 실생활을 취재하여 보도하려던 계획은 무산되고 말았다.

셋째, 남한의 대표적인 방송 3사가 북한과의 교류 현황을 살펴보면, 6공화국 들어와서 활발하게 시작한 북방정책에 힘입어서 KBS, MBC, SBS 방송 3사가 다양한 구상을 수립하였으며, 일부는 실행에 옮기기도 한 질적 변화의 시기였다. 다양해진 구상과 계획에 따라 교류추진, 조사연구 심화, 사내 현업 차원의 도상 준비 등이 시도되었으며, 3사가 개별적으로 추진하여 일정한 진척을 보인 사안도 있었다.

KBS는 국가기간방송이자 사회교육방송이라는 통일관련 전문매체를 확보하고 있는 KBS는 전담조직을 가장 먼저 설치하였으며 북측과 공식 비공식 접촉을 통해 교류를 모색하기도 하였다.

MBC와 SBS는 꾸준히 대북 교류를 펼쳐왔으나 KBS만큼 큰 성과는 발휘하지 못했다. 그러나 SBS의 경우 상업방송 특유의 판단력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드라마 "장길산" 현지 촬영 및 이벤트를 추진하는 등 간헐적인 시도를 하였다.

그리고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등 에서 각각 대북 교류제의를 하였고, 일부의 경우 1-2회의 접촉까지는 진행되었으나 구체적 결실에는 이르지 못한 상황이었다.

<표 6-1> 초창기(1989~1995) KBS 방송사의 대북 교류내역

일자	주제	내용
1989.1.9	통일문제 연구소 설치	7명의 인원으로 당시 고조되는 통일열기를 수렴하기 위해 설치. 북한문제연구와 프로그램 제작업무 담당
	남북한 방송정책 연구 소위원회 운영	편성운영국 내에 사내 실무진과 외부 학계 인사들로 구성된 연구위원회 구성. 남북한 간의 방송비교와 방송교류협력방안 연구
1992.1.29	남북방송협력국 설치	91년 12월 13일 발표된 남북기본 합의서 제 16조 실천을 위한 기구. 주요업무는 남북방송교류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사내 각 부서 북한관련 업무의 조정, 남북한 상황변화에 따른 단기 대책 수립, 남북한 방송교류 추진 실무접촉의 지휘 등임.
1992.7	남북방송교류협력 사업 추진	남북 미술교류전, 남북 교향악단 교환연주회 등 비정치성 문화예술분야의 남북교류를 금강산국제그룹을 접촉창구로 하여 추진
1992.5.15	북한방송 대표 인사 초청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위원장 정하철을 초청하는 서한을 간접경로를 통해 전달
1992.12	연구논문집 발간	한국방송학회와 공동으로 남북한의 방송교류협력 방안중 하나의 모델로서 독일식 연립주의적 방식의 교류방안 연구
1992.10.7	북방동포 대상 방송 20주년 기념세미나	“북방동포 방송 현황과 교류협력방안”을 주제로 국내외 방송인 초청 세미나 개최
1992.12	국제심포지움 후원	한국언론학회가 주최하는 한반도 통일과 언론의 역할에 관한 국제심포지움(홍콩) 후원
1992.6	남북방송 대책 기술 기획조정 회의	북한 내부 상황변화 및 남북 전파개방에 대비, 기술분야에서의 방송대책 마련을 위해 기존 기술본부에서 운영해 오던 기술전담반과의 업무조정
1992.5	남북방송교류협력 자문위원회 운영	유재천 위원장 등 12명 남북한 방송교류 대비 사내 주요 프로그램 목록 작성
	사회교육방송 강화	“분단을 뛰어넘는 방송”, “통일방송 강화” 등의 캐치프레이즈로 통일대비 방송 강화. 특히 공산권동포 대상사업은 큰 성과를 거두고 있음
1993.10	-한민족방송제전 매년 개최 및 “서울프라이즈” 운영	해외 한인 방송국들을 대상으로 시상. 95년 5월 한국어방송인대회로 변형

<표 6-2> 초창기(1989~1995) MBC 방송사의 대북 교류내역

일자	주제	내용
1992. 5 1994. 4	-남북협력담당 설치, 운영	KBS의 남북방송협력국과 동일한 업무 수행. 남북방송교류 분야와 프로그램 사업 등을 포함한 장기 기획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축적함. 객관적 북한지식의 사내 확산을 위해 93년 1월부터 14개월간 매월 “남북협력”을 발간하기도 함
1992. 8	-남북협력업무 연구자문위원 제 운용	이종인 문예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장 등 3명

2. 남북 정상회담 이후의 교류 현황

1972년 7·4 공동선언과 1992년 기본합의서의 정신에 바탕을 둔 2000년 6·15 공동선언은 방송교류와 통합의 대원칙을 마련하였다. 이 공동선언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조치가 정치, 경제, 군사 분야 등 다방면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특히 사회, 문화 분야의 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1) 문화예술·체육 분야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교류는 음악과 체육 분야에서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었다. 2000년 5월과 6월 북한 소년예술단과 평양교예단의 서울공연을 시작으로 2000년 8월 조선국립교향악단의 서울공연(KBS), 2002년 9월 KBS교향악단의 평양공연, 같은 해 9월 MBC의 이미자 평양공연, 2003년 8월 KBS의 평양노래자랑, 2005년 8월 SBS의 조용필 평양공연, 그리고 2002년 9월과 2005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에서 개최된 통일축구경기 등이 대표적인 것이다.

이 가운데 2002년 9월 평양봉화극장에서 열린 KBS교향악단과 조선국립교향악단의 합동연주회는 공연실황이 최초로 남북 전역에 동시 생중계됨으로써 다시 한 번 민족동질

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며칠 뒤 동평양 예술극장에서 열린 MBC의 『오! 필승코리아』가 북한 전역에 생중계 된 것도 공연내용이 요란하다고 느낄 수 있는 록밴드가 포함된 점을 감안할 때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 프로그램 제작 및 뉴스 생방송 분야

방송현업의 기자, PD, 기술인들이 추진해온 북한 현지취재·제작 및 생방송도 시작되었다. KBS는 2000년 9월 추석에 '백두에서 한라까지' 3원 생방송을 4시간 동안 진행하였다. SBS는 2000년 10월 8시 뉴스 시간대에 서울과 평양을 위성으로 연결, 북한소식을 전달했다. 2002년 9월에는 MBC가 뉴스데스크 시간에 평양소식을 생방송으로 보도했다. 방송 3사가 이 시기에 생방송을 진행할 수 있었던 점은 당시 정상회담으로 조성된 화해 협력 분위기를 잘 반영하고 있다.

방송 3사의 프로그램 및 뉴스 생방송 연결을 시작으로 2001년 KBS의 '백두고원을 가다', 2004년 MBC의 '개마고원' 등 자연다큐멘터리 제작이 이어졌으며 현재까지 주로 관광과 역사물, 경제협력현장, 개성공단 관련 프로그램 제작이 계속되고 있다. 장르면에서는 미흡한 점이 있으나 취재대상이 확대되고 취재영역도 평양 일원과 개성, 백두산 부근 등으로 확장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개성관광과 백두산관광이 시작되면 이 지역에 대한 취재활동도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에서의 취재·제작, 생방송에는 남한의 전문 인력과 장비는 물론 북한의 전문 인력과 장비도 상당수 투입되었다. 아직은 실질적 공동제작 단계에 이르지 못했으나 일정 부분 긴밀한 협력체계 아래 추진된 점은 앞으로의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부분이다.

3) 남북 방송인 토론회 및 프로그램 시사회

2003년 10월 한국 방송위원회와 북한 조선중앙방송위원회가 평양에서 개최한 남북 방송인 토론회 및 프로그램 전시회는 방송교류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된다. 토론회에서 약 200여명에 이르는 남북 방송인들은 제작 편성분야, 방송언어 및 기술분야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으며 남한과 북한에서 제작한 프로그램

램(텔레비전 편집물)에 대한 시사회를 가졌다. 시사회를 통해 남한은 북한 프로그램 66편을, 북한은 남한 프로그램 14편을 구매했다. 특히 EBS가 구매한 애니메이션 『영리한 너구리』는 정규편성을 통해 방송되었으며 일부 방송사들도 방송계획을 갖고 있다. 남북 방송인들은 이 토론회를 통해 자연스럽게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상호 관심사를 논의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4) 남북 방송프로그램 교류 및 공동제작

남북 방송교류를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어렵지만 간략히 그간의 남북방송교류의 의미와 특징을 정리하여 본다. 초기에는 남북 축구경기 등의 스포츠나 남북공동행사를 중계하는 등의 교류를 시작으로 전개되었는데 점차 북한지역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북한이 제작한 방송영상물을 구매하여 남한방송에 편성하는 식으로 전개되었다.

남북이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발전하면서 제작방식 역시 다양화되고 있는 느낌이다. KBS가 북한 조선중앙TV를 통해 외주형식으로 드라마 '사육신'을 제작 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것은, 흔히 <사육신>이 남북 방송 교류에 첫 공동제작의 의미는 있지만, 방송의 문화적 격차와 이질감을 고려하지 않고 '북한 스타일'로 일관함으로써 남북공동제작의 의미를 반감시킨 것은 짚고 넘어가야만 한다. 결과적으로 남한 시청자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물론 장기적으로 볼 때 남북 방송협작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사육신'의 시행착오가 오히려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으나 일반대중에게는 남북한 문화의 정서적 괴리감만을 확인시키는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지난 수년간의 방송교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전히 남북간에 핵문제 등의 첨예한 정치적 긴장상황으로 말미암아 남북간 이질적 문화를 해소하고 민족동질성 회복을 할 수 있는 문화적 프로그램의 제작 방영이 빈약하다는 점이 눈에 뜨인다.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의 성격은 대부분 일회적이고 감상적인 이벤트성 프로그램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지적한 것처럼 국내 방송사가 북한 공연물 위주의 단순 소개 프로그램 편성이나 자연다큐 구매 편성 정도에 계속 머무르고 있어 남북 상호간 문화적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선 남한시청자를 위해서라도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표 6-3> 남북 방송프로그램 교류 - 공동제작 목록(1)

연도	방송사	프로그램 제목	방송일
2000	MBC	<현미·남보원이 본 평양>	8.14
		<금강산을 달린다-금강산 캘리>	8.15
	KBS	<북녘 땅, 고향은 지금> (3부작)	8.15~17
		<남북교향악단 합동공연>	8.22
KBS	2000년 한민족특별기획 <백두에서 한라까지>	9.12	
2001	MBC	MBC 스페셜 <춘향, 평양가다>	2.16
	MBC	<여기자 북한방문기, 평양 10박 11일>	4.15
	MBC	노동절 행사 뉴스보도	5.1
	KBS	<여기는 평양입니다>	6.1~29(5회)
	KBS	일요스페셜 <남과 북이 함께 부르는 노래>	6.10
	KBS	보도특집 [1부] 은둔의 땅, 관광으로 빚장 연다	6.13
		보도특집 [2부] 대동강 벨리의 꿈	6.14
	KBS	자연 다큐멘터리 <백두고원을 가다>	8.14
	KBS	역사스페셜 <북의 10대 민족문화유산>	
		[1편] 고구려 평양성	10.06
		[2편] 묘향산 보현사	10.13
		[3편] 천 년 전 국제도시 개경	10.20
[4편] 고인돌 왕국-고조선		10.27	
[5편] 고구려 시조 동명왕릉		12.08	
[6편] 한반도 문명의 새벽, 검은 모루 구석기유적		12.15	
[7편] 7백년의 사랑, 공민왕릉		12.22	
[8편] 남북 역사학의 쟁점, 단군릉	12.29		

<표 6-4> 남북 방송프로그램 교류 - 공동제작 목록(2)

연도	방송사	프로그램 제목	방송일
2002	KBS	<제국의 아침> 백두산 현지제작 (2회분)	3.2~3
	MBC	2002 부산아시안게임 특집 <북한이 온다>	9.4
	KBS	<남북 통일축구 경기>	9.7
	KBS	평양공연 특별취재 <9시뉴스> 생방송	9.17~21
		민족의 명절 추석맞이 <남북교향악단 합동 연주회>	9.21
	MBC	평양 특별공연 <이미자 공연>, <윤도현 공연>	9.27 / 10.4
KBS	남북최초 공동답사 <세계문화유산 한반도의 고인돌>	11.9	
2003	KBS	<남북·해외학자 평양 통일회의>	4.10
	KBS	8.15특집 <평양노래자랑>	8.15
		보도특집 <남북경협현장을 가다-평양,남포 그리고 개성>	
	SBS	정주영 체육관 개장기념 <평화친선음악회>, <통일농구>	10.6~7
<평화친선음악회, 평양에서의 7일> <북한 농구단 서울체류기>		10.6	
2004	MBC	MBC스페셜 <북녘의 음식 기행> (2부작)	1.31 / 2.1
	MBC	특집 다큐멘터리 <살아오는 고구려>	6.24
	KBS	역사스페셜 <고구려는 살아있다>	7.10~11
[1편] 고구려 수도 평양 [2편] 고구려 벽화, 세계와 만나다			
2005	MBC	<MBC 뉴스데스크> 북한의 설 풍경	2.9
		PD수첩 <개성을 말하다>	2.15
	KBS	<금강산 열린음악회>	6.12
	MBC	<MBC 뉴스데스크> 미리 가 본 백두산 관광코스	8.15
SBS	<조용필 평양 단독 콘서트>	8.23 공연	

남북한의 문화콘텐츠산업 교류협력 현황을 분석해 보면, 문화예술 교류협력 현황에서 남북정상회담 이전에는 총 10회의 공연이 있었으나 이후에는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교류가 중단되기도 하였으나, 개인차원의 공연이나 해외에서의 공연 및 전시활동은 꾸준히 계속돼 왔다. 지방단체들도 남북정상 회담을 기점으로 정부에 대북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다. 애니메이션 교류협력에서 북한은 현재의 남북경협차원에서 민간기업 간의 교류를 통해 애니메이션 제작의 활성화 모색 중이다. 최초의 남북합작 애니메이션

‘게으른 덩개’를 필두로 ‘뽀롱뽀롱 뽀로로’, ‘황후 심청’ 등이 제작되었다. 영화 및 영상물 교류협력에서 많은 영화인과 영화제작사들이 임꺽정, 장길산, 아리랑, 명성황후, 월광무 등 민족적인 소재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남북 영화합작을 구상해 왔으나 수십 건의 접촉신청 중에 성사된 것은 서너 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방송교류에서 전두환 정권 시기 이후의 남한 정부는 적극성과 방법의 차이는 있었지만 북한방송의 개방에 대한 정책을 수립해 왔다. 노태우 정권 시기에는 남북한이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하고, 정부는 각종 남북교류 관련 입법을 추진한 시기로서 남북방송교류의 기본 틀을 마련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김영삼 정권의 출범이후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을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김대중 정권에서는 100대 과제를 발표하면서 ‘북한방송개방’과 ‘남북 언론교류’를 공표하였으며, 북한 위성TV방송의 국내시청이 허용되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은 남북방송교류 및 실제적 방송교류의 물꼬를 트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남북한의 문화콘텐츠산업 교류협력 활성화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남북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으로 문화예술부문에 중점을 두어 남북간 교류·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5가지 중요한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정·문(政·文) 분리를 통한 안정적으로 추진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교류·협력사업 관련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셋째, 정부·민간부문 간 역할분담 및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남북협력기금 할당제를 실시해야 한다. 다섯째, 사업 성사에 대한 사후 보장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남북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세부 추진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 문화콘텐츠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북한문화콘텐츠산업과 문화자원 실태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남북 문화콘텐츠와 관련하여 학술, 인력, 기술 교류의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넷째, 남북 콘텐츠 교류 증진을 꾀하고 북한콘텐츠 전시회 개최를 추진한다. 다섯째, 남북 문화콘텐츠의 공동제작사업을 추진하고 교류협력 환경을 조성한다. 여섯째, 남북문화콘텐츠산업 해외전시회에 공동으로 참가하고 공동으로 전시한다. 일곱째, 북한 문화콘텐츠 산업 클러스터(Cluster)를 조성한다.

제 2 절 남북한 통신교류 현황

1. 남북한 통신망 개설 현황

1971년 서울과 평양을 연결하는 남북직접자간 직통전화는 설치된 이후 현재까지 남북한 간에는 직·간접 형태로 전화가 설치되어 있었다.

<표 6-5> 남북간 직통전화 연결 내역

구 분	용 도	구 간	회선수	연결시기
남북대화	남북직접자간 직통전화	서울~평양	2	1971.9.22
	남북조절위원회	남북조절위원장간	1	1972.7.4
	남북회담지원용	서울~평양	18	1972.8.26
	남북경제회담용	서울~평양	1	1984.12.21
	판문점공동경비구역내 남북직통전화	남북직접자회담연락사무소간	2	1971.9.22
		남북연락사무소간	2	1992.5.18
	철도·도로 연결공사용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공사 상황실간	2	2002.9.24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공사 상황실간	2	2003.12.5
	남북 군당국간 직통전화	경의선남한출입사무소~종합 군사상황실 (경의선 6회선, 동해선 6회선)	12	2009.12.30
	서해상 무력충돌방지용 당국간 직통전화	경의선남한출입사무소~종합 군사상황실	3	2005.8.13
해사당국간 직통전화	통일부 교역과~육해운성	2	2005.8.12	
항공관제	남북한 관제통신망	대구~평양관제소(판문점경유)	2	1997.11.19
		대구~평양관제소(위성통신)	1	1998.2.17
개성 공업지구	개성공업지구 통신용	문산~개성공단	350	2005.12.28
			350	2007.5.29
			600	2009.11.7
합 계			1,350	

직접 연결된 전화는 남북당국 간 합의에 의해 설치한 것으로 개성공업지구 통신용, 남북 당국 간 연락업무 및 회담지원을 위해 이용했으며, 제3국을 경유하여 간접 연결된 전화는 금강산지역에서의 관광과 이산가족 상봉장 건설, 평양실내종합체육관 시설관리용으로 활용했었다.

남북 간에는 2009년 12월말 현재 총 1,350회선의 전화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남북대화용으로 47회선, 항공관제용으로 3회선, 개성공업지구 통신용으로 1,300회선이 있다. 2009년 12월말 현재 개성공업지구에는 총 1,300회선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705회선이 운용중이다.

남북한 간에 간접적인 방식으로 연결된 전화는 2009년 12월말 현재 금강산지역에 총 40회선과 이산가족 상봉장 건설용으로 10회선이 있다. KEDO 경수로사업용 10회선은 2006년 1월 8일에 사업 중단으로 해지됐으며, 개성공단관리위원회 회선(2003년 12월 개통)은 개성공단 직통 망으로 전환(2005년 12월)했다. 그리고 평양실내종합체육관 건설 및 시설관리과 금강산 관광과 관련하여 개통(2000년 11월 21일)된 3회선 중 2회선은 건설이 종료된 후 해지되었다.

<표 6-6> 남북간 전화 간접연결 현황

구분	용도	구간	회선수	연결시기
금강산	금강산 관광지원	남한~일본IDC~인텔셋~평양~원산~온정~장전	40	확인불가
	이산가족 상봉장 건설	남한~일본IDC~인텔셋~평양~원산~온정~장전	10	2005.9.30
합계			50	

※ 일본IDC(일본텔레콤IDC)는 2005년 2월에 소프트뱅크로 인수됨
 ※ 자료출처 : KT

남북한 간의 데이터통신망으로는 2005년 8월 15일부터 이산가족 상봉용으로 연결 운용한 광케이블망이 있으며, 이는 개성공단용으로 구축된 총 12코어의 광케이블 중 4개

회선을 이산가족 영상 상봉용으로 우선 사용한 것이다. 서울과 평양 간에는 155Mbps 용량의 광케이블망이 운용했었다.

남북한 간에는 2009년 말 현재까지 총 56코어 분량의 광케이블이 구축되어 있다. 개성공업지구 통신용으로 구축된 문산~개성 구간 중 남한구간에는 32코어가 구축되어 있고 북한구간에는 철도통신용 광관도 1개를 임차하여 12코어가 구축되어 있다. 당초 개성공업지구 통신용으로 구축된 12개 코어 중 4개 코어를 이산가족 영상 상봉을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하였다.

<표 6-7> 남북한 간 광케이블 구축 현황

용도	구간	코어수	연결시기
개성공업지구 통신	문산~개성 (MDL까지의 남한구간에 32코어, 북한구간 12코어, 철도통신용 광관도 1개 임차)	8	2005. 8. 15
경의선 철도통신	도라산역~개성역 (광관도 3개)	24	
동해선 철도통신	제진역~온정역 (광관도 3개)	24	

※ 자료출처 : KT

2. 분야별 통신망 구축 내역

1) KEDO 경수로 사업과 통신망 구축

한국통신(KT)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는 경수로사업에 통신을 지원하기 하고, 1997년 5월 KEDO와 협정서를 체결하고 이에 따라 KT는 경수로가 착공되는 함경남도 신포시 금호 지구에 교환기와 선로를 구축하여 동년 8월 남북 간의 전화회선 8회선(공중용 4회선, 업무용 4회선) 개통했다. 통신선로는 한전본사~KT 광화문 국제 관문국~부산 육양국~한일 간 해저 광케이블~일본 도쿄국제전신전화국(KDD)~인텔넷 통신위성~평양~신포 현장으로 연결했으며, 이후 2000년 7월 2회선, 2001년 5월 6회선이

추가되어 경수로 통신지원을 위한 전화회선 수는 총 16회선으로 증가했다.

2004년도에는 북핵문제 등으로 인한 북미관계 경색하여 경수로사업이 일시 중단되었으며 이에 따라 통신회선 수도 16회선에서 10회선으로 축소되었으며, 2005년 11월 개최된 KEDO 집행이사회에서 경수로사업 종료 방침이 결정되고 KEDO의 고위급대표단은 대북 경수로사업이 종료되는 방향으로 추진 중임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2006년 1월 KT는 모든 회선운용을 중단하였다.

2) 금강산 관광 지원 사업과 통신망 구축

현대 측과 북한의 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 간에 1998년 7월 6일 금강산관광을 위한 부속계약서 체결하였으며, 부속계약서에는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통신시설 제공 및 이용을 보장한다는 내용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1998년 10월 19일 현대전자산업(주)과 북한의 금강산국제관광총회사 간에 통신보장을 위한 합의서 체결했으며, 정부는 1998년 11월 12일 현대전자산업(주), KT, (주)온세통신이 공동으로 신청한 '금강산 관광을 위한 통신협력사업'의 1단계 사업을 승인했다.

금강산 관광용 통신망 연결 추진 내역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1998. 6 금강산 관광 사업 합의
- 1998. 8 금강산 관광 사업용 통신은 제3국(일본) 경유 국제자동전화방식으로 구성 협의
- 1998. 11 통일부 금강산통신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승인(1단계 사업): 현대전자, 한국통신, 온세통신 3사 공동 협력
- 1998. 11 관광선 최초 출항 및 관광지역과의 통신망 개통, 장전항 건설사업 업무용: 2회선, 관광선박과의 연결용: 4회선(선박 당 2회선)이며, 참고로 평양 전화 6회선을 관광지역에 접속 운용 중임
- 1999. 5 금강산관광 통신망 2회선 증설(총 8회선)
- 2000. 11 3개 회선을 평양실내종합체육관 건설 지원용으로 전환함

- 2003. 9 금강산관광 통신망 2회선 증설(총 7회선)
- 2006. 7 금강산관광 통신망 10회선 증설(총 17회선)
- 확인불가 금강산관광 통신망 42회선 증설(총 59회선)
- 2008. 1 금강산관광 통신망 10회선 증설(총 69회선)

금강산관광 지원용 통신망 연결은 순수 민간사업의 통신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즉, 기존에 연결되어왔던 통신망은 남북한 당국 간의 회담 지원용이나 경수로 사업건설용으로 통신망 구축 목적이 업무 지원에 중점을 두었으며, 금강산관광 지원용은 금강산 관광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지원 뿐 아니라 민간인 관광객을 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민간차원의 통신교류 협력에 대한 확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3) 평양실내종합체육관 건설 지원 사업과 통신망 구축

1998년 10월 평양에 실내종합체육관을 건립하기로 합의하고 1999년 9월 통일부의 사업승인을 받아 2000년 7월에 공사 착수했다. 공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민간차원의 평양~서울 간 통신망 구축의 필요성 대두되었으며, 통일부는 2000년 11월 20일 금강산관광을 위한 통신협력사업의 통신가능 지역을 금강산지역에서 금강산지역과 평양으로 변경하고 현대전자산업(주), KT, (주)은세통신이 금강산관광을 위해 설치한 간접 연결 전화 8개회선 중 3개 회선을 서울과 평양 간 전화로 운영하는 통신협력사업 변경 승인했다. 이로 인해 남북 간 민간차원에서는 최초로 서울과 평양 간 통화가 가능하게 되었고 전화 2회선 및 팩스 1회선을 포함 총 3회선이 평양실내종합체육관 건설에 사용하였다.

전화 및 팩스는 평양 보통강 인근 유경호텔 옆의 현대아산종합체육관 건설 현장과 남한 근로자 숙소인 문수리 초대소에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며, 평양 건설현장과 숙소 전화를 이용하면 남한 어느 곳으로나 통화가 가능하나 서울에서 전화할 경우 북한이 지정한 평양 시내 3개 전화번호로만 통화할 수 있었다.

4) 북한지역 통신망 구축 지원 사업

2002년 6월 정보통신부 및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관계자 3명, KT, SK텔레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시스콤 등 통신업계 관계자 5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된 남한과 북한 체신성 차관급 인사를 대표로 한 북한의 통신회담이 평양에서 개최되었으며, 회담 결과 남북은 평양·남포 일원에서 CDMA방식의 이동전화서비스와 국제전화 관문국 고도화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⁶⁴⁾

이후 서해교전으로 인해 협상이 중단되고 관련 업계의 지분배분 등 이해타산에 따른 입장 차이와 CDMA 기술의 대북 반출에 대해 미국이 부정적 입장을 보임에 따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2002년 9월 CDMA 원천기술 보유업체인 미국 쉐콤의 어윈 제이콥스 회장이 미 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CDMA 북한 진출의 희망이 보였으나 북한 핵문제로 인한 북미관계의 냉각으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5) 개성공단 통신망 구축 사업

한국토지공사가 2002년 7월에 KT와 함께 전화 2,000회선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개성공단 통신망 연결이전 민간사업용의 통신망은 모두 제3국을 통한 간접연결이고 27회선에 불과하였으나 개성공단 사업을 위한 통신망 연결은 남북한 직접연결로서 남북한 통신협력교류사상 최대의 민간 직접연결통신망 구축사업으로 평가되었다.

KT는 이미 2001년 11월에 남방한계선 이남까지 광케이블 매설을 완료하여 개성공단 통신망 구축을 위한 준비 완료했고, 2002년 12월 남북 당국 간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기본 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개성공업지구에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개성공단 착공식을 2002년 12월말에 예정되었으나 군사, 정치관계 악화로 지연되어 2003년 6월 30일에 개최됨에 따라 개성공단에 필요한 통신 인프라 건설도 본격적으로

64) 연합뉴스(2002년 6월 10일자)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개성공단의 통신공급을 위하여 KT와 조선체신회사 간 통신공급에 관한 합의서(2004년 12월) 및 개성공단 통신공급에 관한 부속 합의서(2005. 3) 체결되어 서비스제공을 위한 사업자간 합의가 이루어졌다.

개성공단지구의 통신망 구축은 남한의 기술 및 장비를 반입하여 설계와 시공을 하는 사업방식으로 추진하였으며, 개성과 판문점 간의 광전송로를 건설하고 지구 내에 통신센터 건립하여 1차적으로 입주기업들에 개성공단과 남한지역 간에 전용회선서비스, 유선 전화,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었다.

통신장비의 개성공단 반출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던 EAR과 관련하여 KT가 통신장비 반출에 대한 라이선스를 미상무부로 부터 승인받음으로써 통신서비스제공이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2005년 12월 개성공단~남한 간 350회선의 통신망이 개통되어 최초로 남북 간 민간용 직결연결이 실현되었으며 2009년 12월 현재 공단 내 기업 및 기관이 750회선을 사용하고 있다.

개성공단과 남한 간의 시설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증가에 따른 통신수요 증가로 적체 현상이 발생하여 2009년 11월 600회선을 증설하여 1,300회선을 운용했다. 2007년 11월 개최된 제1차 남북총리회담에서는 2008년부터 인터넷, 유·무선전화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한 1만회선 능력의 통신센터를 2007년 내에 착공하기로 합의했고, 통신센터 건립 등을 위한 남북한 간 실무협상이 타결되지 못하여 현재까지 통신센터 건설 착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3절 통일관련 방송편성 현황

과거 MBC의 젊은 세대에게는 통일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기성세대에게는 통일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남북어린이 알아맞히기 경연” 등 여러 방송사들이 다양한 통일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다루어 왔으며, 2013년 11월 현재 남한의 TV 방송

에서 방영되고 있는 통일과 관련된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3가지를 들 수 있다. 그것은 KBS의 '남북의 창', MBC의 '통일전망대', 그리고 채널A의 '이제 만나러 갑니다' 등이 있다.

KBS '남북의창'은 1989년에 시작한 국내 최고의 북한 전문프로그램이며, KBS는 20년 넘는 기간에 시청자들이 북한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통일에 대비한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는 가교역할을 충실히 한 공영방송 KBS의 간판 프로그램이다. '남북의창'은 2013년 11월 현재 정다운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고 있다. 기획 의도는 "북한의 현재 모습과 남북 관계 현안을 다루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라고 했다. 지금은 토요일 오전 7시 50분부터 8시 20분까지 30분간 방영되는 시사 보도 장르의 프로그램이다.

MBC의 '통일전망대'는 현재 화요일에 방영하고 있으며, 그 동안 김현경 아나운서가 혼자서 진행하다가 2013년 11월 최근에는 오승훈 아나운서와 같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매주 화요일 주간 13시25분~14시05분으로 편성되었기에 주말을 보는 시청률은 KBS의 남북의 창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 MBC의 '통일전망대'는 북한의 정치 사회 현안은 물론 주민들의 생활상을 전달하는 22년 전통의 프로그램이다. 실시간 위성으로 수신한 조선중앙TV의 이면을 분석해 북한의 오늘을 깊이 있고 신속하게 전달한다. 또 매주 현장 취재를 통해 "새터민 문제"에 한발 다가가고 통일준비에 꼭 필요한 "북한말"도 소개하고 있다. 또 전망대 포커스에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각종 현안들을 전문가와 함께 심층 진단한다. 내용 중에는 '전망대 브리핑', '요즘 북한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와 북한의 최신 소식을 '전망대 브리핑'에서 특정 기자가 전해주고 있는 코너 등이 있다.

"人(in) 한반도"는 전쟁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분단의 땅, 한반도.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평화를 바라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다양한 일들이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人(in) 한반도>는 남북관계를 둘러싼 다양한 현장을 취재하고 탈북자와 이산가족, 실향민들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톡톡(TalkTalk) 북한이야기"는 탈북자와 북한 전문가를 스튜디오로 초대해 북한 주민들의 생활상을 쉽고 재미있게 전해준다. 탈북자의 생생한

경험담을 바탕으로 북한의 영화, 조선중앙TV의 보도자료, 사진 등을 통해 북한의 현실과 최근의 변화상까지 들여다본다. “북한말 한마디”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는 북한말을 “북한말 한마디”에서 북한에서 즐겨 쓰는 말과 그 의미를 소개해준다.

통일과 관련된 또 다른 TV방송은 채널A의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는 프로그램이다. 이산가족 감동 프로젝트 ‘이제 만나러 갑니다’(이하 ‘이만갑’)는 매주 일요일 밤 11시에 방송되며, 채널 A에서 안내하는 글은 “탈북자 2만 5천명의 시대 - 그들은 지금도 자유를 찾아 두만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탈북, 북송, 몇 차례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제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정착한 탈북미녀들!”, “6.25 전쟁 이후 단절되어있던 민족의 벽! 아직도 그들을 올리는 남한사회의 오래와 편견!”, “세계최초! 방송 최초!! 남과 북의 화합을 모색하는 소통버라이어티!! 이제 만나러 갑니다.” 소개하고 있다.

국내 대북 라디오방송은 크게 KBS 한민족방송과 민간 대북 라디오방송이 있다. 2007년 한민족방송이 해외동포들을 위한 방송으로 성격이 바뀌면서, 국내에서 대북방송만을 전문으로 하는 채널은 민간이 주도하는 열린북한방송과 자유북한방송, 자유조선방송만 남게 되었다. 이후 출범한 북한개혁방송까지 포함하면 국내에는 4개의 민간 대북방송이 존재한다.⁶⁵⁾

과거의 대남 및 대북 라디오 방송은 상호 비방이나 간첩 침투를 위해 주로 사용했었다. 북한의 대남(對南)방송인 ‘평양방송’은 2000년 12월까지 ‘난수(亂數) 방송’을 했다. 밤 12시부터 30분 동안 숫자를 불러주는 프로그램이다. 방송은 “평양에 있는 큰아버지가 서울의 조카에게 보낸다”는 식으로 시작됐다. 서울의 조카는 특정 간첩을 부르는 암호다. 그리고 15분 동안 “3, 15, 128…” 식으로 숫자를 부른다. 호출된 간첩이 제대로 받아 적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15분간 다시 반복한다. 간첩이 갖고 있던 해독표로 이 숫자를 풀면 지령이 나왔다. 평양방송은 한국에서 인터넷 사용이 늘자 난수 방송을 중단했다. 그 대신에 북한을 선전하고 남한을 비난하는 프로그램으로 채워 지금도 하루 10시간

65) 자유조선방송 네이버카페(2012.11.25)

정도 방송하고 있다. 상투적인 내용이지만 무한 반복 전략으로 남한 국민의 세뇌를 노린다. 북한은 또 다른 대남심리전 방송인 '개성방송'은 전력 사정으로 드문드문 송출한다. 해외에 있는 친북 교포를 겨냥한 국제방송도 보내고 있다.

우리의 대표적인 대북(對北) 방송은 KBS의 사회교육방송, 극동방송, 아리랑TV 등이다. KBS 사회교육방송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한민족방송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중국과 러시아 등에 거주하는 동포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극동방송은 공산권 선교가 목적이어서 순수한 대북방송으로 볼 수 없다. 아리랑TV는 한국의 TV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중국계 TV수상기가 있어야 볼 수 있기에 북한 주민들이 시청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기존 대북 방송의 한계를 메워준 매체가 탈북자들이 2004년부터 시작한 민간 대북방송들이다. 노무현 정부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 이들은 외국에서 단파 주파수를 돈을 주고 빌려 방송을 시작했다. 단파 방송은 멀리 전달되는 장점이 있지만 음질이 좋지 않다. 반면에 중파(AM)는 단파만큼 멀리 가지는 못하나 음질이 양호하다. 민간 대북방송이 중파로 송출되면 평안남도 이남의 북한 주민들이 깨끗한 음질로 우리 방송을 들을 수 있다. 북한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진전이 아닐 수 없다.

제 4 절 대북방송 현황과 시사점

국내에서 대북방송만을 전문으로 하는 채널은 민간이 주도하는 열린북한방송과 자유북한방송, 자유조선방송이 있으며, 이후 출범한 북한개혁방송까지 포함하면 국내에는 4개의 민간 대북방송이 존재한다

자유북한방송은 2005년 12월7일부터 5880KHz의 단파방송 주파수 하나를 임대하여 자유북한방송이라는 대북라디오 전파 방송이 시작되었다. 그러다가 2개의 단파 채널을 확보하여 독자적으로 하루 1시간씩 제 3국의 회사를 통해 북한주민들에게 자유의 방송을 했으며 중파 채널 확보 계획도 가지고 있었다.

<표 6-8> 라디오 민간대북방송 현황

방송국이름	방송국 주체/국가	주파수 (단파)	방송개시	방송시간대	방송 시간
자유북한방송	자유북한방송/한국, 미국	5880KHz	2005.12.7	12:00~12:30	30분
자유조선중앙 방송	조선민주화동맹중 앙위원회/한국,미국	5880KHz	2005.12.7	12:300~13:00	30분
潮風-しおかぜ (시오카제/ 바닷바람)	일본 특정실종자 문제 조사회/일본	5890KHz	2005.10.30	23:30~24:00	30분

자유북한방송이 미국에 독립법인을 내기 전까지는 대북 라디오 중계사업자인 열린북한방송이 주파수를 구매하고 방송 송출업체와 자유북한방송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했다. 자유북한방송과 자유조선방송은 대북 라디오 방송 중계업자인 열린북한방송을 통해 각각 30분씩 나누어 방송을 진행한 것이다.⁶⁶⁾

민간 대북방송이 시작된 개기 중에 하나는 북한인권운동의 활성화이며, 1990년대 말부터 북한민주화네트워크와 북한인권시민연합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시작되어서 북한인권정보센터의 활동이 활발하게 시작되었다.

현재 민간 대북방송들의 가장 큰 과제는 북한 청취자들에게 보다 깨끗한 음질의 방송을 듣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단파 주파수를 많이 확보하고 출력을 높여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한민족방송처럼 북한과 인접한 곳에서 강력한 출력으로 중파 방송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국내에서의 대북방송 송출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 때문에 민간 대북방송사들은 비싼 비용을 들여 제 3국의 송신소를 이용하고 있다. 또한 민간 대북방송들은 대부분 미국의 국무부와 민주주의재단(NED)의 지원으로 운영하며, 이 지원금으로 전파송출비, 인건비, 프로그램 제작비용 등에 모두 충당하고 있는

66) 민간 대북방송 실태와 개선 방안, 김승철, 월간잡지(북한) 2006년 5월호 92-100

형편이다.⁶⁷⁾

또 다른 과제는 자유북한방송의 경우에 프로그램이 다양한 반면에 심층적 문제제기의 강도가 약한 측면이 있다.⁶⁸⁾ 문제제기에 대한 세부적이고 심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북한주민들의 입장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67) 자유조선방송 네이버카페(2012.11.25)

68) 김승철, 민간 대북방송 실태와 개선방안, 월간잡지(북한) 2006년 5월호 pp.92~100

제 7 장 남북 방송통신 간접교류 방안

제 1 절 한반도 교류협력센터 중심의 교류 방안

남북한 방송통신 간접교류협력은 정치체제에 대한 부담이 적고, 적은 비용으로 큰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현재의 남북관계의 경색에 대한 촉매제가 될 수 있다. 남북한이 서로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경제협력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선 간접적 교류협력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한 관계가 북한군에 의한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사태이후 정치, 군사 대립으로 관계로 한국 정부에서는 5.24조치법을 시행하면서 남북관계는 민간접근도 불가능하게 되었다. 법률에 의하여 개성공단 가동과 인도주의에 의한 영유아에 대한 기본 지원만 가능하게 하고, 남북한 관계는 교류협력이 중단되었다. 이로서 남북 방송통신 교류협력은 5.24조치법이 해제되기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제 3국을 통한 교류협력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방송, 통신 등)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통한 교류협력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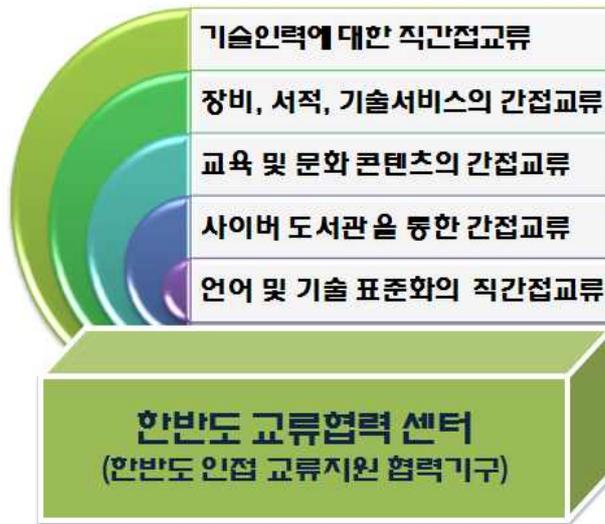
현재의 정세변화에 따른 여러 상황으로 봐서 북한에 대한 방송통신 직접 교류협력 방안보다는 한반도 주변 인접국을 통한 간접교류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방면으로 구체적인 대책과 대안을 세워야 한다. 특히 중국 연변조선족 자치주의의 고위층으로부터 북한에 대한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북한과 사업을 하고 있는 조선족 사업가나 활동하고 있는 NGO단체를 중심으로 정보교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 수행은 시너지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적 지원, 교류협력 성공 모델을 확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방송통신산업 육성을 통해 선진국 대열로 진입한 인도나 아일랜드의 경우 적극적인

국제개방 노력이 최우선 정책이었다. 그러나 폐쇄적인 북한도 방송통신기술 관련해서는 북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우 개방적이다.

이러한 제반 환경과 여건으로 볼 때 한반도 교류협력 센터를 중심으로 한 간접교류 방안을 제안한다.

[그림 7-1] 교류협력 센터 중심의 간접교류



간접교류 방안에는 첫째, 기술 인력에 대한 간접교류, 둘째, 장비, 서적, 기술서비스에 대한 간접교류, 셋째, 교육 및 문화 콘텐츠의 간접 교류, 넷째, 사이버 도서관 구축을 통한 간접교류, 다섯째, 언어 및 기술 표준화의 간접교류 등이다.

이들 간접교류와 관련하여 제반 기획과 시행을 위한 조직이 필요하며, 가칭 ‘한반도 교류협력 센터’라고 칭했으며, 그것을 중심으로 한반도 인접 민간 라디오 방송, 공공 TV 방송, 학교 및 학원, 기업체 등의 협력기구를 통해서 간접교류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제약사항이 따르고 이를 위해서는 교류센터로서 기능을 가진 업그레이드된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전담 할 조직이 필요하다고 본다.

1. 기술인력에 대한 직간접교류 방안

과학기술 인력교류는 비이념적, 비정치적 성격이 강하여 남북 상호 신뢰회복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핵심수단이며, 타 분야로의 파급효과가 크다. 그간 추진된 남북한 과학분야의 기술 인력교류는 주로 제 3국을 통한 국제학술행사나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남한이 북한을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의 교류가 많았다.

정부차원의 남북과학기술인력교류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경북대 김순권 교수가 개발한 슈퍼 옥수수 지원의 전단계로서 북한의 토양과 기후 등 농업실태 파악을 위해 1998년 북한의 아태 평화위원회(위원장 김용순)의 초청으로 방북한 것을 들 수 있다. 김순권 교수는 북한 내각의 농업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농업과학자들과 옥수수 육종개발과 남북 농업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것을 계기로 1998년부터 옥수수 품종육성과 도입을 위한 공동시험연구와 정부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평양시 미림지역 등 10여 곳에서의 옥수수 시험재배, 옥수수 종자, 비료 등농자재가 지원되었다.

대학차원의 남북과학기술인력교류를 위한 시도는 2000년에 당시 한국과학기술원에서 북한의 김책공대에 로봇축구대회, 남북공동 심포지움 및 워크숍 개최, 원격 영상강의 사업 등을 제안하였으나 북한측의 무반응으로 진전되지 못한바 있다.

이에 비해 민간차원의 과학기술 인력교류는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민간차원의 과학기술 인력교류 현황으로는 공식적으로 1990년대 초에 이르러서이며 초창기에는 주로 제 3국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행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 대표적 사례로는 중국 연길시에서 과총이 주관하여 1991년 8월 조선족 과학자협회와 연변주 과학기술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국제과학기술 학술대회 (1991. 8. 19~24, 북한 45명, 남한 101명 참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프랑스 파리에서 1992년 6월 16일에 주최한 기계화를 위한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회의, 1992년 7월 2일 중국 연길시에서 중화의학회가 주최한 중화의학회 연변분회학술대회, 1994년, 1995년, 1996년에 중국 연길에서 Korean 컴퓨터처리 국제학술대회 (남한의 국어정보학회, 북한과학기술총동맹, 연변과학기술협회 주최)가 개

최되었고, 1996년 8월에는 한글 컴퓨터 처리에 필수적인 기술적 차원의 공동안을 채택하여 합의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1999년에는 제 4차대회가 3년만에 재개되어 컴퓨터 용어 통일사전을 마무리, 연변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지기도 하였다.⁶⁹⁾

이 외에도 대학별 총학생회·학과·동아리 등 학생차원에서도 남북한 과학기술인력교류에 대한 추진이 활발하게 시도되었으며, 일례로 전남대가 북한의 김책 공업대학을 파트너로 학술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김정일이 2001년 1월 중국 상하이 방문이후 정보통신분야의 남북 교류가 보다 활발하게 진척되었으며, 당시 비트컴퓨터의 조현정 사장을 비롯한 하나비즈닷컴의 문광승 사장,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송관호 사무총장 등 정보통신 관련 CEO를 포함한 여러 명이 북한을 방문한 일이 있다. 그 후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이사장 곽선희)이 주관하여 건립한 평양정보과학기술대학에도 기술인력 교류를 기대했으나, 그간 남북간의 긴장국면에서 교류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은 찾아보기가 힘든 실정이다.

동서독의 경우 통일되기 전 민간차원에서의 활발한 과학기술 교류가 이루어졌고 있으며, 정부차원에서 지원이 있었다는 것이다. 즉, 전반적인 과학기술협력이 중앙통제형이 아닌 분권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점을 뒤돌아 볼 때, 남북간 기술인력교류도 민간주도형으로 추진하고 이에 국제기구 및 지방자치단체도 활발하게 참여하며, 정부는 관련 법 및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고 과학기술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남북은 68년간 한민족이면서 상호 적대관계에 있었다는 상황이 양측간에 상당한 이질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북한의 과학기술 교류협력의 의지 부족을 들 수 있다. 남북한은 동서독에 비해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의 심화뿐만 아니라 문화 및 언어 등의 전 분야에 걸쳐 이질성을 보이고 있다. 남북은 국제정세 변화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독일 통일시점은 사회주의의 붕괴와 함께 동구권에 대한 구소련의 장악력이 약화된 시기이다. 따라서 독일은 자주적인 통일을 쉽게 이룰 수 있었다. 하

69)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남북한 과학기술인력교류 효율화 방안(2001).

지만 남북한의 경우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는 국제환경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기술인력 교류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을 열거하면, 북한은 과학기술에 있어서도 정치·사상적인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향후 과학기술 및 인력을 교류할 경우 관련인력의 정치·사상적인 변화로 인한 체제붕괴의 가능성에 대해 매우 우려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 대비하여 남북한 간의 과학기술인력교류는 초기에는 중국동북3성, 러시아 연해주, 일본 등 제 3국의 특정지역을 통한 간접인력교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과학기술체제는 중앙집권식이며, 노동당에 의한 정치적 영향력이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다. 즉, 북한은 지금까지 철저한 중앙정부의 통제에 의한 과학기술정책과 관리체제 하에서 계획적인 기술개발을 추구하고 있다. 반면에 남한은 산·학·연·관이 각각 자기이익과 이윤추구를 위해 기술개발을 추진해오고 있다. 그러나 남북 과학기술 및 인력교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본 업무를 총괄해 줄 수 있는 창구 및 기구가 없고, 남북 또는 대외 교류협력, 공동연구, 기술협력 및 투자 등에 대한 책임부서 및 기관이 모호한 실정이다.

북한에 설립한 평양과학기술대를 거점화하여 협력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방송통신 분야의 기술인력 파견 및 남북한 교환 교수제도 등의 직접교류 방안도 있겠으나, 이는 현 상황으로는 시기상조라고 볼 수 있으며, 중국, 러시아, 몽골 지역을 통한 간접 교류방안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중국 동북3성, 러시아 연해주, 몽골지역에 북한의 기술 인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현지 투자법인 혹은 그와 유사한 조건으로 남북이 연결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과 관련된 각종 국제 학술대회 및 경시대회에 남북이 공동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또한 남북이 동시 가입한 국제기구에서의 적극적인 교류 활동이다. 북한 방송통신 관련 국제기구 중에 ITU, ISO 등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이러한 활동에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남북 교류를 유도해 나가도록 한다.

2. 장비, 서적, 기술서비스의 간접교류 방안

서울과 개성공단 및 평양을 잇는 첨단 네트워크 구축은 오래전부터 제안한 바 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한반도 인접국과의 원활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경우 향후 북한과의 교류도 용이해 질 수 있다. 서울과 중국 연변 및 러시아 연해주를 잇는 첨단 통신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한다.

그리고 북한의 조기 디지털 방송시스템 정착을 위한 관련 기술을 간접 루트를 통하여 적극 제공하는 것이다. 북한의 TV방송용 주파수 대역은 남한의 대역크기, 할당방식 등 다양한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TV방송 기술표준의 통일에 중요한 고려대상이 된다. 디지털 전환 시 기존 아날로그방송의 주파수 대역을 유지하는 방식이 많이 채택되고 있으나, 북한이 남한과 같은 전송방식을 채택할 경우 주파수 대역의 재할당과 같은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북한은 2012년 자체 실시한 디지털 TV 실험방송에서 자신들의 주파수 대역에 맞는 유럽방식(DVB-T)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방송 도입에서 핵심사항이 전송표준이며, 북한은 많은 국가들이 채택한 유럽표준방식(DVB-T)과 중국의 독자적인 표준방식인 DTMB 표준 중에 하나를 시험하고 있다. 남한은 미국 표준방식(ATSC)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남북 방송표준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북한 개발자들은 소프트몬스터 커뮤니티를 통해 최신 IT정보를 수집 공유해 왔으며, 그런데 그중에서는 삼성전자와 관련된 내용도 있다. 북한 개발자들이 수집한 정보는 삼성전자가 개발한 최신 기술에서 애플과의 특허분쟁, 실적 등 다양하다.⁷⁰⁾ 삼성전자가 개발한 5G 무선네트워크 기술 개발 소식을 공유한 것이 있으며, 삼성전자 바다 OS폰에 관한 정보도 볼 수 있다. 아이폰5와 갤럭시S3의 낙하실험에 관한 내용도 있었다. 그 외에 삼성전자 실적에 관한 정보 및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 소송에 관한 사안들이 있으며, 다른 남한의 기업 중에서는 LG디스플레이에 관한 내용이 있다. 애플 iTV와 관련해 LG디스플레이가 내용에 등장한다.

70) 북한 삼성전자 신기술, 특허분쟁 등 정보 수집 (2013. 8. 20 - IT뉴스)

삼성전자가 남한기업임에도 북한 개발자들이 정보를 수집해 공유하는 것이 흥미롭다. 그만큼 IT분야에서 삼성전자의 영향력이 강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 남한의 주요 기업이며 많은 사람들이 쓰는 제품을 만드는 만큼 북한 개발자들이 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북한은 2013년에 들어와서 아리랑 스마트폰을 보도한 바 있다. 북한의 아리랑 AS1202 스마트폰은 중국의 Uniscope 라는 회사에서 제조된 제품을 기반으로 한 제품이라고 하며, 스마트폰이라고는 하지만 인터넷이 안되고 설치된 앱이외에는 다운로드 받을 수 없는 사실상 피쳐폰과 동일한 성격이라고 한다.⁷¹⁾ 이에 관련기업의 스마트폰 분야에 손실이 나지 않는 범위에서 스마트 폰 및 3G 기술 분야의 기초기술을 조기에 보급하여 북한에도 수준 높은 스마트폰이 보급될 때 북한은 보다 빠르게 외부와의 교류의 물꼬가 트일 것이라고 본다.

또한 북한의 컴퓨터 관련 각종 기술 교재의 경우, 그 외형 지질은 물론 내용 역시 최신 기술이 수록된 상태의 내용이 없다고 한다. 남한의 경우 2,3년이 지난 컴퓨터관련 서적도 간혹 현실과 멀어서 사용하지 않거나 폐기처분하는 사례를 볼 수 있다. PC, 노트북, 휴대폰 등의 장비와 컴퓨터 및 네트워크 관련 기술서적은 제 3국을 통하여 북한과 교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3. 교육, 문화 콘텐츠 및 사이버 도서관을 통한 간접교류 방안

북한의 한류는 최근 탈북자의 발언이나 각종 동영상을 통하여 알 수 있다. TV조선에 2013년 11월 11일에 게재한 동영상에 “[북한 돋보기] 북한을 바꾸는 힘 ‘한류’편”에 보면, 중국 접경지역에서는 TV 안테나를 조정만 하면 얼마든지 남한 방송을 몰래 볼 수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해 말 남한이 디지털 시스템으로 변환한 후에 북한에서는 TV를 볼 수 없었으나, 최근 노트텔이라는 장비를 통하여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에서도 "꽃보다 할배..."라는 MBC의 최근 예능을 프로를 보고 대화하는 내용을 포착했

71) SKY Weekly news(2013-10-20)

다고 하니 한류의 열풍이 정말로 대단하다. 한류는 북한 주민들이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힘이며 통일의 촉매제가 될 것이다.⁷²⁾

북한 주민들은 당국의 감시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드라마, 영화, 가요를 접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남한 연예인들의 옷차림, 헤어스타일까지 경쟁적으로 모방하고 있다. 현재 '남조선 바람'의 영향으로 북한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중심은 대부분은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다. '남조선 바람'은 북한체제의 변화를 가져오는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다.

북한 주민들은 당국의 감시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드라마, 영화, 가요를 접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남한 연예인들의 옷차림, 헤어스타일까지 경쟁적으로 모방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 사회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 대중문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이다. 최근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과거 평양, 신의주, 청진 등 일부 대도시와 중국과의 국경 지역에서만 유행하던 '남조선 바람'이 북한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북한 주민들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도 남한의 대중문화를 접하고 있다. TV의 경우 중국과의 국경 지역을 제외하고는 남한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라디오 방송은 북한 전역에서 마음만 먹으면 들을 수 있다. 모든 라디오는 북한의 공식 주파수인 조선중앙방송에만 고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단순한 조작만으로 남한의 라디오 방송을 또렷하게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들이 청취할 수 있는 라디오 방송은 한민족방송, 라디오, 자유아시아방송(RFA), 미국의 소리방송(VOA) 등이다.

북한 주민들은 남한 드라마나 영화를 볼뿐만 아니라 이를 모방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 속에서 몸에 짝 붙는 바지, 가슴이 과인 옷, 머리핀, 말투, 헤어스타일의 변화 등 '한류' 양식은 가장 인기가 많다. 드라마를 본 주민들은 한국 배우의 머리 모양을 부러워하면서, 송승헌이나 송혜교 머리 등을 모방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 사이에는 "머리 모양만 봐도 가을동화를 보는지를 안다. 사회주의 머리(짧은 헤어스타일)랑 다른 티가 난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기까지 하고 있다. 어른들은 물론 청소년들도 남한 드라마나 영화에 나

72) TV조선(2013.11.11) 동영상 내용 인용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1/11/2013111190306.html?BRtvcs

오는 인물들을 모방하고 흉내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내에 가장 빠르게 유포된 것은 다름 아닌 영상물이다. 북한에는 중국으로부터 중고 컴퓨터와 저가의 DVD 플레이어가 유입되어 웬만한 가정에는 이들 제품이 있기 때문에, CD와 DVD만 구하면 쉽게 남한의 대중문화를 접할 수 있다.

북한 당국은 전국으로 확산되는 '남조선 바람'을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단속을 "반사회주의 사상·문화적 침투를 막기 위한 소탕전"이라 명명하고, 조선노동당과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 라디오, TV는 물론 소형 녹음기, 테이프, CD, DVD까지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나 집집마다 숨겨놓고 몰래 보고 듣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으며, 적발된다고 해도 뇌물을 써서 압수당한 전자제품을 다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늘 날 북한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거리는 한류라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의 선전 속에 꿈꾸어 보던 앞날의 형상이 바로 한류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고, 드라마 한편 속에 그대로 녹아 있기 때문이다. 남한 영상물을 접한 것이 확인되면 목숨을 내 놓아야 한다는 두려움보다 눈앞에 펼쳐진 희망적인 그림에 빠져 미래를 그려보는 것은 간고한 삶 속에서 유일하게 잡을 수 있는 그들의 희망의 끈이다.

CD와 녹화 테이프에 담겨진 '남조선'의 영화와 드라마들은 볼거리에 굶주려 있었던 북한 주민들을 매료시켰다. 자신들이 꿈에나 그려보던 생활이 드라마에서 펼쳐지자 그때부터 국가에서 선전했던 '썩고 병든 자본주의'의 현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여성들도 승용차를 운전하며 거리를 달리는 모습이다. 자신들은 평생에 한두 번 탈지 말지 한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는 모습과 그런 멋진 차가 바로 개인소유임을 알자 그것은 구경거리가 아닌 충격으로 다가왔다. 노래 역시 젊은이들 속에서 막을 수 없게 퍼져 갔다.⁷³⁾

이러한 현실에서 굳이 북한에 직접교류를 통한 위험을 감수하기 보다는 한반도 인접

73) 평화문제연구소에서 만든 월간지 「통일한국」 발췌한 북한에 확산되는 한류는?, 지구촌 소식, 월명(2013.11.05) 내용의 재정리(<http://blog.daum.net/pks4240/2050>)

지역인 중국 압록강 및 두만강유역,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 관련 방송 콘텐츠를 적극 공급하는 것이다.

또한 각종 교양 강좌 및 방송통신 관련 기술 강좌가 방송하는 EBS,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배움나라 등에서 방영하는 수준 높은 콘텐츠를 한반도 인접 지역에 널리 전파하여 북한의 동포들도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남한은 PC는 물론 스마트폰을 통한 개인 사업자들의 교육콘텐츠 개발 열기가 대단하다. 그간 EBS나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우수한 교육콘텐츠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으로 자립매김을 하고 있으며,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제공되는 배움나라 역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콘텐츠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특히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국민정보화교육의 일환으로 장애인, 고령층,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등을 대상으로 방문교육 등 정보화교육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우수한 교육콘텐츠에 대해서 북한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한다.

앞에서 언급한 북한의 제반 한류바람을 감안하여 영화, 연속극, 가요앨범에 대한 CD, DVD 등 매체를 통한 콘텐츠를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한반도 인접지역에 보급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며, 아울러 불법 복제에 대한 근절방안도 함께 수립하여 제작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온라인을 통한 방송통신 관련 및 관련기술 도서를 구독할 수 있으며, 각종 기술논문 및 기술 학술지에 대한 교류를 위해서는 제 3국의 서버를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4. 언어 및 기술 표준화의 직간접교류 방안

남북은 표준화를 통한 서로의 기술적 이질감을 해소해야 한다. 현재 남북간 방송통신 기술 용어 및 시스템에서 서로 다른 부분이 많아 정보기술 격차 해소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우선 남북은 서로 다른 정보처리 체계를 사용하고 있어 상호 호환이 아주 어려운 상황이다. 방송통신 관련 용어의 경우에도 남북은 용어가 달라 남북간 직.간접교류

에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제 학술대회 및 국제 포럼에 북한의 관련자를 초청하여 남북이 합의하여 상호 수궁할 수 있는 표준안을 채택하여야만 한다.

남북한 학자들이 이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지난 1994년부터 열린 '코리안 정보처리 국제학술회의(ICCKL)'에서 컴퓨터 자판, 부호계, 로마자 표기, 정보기술 용어 등의 각종 남북 표준안을 모색하고, 2001년 '2001년 제 5차 정보처리 국제학술회의'에서 언어, 로마자 표기, 부호계, 자판, 정보기술용어 분야에서 남북한, 중국 간 합의서가 만들어지기는 하였다. 그렇지만 표준화를 위한 남북한 간 협의 및 조정기능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활성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우선 남북한 방언언어 및 관련 용어의 표준화와 관련하여 동일민족인 남북한이 언어가 차이가 생기게 된 큰 원인은 오랜 기간의 남북분단이라고 볼 수 있다. 지역적 방언이나 제주도 고유의 말을 가지고 대화를 할 경우에 잘 알아들을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표준말 체계가 있기에 소통에 어려움은 없다.

언어의 차이는 자연적인 변화에 의한 차이보다 인위적인 기준의 차이로 말미암아 빚어진 이질화가 더 크다 할 것이다. 남한은 “교양있는 사람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을 ‘표준어’라 하고, 북한은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 밑에 혁명의 수도를 중심지로 하고 수도의 말을 기본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로동계급의 지향과 생활감정에 맞게 혁명적으로 세련되고 아름답게 가꾸어진 언어”를 ‘문화어’라고 하여 공용어로 삼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언어는 어떻게 다른가? 언어는 구조적으로 볼 때 말소리와 단어, 문장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러한 언어의 구조적인 면에서 남북한의 언어를 살펴볼 수 있다. 문자언어인 경우에는 여기에 표기법이 고찰의 대상으로 추가되어야 한다.

음성언어에서는 발음이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남한은 서울말을 중심으로 한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북한은 평양말을 중심으로 한 ‘문화어’의 발음을 표준 발음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의 표준발음은 그 기준부터 차이가 난다.

발음상의 큰 차이는 남한에서 두음법칙을 인정하는 데 대해, 북한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남한의 [낙원(樂園), 양심(良心)], [여자(女子), 요소(尿素)]가 북한에서는 [락원, 량심], [녀자, 뇨소]로 발음된다. 자음동화도 차이를 보인다. 남한에서

는 [심리, 향로]와 같이 받침 [ㄱ, ㅇ] 뒤의 [리]이나, [독립, 협력]과 같이 받침 [ㄱ, 비] 뒤의 [리]을 [ㄴ] 소리로 발음한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모든 모음 앞의 [리]을 본래의 소리 대로 발음한다. 이 밖에 경음화, 음운 첨가 등에도 차이를 보인다.

예를 몇 개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괄호 안에서 앞의 것이 북한 발음이다) 가공적[쩍/적], 넓다[넙따/넉따], 돌배[돌뻘/돌배], 물약[물약/물락], 색연필[생연필/새견필], 일일이[일이리/일리리], 탁발승[탁빨승/탁빨승], 과격적[과격쩍/과격적]

단어는 언어의 구조 가운데 가장 쉽게 변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남북한의 언어 차이도 어휘에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단어의 차이는 형태와 의미의 양면에서 드러난다. 먼저 형태면에서 보면 남북한의 어휘 차이는 어휘 사정과 말다듬기에 의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어휘 사정에 의한 차이는 표준으로 삼는 단어를 달리 사정해 차이가 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표준어 내지 문화어의 사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피할 수 없이 빚어지는 현상이다.

이러한 남북의 차이를 보이는 단어로, 남한에서 듣기 힘든 북한의 문화어를 몇 개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가위주먹(가위바위보), 날래(빨리), 동기슴(양기슴), 락자없다(영락없다), 망돌(맷돌), 발편잠(마음놓고 편안히 쉬는 잠), 방치돌(다듬잇돌), 손오가리(목소리가 멀리 들리도록 손을 오그려 입에 대는 것), 피타다(피가 끓다), 허분하다(느슨하다) 앞의 보기 가운데 [발편잠, 손오가리, 피타다]와 같은 단어는 남한에는 없는 것이다.

말다듬기에 의해 차이가 나는 말도 상당히 많다. 말다듬기의 대상은 한자어, 외래어가 주가 된다. 말다듬기로 말미암아 남북한의 어휘가 차이가 나게 된 북한의 다듬은 말을 몇 개 보면 다음과 같다. 가슴띠(유방대), 가짜해돌이(가연륜), 곁바다(연해), 내굴쏘임(훈연), 돈자리(구좌), 물들체(염색체), 밥길(식도), 불탈성(가연성), 산견딜성(내산성), 찻먹입칸(수유실), 찬물미역(냉수육), 털량(산모량), 푸른차(녹차), 허이끼(설태) 외래어의 예로는 [가락지빵(도넛), 나넨옷(투피스), 내민대(발코니), 창문보(커튼)]와 같은 것이 있다.

이 밖에 남북한은 정치, 사회적인 이념과 제도가 달라 그것을 나타내느라고 신어를 만들어 씀으로 차이가 드러난다. 곧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이념이나 그 제도를 반영하는 어휘를, 남한에서는 자본주의 이념이나 그 제도를 반영한 어휘를 새로 만들어 씀으로 차이

가 나는 것이다. 북한의 [민족통일전선, 천리마운동, 량권(糧券), 닭공장]과 같은 말이나, 남한의 [총선, 부가가치세, 수능시험, 반상회]와 같은 말이 이러한 정치나 사회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말이다. 이러한 이념과 제도로 말미암아 차이가 나는 어휘는 상당히 많다. 그리고 이들이 어느 다른 어휘보다 서로가 이해하기 힘든 말이다.

외래어의 형태도 차이를 보인다. 이는 남한이 원음주의를 채택하는데 대해, 북한이 러시아어 위주의 표기를 한다는 것이 큰 이유이다. 남북한의 표기가 다른 외래어의 예를 몇 개 보이면 다음과 같다. (사전 앞이 북한, 뒤가 남한의 예이다) 고시크/고딕, 껌/게임, 뉴안쓰/뉴앙스, 딸라/달러, 로씨야/러시아, 마이크로메타/마이크로미터, 브란디/브랜디, 뽀스/버스, 사크/색, 쏘세지/소시지, 시누스/싸인, 아스팔트/아스팔트, 안쌘블/양상블, 테노르/테너, 테라미쥘/테라마이신, 플루스/플러스, 후라스코/플라스코

문장의 차이 - 언어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변하지 않는 부분이 문장이다. 따라서 남북한의 문장 구조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 차이가 난다면 그것은 문체의 차이이고, 간단한 문법적인 차이라 할 수 있다. 서술어 [되다]의 보어로 북한에서는 주로 [오로]가 호응된다. [공동 념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입이 무겁다면 그것은 남자의 첫째가는 장점으로 되지요]와 같은 것이 그것이다. 이 경우 남한에서는 보어를 [염원이], [장점이]와 같이 조사 [이]를 써서 나타낸다. [-데 대하여]에 대한 수식 성분의 호응도 차이를 보인다. 북한에서는 주로 [-리]관형사형의 수식어가 앞에 온다. [조선어의 민족적 특성을 살려 나갈 데 대하여]가 그 예이다. 이런 경우 남한에서는 [살려 나가는 데 대하여]와 같이 [-니] 관형사형을 취한다. [데]를 쓰지 않을 경우는 [-리 것에 대하여]를 쓸 수 있다. 일부 형용사의 연결형에 [나다]가 이어지는 것은 남한에는 보이지 않는 북한의 독특한 표현이다. [가슴이 짜릿해 났다], [끈끈해 나더니 곧 딱끈해진다]가 그 예이다. 이런 경우 남한에서는 [짜릿해졌다], [끈끈해지더니]라고 표현한다. 이 밖에 북한에서는 [충심으로 되는 감사], [진심으로 되는 박수], [습관되어 있지 않다], [관심하는 사람들], [병사한 것으로 해서]와 같은 표현이 쓰여 남한과 다른 공기 관계를 보인다. 이는 어법이나 문체의 면에서 다른 것이다. 북한의 [고향 생각을 하했어요], [나올 생각이 없는 거구만요], [잊어버린 지 오래다], [의무가 아니나요?]와 같은 표현도 남한의 어법과는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 밖에

북한에서는 [나를 쉬우려고], [젓을 먹여 자래운 자식]과 같이 사동 접사를 활용하는 방법도 남한과 차이를 보여 준다.

맞춤법의 차이 - 문자언어의 표현 수단인 표기법도 차이를 보인다. 그것은 남북의 맞춤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8 15 광복 후에도 남북한의 맞춤법은 다 같이 조선어학회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동일하였다. 그런데 북한에서 1954년 [조선어 철자법]을 새로 제정하여 공포함으로써 남북의 표기체계가 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남북한의 맞춤법은 다 같이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바탕으로 하였고, 형태주의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말소리나 어휘에 비하여 차이가 덜한 편이다.⁷⁴⁾

5. 한반도 교류협력센터의 설립 및 운영 방안

한반도 교류협력센터는 한반도 인접국에 설립하여 북한과의 간접교류협력을 취할 수 있는 기구조직이다. 중국 연변지역에 최적지를 모색하여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남북 통일 전, 후에 방송통신 교류협력에 대한 제반 활동을 하는 것이 그 주요 임무이다. 아울러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연구, 교육, 학술행사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보다 직접적인 교류협력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다.

협력센터의 교류지원을 위한 협력 기구로는 우선 한반도 인접국의 한국어 라디오 방송 및 TV 방송국이 있다. 예를 들면, 중국 연변 조선족자치주 연변TV방송, 연변TV, 연길TV, 연변일보, 흑룡강일보, 연변TV대학, 도문TV방송, 훈춘TV방송, 용정TV방송, 안도TV방송, 왕청TV방송, 장백TV방송 등 두만강 및 압록강 주변의 방송국이 있다. 현재 북한의 영사관급이 동북 3성의 1선 도시(성 수도급), 2선 도시, 3선 도시 및 연변조선족자치주 연길시 등 재중동포인 “조선족”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도시에 진출하여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교류지원을 위한 협력 기구로는 연변과학기술대학과 같은 조선족 학교 등을 통한 기술서적이나 각종 우수한 교육 및 문화 콘텐츠를 제공했을 때 예를 들면 그들이 비치한 도서관에 북한 유학생이 열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74) (박갑수, 1995)

<표 7-1> 남북 방송통신 교류협력 방안

교류협력 방안	세부 내용
기술 인력에 대한 교류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동북3성, 러시아 연해주, 몽골지역에 방송통신 활성화 및 기술인력 교류 - 동북아지역 국가에 민간교류와 방송통신 기술 지원을 위한 자문단 파견 - 북한 평양과학기술대를 거점화 협력 추진체계 구성 - 방송통신 분야의 기술인력 파견 및 남북한 교환교수 제안 - 남북이 동시 가입한 국제기구에서의 적극적인 교류 활동 - 각종 국제 학술대회 및 경시대회 공동 참여
장비, 서적, 기술 서비스 등의 간접교류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중국 연변, 러시아 연해주-평양을 잇는 첨단 통신 네트워크 구축 제안 - 북한의 조기 디지털 방송시스템 정착을 위한 기술 제공 - 스마트폰 및 3G 기술 분야의 조기 보급을 위한 기술 제공 - 남북한 방송통신 기술 교재 및 교육교재의 교류 - 기술 논문 및 기술 학술지 교류
교육 및 문화 콘텐츠의 간접교류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두만강유역 지역의 방송 콘텐츠 공급 및 통신서비스교류 - 방송교육에 대한 교류(EBS, 방송통신대, 배움나라 등) - 영화, 연속극, 가요앨범에 대한 교류 - CD, DVD, USB 등 매체를 통한 교류
사이버 도서관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을 통한 방송통신 관련 및 기술 도서 구독 -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의 연계방안 검토
언어 및 기술 표준화의 직간접교류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글 표준화, 컴퓨터 자판, 핸드폰 자판 등 각종기기 표준화 작업 - 북한, 중국 연변 정음 표준화로 한국어 표준 방송통신 추진
한반도 교류협력센터의 설립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연변지역에 최적지를 물색하여 설립 운영 - 통일 전, 후에 방송통신 협력에 대한 제반 활동 - 연구, 교육, 학술행사 등 정기 개최 - 한반도 인접국의 한국어 라디오 및 TV 방송국 활용

제2절 남북한 방송통신 교류협력 착안사항 및 개선안

1. 남북한 방송통신 교류협력 착안사항

남북간 방송통신분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키고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법과 제도로는 부족한 점이 많다. 특히 인적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법제 개선이 필요하며, 물질 교류와 관련한 법제개선도 요구된다. 그간 남북한이 축적한 관련 기술과 정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보유기술 및 경험 등의 이전, 개발된 시스템의 보급과 확산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 우선 초기에는 남북한 방송통신 분야 교류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필요한 정보교환 및 연구교류 활성화를 촉진해야 한다.

장기간 분단으로 단절된 긍정적 상호관계를 연결하는 것은 '3통'이고, 분단통합의 최우선되는 부문이 방송통신이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 개최 되면서 방송통신 분야의 교류가 본격화 시작되었고 민간업체들의 대북진출도 활발했다. 금강산관광사업, 개성공단사업과 관련한 '3통'합의가 되어서 남북관계가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지만, 북한의 도발적인 문제로 긴장 국면에서 접어들었고, 개성공단은 겨우 다시 재개를 하였다.

남북한 방송통신 표준화의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한 방송통신의 현황과 기술수준, 우선 협력 가능한 세부 기술 분야 및 관련 전문가그룹과의 접촉절차 등 북한의 내부 상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는 북한 내부의 기본적인 표준 정보조차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북한이 자국의 기술과 정보를 먼저 남한에 제공하여 교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보교류나 기술통합 등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당국자 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처리되는 것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점에서 북한의 과학기술 및 방송통신 전반에 대한 민간 차원의 정보교류가 지속되어야 한다.

남북한 방송통신 표준화 교류협력의 실질적 결과 도출을 위해서 교류협력의 사전단계, 교류협력의 진행 시 착안사항 및 실무협의 도출 시 이행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전에 철저히 준비된 교류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표 7-2> 남북한 방송통신 교류협력을 위한 착안사항

교류협력 사전 대비사항	교류협력 진행 시 착안사항	실무협의 도출 시 이행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참여에 대한 신중한 사전 결정 - 남북한이 동시에 쉽게 수용할 수 있는 부분부터 교류 시작 - 남북간 기술적·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식 - 장기간 면밀한 준비와 돌발 상황에 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뢰감 있는 의사소통 - 교류문서 및 회의내용 문서화 - 협력진행 및 관리정보의 공유 (기자회견 등 발표). - 무리한 약속을 하지 말 것 - 교류협력의 일관성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 계약서 체결 시 구체적인 합의서나 계약서의 문서화 및 책임자의 서명 - 합의서의 용어는 구체적으로 풀어서 명기할 것 (합의내용에 대해 북한의 왜곡된 해석이 되지 않도록)

남북 방송통신 표준화 교류 확대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따라서 남한의 역할은 바세나르 협약과 같은 평화유지 관련조약을 어길 수는 없는 입장이며, 그 협약을 지키려고 하니, 수출제한 품목에 너무 추상적인 규정이 많다. 대부분의 방송통신에 관련된 물품은 규제대상이어서 사실상 남북교류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6.15선언 이후에 이뤄진 남북한 투자보장합의서 등 4대 합의서 전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남북교류는 국가 간 수출입이 아닌 '민족내부거래'임을 국제무역질서에서 인정받을게 필요하다 이런 절차를 통하여 보다 많은 인적, 물적 교류를 원활히 할 수 있다.

남북 표준통합 기본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효율적인 추진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호혜와 평등의 원칙에 기초하여 정치적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은 안정적인 남북 표준협력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남북 방송통신 표준화 교류 사업의 결과가 경제협력의 활성화, 남북협력의 시너지 효과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실적, 실용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또한 통일 후 통합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야만 한다.

셋째, 남북 표준협력채널을 '정부채널'과 '민간채널'로 2중장치를 마련하고 민, 관의

긴밀한 협조와 역할분담으로 협력관계를 안정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넷째, 산·학·연·관의 전문 인력 등 각계의 연구역량을 결집하여 남북 표준통합에 대한 국가 전략집단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남북 방송통신 표준화 교류의 목적은 성문화되어 있는 남북의 국가규격을 단순히 일치하는 데 있는 것만은 아니다. 남북이 방송통신 기술에 대한 하나의 표준을 적용하여 추후 통합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표준통합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통일비용이란 모든 산업시설들을 하나의 기준으로 재배치하는 비용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문제를 간과했던 독일의 경우 현재 예상치 못했던 통일비용 부담의 후유증에 시달렸었다. 남북 방송통신 표준화 교류 사업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많은 제약요인이 있으나,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2. 남북 방송교류의 문제점 및 개선안

남북한이 오랜 기간 분단 중에서도 상호간에 조율을 거쳐서 조금씩 진행되어 오던 남북 방송교류는 역사적인 남북 공동선언이후 급류를 타는 듯 했으나, 북한이 신뢰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듯한 분위기에 접어들었다. 이것 중에는 남북방송교류 역시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요인들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부정할 수는 없다.

과거 1960년대에는 경제적으로 남한보다 우월하였던 북한의 주도로 남북간에 대화가 있었으며, 1970년대부터는 급격한 경제적 성장으로 인한 남한의 주도로 대화의 제기가 되었는데, 이에 비주도가 된 상대방들은 대화를 기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 측의 체제가 가진 경직성과 문제점을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의 취재 제한은 현재까지도 남북방송교류를 진행하는데 상당한 걸림돌로 남아있다. 이로 인하여, 프로그램 제작자들이 북한 취재방문에서 기대한 것만큼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사례도 있으며 소재 제한의 문제점도 있다.

남북 방송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는 북한의 영상물에 대한 상업적 활용을 허

용하고, 발전기금의 지원 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북한지역에서 영상물을 제작하는 남북 방송교류 사업자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개선안을 제시한다.

첫째, 북한 영상물의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허용 문제이다. 먼저 TV로 제한된 북한영상물의 상업적 활용을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따라서 북한영상물을 반입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수입 가격을 고려하면 공중과 방송에 대한 판매만으로는 수입업체가 적자를 면하기 어렵다. 법적으로 정상적인 유통경로가 허용되어야만 북한의 영상물을 국내로 들어오려는 업체가 존속 및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위성방송 사업자의 통일지향적 방송임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위성방송의 필요성 가운데 하나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통일지향적 매체라는 점이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위성방송사업에서 구현되기 위해서는 위성방송사업자의 의무사항을 위성방송시행규칙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그랜드컨소시엄 형태의 위성방송사업사는 독점사업이라는 특혜를 누리게 된다. 따라서 한민족 공동체 채널과 같은 통일방송과 관련된 의무사항을 사업자에게 요구함으로써 위성방송이 단순한 상업적 활용을 떠나서 공익적 의무로 남북교류시대에 알맞은 민족매체로서의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남북교류기금과 방송발전자금을 통한 자금 지원이다. 북한지역에서 제작이나 영상물 수입은 위험부담이 큰 사업이다. 또한 북한 영상물 단가나 제작협력비용이 현실적으로 낮은 수준이 아니다. 북한과의 영상물 교류 및 제작협력은 남북 방송교류를 통한 신뢰회복과 이질감 해소, 앞으로의 국내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신뢰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시장원리에만 맡겨 둘 수는 없다. 따라서 정부와 방송규제기관은 남북교류기금과 방송발전기금을 이용해 북한 영상물의 수입과 제작비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넷째, 방송사 편성규약에 방송의 통일관련 역할을 반영해야 한다. 분단국의 방송은 민족통일에 기여해야 할 시대적 사명을 띠고 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방송이 통일문제에 소극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송하고 있다. 그 원인을 제도적 측면에서는 방송이 통일에 기여해야 한다는 통일방송의무가 제도화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같은 분단국이었던 서독의

경우에는 ZDF 설치법인 주간 방송법 2조에서 방송프로그램이 평화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에 입각해 독일의 통일과 민족화해에 기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쉽게도 새로 제정된 방송법에서는 방송의 통일의무가 반영되지 못했다.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방송법 제4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방송법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4항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사와 제작자는 통일에 미칠 방송의 영향을 인식하고 편성규약에 통일관련 역할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북한 및 통일관련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며 영상물 교류와 제작 협력 분야에서 남북 방송교류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북한 방송영상물 견본시를 개최한다. 남한 방송인들을 위한 북한 영상물 견본시 개최가 갖는 의미는 비단 수입창구의 단일화에 국한되지 않는다. 견본시에서 자연스럽게 남북한 방송관계자들이 접촉할 수 있을 것이며, 이 자리에서 상호간의 관심사를 교환할 뿐 아니라 제작협력에 필요한 신뢰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정기적으로 북한 방송영상물 견본시를 개최하면 북한 방송영상물의 제작현황을 파악해 국내에서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다원화된 수입창구가 단일화되는 효과가 있어 중복수입으로 인한 저작권 시비와 혼란도 막을 수 있다. 북한 영상물 견본시는 방송협회와 북한 측 민족화해협의회, 혹은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가 협의하여 개최하고, 여기에 국내 방송사 대표들이 참석해 프로그램을 관람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남북 방송교류 가이드라인 제정한다. 그동안 남북한 방송교류를 위한 남한 방송사들의 산발적인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방송교류 담당자는 업무의 일관성을 갖지 못하고 수시로 교체되었고 또한 방송사간의 이와 관련한 커뮤니케이션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렇듯 남한 방송사들이 서로 조율되지 않는 상태에서 앞 다투어 북한방송과 교류를 추진할 경우에 북한 측과의 협상에서 불이익을 당할 위험마저 있다. 구체적으로 남한방송이 북한지역에서 프로그램 제작을 신청하는 경우에 북한 조선중앙방송위원회를 비롯한 노동당 선전선동부는 제작지원을 떠나 프로그램 내용 자체에 영향을 미치려 시도할 수 있다. 지금처럼 남한 방송사들이 남북 방송교류에 관한 기본원칙을 담은 가이드라인

조차 없이 경쟁적으로 북한과 방송협력을 추진할 경우 북한은 자신들의 체제에 우호적인 보도를 행하는 방송사를 선택할 것이고, 북한에서 제작할 프로그램 내용에 영향력 행사를 용인하는 방송사를 선별해 교류를 추진하려 할 것이다. 이렇듯 원칙 없는 개별적 방송교류 추진으로 인해 비단 프로그램 내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영향력 행사 문제, 북한으로부터의 기술지원 형태, 그리고 지원 대가로 지불해야 할 비용액수에 이르기까지 남한방송에게 돌아갈 부담이 매우 커지게 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얼마 전 방송위원회가 출범시킨 남북 방송교류 추진위원회는 남북 방송교류의 전체적인 틀과 기본 원칙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할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방송교류의 목적, 교류원칙과 준수사항 등을 담아내야 할 것이며 이는 방송교류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내 방송사들이 준수해야 할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이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데 동서독 방송교류의 역사에서 서독방송사들이 합의하였던 원칙들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일곱째, 방송교류 표준계약서를 준비하는 일이다. 방송위원회의 남북 방송교류 추진위원회가 큰 틀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둔다면 북한과의 교류를 담당하는 방송사의 협의체인 방송협회와 실무 방송인 단체인 PD 연합회 등은 공동으로 북한과의 방송교류에 적용할 표준계약서를 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표준계약서가 마련되면 이를 토대로 북한 대화파트너와 합의를 도출해 앞으로의 영상물 수입, 제작지원에 적용해야 할 것이다. 표준계약서에는 북한 측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종류와 단가는 물론이고 분쟁 발생 시 해소 방안도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서류는 물론이고 제출할 제작기획서의 내용수준도 포함되어야 한다.

표준계약서가 마련되면 남북한 모두 동일한 틀 속에서 교류를 진척시킴으로써 교류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역시 국내 지상파 방송 3사에 국한된 현재의 방송교류가 독립제작사는 물론이고 군소 방송사로 확대되면서 수입규모가 증가될 수 있을 것이다. 동서독의 방송교류에 사용되었던 영상물과 제작지원에 대한 표준계약서가 남북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는데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제 3 절 남북한 간접교류 목표와 전략

1. 한반도 주변국의 방송 실태와 간접교류 전략

1) 길림성 내 한국어방송국

중국 길림성에는 280만 동포가 조선족 자치주를 중심으로 모여서 거주하고 있다. 중국의 조선족의 96% 이상이 현재 동북 3성에 모여 있고 이곳에 교포사회가 형성되어 있다. 중국어가 유창한 젊은 조선족들이 대도시 및 외국의 더 많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면서 동북 3성 내에 조선족 인구는 점차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에는 조선족 자치주가 있는 길림성, 흑룡강성에 한국어방송국이 있다. 길림성은 중국의 동북 3성 중의 하나로 요녕성과 흑룡강성 사이에 위치해있다. 중국 공산당의 소수민족 정책에 따라 길림성 내 연변지역에 1952년 연변조선족 자치구가 설립되었고, 55년에 자치주로 개칭되었다. 1958년에는 길림성의 서간도 지역에 장백조선족자치현이 설립되었다. 길림성 내 조선족은 이 두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중국 내 소수민족 유일의 자치방송국인 주급 방송국인 연변인민방송국과 성급 방송국인 흑룡강 라디오방송국이 이곳에 있다. 이 두 곳을 제외한 한국어방송은 시설이 매우 열악하여 방송시간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와 길림성 장백현은 한국어가 통하는 지역이다. 이곳에서는 KBS, MBC, SBS, EBS 등 한국의 방송이 실시간으로 방영되고 있는 곳이다. 실제로 조선족 중에는 한국의 방송만을 청취하고 있는 시청자도 있다.

85만여 명이 연변에 집결하여 연변조선족자치주를 결성하였다. 때문에 중국에서의 조선말방송은 연변을 주체로 시작되고 발전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여전히 연변을 중심으로 한 조선말 방송국면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발전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필자는 이런 견지에서 본문에서 광복을 맞이하던 때로부터 시작된 연변지역사회에서의 조선말방송의 역명기, 조선족방송이 중국에서 움트고 뿌리를 내리게 된 사회적배경과 조선말방송

발전을 위해 조선족방송인들이 기울인 노력의 대가와 이룩한 결실을 살펴보려 한다.

① 연변인민 라디오방송국

1948년 창립된 연변인민방송국은 지방성과 민족성을 사업방침으로 조선족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국이다. 설립 초기에는 조선어로만 방송을 하다가 1956년부터 한족말 프로그램도 방송하기 시작하였다. 1969년부터 조선말방송과 한족말 방송을 두 개의 설비로 나누어 실시하였고 방송시간을 10시간 이상으로 늘렸다. 방송 가청취권은 동북 3성, 내몽골, 조선반도, 소련연해주, 일본 등을 아우르려 현재 FM, AM 채널을 1개씩 가지고 있다.

② 연변TV방송국

연변TV방송국은 중국에서 조선말로 방송한 최초의 TV방송국으로 1977년 개국한 주급 방송국이다. 1981년 흑백에서 컬러로 전환하였고 1991년에는 매일 4시간씩 방송하였으며 조선말방송프로그램은 20~30%를 차지하고 있다. 연변TV방송국의 조선어 채널 프로그램은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자체 제작한 조선어 프로그램, 번역 제작한 조선어 프로그램, 중앙과 전국각지에서 제작된 한족어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현재 중국의 200여개 TV방송국과 프로그램 교환을 통해 중국 전역에 조선족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디지털 방송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연변 조선족 자치구에는 이 이외에도 연길TV 라디오방송국, 도문TV라디오방송국, 화룡시TV라디오방송국, 훈춘TV라디오방송국, 용정TV라디오방송국 등이 있다.

③ 장백TV 라디오방송국

장백 조선족자치현에 위치한 방송국으로 1952년부터 라디오방송을 시작하였다. 1998년 텔레비전 방송 실시 이후로 예산 부족으로 라디오방송은 폐지되었고 현재는 텔레비전 방송만 실시하고 있다.

2) 흑룡강성 내 한국어방송국

흑룡강성은 중국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성으로 약 3,800만 명의 인구 중 약 40만 명이 조선족이다. 흑룡강성은 중국에서 가장 비옥한 토지 및 자원을 갖고 있으며 중국의 주요

중화항공업기지이다. 특히 이 지역은 19세기 후반부터 한반도 남부지역(현 남한) 이주민들이 대거로 이주해 60%이상의 조선족들이 한반도 남쪽 지역에 원적지를 두고 있다.

흑룡강조선어라디오방송국은 성급 방송국으로 출력 200KW의 중파와 단파를 통해 흑룡강, 길림, 요녕, 내몽골 지역과 한국, 북한, 일본, 러시아 극동지역까지를 가청취권으로 가지고 있다. 1963년 2월에 첫 방송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방송을 유지해오고 있다. 1999년에는 디지털 방송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2001년 12월에는 인터넷 사이트를 구축하여 방송의 현대화를 꾀하였고 장기적으로는 조선어 TV방송을 계획하고 있다.

흑룡강성 교포들은 위성방송을 통해 국내 KBS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으나 위성안테나 설치비용 문제로 대부분 흑룡강 조선어 방송을 통해 한국소식을 접한다. 중국의 한국어방송은 지난 100여 년간 한국어방송을 통해 조선족 사회의 정체성 유지를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해왔다.

하지만 동포 2세, 3세가 조선족 사회의 주요 구성원이 되면서 한국어방송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일자리를 찾아 자치주를 떠나는 젊은 조선족의 수가 증가하고 조선어를 배우는 학생이 감소하면서 조선어 방송은 외면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조선어 방송 프로그램도 젊은 조선족의 취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중앙아시아/CIS지역 - 독립국가연합

재정러시아로의 한인이주는 1860년대 중국과 러시아가 맺은 북경조약에 따라 러시아가 우수리강 동쪽지역을 획득하게 된 1863년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한국은 가난과 토지 부족 및 수탈에 시달리는 농민들의 탈출구가 필요했으며 때마침 연해주지역이 등장하였다. 한인들은 연해주 지역에 벼농사 기술을 전수했다. 1910년 한일합방 이후 일복 총독부의 토지조사사업으로 땅을 잃은 농민들이 다시 러시아로 이주해옴으로써 러시아의 한인 수는 더욱 더 증가하였다. 하지만 1937년 소련정부에 의해 실시된 한인 강제 이주 정책에 따라 약 18만 명의 한인들이 극동지역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하게 되었다. 사할린, 연해주의 한인들이 이주 정책에 따라 이동하다가 아까운 목숨을 잃기도 하였다.

1991년 소련의 붕괴는 고려인들에게 또 다른 충격으로 다가왔다. 신생 중앙아시아 공화국들이 러시아적인 문화를 배제하고 자민족 중심적인 문화육성을 위해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에 변화를 가져오자 고려인들은 다시 주변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또한 분리된 공화국 간의 전쟁으로 6천만 명의 소수민족 대이동이 발생하였는데 여기에 고려인들도 포함되어 있다. 독립국가연합의 12개국을 구성하는 큰 12개 민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매우 적은 규모의 한인들에게는 더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

러시아가 추진해온 소수민족 정책이 아무 의미가 없어짐에 따라 한인들은 거주 공화국의 소수민족 정책에 자신의 운명을 걸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게 되었다. 현재 독립국가연합 내 한인들은 주로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에 거주하고 있고 각 국가마다 한국어방송이 어렵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① 사할린우리말 방송

사할린 우리말 방송은 사할린 전역의 57만 사할린 거주민과 4만의 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라디오 방송이다. 사할린방송은 1956년 10월 1일, 소련 텔레비전라디오 방송공사 창립과 더불어 110개의 소수민족 중 유일한 소수민족 방송으로 사할린텔레비전라디오 방송공사 내 조선말 라디오 방송국으로 설립되었다.

1991년 방송국명을 사할린 우리말 방송국으로 개칭하고 주 6회 하루에 30분씩 유·무선 동시 방송을 실시하였다가 1995년 7월 러시아 경제위기로 방송이 중단되었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23일 사할린 한인들의 노력으로 방송을 재개하였다. 2002년 다시 방송시간이 하루 5분씩으로 축소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2002년 2월 '사할린 우리말 텔레라디오(Korean Teleradio Sakhalin-KTRS)'의 설립허가를 러시아 연방정부로부터 받고 재외동포재단과 한강포럼의 지원으로 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하여 주 4시간 TV와 라디오방송을 실시했으며, 현재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라디오 방송은 중단되고, TV는 주 40분 방송하고 있다.

② 우즈베키스탄 - 고려사람 '친선' 텔레비전 방송

1990년 3월 고려인을 대상으로 하는 '친선'프로그램이 시작하였다. 매주 일요일 주 1회 20분씩 우즈베키스탄 국영 1TV에서 방송되면서 고려인들의 관심을 얻었다. 1997년

KOICA봉사자들과 합동으로 '한국어를 배우시다'라는 50부작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해 상영하기도 하였다. 현재에는 월 3회 15분씩 방송되고 있으며 국영 우즈벡 TV의 도움으로 제작, 편성되고 있다.

③ 카자흐스탄 - '고려말' 라디오방송, '우리민족' 텔레비전 방송

카자흐스탄의 고려말 방송은 구소련 고려인이 한국어를 배우는 것을 통해 민족문화를 배우고 익히는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현재 주 1회 20분 방송되고 있다. 우리민족 텔레비전 방송은 1991년 2월 4일 '고려사람 TV'로 시작하였고 주 1회 30분씩 방송된다.

카자흐스탄 국영 텔레비전/라디오 방송사의 인건비, 제작비, 편성, 시설 지원과 고려인협회의 인력지원으로 제작, 방송되고 있으나 예산에 따라 지원이 감소할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

카자흐스탄은 구소련으로부터 독립 직후 다른 공화국들과 마찬가지로 성우1인이 모든 연기자의 대사를 읽어 내려가는, 마치 신파극을 연상케 하는 재미있는 더빙이 2000년 초까지도 성행하였다. 또한 모든 구소련 독립국 연합 소속 국가들은 열악한 경제 사정으로 인하여 대부분 남미나 터키에서 무상공급 받은 드라마 시리즈를 케이블TV 에서나 볼 수 있는 방영 횟수에 해당하는 일일 3~5번을 공중파에서 반복해서 틀어주었다.

현재 카자흐스탄은 독립을 이룬지 20년이 돼가지만 국영 방송의 특성상 재정의 100%를 정부에 의지해야 하는 점과 방송광고 수입과 시청료 징수제도가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이 지출만 해야 하는 부실한 시스템과 자본 부족이 겹쳐 드라마의 자체 제작은 상상도 못한다. 독립 이후 제작한 드라마는 한 두 편이 고작이었다.

이러한 경제적 이유로 최근까지도 대부분의 드라마를 러시아에서 제작한 시리즈나 한국과 중국 등에서 최근 1~2년부터 10여 년 전에 유행했던 작품을 무상공급 받거나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여 카자흐어 더빙과 러시아어 자막을 동시에 넣어 방영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2008년 7월 3일 국영 회사인 내셔널 인포메이션 홀딩 '아르나 미디어'를 설립하여 기존의 국영 방송인 '카자흐스탄'을 포함하여 '하바르', '엘-아르나' 등 3개의 공중파를 국영화 했다.

또 KATELCO, EGEMEN KAZAKHSTAN 신문, 카자흐스탄 프라브다 신문, 인터넷

정보 포털KAZINFORM, 자스오르켄, 카작 가제떼르(카작신문-카자흐어판) 등 TV및 방송 중계시설과 인터넷뉴스 및 신문사를 통합하여 총 9개의 회사를 하나로 묶어 정보 사회에서 국제사회에서 카자흐스탄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힘을 모았다.

④ 키르키즈스탄 - '아리랑' 텔레비전 방송

키르키즈 국영 TV라디오방송을 통해 2002년 8월부터 방송을 시작하였다. 주 1회 30분씩 방송되고 있으나 고려인 협회의 인력지원 등으로 어렵게 운영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3국의 한국어방송은 각 나라 국영방송국의 지원에 의존하여 방송을 하고 있으며 점차 지원이 삭감되는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위성이나 케이블을 통해서 한국국내방송, 아리랑TV의 시청이 가능하나 비용, 언어의 문제로 실제로 방송을 시청하는 동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⑤ 국영 중국 CCTV

북한 방송시스템 개선을 위하여 중국과 북한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012년 9월 중국 국영방송인 CCTV(China Central Television)는 5배만 위안(약 9억원)정도를 기부하여 북한의 조선중앙방송 TV뉴스시스템을 개선하였다.

북한은 2012년부터 지상파 디지털방송(DTV)실험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나, 프로그램제작, 전송규격 등 세부적인 내용은 담고 있지 않고 있다. 디지털방송 도입에서 핵심사항인 전송표준에 대해서는 북한은 많은 국가들이 채택한 유럽방식(DVB-T4)와 중국 독자방식인 DTMB표준 중 하나를 채택하려고 시험하고 있다.

⑥ 몽골 한인방송 KCBN-TV(대표 황성민, 976-9102-1233)

몽골 한인방송 KCBN-TV는 한류를 전하기 위해서 몽골에 설립된 TV방송이다. 방식은 북한과 같은 PAL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4) 한반도 주변국의 라디오/TV(조선말)방송국의 특징 및 교류방안

첫째, 중국공산당의 민족정책의 토대위에서 만이 연변에서의 조선말방방송이 자체의 방송체계를 이룩할 수 있었다.

둘째, 중국에서의 라디오TV방송은 당과 정부 및 인민대중의 후설이고 정부와 인민대

중을 이어주는 유대라는 이점을 잘 지켰기에 연변에서의 조선말방송이 발전할 수 있었다.

셋째, 방송을 꾸림에 있어서 중국특색을 살림과 동시에 지방특색과 민족특색을 보다 뚜렷하게 나타내야 한다.

넷째, 연변에서의 조선말방송은 중국방송의 조성부분으로서 중국방송발전의 제약을 받게 마련이고 조선말방송의 특수한 내재적 법칙이 제약도 받게 된다. 연변의 조선말방송은 반세기동안 자기가 쌓은 경험교훈을 총화하고 새로운 시대적 환경에서 부단히 자기의 출로를 모색하고 중국특색이 있는 조선말방송의 특색을 갖추도록 지원 하여야 한다.

다섯째, 북한의 방송과 협력하여 콘텐츠를 제공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북한 두만강유역의 도시와 촌락에서는 중국 연변의 라디오/TV방송의 청취가 가능하다고 한다.

여섯째, 연변TV, 연길TV, 도문TV 등 10여 방송국과 한국의 국영방송과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재외동포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북한 방송을 불러낼 수 있고 콘텐츠를 제공 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만 한다.

5) 남북 간접교류가 가능 한 기관

①조선어신식학회(회장 : 현용운)

조선어신식학회는 1994년도 중국 조선족자치주 연길시에서 연변대학 조선어학과 교수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이 되었으며, 북한의 조선과학기술총연맹과, 한국의 한국어정보학회가 공동 주최한 , 1997년도이후 코리언 컴퓨터처리 국제학술대회, 남북 정보기술 표준화 학술대회, 다언어 표준 국제학술대회(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er Processing of Korean Language)를 14차례에 걸쳐 중국 전역에서 개최하였다.

② 연변대학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연길시에 설립된 연변대학(延邊大學)은 1949년 3월 20일에 민족대학으로서 설립되었으며, 현재 중국 국가중점대학으로 지정되어 있다.

7개의 학부 프로그램(경제학, 철학, 법학, 교육학, 역사학, 과학, 공학 등)이 있다. 현재 학생 2만명이 이곳에 다니고 있다. 외국학생들은 대부분 한국, 북한, 일본, 미국, 러시아에서 왔으며, 특이하게 한국어학과, 조선어학과, 조선문학과가 있다.

③ 연변과학기술대학/평양과학기술대학교/두만강기술전문학교

연변과학기술대학(중국어: 延邊科技大/, Yanbian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YUST)는 동북아문화협력재단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연변에 설립한 중국 최초의 중외 합작 대학교이다. 총장은 김진경이시며, 평양과학기술대학교 총장을 겸임하고 계시다.

평양과학기술대학(平壤科學技術大學)은 평양직할시 락랑구역 승리동에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유일한 사립대학으로, 북한의 교육성과 한국의 사단법인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이 함께 설립하였다. 2001년 사업을 시작했으나, 여러 차례 개교가 지연되어, 2010년 가을부터 신입생을 받았다. 설립 과정에서 해외 동포와 남한의 대학 및 기독교계의 도움을 받았다. 학과로 정보통신공학부, 농생명공학부, 경영학부가 있으며, 보건의료학부와 건설공학부가 신설될 예정이다. 현재는 400명의 학부생, 150명의 석박사 과정 학생이 재학 중이다.

④ 중국 연변 연길개발구/연길IT밸리

연길IT밸리(회장 : 김용성)는 2007년 2월 12일 연길경제개발구에 설립되었다. 규모는 12,000평방미터로서 현재 입주업체는 34개로서 종사인원은 1,500여명이 된다. 연길중환소프트밸리로 지정이 되어 국제공단으로서 규모를 갖추고 있다. 현재 개발구 및 IT밸리에 북한 노동자와 IT개발인력이 진출하고 있다. 동북아중심정보도시 연길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⑤ 러시아 극동연방대학

2012년 9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열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루쓰끼키 섬'에서 건립되어 학생 35,000명이 재학중이다.

러시아 극동연방대학교(총장 이바네츠)이 학교내 한국학대학을 설립하였다. 과거 한국어학과(학과장 : 베르홀약 교수)가 있었으나 확대해서 한국학대학은 한러시아협회, 고려학술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설립되어 있다. 대학내에는 한국학당이 현재 운영되고

있다. 북한과는 학술 및 인적교류 등을 지원하고 있다.

⑥ 러시아 연해주 우스리스크의 고려문화센터

블라디보스토크 북쪽 약 112km 지점, 한카호(湖) 남쪽의 저지대에 위치하며, 동해로 흘러드는 우수리강 지류에 자리한다. 시베리아 철도와 하얼빈·무단강[牡丹江]·둥닝[東寧]을 연결하는 철도와의 분기점으로, 극동지역의 경제적 중심지를 이루는 산업도시이다.

우스리스크는 연해주를 중심으로 펼쳤던 독립운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곳이며 이상설 선생 등이 머물렀던 유적지가 남아있다. 2009년 10월에 개관한 고려인문화센터가 있다. 1천300여 평 규모로 기존의 유치원을 구입해 사용하던 것을 증개축한 이 문화센터는 한인 이주의 역사를 한 눈에 알 수 있는 전시관을 비롯해 한국어와 컴퓨터를 배울 수 있는 정보화센터, 병원, 다목적 공연장과 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러시아 한인 이주 140주년(2004년)을 기념해 2006년 짓기 시작한 고려인문화센터가 3년 만에 완공됨으로써 140년 간 3차례에 걸친 한인 이주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고려인들이 한·러 양국 간 우호협력의 계기가 되었다.

한인들은 1864년 연해주로 이주해 힘겹게 삶의 터전을 일궈왔지만 1937년 스탈린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 당했고 이어 1990년대 초 구 소련이 해체되고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각각 독립하면서 러시아어를 쓰는 한인들이 다시 연해주로 돌아와야 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현재 연해주에 살고 있는 고려인은 4만여 명이고 고려인 문화센터가 들어서는 우스리스크에만 약 2만명이 산다. 스탈린의 강제 이주 당시 연해주 고려인은 약 18만명으로 당시 이곳 인구의 10%가 넘었다.

고려인 문화센터는 러시아 국적 재취득과 취업 및 사회보장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려인 동포들을 돕기 위해 양국 정부 합의로 건립이 추진됐으나 우여곡절이 많았다.

2. 남북한 방송통신 교류협력의 장애요인

1) 북한의 개혁개방의 향방

북한은 김정은 체제에서 첫 경제개혁 조치로 간주되는 '6·28방침'을 결정한 이후 주민

들을 상대로 경제정책 변화의 당위성을 집중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경제개방'이라는 용어까지 과격적으로 사용함을 보이고 있다. 북한 전문 인터넷신문 '데일리NK'는 함경북도 청진 소식통을 인용, "지난주부터 매일 3방송(내부 유선방송)을 통해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우리 경제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경제개방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고 알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2012년 8월 현재).

북한은 이미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 체계를 확립할 데 대하여'라는 제목의 '6·28 방침'을 내부에 공표했다. 양강도 김정숙군 등 3개 군에서는 분조 축소, 농기계 지원, 계획 초과량 개인분배 등을 내걸고 농업 개혁 시범 지역으로 운영 중이다.

북한 당국이 개혁개방을 시사하는 행보를 잇달아 보이고 있지만 주민들은 아직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도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NK측 소식통에 따르면 "아침이면 경제개방을 한다며 분위기를 띄우기 때문에 당장 어떤 일이 터질 것 같기도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없다"면서 "현재는 정책에 대한 설교뿐이고 구체적인 대책은 없다"고 부연했다. 소식통은 다만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개혁개방이란 말을 입에 담지 못하고 살아왔던 때와는 분위기가 달라진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은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남한 민간대북방송들의 방송에 대한 북한의 전파교란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방송사들은 방송에 대한 북한의 방해전파가 점차 강화돼 북한 주민들의 방송 수신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한다. 2012년 4, 5월부터 북한의 방해전파가 강해지고 있는 추세"라면서 "대북방송에 대한 방해전파는 늘 있어왔지만 최근에는 한 번에 2가지의 이상의 기계음이 섞여 들리고 있어 북한 당국이 방해전파 송출을 늘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개혁방송이 매일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2시간동안 단파 7590Khz로 송출하고 있는 방송의 샘플에 따르면 6월 초부터 현재까지 일반적인 잡음이 아닌 2가지 이상의 인위적 기계음(재밍 시그널, 전파교란 신호)이 들린다. 또한 인위적 기계음이 4가지 이상인 경우도 있다.

일본 내 북한 문제 전문가인 시즈오카 현립대학의 이즈미 하지메 교수가 2012년 9월 17일 방송된 고향의 바람 '뉴스해설'에서 중국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김정은 체제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중국 전문가들 눈엔 아직 김정은 체제의 독자적 정책은 나오지 않았고, 개혁개방 정책 역시 당장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즈미 교수는 최근 중국을 방문, 현지 전문가들과 북한 김정은 체제에 대한 여러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현지 전문가들이 보기에 김정은 지도부의 권력기반 구축 작업이 우리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고, 거의 끝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면서 북한 내부 체제가 상당 부분 안정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이즈미 교수는 “하지만 한편에선 아직 김정은 체제의 독자적인 방침, 정책은 나오지 않았다는 견해도 있다”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사인 새로운 경제정책이나 개혁개방 정책은 당분간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9월 26일 북한 당국이 1년에 한 차례밖에 열지 않는 최고인민회의를 금년도 두 번째로 개최했지만 현행 11년제 의무교육제를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최고인민회의의 법령을 공포하는 것으로 그쳤던 바 있다.⁷⁵⁾

북한 김정은 체제가 경제개혁조치를 언제 단행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농협개혁안은 협동농장 수확물의 70%를 국가, 30%를 농민 몫으로 보장하고 국가가 일방적으로 부여하던 협동농장의 생산계획을 폐지하는 게 골자다. 국가의 계획경제와 배급제를 사실상 포기하는 농업개혁 방안인 것이다. 농협개혁안 발표가 미뤄지는 것은 경제개혁조치가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위협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시장경제인 농협개혁안이 시행되면 일부 농산물이 사유화되면서 빈부 격차가 커지고 결국 사회주의 체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2) 남북한 방송부문 공동매체 단계별 목표, 추진전략 제시

북한의 소프트웨어 기술은 상당 수준에 올라와 있으나 컴퓨터 하드웨어와 통신기기 및 통신망 분야는 취약하여서 앞으로 방송통신 통합에 난관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북한이 아직도 인터넷을 수용하고 있지 않아서 첨단기술의 도입에 지장이 있으며 교육에서도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바다를 향해

75) 東北亞放送研究月報, 2012年 8月(第53号) 및 2012年 9月(第54号) 내용 참조

할 수 없다는 점이 안타깝다. 그러나 중국의 예를 보거나 최근 북한을 방문하고 온 일본인의 북한 방문기를 보면 북한이 조금씩이나마 중국식 개방주의를 닮아간다고 하므로 머지않아 인터넷이 들어가리라 기대된다. 현재 구축 가동되고 있는 국내 컴퓨터망의 활용은 앞으로 인터넷과 쉽게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고무적이다.

통일에 대비한 방송통신 정책을 마련하는 데는 민간차원의 교류가 신뢰성 및 동질성 회복에 매우 중요하다(bottom-up approach). 협력 방안을 생각해 본다면 남북이 공동으로 방송통신기술연구소를 설립하여 남한의 하드웨어 기술과 북한의 소프트웨어 기술을 접목시키고 북한의 이론연구와 남한의 산업화 기술을 활용하여 국제경쟁력 있는 상품을 창출하며 국제 프로젝트도 공동으로 수행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의 방송통신 기술자가 왕래하면서 강의와 세미나를 할 수 있고 북한의 부족한 컴퓨터 요원 양성에도 협력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간차원의 「남북공동 IT 교류위원회(가칭)」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⁷⁶⁾

방송통신 분야는 경제교류와 북한 개방의 주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나아가 통일을 앞당기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남북한이 공동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유망한 분야이지만, 북한의 기술수준이 너무나 열악하고 낙후되어 있어서 남한의 첨단 방송통신 인프라를 조건 없이 제공하여 기술격차를 줄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방송통신 분야 국가기술규격 및 표준 통합은 실제적인 교류협력 확대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므로 향후 민간 차원의 통합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과의 방송통신 교류는 공감대가 형성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산적해 있지만, 대내외적으로 여건이 어려울 때는 무엇보다 먼저 남북의 신뢰구축을 위해 방송통신 전후방을 통한 다각적인 접촉 및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는 북한의 태도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인내심을 갖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난 몇 년간 남북간 대화단절, 개성공단의 출입제한 조치 등 긴장고조, 금강산 및 개성관광 사업 중단, 중단거리 로켓 발사, 두 차례의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ICBM) 발사,

76) 박찬모, 2002년 '국어정보화 아카데미' 발표 원고

북한 경비정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 등 갖가지 사건들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건들로 인한 남북의 경색관계와 함께 양측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경제협력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추락시켜 국제사회에서 국가역량 저하를 가져올 수 있어 남북한 간 긴장 해소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다행히 남북은 소위 ‘첨단 산업의 비타민’이라 불리며,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의 제조에 꼭 필요한 희토류의 공동개발을 위해서 지난해 두 차례의 비밀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은 남북 경제협력 및 화해의 물꼬를 다시 트는 계기가 될지 주목되고 있다. 그리고 김정은의 행보가 개혁개방의 기류를 다소나마 보이는 듯해서 속단은 할 수 없지만, 향후 남북교류의 긍정적인 측면을 기대할 수도 있다.

3) 관련 정보 접근 통제규정의 완화 및 간접 교류협력

남북한 방송통신 간접 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북한 방송통신의 현황과 기술 수준, 우선 협력 가능한 세부 기술 분야 및 관련 전문가그룹과의 접촉절차 등 북한의 내부 상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는 북한 내부의 기본적인 표준 정보조차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북한이 자국의 기술과 정보를 먼저 남한에 제공하여 교류하지 않는다. 아울러 정보교류나 기술통합 등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당국자 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처리되는 것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점에서 북한의 과학기술 및 방송통신 전반에 대한 민간 차원의 정보교류가 지속되어야 한다.

아울러 “전략물자수출입공고”, “남북한 교역대상 물품 및 반출·반입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등 국내 규제로 인한 교류협력 사업추진의 장애요인은 과감한 규제완화 정책을 시행하여 이를 남한에서 먼저 해결할 필요가 있다.

초기 남북협력 시 국내 기업가 및 연구자들의 협상에 대한 어려움은 국내에서 완벽하게 잘 기획된 협상도 실무거래에서 발생하는 뜻밖의 변수가 협상의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남북한 방송통신 교류협력의 실질적 결과 도출을 위해서 교류협력의 사전단계, 교류협력의 진행 시 착안사항 및 실무협의 도출 시 이행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전에 철저히 준비된 교류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통일 대비 방송분야 준비과제 제시

방송의 환경은 국내외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우리는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 우선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을,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쟁 원리를, 사회적으로는 인간 본위의 다양한 가치가 존중되는 가치관을,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고유문화와 다른 나라 문화가 잘 조화를 이루는 다원성 원리가 저변에 깔려야 할 것이다.

통일을 위한 방송의 역할에 대한 기대는 자못 크다. 방송을 통해 동서독 간에는 민족적 동질성을 유지할 수 있었고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구축할 수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같은 공감대의 형성은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업 달성에 큰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통일을 위한 방송의 역할을 살펴보면 상호간의 방송을 자유로이 접할 수 있는 정치적 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를 위해 북한을 설득하는 작업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통일문제는 우선 정치권이 주도해 나가야 되겠지만 방송인들의 노력도 중요하다. 먼저 전과 방해 행위를 중지해야 되고, 상대방의 방송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방송방식의 호환작업이 필요하다. 다음에는 프로그램의 교류 및 공동제작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방송 인력과 기술교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민주화과정에 기여하는 방송의 역할은 다양한 의견들이 자유롭게 표출되고 토론되는 장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이어야 하며, 지방방송을 활성화하고 액세스권을 보장하며 시청자 구제활동을 적극화해야 한다.

또 방송민주화는 특수이익보다 보편적 이익에 봉사하여야 하며 소수 수용자, 조용한 집단들의 요구도 고루 반영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래서 모든 국민에게 공개된 방송, 국민에게 사랑 받는 방송, 국민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방송이미지를 형성 하여야 한다.

다양화된 채널, 탈 대중화된 시대에는 산업사회처럼 방송매체를 통해서 모든 국민의 생각이나 태도를 일방적으로 획일화할 수 없게 된다. 그때는 사회적 통제와 자율규제가 이루어지며 방송은 궁극적으로 강력한 민주세력인 동시에 문화매체로서 자리를 굳히게

된다.

세계의 방송은 이제 문화 매체로서나 산업적 도구로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극심한 국제경쟁상황에 놓여 있으므로 다른 분야처럼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제는 정부의 주도하에 자금을 충당 받고 규제를 받는 방송제도는 이미 방송과 통신 영역의 방대해진 산업성이나 선진국방송 발전 상태를 볼 때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점이 없지 않다. 특히 뉴 미디어 산업분야는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고 고급인력에 의존하는 바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역단위의 경제구조가 구축되고 있는 면에서 볼 때 하드웨어적 측면에서의 기술축적이 되어 있고 적극적으로 경영의 합리화를 가하며 경쟁력이 있는 민간부문의 참여는 권장할만하다. 물론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정책은 정책이나 재정적 측면에서 필요 불가결한 요소이다.

방송제도가 바뀌고 그에 의해서 신생국이 생겨나면 새로운 패턴의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고 수용자의 선택폭은 확대되어야 한다. 영국의 제4채널처럼 다른 기존의 채널들과 다른 기준에서 편성, 운영될 수 없는지를 검토하여 모든 방송사가 유사편성이나 획일 편성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여러 가지 제도를 실시하는 뜻이 없다. 특히 공영방송은 이런 면에서 앞장서야 할 것이다. 제도에 따라 각 방송국이 스테이션 이미지를 확립하고 거기에 알맞은 편성의 특수화에 노력하면 시청자와의 유대도 강화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국내외의 경쟁에서 승리하게 된다. 모방과 획일적 종합편성으로 방송 전체세력의 절반에도 못 미치게 쇠퇴해가는 미국의 3네트워크가 주는 교훈을 우리도 배워야 한다.

3. 제 3국을 통한 관련된 장애요인 및 해결방안

북한은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바세나르협약(WA, Wassenaar Arrangement)”과 미국수출관리규정(EAR,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상의 규제 대상국으로 남북교류협력에 커다란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과 교류에는 북한과 인접한 국가와의 교류를 강화해야만 한다.

1) 국제 규정상의 장애요인

바세나르협약은 '재래식 무기와 전략 물자 및 기술(conventional weapons and sensitive dual-use goods and technologies)'의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1996년 7월 33개 회원국(2005년 현재 39개 회원국)으로 결성되어 같은 해 9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다국적 협의체다. 이 협약은 재래식 무기와 전략물자 및 기술의 국가 간 거래에 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수출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여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대량파괴무기의 확산을 금지하고자 만들어졌다. 바세나르 협약에서 규정한 수출통제대상 품목은 '전략 물자 및 기술 리스트와 군수품 리스트(Dual Use List and Munitions List)'에 명시되어 있고, 전략 물자 및 기술 리스트는 기본리스트와 별도의 민감품목(sensitive items) 리스트 및 여기에 부속된 고민감품목(very sensitive items) 리스트로 구성되어 있다. 수출통제대상 품목은 기술의 발전 추세와 각 회원국들의 정책수행 경험을 반영시켜 재조정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남북간 방송통신 교류협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함에 있어 외부적 장애요인 중의 하나가 바로 "바세나르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략물자통제제도"이다. 사업추진에 필요한 대북 IT 설비반출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분쟁 우려 품목의 수출을 제한하는 이 협약에 근거하여 국내 규제가 가해지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용도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컴퓨터의 대북 반출을 금지하는 것도 바로 이 같은 규제 때문이다. 이러한 국제규제는 방송통신부문의 교류협력 사업추진에 직접적인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국가 간 협의를 통해 산업발전 및 민간교류 차원에서 이를 대폭 완화하거나 규정을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

2) 미국의 개입에 따른 장애요인

미국은 이중용도 품목 수출관리규정 EAR에 근거하여 미국산 완제품 또는 미국산 부품, 기술이 포함된 외국제품을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 미국 정부의 사전 허가를 요하는 등 자국 영토 밖에서도 미국산 제품과 이를 수출하는 외국기업을 엄격히 통제하

고 있다. 아울러 허가없이 수출한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고 장기간 미국과의 거래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위반자와 처벌내용을 거래금지리스트(DPL)에 올리고 이를 관보 및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세계 많은 국가의 기업들로부터 거래를 기피당하는 불이익을 겪게 된다.

방송통신 교류협력에 필요한 대북 물품 반출 시 적용되는 “미국의 수출입관리 규정(EAR)”도 외부적 장애요인 중의 하나이다. 수출입관리규정(EAR: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이라함은 미국 기술 또는 제품의 비중이 10% 이상이 되면 적성국에 수출을 통제하는 규정으로 미국 국내법이지만 미국 외의 기업에 대해서도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역외 적용성(Extraterritoriality)을 지니고 있다. 국내 방송통신 관련 제품은 대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EAR의 위반은 곧 대미수출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미국을 설득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과 제3국의 설비 및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으나, 무엇보다 먼저 대북 반출·반입물품에 관한 국내 규정부터 완화할 필요가 있다. 즉 북한 내에서 군수물자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정부 차원의 협정이 이루어진 물품은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국내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3) 국제 규정상의 장애요인 해결방안

남북 방송정보 교류 확대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따른 남한의 역할은 바세나르 협약과 같은 평화유지 관련조약을 어길 수는 없는 입장이며, 그 협약을 지키려고 하니, 수출제한 품목에 너무 추상적인 규정이 많다. 대부분의 방송통신에 관련된 물품은 규제대상이어서 사실상 남북교류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6.15선언 이후에 이뤄진 남북한 투자보장합의서 등 4대 합의서 전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남북교류는 국가 간 수출입이 아닌 "민족내부거래"임을 국제무역질서에서 인정받을게 필요하다. 이런 절차를 통하여 보다 많은 인적, 물적 교류를 원활히 할 수 있다.

제 4 절 통일 대비 방송통신 간접교류협력 전략적 대안

1. 남북한 방송통신 교류협력 강점 및 약점 분석

남북한의 방송통신 교류협력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강점, 약점, 기회 및 위협에 대한 면밀한 상황분석이 필요하다. 방송통신의 교류 측면의 강점요인을 살펴보면, 남한의 세계 초일류 방송통신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는 점과 북한의 풍부한 소프트웨어 분야의 고급인력이 산재해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표 7-3> 남북한 방송통신 교류협력에서 얻어지는 장점

① 적은 투자비용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프트웨어 위주의 협력방식의 경우 추진과정에서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음 - 장치산업보다 훨씬 적은 비용의 투자 - PC와 네트워크 확보하는 수준의 투자 ▪ 자연적인 언어소통으로 협력개발 효율 증대
② 물류관련 영향 작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프트웨어는 상시적인 물품의 운송이 발생치 않고, 부품 등 하드웨어도 부피가 작음 ▪ 남북경협외의 사업성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운송비용 등 물류상의 제약을 적게 받음
③ 양질의 개발인력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한 기본 자질을 갖추고 있음 ▪ 남한의 경우 대학졸업 후 3년 되어야 기간인력으로 활용 가능, 북한 인력은 3~6개월 정도의 훈련으로 가능 ▪ 이직 가능성, 창업으로 인한 퇴사 등이 없는 안정적 인력운영
④ 안정적 기술축적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이상의 취업기간보장으로 안정적 기술축적 가능

또한 북한의 통신설비 현대화 및 인터넷 도입과 관련하여 대대적인 지원과 남한의 풍부한 자본, 기술 그리고 시장 구축능력을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개성공단과 같은 북한당국의 경제특구 지정, 국제적 기술 및 자본도입, 전자 산업의 경쟁력 강화, 북한의 경제정책 노선 부각에 따른 정치사회적 체제기반 강화 등이 있다. 남북한 방송통신 교류협력에서 얻어지는 장점을 살펴보면 <표 7-3>와 같으며, 특히 소프트웨어 분야는 남북 협력 교류 사업에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표 7-4> 남북한 방송통신 간접 교류협력 분석

구분	방송통신 교류협력 측면	방송통신 부문의 전후방 협력 측면
강점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한의 세계일류 방송통신 인프라 - 북한의 풍부한 SW 및 DB분야 고급인력 - 북한 당국의 대대적인 지원 (통신 설비현대화 및 인터넷 도입 등) - 남한의 자본/기술/시장 구축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풍부한 노동력 및 저임금수준 - 북한당국의 경제특구지정(개성공단 등) - 국제적 기술 및 자본도입 - 전자 산업의 경쟁력 강화 - 북한의 경제정책 노선 부각에 따른 정치사회적 체제기반 강화
약점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 간 극심한 기술격차(북한은 남한의 70년대 수준) - 남북한 방송통신산업 용어(외래어 등)의 차이 - 북한의 열악한 방송통신산업 환경 - 북한의 방송통신산업시설 및 장비의 절대 부족 - 북한의 정보화 관련 지침 및 법 미 제정 - 북한의 국가정보화 추진기구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취약한 사회간접 자본 및 시설 - 북한의 취약한 하부 산업구조 - 낮은 노동생산성 - 남북 경협사업의 복잡한 국내 규제 - 취약한 북한의 내부정보 - 남북한 직교역 체제 불비
기회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 방송통신 교류협력의 확산 - 북한의 점진적인 정보화의 확산 - HW, SW분야의 활발한 민간교류 - 타 산업의 상승효과 기대 - 국제협력을 통한 기술인력 확대 및 기획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IDO, UNDP 등 국제기구 및 여러 NGO 등 국제협력 유도 - 지리적 이점 및 조세감면 혜택 - 통일시대를 대비한 동질성 회복 - 남북한 민족정서의 통합 - 북한 지도층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
위협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한 전자상거래 등 규정에 의한 통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남북 인터넷교류와 남북교류협력법 등) - 전략물자의 대북 반출 제한 (첨단 방송통신 산업 장비 등) - 북한의 군사적 기밀유출 문제에 따른 방송통신산업 교류의 어려움 - 방송통신 교류협력에 대한 북한의 인식 차이 - 북한의 디지털 지도층과 기존 권력층과의 인식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색된 남북관계 및 북한의 폐쇄성 - 남북관계의 특수성 - 북한식 사회주의 고수 - 체제 유지를 위한 정보의 통제 - 기업경영의 제약 - 일관성 없는 북한의 남북경협 정책 - 북한의 외국인투자법 등 이해 부족 - 기업윤리 의식의 격차 - 북한이 처한 국제환경적 요인 (테러위험국가지정, 바세나르협정, 대량살상무기(WMD) 문제 등)

※자료출처: 남북한 정보통신산업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연구(박세환)

반면, 방송통신 교류 측면의 약점요인은 북한은 남한의 70년대 수준으로 극심한 기술 격차가 있으며, 방송통신에 있어서 외래어를 포함한 용어의 심각한 차이, 북한의 열악한 방송통신 산업 환경, 관련 산업시설 및 장비의 절대 부족, 정보화 관련 지침 및 법을 제정하지 못하였으며, 정보화 추진기구 부재하다는 것이다.

주변의 협력차원의 약점들은 북한의 취약한 사회간접 자본 및 시설, 취약한 하부 산업 구조, 노동생산성, 남북 경협사업에 있어서 복잡한 내부 규제, 취약한 북한의 내부정보, 남북한 직교역 체제 갖추어지지 않음을 지적할 수 있다.

남북한이 내·외부적으로 안고 있는 방송통신 교류협력 측면과, 방송통신 부문의 전후방 협력 측면에서의 도출된 분석결과는 <표 7-4>와 같다.

2. 남북한 기술격차 해소방안

남북한 간에 방송통신 교류협력 범위는 기술격차로 인해 남한의 기술과 인력이 북한에 전적으로 제공되었기에 그 동안은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는 지극히 단편적인 것이었다. 이마저도 대내외 여건에 따라 북한의 협력은 일관성이 없었다. 남북한 방송통신 교류를 위한 기술 분야의 우선과제로 남북한 표준의 통합이 절실하다. 이는 절대적으로 남한 주도의 지원이 필요한 분야로 단계적으로 세부적인 기술지원 및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의 전자, 통신, 방송기술 관련 국가규격을 심층 분석하여 통합 단계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남한의 풍부한 자원 및 방송통신 인프라와 북한의 저임금의 풍부한 기술 인력을 적극 활용한다면 향후 남북한 간 방송통신 기술격차 해소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기술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남한 주도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실행되어야 한다. 남북한 간 방송통신 기술격차 해소를 위한 기반 구축의 주요 내용은 대북 방송통신 인프라 구축기반의 마련이다.

기술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 측면에서의 주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 방송통신 관련 방송기기 및 방송 매체 접근성 지원

- 방송통신자원 활용능력 및 수용의식 지원
- 컴퓨터 등 전략물자의 제한승인품목 개선
- 중소 벤처기업과의 지속적인 경제협력 지원 및 유도
-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공동개발 지원 및 유도
- 바세나르 협정 등 국제규정 완화정책 마련
- 산·학·연·관·민과의 교류를 위한 대북 규제정책 완화

<표 7-5> 남북한 방송통신 분야 표준화 통합 단계

통합 단계	주요 내용	비 고
제 1 단계 (상호인지 1 단계)	남북한 표준규격(KCS/KPS) 상호 교환 합의	현재 보유표준 교환
제 2 단계 (상호인지 2 단계)	남북한 산업표준규격 및 이질적 산업용어 비교 연구	현재 보유표준 비교 연구
제 3 단계 (상호협약 단계)	신규 제정 남북한 규격에 대한 국제규격 기준 제정 합의	신규 표준 제정 합의
제 4 단계 (상호인증 단계)	남북한 교류 활성화를 위한 남북 산업규격 동질화 및 상호 인증	상호 표준 인증
제 5 단계 (통일화 단계)	남북 산업표준의 통일화	표준 일체화

※ 자료출처 : 남북한 산업 표준 통일 전략, 윤덕균(2006), p.107

기술격차 해소를 위한 소프트웨어 분야의 협력모델 개발, 하드웨어 분야의 협력모델 개발, 방송통신 및 기타 분야의 협력모델 개발과 교육 및 컨설팅 분야에 있어서 북한 방송통신 인력의 이론과 실기 교육 및 연수, 교육성과를 통한 방송통신 협력 컨설팅, 방송통신 관련 시설 교환방문 및 세미나 개최, 방송통신 관련 특허의 크로스 라이선싱 등 지재권 협력 등이 있다.

기술격차 해소를 위한 표준화 및 통합 방안으로서는 방송통신 관련 용어의 표준화 사업, 남북한 방송통신규격 비교분석 및 산업표준규격 마련, 국제표준화기구와 연계 전략 마련, 표준 통합을 통한 기술적 이질감 극복 등이 있으며, 남북간 방송통신산업 세부기술격차 분석하여 적극적인 기술이전의 시행되어야 한다.

3. 남북한 간 방송통신 분야의 민간교역 활성화방안

남북한 간 전체 민간교역 추이를 보면 1989년 1,900만 달러에서 2006년에는 13.5억 달러로 연평균 75.1% 증가하였으며, 이후 2005년 4월 개성공단 가동으로 크게 증대되어 2007년 교역액은 1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남북한 간 민간교역 형태는 상업적 거래와 비상업적 거래가 6 : 4의 비율을 유지하다가 2006년 이후 8 : 2 수준으로 변화되고 있다. 방송통신 관련 전자전기제품의 경우 2007년 북한의 대 남한 교역동향을 보면 전체 교역량은 전년 대비 6.8% 증가한 17억9,790만 달러(37.9%)를 기록하였으며, 반입 및 반출현황 역시 미미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방송통신 관련 제품의 교역량을 늘릴 수 있는 경제협력 모델을 개발하여 교류협력 확산 및 민간기업의 교류 활성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며, 남북한 민간교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 상호 공동이익 추구 원칙
- 교역에 불확실성이 없는 안정화와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 원산지 및 전략물자 통상외교 강화
- 남북한 기술 및 국가표준 협력사업 확대 추진
- 법·제도 정비 및 물류체계 개선

아울러 남북한 교류협력의 준비 및 진입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 교류협력 참여 기관 및 기업의 지속적인 참여의지 확인
- 교류협력 진입단계에서 책임자 간의 직접적인 접촉 유지
- 신뢰감 있는 의사소통 원칙 고수
- 예상치 못한 북한의 태도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처
- 합의사항의 문서화 필수
- 장기간 준비와 충돌에 대비한 전략 준비
- 진행사항 정보에 대한 대내외 발표를 통한 적절한 공유

- 준비 및 진입단계에서 무리한 약속을 하지 말 것
- 교류협력의 지속성 및 일관성 유지

4. 간접교류협력을 통한 단계별 추진방안

남북한 방송통신 교류협력 단계별 추진전략은 실현 가능한 방송통신 분야 세부 기술 및 교류방식 결정하는 진입단계, 남북한 방송통신 교류 확대하는 진행단계, 국내 방송통신 관련 사업자의 대책 마련하는 최종단계로 구분되며, 각 단계별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1) 진입단계

- 적극적인 동북아 지역 전체의 방송통신 기술 지원
- 동북아 지역 전체 방송통신의 점진적 확대
- 중국, 러시아 지역 등 주변 국가 방송통신 기지의 현대화 지원
- 남북 및 중국 연변 조선족 자치주 간 방송통신 분야 국가표준안 마련 및 기술교육 지원

2) 진행단계

- 정부차원의 확대대책 및 방안 마련
- 정치적 역할과 정책적 지원
- 방송통신 교류협력을 위한 협력위원회 설치
- 법 및 제도의 정비(방송통신 분야 세부 기술별 기술제휴 및 협정 체결)
- 방송통신 교류 확대에 의한 연변을 통한 북한의 방송통신 산업 활성화 유도

3) 최종단계

- 동북아 지역 방송통신 협력 네트워크 구축 촉진을 위한 투자환경 조성
- 동북아 지역 방송통신 교류를 통해 생산된 제품 및 서비스의 특허 권리화 추진
- 대북 방송통신 사업자의 독점 사업권 일정기간 부여

5. 남북 방송통신 교류의 제약과 중. 단기 교류 전략안

1) 남북 방송통신 교류의 제약사항

남북한 방송교류는 각종 민, 관 단체에서는 지속적인 남북문화교류에 대한 논의를 해 왔었다. 그 중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박광무)은 2012년 3월부터 매월 1회씩 열고 있는 '통일문화정책포럼'에서는 북한문화 연구자, 남북 문화교류 협력 분야 민간 전문가, 통일정책·문화정책 연구자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여 그동안의 남북 문화교류의 주제별 성과와 과제에 대해 논의해 왔었다.

남북 방송 분야의 교류를 위한 인적, 물적 교류의 전제가 되는 것은 “남북교류 협력법”이다. 제 3조에는 “남한과 북한과의 왕래, 교역, 협력사업 및 통신 역무의 제공 등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남북교류 협력에 대한 기본이 되는 법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교류, 협력을 촉진시키는 것 보다는 “남북교류, 협력추진 협의회 설치 규정”을 제외하고는 교류, 협력에 관한 규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또한 남북 방송 교류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방송관련자가 수시로 전화 및 통신을 통해 제 3국에서 인적, 물적 접촉을 해야 하는데, 국가보안법은 이에 대한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 관련 사실 및 자료의 무단방영 또는 보도를 할 때, 그 행위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행한 경우에는 국가보안법에 위반이 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남과 북은 법적으로 상호 간에 적대시하는 법령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인적, 물적 접촉 자체를 제약받고 있어서 자유로운 남북교류에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남북 민간교류 기본법은 갖가지 규제를 통하여 교류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남한이 정한 법이기에 남북한 교류 및 협력의 기본법으로서 법적, 제도적인 틀을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외에 국가보안법,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회조적 규정, 특수자료 지침 등 규정들이 방송교류의 제약사항이 되는 것들이다.⁷⁷⁾

77) 한국전과진흥원(2008. 5), 북한 전과정책 및 산업현황 분석 연구 p.111-113 내용 재편집

또한 현재는 예산도 1/10 수준으로 삭감된 상태이기에 활동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구 방통위의 '남북방송교류협력 사업' 예산이 2007년 21억 5,600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2012년 방통위의 '남북방송통신교류협력 촉진 사업' 예산은 2억 원에 불과, 무려 1/10 수준으로 축소된 것이다. 또한 2008년에는 이 사업 예산이 25억8,900만원이었던 것에 비교하면 7.7% 수준까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난다.⁷⁸⁾

남북관계에 있어 '방송 분야의 교류'라는 것은 정치적인 부분은 배제하고, 문화적으로, 그리고 인적으로, 기술적으로 교류 협력하여 남북의 동질성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평가받았다. 그리고 실제로 방송언론인들의 만남과 교류, 남북방송공동제작, 남북 문화공연 교류를 통한 프로그램 제작과 방송 등이 다양하게 이뤄졌다. 조용필을 비롯한 여러 가수들의 평양 공연과 공연실황방송 등이 이뤄졌었다.

2) 방송통신 교류에 대한 중장기 전략 방안

방송통신 간접교류에 대한 단기 계획에는 첫째, 교육 및 문화 콘텐츠의 간접교류 방안이며, 중국 두만강유역 지역의 방송 콘텐츠 공급 및 통신서비스교류, 방송교육에 대한 교류(EBS, 방송통신대, 배움나라 등), 영화, 연속극, 가요앨범에 대한 교류 및 CD, DVD, USB 등 매체를 통한 교류를 한다. 둘째, 장비, 서적, 기술 서비스 등의 간접교류 방안이며, 세부 사항은 서울에서 중국 연변 및 러시아 연해주와 평양을 잇는 첨단 통신 네트워크 구축 제안, 북한의 조기 디지털 방송시스템 정착을 위한 기술 제공, 스마트폰 및 3G 기술 분야의 조기 보급을 위한 기술 제공 및 남북한 방송통신 기술교재 및 교육교재와 기술논문 및 기술 학술지 교류이다.

중장기 계획에는 첫째, 기술 인력에 대한 교류 방안으로 중국 동북3성, 러시아 연해주, 몽골지역에 방송통신 활성화 및 기술인력 교류, 동북아지역 국가에 민간교류와 방송통신 기술 지원을 위한 자문단 파견, 북한 평양과학기술대를 거점화 협력 추진체계 구성, 방송통신 분야의 기술인력 파견 및 남북한 교환교수 제안, 남북이 동시 가입한 국제기구

78) 최민희(2012.8.23), 문방위 결산보도 자료 인용 재편집

에서의 적극적인 교류 활동 및 각종 국제 학술대회 및 경시대회 공동 참여이다. 둘째, 사이버 도서관 설립이며, 온라인을 통한 방송통신 관련 및 기술 도서 구독 및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의 연계방안 검토하는 것이다. 셋째, 언어 및 기술 표준화의 직간접 교류 방안이며, 한글 표준화, 컴퓨터 자판, 핸드폰 자판 등 각종기기 표준화 작업, 북한 및 중국 연변 정음 표준화로 한국어 표준 방송통신 추진이다.

그리고 핵심 중장기 계획으로는 한반도 교류협력센터의 설립 및 운영이며, 그의 세부 시행사항은 중국 연변지역에 최적지를 모색하여 설립 운영, 통일 전, 후에 방송통신 협력에 대한 제반 활동, 연구, 교육, 학술행사 등 정기 개최, 한반도 인접국의 한국어 라디오 및 TV 방송국을 활용할 수 있다.

<표 7-6> 남북 방송통신 간접교류를 위한 중장기 전략 방안

구분	전략 내용
단기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및 문화 콘텐츠의 간접교류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두만강유역 지역의 방송 콘텐츠 공급 및 통신서비스교류 - 방송교육에 대한 교류(EBS, 방송통신대, 배움나라 등) - 영화, 연속극, 가요앨범에 대한 교류 - CD, DVD, USB 등 매체를 통한 교류 ◎ 장비, 서적, 기술 서비스 등의 간접교류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중국 연변, 러시아 연해주-평양을 잇는 첨단 통신 네트워크 구축 제안 - 북한의 조기 디지털 방송시스템 정착을 위한 기술 제공 - 스마트폰 및 3G 기술 분야의 조기 보급을 위한 기술 제공 - 남북한 방송통신 기술 교재 및 교육교재의 교류 - 기술 논문 및 기술 학술지/학술대회 교류
중장기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 인력에 대한 교류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동북3성, 러시아 연해주, 몽골지역에 방송통신 활성화 및 기술인력 교류 - 동북아지역 국가에 민간교류와 방송통신 기술 지원을 위한 자문단 파견 - 북한 평양과학기술대를 거점화 협력 추진체계 구성 - 방송통신 분야의 기술인력 파견 및 남북한 교환교수 제안 - 남북이 동시 가입한 국제기구에서의 적극적인 교류 활동 - 각종 국제 학술대회 및 경시대회 공동 참여 ◎ 사이버 도서관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을 통한 방송통신 관련 및 기술 도서 구독 -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의 연계방안 검토 ◎ 언어 및 기술 표준화의 직간접교류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글 표준화, 컴퓨터 자판, 핸드폰 자판 등 각종기기 표준화 작업 - 북한, 중국 연변 정음 표준화로 한국어 표준 방송통신 추진
핵심 중장기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 방송통신 교류협력센터의 설립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연변지역에 최적지를 모색하여 설립 운영 - 통일 전, 후에 방송통신 협력에 대한 제반 활동 - 연구, 교육, 학술행사 등 정기 개최 - 한반도 인접국의 한국어 라디오 및 TV 방송국 활용 ◎ 정음 표준화 연구센터 설립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글은 한국어, 중국 조선문, 북한 조선어의 공통언어임 - 말과 글이 같은 민족이므로 통합을 목표로 설립 운영

<표 7-7> 2014년 남북 방송통신 간접교류 관련 계획

내용	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 교육 및 문화 콘텐츠의 간접교류 - 방송교육 관련 콘텐츠 교류 - 영화, 연속극, 가요앨범에 대한 교류	◎ 추진방향 - 한반도 접경 지역을 통한 방송 콘텐츠 공급 및 통신서비스교류 - CD, DVD, USB 등 매체를 통한 교류 - 한국어 라디오/TV를 통한 보급 ◎ 기대효과 - 최근 북한 한류바람으로 상승효과
◎ 장비, 서적, 기술 서비스 등의 교류 - 디지털 방송시스템 및 스마트폰 3G기술의 보급 - 남북한 방송통신 기술 교재 및 교육교재의 교류 - 기술 논문 및 기술 학술지 교류	◎ 추진방향 - 북한의 디지털 방송시스템 및 스마트폰 3G기술의 조기 정착을 위한 기술 제공 - 기술 교재 및 교육교재의 교류 - 한반도 인접지역 학술대회 개최 ◎ 기대효과 - 남한 방송 및 스마트폰 기술 보급은 개방을 앞당기는 작용을 함
◎ 한반도 교류협력센터의 설립 추진 - 연구, 교육, 학술행사 등 정기 개최 - 한반도 인접국의 한국어 라디오 및 TV 방송국 이용	◎ 추진방향 - 중국 연변지역이나 러시아 연해주를 최적지로 모색하여 설립 운영 ◎ 기대효과 - 통일 전, 후에 방송통신 등 남북 간접교류 협력에 대한 제반 활동
◎ 남북 방송통신 표준학술회의 - 연구, 교육, 학술행사 등 정기 개최 - 한반도 인접국의 한국어 라디오 및 TV 방송국 이용	◎ 추진방향 - 같은 민족(말과 글) 방송용어 표준회의 ◎ 기대효과 - 통일 대비 언어 표준화 회의
◎ 동북아 한자문화권(한국, 중국, 북한, 일본, 베트남, 몽골, 러시아) 다국어 국제회의 - 현재 한국어정보학회 학술행사 정기 개최 - 주관 : 한국어정보학회	◎ 추진방향 - 중국 연변지역이 최적지로서 운영 중 ◎ 기대효과 - 통일 전, 후에 방송통신 언어 표준화 간접교류 협력에 대한 제반 활동
◎ 2014년 제3회 국제 한민족 방송통신기술 컨퍼런스 학술회의 - 제1회는 2011.10.4~10.8 PUST개최 제2회는 2013.10.8~10.10 - 장소 : 평양과학기술대(PUST) - 일자 : 2014년 10월중	◎ 추진방향 - 평양에서 민족 방송통신 학술대회 개최 ◎ 기대효과 - 통일 전, 후 한민족 방송통신 학술교류협력
◎ 제9회 한·중·북 ICT포럼 - 현재 중국 연변 9월3일경 정기 개최 - 전세계 한민족 국제전시회 포함	◎ 추진방향 - 중국 연변에서 2014년 9월3일경 개최 ◎ 기대효과 - 중국 ICT시장 공동협력 진출 방안 협의

제 8 장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남북 간접교류 협력

제 1 절 남북 교류협력

1. 상생공영으로 정리된 대북정책

한동안 주춤했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이 새롭게 정리되어서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으로 공식화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후 공식적인 대북정책으로 공식화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상생공영으로 궤도를 수정하여 거듭나게 되었다. 이 정책은 남북간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을 상위개념으로 놓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그 실천단계인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의 수단으로 진행되고 있다. 요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문호를 개방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상생공영과 과거 대북정책과의 관계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하고 비핵화와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한반도 평화 통일의 실질적 토대 구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과거 포용정책의 기초를 유지시킨 것이다. 그러나 북한문제와 남북관계의 이중성이라는 전제조건들을 감안함으로써 실용성과 생산성을 중시하는 실용주의적 포용정책 즉 “원칙 있는 포용정책”(Principled engagement policy)의 성격을 띠고 있다. 요약하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이 선결돼 추진되는 상대적인 정책이다. 그렇다고 선 핵 폐기론이나 조건론은 결코 아니다. 오로지 핵 진전에 따라 단계적인 협력을 추진한다는 신축성을 전제하고 있다.

아무튼 좀 더 넓게 보면 박정희 시대의 7.4 남북공동성명, 노태우 정부의 기본합의서, 김대중 정부의 6.15 공동성명, 노무현 정부의 10.4 기본정신 계승을 존중하며 서로 상생공영 단계로 나간다는 것이다. 다시 정리하면 과거 정책들의 정신과 기초는 같으나 단지 10년간의 대북정책이 “남북관계의 물고르기” 이었으면 새 대북정책은 “물길 바로 잡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현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크게 3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⁷⁹⁾ 첫째, 남북관계 발전이다. 이것은 상식과 국제규범이 통하는 새로운 남북관계를 적립하고, 호혜적인 교류, 협력과 남북간 공동이익을 확대하여 경제 및 사회문화 공동체 건설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다. 둘째, 한반도 평화정착이다.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의 균형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며, 아울러 남북간 정치, 군사적 신뢰를 증진시켜 지속가능한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셋째, 통일기반 구축이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통일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고,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역량을 확충하는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한반도 통일과정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한반도와 국제사회가 모두 윈-윈(Win-Win)하는 것임을 실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균형있는 접근과 진화하는 대북정책,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이라는 3가지 추진원칙을 가지고 있다. 이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잘 이행 되기 위해 수행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신뢰 형성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 인도적 문제의 지속적 해결 추구
- 남북관 대화채널 구축 및 기존 합의정신 실천
- 남북간 호혜적 교류, 협력을 확대 및 심화
- 신뢰 형성과 비핵화 진전에 따라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

②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추구

- 확고한 안보태세 완비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 노력
-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 정치, 군사적 신뢰구축

79) 통일부 공식블로그(2012.11.18일자)- 통일미래의 꿈::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아십니까?”에서 인용

③ 통일 인프라 강화

-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발전적으로 계승
-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추진
-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 추구

④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 평화협력의 선순환 모색

-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대
- 동북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발전 추구를 통해 궁극적으로 북한문제 해결
- 북방 3각 협력 추진

2. 단계적 남북경협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은 남북관계를 현실주의적 접근방식에 의존하는데 토대를 두고 있다. 북한이 핵을 무기로 체제 생존전략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는 엄연히 체제경쟁의 관점에서 보아야한다. 상생공영은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하고 비핵화와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한반도 평화 통일의 실질적 토대 구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과거 포용정책의 기도가 유지된다. 그럼에도 북한문제와 남북관계의 이중성이라는 전제조건들을 감안하면 실용과 생산성을 중시하는 실용주의적 포용정책 즉 “원칙 있는 포용정책”(Principled engagement policy)의 성격을 띠고 있다. 원칙의 강조에 따라 상생공영의 대북정책 하에서 남북경협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으로 상징되고 있다. 물론 현 정부는 남북관계의 원칙과 더불어 유연한 접근도 강조하고 양자 간의 관계를 엄격한 상호주의가 아닌 단계 별 연계관계로 규정짓고 있다.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시장화와 변화를 유도하는 인센티브적 수단이며 차후 보상수단으로서의 기능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이러한 이중적 기능인식은 남북경협이 비핵화와 연관해서 단기적으로는 소극적인 경제적 관여(Economic Engagement) 수단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미래의 남북통일에 큰 기초가 된다.

실제로 비핵개방 구상의 내용은 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주민생활 등 심각히 피폐화

된 북한 경제를 재건하는 프로젝트들의 포괄적 패키지 구상이다. 이는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과 경제재건의 내용들이 구상된 것이다. 정부는 이 구상을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실행 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 중 인데, 만일 북핵문제의 점진적 해결과정에 따라 이 구상이 단계적으로 실행된다면 사실상 비핵화와 북한의 경제재건이라는 두 목표 간에 시차가 최소화 된다. 남북경협은 지금 남북간에 제도적 격차(Institution. gap)와 자원의 격차(Resource gap) 및 지식의 격차(knowledge gap)를 해소해야 본격적인 통일논의가 전제된다.

따라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구체적 5대 중점 프로젝트는 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복지 등 5대 분야에 대한 세부지원 방안으로 북한의 가시적 성과에 따라 가능한 것부터 먼저 실행에 옮긴다는 전략이다.

이 프로젝트의 구체적 윤곽을 정리 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 300불 이상 수출 기업 100개 육성으로 경제전문 인력 파견과 5대 무역지대 설치, 둘째, 교육 30만 산업인력양성을 위해 주요도시에 교육 센터 설립 및 북한판 KDI 및 KAIST 설립지원을 지원하며, 셋째, 세계은행과 아시아 개발은행,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재정 400억불 상당 국제협력 자금 조성으로 남북 교류협력기금 마련. 일본의 대북 지원 해외직접 투자유치, 넷째,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신 경의선 고속도로 건설. 기간 통신망 연결 및 항만 철도 도로정비를 펴고, 다섯째,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복지지원으로 식량과 의료지원을 통해 절대빈곤 해소. 의료진 파견 병원설비 개선 등을 편다는 내용이다.

제 2 절 비핵 개방과 방송 통신의 연계

1. 기능접근을 통한 분단 통합

분단통합 차원에서 추진되는 교류사업 가운데서 방송통신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며, 이러한 방송통신 교류는 정치성이 배제된 비정치적인 기능접근이어야 원만하게

추진된다고 본다.

남북한과 비슷한 분단국 성격을 지닌 동·서독 통일과정에서 방송 통신의 역할이 증명해 준다. 남북한과 동서독은 2차 대전의 산물이 낳은 비극의 분단국이다. 물론 분단배경은 약간 다르나 민족, 언어, 종교, 관습 등 분단통합의 요소는 똑같이 지니고 있다. 그러나 분단의 장기화는 분단통합 요인들이 날로 이질화 되어서 분단이전의 원천국가 상태가 소멸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바로 지금 남북한이 그런 형국이며, 아직도 극심한 이념적 대치상황은 그대로이고 통합요인인 민족, 언어, 관습, 생활방식 등이 모두 극심한 이질화 현상을 낳고 있다. 그래서 이질화 극복 대안으로 방송통신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우선 이념적 갈등에 휘말릴 소지가 적고 교류 협력과정에서도 갈등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동서독의 방송 통신의 분단통합 역할이 하나의 정설로 꼽히는 이유도 여기 있다. 동서독은 1972년 12월부터 3년간 서로의 정치적 실체를 인정하는 행정기본조약을 체결했다. 그 일환으로 우편, 통행, 통신, 방송·언론, 환경, 경제, 과학기술 등 각 부문별로 다각적인 협정을 맺었다. 특히 방송 통신교류 합의 내용 중에는 전신 텔레크회선 개통과 기기의 점진적인 자동화와 칼라 TV용을 지향하는 방송망 구축을 비롯하여 서독과 베를린 간 디지털식을 지향하는 방송망 구축, 광섬유 통신망의 구축 등이 포함되었다.

이로 인해 우편, 전화, 통신은 물론 서로 간에 방송 프로그램 교환이 부분적으로 가능했고 이러한 부분적 방송 프로그램의 교류는 결국 상대방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와 기대감을 증폭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 후 동·서독은 1985년 문화협정을 통해 프로그램 교류와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고 결국 방송전파의 완전한 개방단계까지 왔다. 또한 동·서독간은 활발한 교류 이전에 정치적 의지도 크게 기여했음을 간과 해선 안 된다. 바로 서독의 브란트 총리가 추진한 ‘동방정책’이란 큰 틀의 구상이 뒤 따른 것이다. 브란트 총리의 동방정책 이전에 서독은 압도적인 경제적 우위에 의해 동독이 서독에 병합되는 합병통일을 추구하였으며, ‘힘의 우위정책’에 기초한 통일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좀 더 많은 접촉과 교류를 통한 분단의 평화적 관리, 통일이라는 ‘작은 걸음마 정책’을 추진하면서 동·서독간의 갈등은 점

점 더 줄어들고 서로 의존하는 관계로 심화 됐다. 특히 우리가 동서독의 방송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점은 방송과 통신의 동시교류가 가능했던 점이다. 본래 방송은 통신에 비해 영향력도 막대하고 그 파급 효과도 크다. 때문에 아직까지 남북간에 방송 프로그램의 완전개방은 위협요인이 많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럼 어떻게 동서독에서 가능했느냐 하는 것이다. 이른바 동서독은 분단 초기부터 “위대한 게르만 민족은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라는 기치 아래 민족 동질성을 견지하면서 방송통신을 동시에 교류해 왔기 때문에 통합이 가능했다. 결국 우편, 통신, 텔레비전 방송을 매개로 하여 서독에서 형성된 정체성을 동쪽으로 확산시켜 서독에 의한 흡수 통일을 촉진시켰다.

그러나 남북한은 아직도 ‘민족’이란 개념 정의부터 달리하고 있다. 이는 곧 방송을 통한 민족 동질화에 최대 걸림돌이다. 뿐만 아니라 방송접촉 역시 그 기간이 아주 짧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언론사 사장단의 방북에 이어 KBS교향악단의 평양공연 등을 비롯한 합동공연 특별기획 등이 교류되다가 2002년 남북방송교류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그 후 이렇다 할 진전이 없었으며, 남북문제들은 기능별, 분야별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남북정치문제가 한 몸통 속에서 작용하는 현실이 걸림돌이었다.

2. 북한 방송통신의 기초

남북교류 추진에 앞서 북한에선 어떻게 방송통신을 정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우선 특이한 점은 체신의 범주에 통신과 방송을 함께 포함시키고 있다. ‘체신’의 뜻은 우편, 전신, 전화 등을 접수 및 전달하는 사업을 통하여 사회적 생산과정과 주민생활에 복무하는 경제부문이라 정의하고 있다.

그 중요성에서도 “사회생활 영역에서 이뤄지는 연계를 신속 정확히 이어주고 소식을 제때에 전달하는 나라의 신경”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통신이나 방송 모두가 당의 노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제때에 전달 침투시키는 역할로서의 정치 사회화의 도구로 본다. 혁명건설에서 조직을 동원하는 선전선동 수단의 하나로 사회주의 정책공약, 혁명,

전통교양, 계급교양 강조가 방송의 주기능이다. 여기서 선전 선동은 인민을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데올로기와 노동당 정책을 교양하는 것을 뜻하며 선전은 담화나 연설문, 책자, 뼈라, 격문, 라디오, 영화를 통해 사상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능이다.

체신사업을 사업별로 구분하면 크게 전기통신, 우편통신, 방송 등으로 구분한다. 첫째, 전기통신에는 유선무선에 의한 전신 전화통신이 있고, 둘째, 우편통신은 신문 잡지를 비롯한 정기 간행물들을 배포하고 소포 송금 등을 전달하는 것을 뜻하고, 셋째, 방송에는 유무선 방송, 라디오, 텔레비전 등이 있다.

남북한 체신의 성격 차이를 종합해 보면, 남한의 체신은 공익성과 국민편의성을 제공하는 서비스 산업이지만, 북한의 성격은 철저한 사회주의 체신관(遞信觀)에 바탕을 둔다. 본래 통신은 자본가 계급의 착취 도구로 보고 유물사관에 따른 사회주의 체신개념에 기초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직 구성이나 인력관리도 철저한 이중적 통제구조에 역할 권한의 중복된 행정원리에서 운영된다.

통신망 활용도 당과 국가경제기관들이 생산과 건설에 대한 지도와 지휘를 원만히 보장해 주고 경제부문들 간이나 공장 기업소 상호간, 도시와 농촌간의 생산과 소비를 연계하는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 거기다 북한식 통치이념인 '주체'를 연계시켜 '주체체신'을 구현하는 점이 특이한데 이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또 다른 변형이다. 이런 기초 하에서 과학기술과 체제유지를 병행시키는 독특한 북한식 과학이념이다.

1960년 초에 비나론 공업화를 통해 "과학기술의 주체 확립"이란 뜻밖에 큰 성과를 얻었다. 뿐만 아니라 주체체신은 통신, 언론, 방송을 통해 정치교화(政治敎化)기능의 전개를 정당화하고 있다. 바로 주체와 방송통신을 연결하여 사상보급을 하는 것인데, 그 하나의 사례로 전국의 우편소가 주관하는 유선방송의 기능을 꼽을 수 있다.

3. 북한의 방송통신 시설 및 인력양성 실태

그렇다면 남북 방송통신 교류협력 추진의 첫 대상으로 무엇을 정할 것인가 하면, 우선 그 윤곽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실천과제인 5대 분야 실천프로젝트 중에서 통신과

방송부분이 전제된다.

실천과제 중 SOC 「인프라 구축」사업이 남북통신교류 협력에 속한다. 이를 계기로 남북통신사업의 상호보완을 통한 북한사회 간접자본을 확충하여 통합시장을 구축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이 같은 남북한 교류의 전제는 지금 현재 북한 방송통신 분야의 인력 양성 충원의 실태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

1) 북한 방송 인력양성 실태

북한의 방송 인력은 크게 기자, 아나운서, 텔런트, 프로듀서, 카메라맨 등 전문 인력으로 구분된다. 방송관련 종사자는 대학 입학과정 부터 당 선전선동부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입학이 허가되고 졸업 후 예도 출신성분과 당성에 따라 배치된다. 북한의 방송은 당 선전부와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성에서 통제된다.

기자들은 주로 김일성 종합대학 같은 명문대의 사회과학부를 졸업한 인원을 우선 선발한다. 선발 시 학교성적 뿐만 아니라 당성이 우수해야하며 대학 총, 학장이 추천 노동당 중앙위의 철저한 신원조회 및 사상검토를 거쳐서 선발한다. 기술 인력은 통신 인력 배출과 충원이 비슷하며, 텔런트 등 예능전문 인력은 1959년 설립된 평양연극영화대학에서 양성되고 있다. 아나운서는 화술학과에서 텔런트는 배우학과와 연기학과, 카메라맨은 촬영학과 등에서 양성되고 있다.

2) 북한의 통신시설 인력양성 실태

북한의 정보과학 인력양성에 대한 전략은 크게 연구와 교육부문으로 구분되며, 교육 체계는 11년제 의무교육을 받은 후 정규교육 과정과 비 정규과정으로 이뤄진다. 정규 교육과정에서 고등 교육과정은 2-3년제, 고등교육전문학교는 3-4년제. 단과 대학 4-6년제 등으로 돼 있다. 이들 기관들은 의무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을 입학시켜 각 부문의 현장기술, 간부, 전문가, 기술자 등으로 교육한다. 또한 교육 및 과학부문의 중간 핵심간부 후보를 육성하는 기관으로서 연구원(2-4년)과 박사원이 있다.

비정규 교육과정은 의무교육을 마친 후 근로자 들이 다니는 고등중학교나 공장고등전

문학교가 각도에 1개 이상 있고 또한 100여개의 공장대학들이 공장과 기업소 및 산업지구에 산재해 있다. 여기서도 정보통신 육성 및 콘텐츠 개발교육을 실시하는데, 일하면서 공부하는" 체계의 운영이며, 이렇게 배출된 기술자 전문가 수가 총 17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전문 연구인력 분포는 900여명의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조선컴퓨터중심 등에 400여명이 있고, 교육성 산하의 각 대학 5개 정보센터에 400여명, 지방정보 센터에 100여명 등 모두 900여명의 과학자들이 산재해 있다. 특히 조선컴퓨터중심(KCC)은 북한의 민간 차원 IT연구 분야의 총 집합체에 속 한다. 여기에 정보통신 분야의 세분화 된 30~40대 초반의 우수한 개발인력들이 포진되어 있다고 한다.

이들은 대부분 김책공대 이과대학, 평양전자계산기 단과대학 졸업생들로 오랜 동안 연구사업과 실천 능력 및 대외정보 보유하였고 해외 연수경험을 가진 우수자원이라고 한다. 이들이 이끌고 있는 20~30대 젊은 정보통신 인력들은 장래 잠재력이 강한 신진인력들이라고 한다.

또한 최근에는 대학에서도 단기간의 성과를 위해 IT(정보기술), BT(생명공학), NT(나노기술)전문가 양성을 꾀하고, 이를 위하여 수재교육 방법을 도입하여 주요대학에까지 확대하고 있다. 이것은 기술개선 현대화를 통한 생산성향상, 품질향상 및 생산비용 절감 개선사업에 과학기술인력을 충원하기 위함이라고 본다.

제 3 절 방 송 통 신 교 류 가 능 성

1. 북한 방 송 통 신 의 환 경 변 화.

1) 대 내 환 경 변 화

북한은 빈곤의 늪(Poverty-trap)에서 빠져 나오기 위해 그 돌파구를 정보기술 분야를 선택하여 전략산업 육성 방안을 찾고 있다. 김정은이 연두사설에서도 '과학기술 강성대

국'이라는 장기목표 아래 금년을 '교육에서의 실리주의'라는 핵심전략을 채택했다.

첫째, 정보기술 분야의 인재를 집중 양성하는 것은 과학기술교육이며, 둘째, 중등 및 고등교육에서 수재의 발굴과 양성에 중점을 두는 교육체제 개편이며, 셋째, 교육의 질 향상과 경쟁력 제고이다. 특히 과학기술과 컴퓨터 부문에서 재능 있는 인재를 선발하여 집중육성이라는 장기교육의 구축을 목표로 하며, 이를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이미 1998년 김정일 체제 출범 때부터 과학기술을 강화하면서 특히 정보통신 분야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우선 내각을 개편하고, 기존의 체신성(省), 과학원 부처 외에 전자공업성(省)을 새로 신설하였다.

또한 이 분야의 교육 강화를 위해 규제도 과감히 풀고, 김일성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에 2008년 초 남한에서 보내준 정보기술자료 2만 7천권을 학교도서관에 비치해 일반 학생들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2008년 5월에 평양과학기술대학교에 1만 4천권의 과학기술도서도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다. 첨단과학 분야의 전문가를 육성하여 새로운 교육방법에 의한 전문가 양성과 수재교육 체제 정비에 주력하여 왔다.

특히 20대 컴퓨터 전문가를 대대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컴퓨터 수재반 학생들에게는 군 복무를 면제하는 특혜를 베풀고 있다. 졸업 후 이들은 조선컴퓨터중심, 과학원 등 북한 최고의 정보기술 연구기관에 배치되기도 한다. 특히 대학에서 정보기술 수재교육을 위해 취한 조치로는 새로운 학과 및 학부 단과대학의 출현과 교과과정의 개편 교과목의 확대를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에서 나타나는 특성 프로그래밍을 중심으로 한 소프트웨어 정보통신학과와 관련한 교과목들이 주류를 이룬다.

2) 대외환경 변화

북한에서 정보통신 산업의 육성 발전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가 관건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핵 문제로 각종 규제에 묶여 고립을 면치 못해 왔었다. 그러나 관련해 2008년 10월 11일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공식해제 한 것은 북한 정보기술 산업 발전에 청신호가 아닐 수 없다. 이 해제는 결국 1988년 1월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후 20년 만에 족쇄(足鎖)를 풀게 된 것이다. 이로서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와 핵프로그램 신고에 따

른 테러지원국 지정해제를 밝힌 '2.13 합의'가 일단락 됐다.

'2.13 합의'는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이며, 이것은 2007년 2월 8일부터 13일까지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가 중국 베이징에서 미국, 한국,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참가국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조기에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와 의지를 재확인하였고, 공동성명상의 공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참가국들은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한 것이었다.

북한은 핵 불능화가 완료되고 향후 북미 간에 합의된 검증 의정서가 6자회담을 통해 확정되면, 비핵화 2단계가 마무리된다. 이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서 부수적인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게 되었다.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면서 미국으로 부터 무기수출 통제법 수출관리법 국제금융지원법, 대외원조법, 적성국교역법 등 5개 법률에 의거해 받았던 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결국 테러지원국이라는 오명을 벗은 것과 동시에 컴퓨터 부류의 군수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 제품에 대한 기술 수출 및 수입이 사실상 가능해 진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이중용도 제품으로 분류된 컴퓨터 정보기술 산업 및 각종 반도체 수입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바세나르 협약에 따라 수출관리법과 수출관리규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테러관련 품목을 수출제한 품목으로 규정되었던 각종 전자산업 관련기술이나 제품의 수출입이 원활해지는 것은 물론 기술교류와 개발도 가능해 진다. 특히 기초산업의 걸림돌이었던 각종 첨단 부품수입이 가능해져서 정보통신 및 전자산업 발전의 기반 구축이 가능해 졌다.

핵심은 정보통신분야이며, 김정일 체제 출범 후 정보기술 산업에서 '단번도약'을 이루기 위해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인력을 대거 양성하여 왔었다. 그럼에도 상대적으로 성과가 미약했던 이유는 정보기술 산업 특히 하드웨어 반 출입 제한 때문이었다. 북한이 국가도메인(kp)을 승인 받은 이후 인터넷 개방에 대한 전망이 어두웠던 것도 각종 장비도입의 제한 때문이었다. 그래서 당시 테러 지원국 해제는金正은이 생존전략을 정보통신 분야 육성에 두는 정책의 '청신호'에 불을 켜주고 있었다.

2. 교류의 몇 가지 전제들

남북의 방송통신 교류 사업은 다음 몇 가지 걸림돌이 발생할 수 있다.

첫째, 가장 큰 취약점은 북한이 시장 환경에 익숙하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이른바 기초실력은 탄탄하나 이를 상품화 할 수 있는 응용력으로서의 전환이 미흡하다. 결국 '우리식 사회주의'란 독특한 정치문화가 낳은 소산이기도 하다. 이념과 체제가 다른데서 나온 것인 만큼 교류협력을 통해 보완하고 해소를 해야 문제이기도 하다.

둘째, 북한의 정보기술 분야이 중국에 종속되는 길을 막기 위해서라도 남북한 활성화는 시급한 실정이다. 지금 추세로는 북한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의 상품성이 한국보다 오히려 중국과 일본시장에서 더 높다고 평가된다고 한다.

중국은 향후 동북아 질서변동 과정에서 미국과 일본의 헤게모니 쟁탈전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의 친 중국화를 서두르고 있다. 그 사례가 2000년 초부터 북-중간 '대북투자 촉진 및 보호협정'과 뒤이어 '경제기술 협력에 관한협정'을 체결하였으며, 그 후속책으로 중국 측에서 통신 인프라를 무상으로 구축하는 문제를 추진 중이다. 이런 현실 과정들은 남북 공생공존의 공동체 발전전략으로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남북한의 방송교류를 전제로 북한의 개방속도를 앞당긴다는 것이다. 남북현실에서 방송은 통신처럼 간편한 사안이 아니다. 방송개방은 곧 북한의 사회문화의 속성을 노출 된다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위험부담을 줄이는 범위 내에서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남북 방송 교류에 있어서 방송 프로그램의 공동개발이나 제작 나아가 프로그램의 다양화화를 추구해야 한다.

넷째, 지금까지 발전의 발목을 잡아온 바세나르 협약(EAR, Export ministration Regulation)과 같은 국제규제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북미간의 핵 협상에 연계된 것이다. 즉 북한이 6자회담 프로세스에서 합의 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미국이 '선물'을 준다는 개념이다. 그래서 향후 북한과 미국이 갈등을 겪을 가능성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따라서 남북한의 정보기술 협력과 같은 사안들도 향후 북미

간의 갈등 발생 여부나 6자회담의 진행과정에 따라 얼마든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다섯째,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경색이다. 금강산 피살사건 및 천안함 사건 등으로 남북관계는 경색 일변도이었으나, 간신히 개성공단이 재가동에 들어갔지만, 아직까지는 남북 방송 직접교류는 불투명한 상태이며,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관계 개선을 하여야 할 상황이다.

끝으로 북한은 국가 목표를 군을 앞세운 선군정치의 실천에 두는 병영국가다. 거기다 방송통신을 사회적 간접자본 또는 그 하부구조로 보는 자본주의 시각이 아닌 국가의 전유물로 보는 사회주의 체신관이다. 그러니 정보통신도 군수(軍需)와 민수(民需)가 맞물려 돌아가는 병영체제 시스템으로 운용된다.

자본주의 침투를 막기 위해 인터넷 부분 개방까지 막고 있다. 결국 인터넷 시대에 대문빚장을 걸어놓고 정보기술을 외쳐대는 격이다. 이런 2중적 제약조건은 북한의 정보기술 발전 과정은 '우리식 발전'과 '불균형 발전'이라는 두 가지 특성을 만드는 토양을 구축해 왔다.

3. 통합가능성 진단

남북간의 과학기술 인력교류 협력은 이미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천명된 바 있다. 방송 통신 등 언론시장을 개방하고 특히 남한 측으로서는 북한의 방송도 전면 수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었다.

그 후에는 북한은 남북협력 추구로 철도 및 통신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 때문에 남한 측에서도 북한의 통신 실태와 인력수준 그리고 시장적응성 등을 상호보완 차원에서 분석했고 이제 남북통신 인력의 융합단계까지 왔다. 이미 개성공단에서 북한 통신 인력의 우수성은 평가됐다. 기초실력도 탄탄하고 기초과학과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서도 우수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따라서 오랜 숙원인 세계적 수준의 남한 정보기술 산업과 북한의 우수한 소프트웨어

인력이 연계되면 큰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왔다.

북한의 그릇된 행동과 판단은 5. 24 대북제재조치를 초래하게 되었으나, 그간 국제사회에서 인도적 지원을 명분으로 북한과 접촉을 확대하고 있으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접촉도 다양한 채널을 열어놓기도 하였다.

남북한은 단일 민족이며, 주변 강대국에 의해 인위적으로 갈라진 영토이기에 당연히 하나가 되어야 한다. 남한은 북한에 비해 경제적 수준차이나 자유 민주주의 사상은 너무나 커기에 탈북자의 증가 및 북한 내부에 깊숙이 전파되는 한류 바람은 북한이 변하지 않는다면, 점점 더 증폭될 것이며 억지로 막는다는 것은 힘들 것이다.

남북한의 엄청난 경제력 차이로 전쟁으로 통일을 한다는 것은 남북 공히 자멸하는 길이며, 평화통일이 그 해결책이다. 통일이 된다면 통일비용의 부담도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보지만, 그것보다는 남한의 자본과 기술 및 북한의 천연 자원과 노동력의 통합은 세계 상위 강대국으로 바로 진입할 것이며, 더 이상 같은 나라의 같은 민족이 총부리를 겨누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제9장 결론 및 시사점

북한의 경제개혁 및 경제개방이라는 주제에 대한 중국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북한에 대한 평가는 북한은 김정은의 독자적 정책은 나오지 않았고, 북한의 국제화 정책은 기득권층에 묶여 있어서 당장 실행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서서히 디지털화는 확대 진행 될 것이라고 보인다.

북한 김정은 체제는 경제개혁조치를 언제 단행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농협개혁안은 협동농장 수확물의 70%를 국가, 30%를 농민 몫으로 보장하고 국가가 일방적으로 부여하던 협동농장의 생산계획을 폐지하는 것이 골자였다. 국가의 계획경제와 배급제를 사실상 포기하는 농업개혁 방안인 것이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평양은 느리지만 서서히 디지털 세계가 확대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개발한 컴퓨터 용어와 시스템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붉은별' 운영체제 혹은 '내나라' 웹브라우저 같은 자체개발 도구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세계에서 이메일이나 사진과 같은 정보가 가장 전달하기 힘든 국가 중의 하나이지만, 외부세계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는 정황은 하나 들쭉 포착되기도 했다.

북한의 소프트웨어 기술은 상당한 수준에 있지만 컴퓨터 하드웨어와 통신기기 및 통신망 분야는 취약하여서 앞으로 정보통신 통합에 난관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에 대한 표준화 대책 마련이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

북한은 아직도 인터넷의 외부 개방을 수용하고 있지 않아서 첨단기술의 도입에 지장을 받고 있으며 교육에서도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바다를 향해갈 수 없다는 점이 안타깝다. 그러나 중국의 예를 보거나 최근 북한을 방문하고 온 일본인의 북한 방문기를 보면 북한이 조금씩이나마 중국식 개방주의를 닮아간다고 하므로 머지않아 인터넷이 전면 개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구축 가동되고 있는 내부 인트라넷망의 활용은 앞으로 인터넷과 쉽게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고무적인 일이다.

통일에 대비한 방송통신 정책을 마련하는 데는 정부차원의 교류보다는 민간의 교류가

우선되는 것이 신뢰성 및 동질성 회복에 매우 중요하다. 협력 방안을 생각해 본다면 남북이 공동으로 방송통신기술연구소를 설립하여 남한의 하드웨어 기술과 북한의 소프트웨어 기술을 접목시키고 북한의 이론연구와 남한의 산업화 기술을 접목하여 국제경쟁력 있는 상품을 창출하고, 국제 프로젝트도 공동으로 수행한다.

방송통신 분야는 경제교류와 북한의 국제화를 진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나아가 통일을 앞 당길 수 있는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남북한이 공동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유망한 분야이지만, 북한의 기술수준이 너무나 열악하고 낙후되어 있어서 남한의 첨단 방송통신 인프라(SOC)를 조건 없이 제공하여 기술격차를 줄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방송통신 분야 국가기술규격 및 표준 통합은 실제적인 교류협력 확대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므로 향후 민간 차원의 통합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과의 방송통신 교류는 공감대가 형성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산적해 있지만, 대내외적으로 여건이 어려울 때는 무엇보다 먼저 남북한의 신뢰구축을 위해 방송통신 전후방을 통한 다각적인 접촉 및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는 북한의 태도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인내심을 갖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동서독 관계에서 큰 전환점을 가져온 것은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체결이며, 서독 사민당(SPD)의 빌리 브란트(Willy Brandt)총리는 동독을 사실상 국가로 인정하였고, 정치 및 경제, 그리고 사회와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교류 및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동독정권은 서독의 라디오나 텔레비전 수신을 금지하는데 실패하였고, 침묵과 묵인 속에 동독주민들은 서독 방송 프로그램을 수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1980년대 이후에는 서독 방송매체 수신행위가 동독에서 엄격하게 처벌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북 양측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상호 사회체제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 상호 교류를 통해 공통분모를 만들어내는 것이 통일을 준비하는 방송의 중요한 자세라는 것이다. 남북한이 방송교류를 한다는 그 자체가 신뢰회복과 동질감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송교류는 1998년부터 첫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시기를 개척기라고 하며, 남한 정부는 북한영상물의 국내 반입을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하고 1999년에는 북한 위성 TV시청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 같은 조치와 사회분위기의 영향으로 남한의 방송사들은 북한이 제작한 영상물을 중개업자 등을 통해 구매하여 방송하기 시작하였다. 1972년 7·4 공동선언과 1992년 기본합의서의 정신에 바탕을 둔 2000년 6·15 공동선언은 방송교류와 통합의 대원칙을 마련하였다. 이 공동선언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조치가 정치, 경제, 군사 분야 등 다방면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특히 사회, 문화 분야의 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과거 MBC의 젊은 세대에게는 통일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기성세대에게는 통일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남북어린이 알아맞히기 경연” 등 여러 방송사들이 다양한 통일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다루어 왔으며, 2013년 11월 현재 남한의 TV 방송에서 방영되고 있는 통일과 관련된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3가지를 들 수 있다. 그것은 KBS의 ‘남북의 창’, MBC의 ‘통일전망대’, 그리고 채널A의 ‘이제 만나러 갑니다’ 등이 방송되며, 남한 시청자에게 북한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살펴 볼 수 있고, 통일이전에 북한의 실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다.

라디오 부문에서 기존 대북 방송의 한계를 메워준 매체가 탈북자들이 2004년부터 시작한 민간 대북방송들이다. 현재 민간 대북방송들의 과제는 북한 청취자들에게 보다 깨끗한 음질의 방송을 듣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단파 주파수를 많이 확보하고 출력을 높여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한민족 방송처럼 북한과 인접한 곳에서 강력한 출력으로 중파방송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국내에서의 대북방송 송출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 때문에 민간 대북방송사들은 비싼 비용을 들여 제 3국의 송신소를 이용하고 있다. 또한 민간 대북방송들은 대부분 미국의 국무부와 민주주의재단(NED)의 지원으로 운영하며, 이 지원금으로 전파송출비, 인건비, 프로그램 제작비용 등에 충당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 다른 과제는 자유북한방송의 경우에 프로그램이 다양한 반면에 심층적 문제제기의 강도가 약한 측면이 있다. 문제제기에 대한 세부적이고 심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북한주민들의 입장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방송통신산업 육성을 통해 선진국 대열로 진입한 인도나 아일랜드의 경우 적극적인 국제개화 노력이 최우선 정책이었다. 그러나 폐쇄적인 북한도 통신기술 관련해서는 북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우 개방적이다.

북한의 그릇된 행동과 판단은 5. 24 대북한 제재조치를 초래하게 되었으나, 그간 국제사회에서 인도적 지원을 명분으로 북한과 접촉을 시도하여 왔으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접촉도 다양한 협상 채널을 열어두기도 했었다.

남북한은 같은 말과 문자를 사용하는 단일 민족으로서 주변 강대국에 의해 인위적으로 갈라진 영토이기에 당연히 하나가 되어야 한다. 남한은 북한에 비해 경제적 수준차이 커고, 자유민주주의 사상은 현저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북한 내부에 깊숙이 전파되는 한류 바람은 북한 체제가 반드시 변화하게 되어있다. 그러므로 북한은 점진적으로 개방·개혁될 것이며, 인위적으로 억압하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남북한이 전쟁으로 통일을 한다는 것은 남북 공히 자멸하는 길이며, 평화통일만이 해결책이다. 평화적 남북통일이 언제 다가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통일에 대비한 정책수립을 미리 마련하고 통일 전 협력과 통일 후 통합과정을 수행하는 것이 통일비용의 절감과 통일 후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다. 특히 현 시대는 정보화, 세계화, 개방화, 국제화에 알맞은 통일국가의 방송통신 분야의 정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제반 환경과 여건으로 볼 때 한반도 교류협력 센터를 중심으로 한 간접교류방안을 제안한다. 간접교류 방안에는 첫째, 기술 인력에 대한 간접교류, 둘째, 장비, 서적, 기술서비스에 대한 간접교류, 셋째, 교육 및 문화 콘텐츠의 간접 교류, 넷째, 사이버 도서관 구축을 통한 간접교류, 다섯째, 언어 및 기술 표준화의 간접교류 등이다.

이들 간접교류와 관련하여 제반 기획과 시행을 위한 조직이 필요하며, 가칭 ‘한반도 교류협력 센터’라고 칭했으며, 이를 중심으로 한반도 인접 민간 라디오 방송, 공공 TV방송, 학교 및 학원, 기업체 등의 협력기구를 통해서 간접교류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제약사항이 따르고 이를 위해서는 교류센터로서 기능을 가진 업그레이드된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국내 문헌

- 강현두(1997), 『북한매스미디어론』, 나남.
- 공영일(2006), "북한 체신법 분석", 『정보통신정책』 제18권 통권 385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6.1.16.
-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01), 『남북한 과학기술인력교류 효율화 방안』.
- 김승철(2006), "민간 대북방송 실태와 개선 방안", 월간잡지(북한), 2006년 5월호 92~100쪽, 북한연구소.
- 김인석외(2007), "북한방송기술교류 활성화 및 방송기술 통합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안 연구", 방송위원회 지정 2007-17, 방송위원회.
- 김학천 외(2007), "남북 통일대비 방송통합방향 정책연구", 위탁연구 03, 한국전파진흥원.
- 남성욱(2002), 『북한의 IT 산업 발전전략과 강성대국 건설』, (서울: 한울, 2002).
- 東北亞放送硏究會(2012), 東北亞放送硏究月報, 2012年 12月(第57号).
- 東北亞放送硏究會(2013), 東北亞放送硏究月報, 2013年 4,5月(第61号).
- 리상춘(2006), "조총련에서 바라본 북한의 정보화 현황과 향후 전망", 남북간 정보격차 해소 학술세미나 자료집, 정보문화진흥원, 2006.12.
- 박문우(2009), "'북한식 정보화에 관한 연구: 정보격차 문제를 중심으로", (서울: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p.3, 37-38 참조.
- 박문우(2011), "북한의 정보화 추진체계에 관한 연구". 정보화정책 제18권 제3호, 2011년 가을호, pp.69~87.
- 박세환(2010), "남북한 정보통신산업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연구", 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0.03.
- 박우용(2004), 『북한방송총람』, 방송개발원. 커뮤니케이션북스.
- 박우용(2004), 『북한방송총람』, 커뮤니케이션북스.

박주연(2011), "분단저널리즘 해외사례:독일 - 동.서독 분단 당시 방송 및 언론의 교류"

박찬모(2002), 『국어정보화 아카데미』, 발표 원고집, 2002년.

박찬모외(2002), "북한의 IT 현황 및 남북 교류협력 방안",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방송위원회(2006), "남북 방송통합을 위한 단계별 방송교류방안 연구", 『방송위원회 세미나 자료집』, 2006.12.19.

방송통신위원회(2008), "디지털방송 전환모델 연구", 2009.

방송통신위원회전파연구소(2008), "방송기술기준 및 채널 분석연구", 2008.12.

방송통신위원회전파연구소(2009), "방송통신표준 및 ITU국제 표준화 활성화 연구", 2009.02.

방송통신위원회정책총괄과(2010), "지상파 DTV기술고도화 및 신규부가서비스 동향 조사연구", 2010.

서소영(2013), "북한 이동통신시장 동향 - 이동전화시장을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통신정책 제25권 20호 통권565호(pp.80-88), 2013.11.01.

윤병수(2012), "2012년 북 김정은 체제의 국정방향과 전망",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12.01.

이완식(2013), "북한 방송현황과 매체별 전개(안)", KBS 한국방송, 2013.

이우승(2003), "남북 방송시청 자유화 대비 파급 효과 및 보완방안 연구", 통일부.

이우영(1996),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 민족통일연구원.

이주철(2001), "북한 주민의 체제 인식과 방송보도에 대한 반응 조사", 한국방송공사 남북교류협력기획단.

이주철(2005), "남북회담의 전개와 방송교류", 한국방송공사.

이창형외(2009), 『디지털 방송 기술 총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커뮤니케이션북스, 2009.05.

이홍열(2008), "북한의 휴대전화", 『TTA 저널』 117호.

전수태(2009), 남북 통일시대의 국어교육 방향 - 분단국의 통일공간과 교육용어 -, 국어교육, 제131호(2010년 3월), 한국어교육학회.

정병기외(2013), "동서독의 표준화 체계와 표준 통일 과정", 『한국정치연구』 제22집 제 1호(2013).

정진우(2011), "변화하는 북한 IT, 디지털 혁명에 박차", 북한경제정보 (시카고무역관), 2011.08.

주창윤외(2004), "통일관련 프로그램의 분석과 개선방향", KBS한국방송공사 남북교류협력팀(주창윤,유선영).

최성(2010), 『Korea IT Times』, 2010년 3월~2011년 7월호, Choi Sung Column, North's Korea IT산업.

최성(2011), "최성교수 통일컬럼", 전자신문 월간연재(2004년~2011년).

통일방송문화연구소(2007), 『북한 언론의 보도 분석』, 2007.09.

통일부(2009), 『남북교류협력 동향』, 2009.11.

통일부(2009), 『통일백서 2009년』.

통일부(2010), 『통일백서 2010년』.

통일부(2012), 『통일백서 2012년』.

통일신문(2013), "북한 대중문화의 만남" 2013.10.07 기사내용.

한국전과진흥원(2008), "북한 전과정책 및 산업현황 분석 연구",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2008.05.

현용운(2010), "'붉은 별' 공동분석", (중국 연변조선족 자치주) 중국조선어학회 회장, 2010.01.

황성진외(2009), "북한 방송통신부문 및 남북방송통신 교류협력 현황 보고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9.12.

KBS뉴스(2013), "클로즈업 북한" 2013.09.29 뉴스내용.

web자료-동북아방송연구회 (<http://www.neabi.com>).

web자료-북한포커스 (<http://www.e-nkfocus.co.kr>).

web자료-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web자료-외교부 유엔자료실(<http://www.mofa.go.kr/>).

web자료-중앙일보(<http://www Joins.com/>).

web자료-통일 한걸음더 (<http://heewoel.blog.me/150143327028>)

web자료-통일뉴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31>)

web자료-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web자료-KISTI 북한과학기술 자료실

(<http://acomsl.kisti.re.kr/kips/conference/files/conference.hwp>).

web자료-NK지식인연대 (www.nkis.kr).

web자료-NK테크 (<http://www.nktech.net/>).

web자료-North Korea Today (<http://www.pyongyangology.com/>).

web자료-ROTC 통일정신문화포럼 (<http://www.rotcforum.kr/>).

web자료-The Daily NK (<http://www.dailynk.com/>).

부록 1) 북한의 방송 스케줄

※ 조선중앙방송(北 대내용) 스케줄: 東北亞放送研究月報, 2013年 4,5月 참조

조선중앙방송(北 대내용) 스케줄

방송시간	05:00 ~ 03:00
뉴스	06:00, 07:00, 10:00, 12:00, 15:00 17:00, 20:00, 21:00, 22:00
인터벌 시그널	김일성 장군의 노래
개시, 종료음악	애국가
지역방송	평일 14:00 ~ 15:00

주파수 (kHz)	출력 (kW)	송신소	송출시간	비고
702	50	함경북도 청진시	05:00 ~ 00:00	
720	500	자강도 위원군		
765	50	양강도 혜산시		
810	50	개성시	05:00 ~ 00:00	
819	500	평양시	05:00 ~ 03:00	
864	250	평안북도 신의주시	05:00 ~ 00:00	
882	250	강원도 원산시	05:00 ~ 03:00	
927	50	황해북도 황주군		
999	250	함경남도 함흥시(홍남)		
2350	5	황해북도 사리원시	05:00 ~ 03:00	
2850	5	평양시		
3220	5	함경남도 함흥시	05:00 ~ 03:00	
3350	5	평안남도 평성시		
3920	5	양강도 혜산시		
3940	5	함경북도 청진시		
3960	5	자강도 강계시		
6100	250	자강도 강계시	05:00 ~ 17:30 00:00 ~ 03:00	
9665	100	평양시	05:00 ~ 03:00	
11680	50	자강도 강계시		
93.8MHz	20	평양시	05:00 ~ 00:00	
102.3MHz		개성시		

※ 평양방송(北 대남용) 스케줄: 東北亞放送研究月報, 2013年 4,5月 참조

평양방송(北 대남용) 스케줄

방송시간	06:00 ~ 06:30
뉴스	07:00, 08:00, 10:00, 12:00, 15:00 17:00, 20:00, 21:00, 22:00
인터벌 시그널	김일성 장군의 노래
개시, 종료음악	애국가

주파수 (kHz)	출력 (kW)	송신소	송출시간	비고
621	500	함경북도 청진시	09:00 ~ 16:00 22:00 ~ 03:00	
667	1500	평양시 강남군	06:00 ~ 06:30	
702	50	함경북도 청진시	00:00 ~ 03:00	
720	500	자강도 위원군		
729	50	강원도 세포군	06:00 ~ 06:30	
801	500	함경북도 화대군	06:00 ~ 04:00	
810	50	개성시	00:00 ~ 03:00	
855	500	평양시	06:00 ~ 06:30	
864	250	평안북도 신의주시	00:00 ~ 03:00	
1063 *1	1500	황해남도 해주시	07:00 ~ 13:00 17:00 ~ 23:00	
3220	5	함경남도 함흥시	03:00 ~ 06:00	
3250	100	평양시	09:00 ~ 16:30 22:00 ~ 06:30	
3320	50	평양시	06:00 ~ 04:00	
3480 *1	15	강원도 원산시	07:00 ~ 13:00 17:00 ~ 23:00	
3940	5	함경북도 청진시	03:00 ~ 06:00	
3970	5	강원도 원산시		
4450 *1	15	평양시	07:00 ~ 13:00	
4557 *1	50	황해남도 해주시	17:00 ~ 23:00	
6400	50	자강도 강계시	06:00 ~ 03:00	
89.1MHz		평양시, 개성시	06:00 ~ 06:30	
89.5MHz				
90.3MHz		평양시		
91.1MHz				
91.9MHz				
93.1MHz		평양시, 개성시		

93.8MHz	20	평양시	00:00 ~ 05:00	
95.1MHz		평양시, 개성시	06:00 ~ 05:30	
95.9MHz				
96.7MHz		평양시, 개성시		
97.3MHz				
98.1MHz		개성시		
99.5MHz		평양시, 개성시		
100.3MHz		개성시		
101.1MHz		평양시, 개성시		
101.9MHz				
102.3MHz		개성시		00:00 ~ 05:00
104.1MHz				
104.5MHz		평양시	06:00 ~ 05:30	
105.3MHz		개성시		
106.5MHz		평양시, 개성시		
107.1MHz		개성시		
107.3MHz		평양시		
107.7MHz		평양시, 개성시		

*1 반제 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중계

※ 평양FM방송(北 대남용) 스케줄: 東北亞放送研究月報, 2013年 4,5月 참조

평양FM방송(北 대남용) 스케줄

방송시간	06:00 ~ 09:00, 16:00 ~ 06:00 (평일) 06:00 ~ 06:30 (일요일, 경축일)
인터벌 시그널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노래
개시음악	평양은 나의 심장
종료음악	매년 봄이 오면

주파수 (MHz)	출력 (kW)	송신지
90.1	2	평안남도 평성시
92.6	2	개성시
93.3	5	자강도 강계시
93.8	2	양강도 혜산시
95.1	5	강원도 원산시
101.3	5	평안북도 신의주시
102.1	1	함경남도 단천군
103.0	2	황해북도 사리원시
103.7	10	황해남도 해주시
106.2	20	평양시
106.5	10	함경북도 청진시
106.1	20	함경남도 함흥시
107.2	2	남포시

※ 통일의 메아리 (北 대남용) 스케줄: 東北亞放送研究月報, 2013年 4,5月 참조

통일의 메아리 (北 대남용) 스케줄

방송시간	07:00 ~ 09:00, 13:00 ~ 15:00, 21:00 ~ 23:00
인터벌 시그널, 개시음악	우리는 하나
종료음악	통일이여라

주파수	출력 (kW)	송신지
684kHz	250	개성시
1080kHz	1500	황해남도 흥진군
3970kHz	5	강원도 원산시
6250kHz	100	평양시
97.8MHz	10	황해남도 해주시

※ 조선 중앙TV 프로그램(2013. 11. 22 금) -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참조

※ 본 프로그램은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음.

시 간	방 송 순 서
15:09	- 김정은 지도밑에 조선인민군 제2차 보위일군대회가 진행 - 김정은, 조선인민군 제2차 보위일군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촬영 - 김정은, 조선인민군 제2차 보위일군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 관람
15:37	<과학영화> 육체활동의 효율성과 룰동
15:57	<조선예술영화> 안순화동무의 최후 (2007.07.11 재방)
16:40	<체육경기소식> 공화국선수권대회 - 짧은주로속도빙상(1) -
17:00	보 도
17:10	오늘호 중앙신문개관
17:27	<아동방송시간> 아동영화 : 새동산에서 있는 일
17:44	<소개편집물> 어린이민속놀이 - 토끼뽀놀이 -
18:05	<방문기> 인민의 기쁨 넘친다 - 만수교고기상점에서 -
18:14	<조선기록영화> 잊지말자 신천땅의 피의 원한을 (2006.11.22 재방)
18:35	<병사의 고향소식> 방문기 : 숭고한 후대사랑이 꽃피는 곳에서 - 3대혁명붉은기 평양수지연필공장후방가족들 -
18:50	- 김정은 지도밑에 조선인민군 제2차 보위일군대회가 진행 - 김정은, 조선인민군 제2차 보위일군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촬영 - 김정은, 조선인민군 제2차 보위일군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 관람
19:37	<소개편집물> 오늘을 아름답게 추억하리 - 김책시 련호동 리옥춘 -
20:00	보 도
20:34	<시사좌담> 경악을 자아내는 진보세력말살책동
20:52	<조선예술영화> 안순화동무의 최후 (2010.12.27 재방)
22:24	오늘의 보도중에서

부록 2) 남북한 유엔가입현황 - 유엔 및 유엔 산하·전문·독립기구⁸⁰⁾

(2012.12월 현재)

일련 번호	기 구 명	한국가입	북한가입	소재지
1	국제연합(UN)	1991	1991	뉴욕
2	세계보건기구(WHO)	1949	1973	제네바
3	유엔식량농업기구(FAO)	1949	1977	로마
4	만국 우편연합(UPU)	1949	1974	베른
5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1950	1974	파리
6	국제전기통신연합(ITU)	1952	1975	제네바
7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1952	1977	몬트리올
8	국제통화기금(IMF)	1955	-	워싱턴
9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1955	-	워싱턴
10	국제개발협회(IDA)	1961	-	워싱턴
11	국제금융공사(IFC)	1964	-	워싱턴
12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1988	-	워싱턴
13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ICSID)	1967	-	워싱턴
14	세계기상기구(WMO)	1956	1975	제네바
15	국제해사기구(IMO)	1962	1986	런던
16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1967	1980	비엔나
17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1979	1974	제네바
18	국제농업개발기구(IFAD)	1978	1986	로마
19	국제노동기구(ILO)	1991	-	제네바
20	세계관광기구(UNWTO)	1957	1987	마드리드
21	세계무역기구(WTO)	1995	-	제네바
22	국제원자력기구(IAEA)	1957	1974 가입 1994 탈퇴	비엔나
23	제네바군축회의(CD)	1996	1996	제네바
24	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ESCAP)	1954	1992	방콕
25	유엔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ECLAC)	2007	-	칠레
26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1965	1973	제네바

※ 유엔산하기구(Funds and Programs) 경우, 유엔 회원국 모두가 회원국으로 간주되므로 미표기

80) 자료출처: 외교부 유엔자료실, <http://www.mofa.go.kr/>

부록 3) 남북한 유엔 가입현황 - 정부간 기구

(2012.12월 현재)

일련 번호	기 구 명	한국가입	북한가입	소재지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96	-	파리
2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1989	-	싱가포르
3	아시아개발은행(ADB)	1966	-	필리핀
4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1990	-	영국
5	아프리카개발기금(AfDF)	1980	-	코트디부아르
6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1982	-	코트디부아르
7	동남아중앙은행기구(SEACEN)	1990	-	쿠알라룸푸르
8	동남아·뉴질랜드·호주 중앙은행기구(SEANZA)	1966	-	호주
9	아시아·태평양개발센터(APDC)	1982	-	쿠알라룸푸르
10	국제백신연구소(IVI)	1997	-	서울
11	유엔기념공원(UNMCK)	1959	-	부산
12	국제무역센터(ITC)	1964	-	제네바
13	국제결제은행(BIS)	1997	-	스위스바젤
14	세계관세기구(WCO)	1968	-	벨기에
15	아시아생산성기구(APO)	1961	-	동경
16	아시아·아프리카법률자문기구(AALCO)	1974	1974	뉴델리
17	아프리카·아시아농촌개발기구(AARDO)	1963	-	뉴델리
18	아시아·태평양지역식물보호위원회(APPPC)	1981	1995	방콕
19	아시아·태평양우편연합(APPU)	1961	-	마닐라
20	아시아·태평양전기통신협의체(APT)	1979	1994	방콕
21	국제의회연맹(IPU)	1964	1973	제네바
22	FAO/WHO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	1970	1981	로마
23	콜롬보플랜(Colombo Plan)	1962	-	스리랑카

일련 번호	기 구 명	한국가입	북한가입	소재지
24	동부지역공공행정기구(EROPA)	1962	-	마닐라
25	국제교육국(IBE)	1962	1975	제네바
26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1963	2004(준회원)	제네바
27	국제도량형국(IBWM)	1959	1981	프랑스
28	지구환경금융(GEF)	1994	-	워싱턴
29	국제남·아연연구그룹(ILZSG)	1987	-	포르투갈
30	상품공동기금(CFC)	1982	-	제네바
31	섬유수출개도국기구(ITCB)	1984	1999	제네바
32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1997	-	헤이그
33	아시아채소연구개발센터(AVRDC)	1971	-	대만
34	국제면화자문위원회(ICAC)	1954	-	워싱턴
35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1970	-	마드리드
36	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ICCRROM)	1968	1986(1996 탈퇴)	로마
37	국제이동위성기구(IMSO)	1985	-	영국
38	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INTELSAT)	1967	2001	워싱턴
39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	1961	1978	파리
40	국제수로기구(IHO)	1957	1987	모나코
41	아시아·태평양양수산위원회(APFIC)	1950	-	방콕
42	중서대서양수산위원회(WECAFC)	1974	-	바베이도스
43	중동대서양수산위원회(CECAF)	1968	-	가나 아크라
44	중서부태평양수산기구(WCPFC)	2004	-	마이크로네시 아(폰페이)
45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1996	-	세이셸
46	중부베링해명태자원보전협약(CBSPC)	1995	-	밴쿠버
47	북서대서양수산기구(NAFO)	1993	-	캐나다
48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1985	-	호주
49	국제법정계량기구(OIML)	1978	1974	파리
50	국제포경위원회(IWC)	1978	-	영국
51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PICES)	1995	-	캐나다

일련 번호	기 구 명	한국가입	북한가입	소재지
52	국제이주기구(IOM)	1988	-	제네바
53	국제포플러위원회(IPC)	1973	-	로마
54	국제사탕기구(ISO)	1993	-	영국
55	국제사법통일국제연구소(UNIDROIT)	1981	-	로마
56	국제수역국(OIE)	1953	2001	파리
57	국제곡물이사회(IGC)	1953	-	런던
58	국제열대목재기구(ITTO)	1985	-	일본
59	세계박람회기구(BIE)	1987	2007	파리
60	국제해저기구(ISA)	1995	-	멕시코
61	Wassenaar 체제	1996	-	오스트리아
62	상설중재재판소(PCA)	2000	-	헤이그
63	국제에너지기구(IEA)	2002	-	파리
64	국제식물신종보호연맹(UPOV)	2002	-	제네바
65	미주개발은행(IDB)	2004	-	워싱턴
66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2006	-	알마티
67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베니스위원회)	2006	-	벨기에
68	국제미작연구소(IRRI)	1991	-	필리핀
69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	1956	폴란드
70	아시아에서 선박에 대한 해적활동 퇴치를 위한 지역협력협정 정보공유센터(ReCAAP ISC)	2006	-	싱가폴
71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s)	1998	-	영국
72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	1996	-	오스트리아
73	아태식량비료기술센터(FFTC)	1970	-	대만
74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2001	-	호주
75	금융안전위원회(FSB)	2009	-	바젤
76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2009	-	바젤
77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2011	-	U.A.E
78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2012	-	한국
79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NPAFC)	2003	-	벤쿠버
80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2005	-	미국 라호야
81	남동대서양수산기구(SEAFO)	2011	-	나미비아 (왈비스베이)
82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SPRFMO)	2012	-	웰링턴

부록 4) 북한에서 연구 제작하여 중국기업에 판매한 HW 및 SW제품

※ 개발한 제품

No	제품명	제품개요
1	PCI운동기 판	Cyclone계열 FPGA소자 EP1C12Q240C8를 리용하여 컴퓨터에서 직접 5축 CNC공작기계에 대한 반결합조종을 수행하는 PCI확장기판.
2	현시모듈시 험장치	RGB 및 LVDS콘넥터를 가진 AMOLED현시모듈들의 출하전검사를 위하여 PCI9054와 CycloneII계열 FPGA소자 EP2C20F484C6의 결합으로 동작하는 PCI-104확장기판.
3	다매체열람 말단	망으로부터 다매체스트리밍봉사를 받아 열람하며 봉사기와 쌍방향대화를 진행할수 있는 말단장치. 주처리기: RK2706, 망조종소자: W5200
4	플라즈마절 단기	주컴퓨터로부터 망을 통해 사진자료를 넘겨받고 자체로 XYZ축이동을 진행하면서 절단과 구멍뚫기를 진행한다. 주처리기: S3C2440
5	초음파준위 측정기	40kHz초음파 송수신기를 리용하여 20~600cm범위에서 분해능 5mm로 액면의 준위를 측정한다. 단소편처리기: STM32F101RCT6
6	빛변환모듈	들어온 빛섬유신호로부터 필요한 신호들을 추출하고 또 반대로 상태값들을 빛섬유통로로 출력한다. 주처리기: StratixGX계열 FPGA: EP1SGX10DF672C5
7	은행카드결 제기	(Point of business) 은행에서 발급하는 전자현금카드를 리용하여 중앙은행 봉사기와의 상시적인 접속상태에서 개인이나 기업소들이 은행과 진행하는 현금거래를 전자화한다. 주처리기: OMAP3530 카드대면부: STM32F101BT6소자 리용 손님암호입력장치: C8051소자 리용
8	전압주파수 안정기	출력 3kW, 입구: 100~250V, 출구: 220V±2%, 50/60Hz; 력률 0.9이상 주처리기: DSP소자 TMS320F2812
9	외국어시청 각체계	교원과 학생사이의 음성통신 보장, SD카드안의 동영상 및 음성파일의 재생기능, 음성신호의 녹음기능을 수행한다.

No	제품명	제품개요
1	특수전동 기용	주파수변환기 입구: 220~450V, 35~70Hz, 출구: 220/380V±2%, 200~1500Hz 출력: 25kw
2	전압주파 수안정기	단상 및 3상, 출력 0.5~150kW THD: 1.5%(평균)
3	0.5t중주파 유도로	대출력SCR를 리용하여 전력조종계통을 설계 및 제작하였다.
4	수자조종 플라즈마 절단기	정밀도 < 0.2mm 소재두께: 철판 30mm, 동판 8mm
5	3차원레이 자구멍가 공기	소리신호를 리용하여 실시간적으로 레이저초점이행을 조종하며 프로그램화된 절환형전원을 도입하여 레이저의 침투출력을 높이고 가공정확도와 매끄러움을 높인다.

1. 레이저구멍가공기

공업과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에 따라 굳기가 세고 녹음점이 높은 재료를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구멍가공방법은 일련의 기술적 요구를 만족시킬수 없게 되었습니다. 실례로 용점이 높은 금속몰리브덴판우에 수 μ m정도 미소구멍가공과 경질탄화철프람에 수십 μ m직경의 구멍가공, 홍보석, 청보석에 수십 μ m구멍가공, 금강석선발노즐과 화학섬유방사노즐가공을 들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보통 보게되는 기계가공으로 실현하기 어려우며 지어 불가능 합니다. 최근 3D(3차원) 구멍가공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것은 이 방법을 리용하면 전통적인 방법에 비하여 분사식발동기의 랭각효과가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3차원 미소 구멍(그림1)에 의하여 랭각기체가 전체 타빈날개우에 균일한 얇은 막을 형성하여 발동기의 온도를 100°C 정도 낮출수 있으며 발동기의 수명을 훨씬 늘일수 있습니다. 현재 레이저구멍가공 기술은 다양화, 고속화, 미소직경화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레이저용접기에 기초하여 금강석노즐 구멍가공의 요구를 만족시킬수 있는 소리에 의해 조종되는 레이저구멍가공기를 처음으로 연구개발하였습니다. 현재의 레이저

용접기개발에서 문제로 되는것은 가격과 레이저초점위치의 조종입니다. 금강석은 자연계에서 가장 굳은 재료이며 이 재료를 가공하기 위하여서는 큰 에너지기밀도가 요구됩니다. 일반적으로 레이저의 침투출력이 낮으므로 값비싼 Q스위치를 리용하여 출력을 높이는 방법을 리용하고 있습니다. 레이저 가공과정에 초점을 on-line으로 측정하고 조종하는것은 레이저가공 과정에서 해결하여야 할 관건적인 기술중의 하나입니다. 구멍가공시의 빛복사를 조종신호로 하여 레이저가공과정을 실시간으로 조종하는것이 세계적으로 중요한 연구방향으로 되고 있지만 이러한 방법만으로 현장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소리신호를 리용하여 레이저구멍가공과정을 조종하는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기술은 금강석을 구멍가공하는 과정에 레이저에 의하여 생긴 소리신호를 레이저초점을 조종하기 위한 검측신호로 하여 레이저의 초점위치와 작업테이블을 조종합니다. 이 기술은 광학,전자기술, 음향학, 기계공학 이 결합된 첨단기술 입니다. 또한 실험을 통하여 레이저 공진기의 전반사경을 높은 주파수로 미소하게 진동시켜 Q스위치에 가까운 효과를 얻었습니다. 레이저공진기의 Q를 150KHz의 초음파로 변조시켜 레이저의 침투출력을 높이게 됩니다. 우리가 개발한 레이저구멍가공기는 IGBT를 리용한 프로그래밍 15kW 스위칭전원, 초음파발생기, 초음파 집중자, 압전변환자와 전반사경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기술을 리용하여 가공한 견본사진을 그림3에 보여주었습니다. 레이저가공시에 발생하는 소리신호에는 레이저가공과정과 관련된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방향에서 레이저초점을 실시간조종하는 기술을 연구하는것은 공업적 응용의 효과적인 방도라고 볼수있습니다. 레이저구멍가공기1대당 가격은 200W출력에서 수동조종인 경우 12만원, 열린조종인 경우 14만원이며 닫긴조종을 실현하는 경우 18-20만원을 예견합니다(2007년).

2. 자화탈자장치

이 과제는 주로 알니코등 영구재료의 자화와 탈자에 적합하며 자화단추를 누른후 자

동적으로 15번 자화과정이 일어나는데 그중에서 자화방향을 서로 다르게 하면서 10번, 한방향으로 5번 자화하며 자화이후 자기유도가 1.0T이상일것이 요구됩니다. 탈자에는 상대적으로 작은 전류로 전류방향을 바꾸면서 전류진폭을 점차 감소시키는 방법을 리용하여 자기유도를 10%정도까지 감소시킵니다. 조종회로를 통하여 자화권선에 순간적으로 대전류를 통과시켜 강한 자기마당을 형성시켜 시편을 자화시킵니다. 자화과정에 380V, 150A의 교류전원을 리용하며 자화권선과 조종용정류소자를 직렬하고 조종용정류소자의 도통을 통하여 형성된 자기마당의 교대적인 변화를 실현합니다. 탈자전원은 조절할수 있는 직류안정전원을 리용하여 탈자권선의 전류방향을 바꾸면서 500mA로부터 0까지 감소시킵니다. 장치가격은 4만-4만5천원입니다. 현재 항공우주국 230공장과 베이징성간회사, 삼강우주비행집단 계측중심에서 리용하는 설비들은 탈자과정에 대한 닫긴 조종체계가 서있지 않으므로 탈자후 합격률이 낮습니다. 탈자장치에 측정및 조종체계를 첨부하면 생산성을 지금보다 훨씬 높일 수 있습니다.

아래에 직접 진행했거나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과 그에 리용된 기술들을 간단히 설명합니다.

회사 내 이동형 저장매체 보안관리시스템

- ▶ 여기서 이동형 저장매체에는 USB 메모리, 이동형 HDD, SD Card, PDA, CD/DVD 등이 속합니다.
- ▶ 사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이동형 저장매체는 인증된 사용자만이 사용 가능하게 합니다.
- ▶ 저장매체 내 자료의 실시간 암호화에 의하여 이동형 저장매체를 통한 사내기밀자료의 유출을 방지하게 합니다.
- ▶ 사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이동형 저장매체는 회사의 관리서버에 등록되어 관리되며 반입/반출/사고 등의 모든 사용 케이스가 관리자에 의하여 엄격히 관리됩니다.
- ▶ 자료의 암호화 기술, Windows/Linux driver개발기술, SSL에 기초한 보안통신기술, driver 준위에서 프로세스제어/파일접근제어, Oracle/Tomcat/Java/Ajax/Javascript 등의 기술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회사 내 보안파일서버

- ▶ 사내의 모든 PC들에 SMB 프로토콜에 기초한 보안 볼륨(Security volume)을 제공합니다.
- ▶ 사용자는 중요 기밀자료는 이 보안 볼륨에만 저장하고 작업해야 합니다.
- ▶ 보안볼륨내의 자료가 사용자의 로컬 PC에 복사될 수 없게 합니다.
- ▶ 보안볼륨내의 자료저장/삭제/복사 등의 조작성이 DB에 기록됩니다.
- ▶ 관리자가 서버에 로그인하여 각이한 정책설정/상황통지/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 ▶ Windows/Linux driver개발기술, SSL에 기초한 보안통신기술, driver 준위에서 프로세스제어/파일접근제어, Oracle/Tomcat/Java/Ajax/Javascript 등의 기술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회사 내 문서보안

- ▶ 중요문서는 암호화 되어 저장됩니다.
- ▶ 사용자인증후에야 문서를 오픈 할 수 있습니다.
- ▶ 중요문서에 대한 모든 조작성이 DB에 기록됩니다.
- ▶ 관리자가 서버에 로그인하여 각이 한 정책설정/상황통지/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 ▶ 자료의 암호화 기술, Windows/Linux driver개발기술, SSL에 기초한 보안통신기술, driver 준위에서 프로세스제어/파일접근제어, Oracle/Tomcat/Java/Ajax/Javascript 등의 기술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ERP 개발경험

- ▶ Oracle/Apache/Tomcat/Java/Ajax/Javascript 기반의 ERP개발
- ▶ mySQL DB서버를 요구하는 고객에 대응경험
- ▶ 개발언어로 PHP를 요구하는 고객에 대응경험
- ▶ Oracle/IIS/.NET 2.0/C#/스마트클라이언트/Javascript 기반의 ERP개발

- ▶ 웹2.0에 대응한 Ajax기술활용, 클라이언트 측에 풍부한 기능제공을 위한 스마트클라이언트(Smart Client)구현 등의 기술
- ▶ 100%저장프로시저화에 기초한 Oracle활용 경험

Firewall 개발기술 경험

- ▶ Kernel준위에서 네트워크 Packet capture 기술
- ▶ 네트워크 프로토콜 파악/활용 관련 기술
- ▶ C++/C/Assembler 언어에 기초한 프로그래밍 기술 이미 개발된 Firewall을 리용하여 실지 대규모 회사의 Firewall을 관리해본 경험은 없습니다.

생체인증엔진 개발

- ▶ 화자식별엔진개발(Speaker Verification Engine) 개인의 음성자료로부터 본인을 인증합니다. 발성내용에 의존하지 않는 본문독립 형(Independence Speaker Verification) 과 등록과 인증 시 동일한 내용의 발성을 진행하는 본문의존형(Dependence Speaker Verification) 에 대한 연구개발을 10여 년간 진행함
- ▶ 얼굴식별엔진개발(Face Verification Engine) 사람의 얼굴영역검출에 대한 신속한 검출, 성능 높은 식별정확성을 가집니다. 지난 10년간 연구개발을 진행함

부록 5) 중국 일자리를 찾기 위한 북한 개발팀의 제품개발이력

안녕하십니까

인베디드전문가 1명,DSP전문가1명,수자신호처리수학전문가1명, 소프트웨어전문5명 중국에 일을 하려고 합니다. 장치부분과 소프트웨어분야의 주문건들을 알아보고 알려주십시오. 적극적인 협력을 바랍니다. 소프트웨어전문가들의 개발리력보내드립니다.

팀의 제품개발리력

1. 개발한 제품

No	제품명	제품개요	제품종류	작성언어
1	우리말을 배웁시다.	어린이들의 연령심리적특성에 맞게 조선어교육을 진행	다매체프로그램	VB 5.0
2	WAV	MS-DOS상에서 1790여종의 비루스 제거	MS-DOS용 비루스악편	Turbo C++
3	Palm컴퓨터용 5개국어회화체계	Palm컴퓨터에서 영어, 로어, 일어, 중국어, 조선어 등 5개국어로 회화학습 진행	Mobile 응용프로그램	Palm OS C
4.	클락새	Windows상에서 8만여종의 비루스 제거, 실시간비루스감시, 방화벽기능	Windows용 비루스악편	VC ++ 6.0
5	빠스회사 업무지원프로그램	회사의 경영업무를 지원	업무지원프로그램	VB 6.0
6	Undok Safe Document	Office문서, BMP, JPG, PDF 등 각종문서의 작성, 변경, 열람, 인쇄, 삭제 를 실시간적으로 감시하고 사용자 권한에 따라 처리한다.	문서보안프로그램	VC ++ 6.0
7	Image Backup	FAT, NTFS,	디스크보안프로	VC ++

	System	Ext2/Ext3구동기에 대한 이미지를 작성하고 필요한 때 복원한다.	그림	6.0
8	Combak	삭제된 파일/폴더의 복원	디스크복원프로그램	VC ++ 6.0
9	제철소 압연공정감시체계	압연가열로의 온도, 압력상태감시, 압연기의 려자전압 및 전동기회전속도 감시	공정조종프로그램	VC ++ 6.0
10	NetworkMonitor	Network사용자의 가입, 탈퇴, 그룹관리, 메신저리용 등 일체 작업을 감시하고 기록하며 조종한다.	말단감시프로그램	VB 6.0 VC++ 6.0
11	외국어시청각체계	교원과 학생사이의 음성통신 보장, SD카드안의 동영상 및 음성파일의 재생기능, 음성신호의 녹음기능을 갖춘 장치이다.	임베디드제품	RK OS C

2. 역C 제품

No	제품명	제품개요	제품종류	역C종류
1	3DS Max 3.0	3차원 모델링	화상처리프로그램	대면부 크랙
2	얼굴추적프로그램HeadTracking Demo	정화상 및 동화상, 카메라를 통한 실시간동영상에서 실시간적으로 얼굴의 특징점들을 검출한다.	화상처리프로그램	완전역C
3	얼굴검출프로그램 PittPatt	정화상에서 얼굴의 특징점 검출	화상처리프로그램	완전역C

3. 개발할수 있는 제품

- 1)VB에 의한 경영업무지원프로그램
- 2)Palm을 비롯한 휴대형 단말기용 응용프로그램
- 3)비루스웍썬, 망감시프로그램, 문서보안체계와 같은 각종 체계감시 및 보안 프로그램
- 4)디스크Backup, 파일복구와 같은 디스크관리프로그램
- 5)STM, Rockchip 과 같은 ARM core를 리용한 임베디드 제품
- 6)각종 프로그램의 역C 및 크랙

경의/2012-2-17일

부록 6) 북한의 체신법

체신법

2001년 9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93호로 수정보충

제 1 장 체신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체신법은 체신부문에서 규율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 전기통신, 우편통신과 방송을 원만히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체신은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실현하는 지휘수단이며 인민들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에 복무하는 봉사수단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체신기관, 기업소는 국가만이 소유한다.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정확한 체신정책에 의하여 체신의 물질 기술적 토대가 튼튼히 꾸러졌다. 국가는 체신부문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며 체신을 새로운 높은 단계으로 발전시킨다.

제4조 전기통신은 현대통신의 기본수단이다. 국가는 유선, 무선전화통신과 텔렉스, 팩스 같은 같은 전신통신의 기술장비를 현대화하여 전기통신능력을 더욱 높이도록 한다.

제5조 우편통신을 보장하는 것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중요 요구이다. 국가는 우편통신망을 합리적으로 꾸리고 우편통신수단을 늘려 우편물이 수요자에게 더 빨리, 정확히 전달되도록 한다.

제6조 방송시설운영은 방송의 중요공정이다. 국가는 방송시설운영체계를 바로 세우고

방송을 다양화하여 늘어나는 방송수요를 보장하도록 한다.

제7조 체신시설은 나라의 귀중한 재부이다. 국가는 체신시설에 대한 과학지식 보급사업과 사회주의 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전체 인민이 체신시설을 사랑하고 적극 보호관리하도록 한다.

제8조 국가는 체신활동에서 신속성, 정확성, 비밀을 보장하며 봉사성과 문화성을 높이도록 한다.

제9조 국가는 체신부문에서 사령체계를 바로 세우고 기업관리를 정규화, 규범화하도록 한다.

제10조 국가는 체신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 2 장 전기통신

제11조 전기통신을 보장하는 것은 체신의 기본사명이다. 체신기관, 기업소는 전기통신조직과 운영을 짜고들어 국가지휘통신, 산업통신, 인민생활통신을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지휘통신은 우선 보장한다.

제12조 중앙체신지도기관과 해당기관은 늘어나는 전신, 전화의 수요에 맞게 전기통신 능력을 높이기 위한 현행계획과 전망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여야 한다. 전망계획의 승인은 내각이 한다.

제13조 체신기관, 기업소는 전기통신회선수를 늘리며 현대 체신과학기술발전의 요구

에 맞게 중앙과 도(직할시), 도(직할시)와 시(구역), 군 사이의 통신선로를 현대화하며 전국의 전기통신망을 자동화하여야 한다. 기술적으로 뒤떨어졌거나 문화성이 보장되지 못한 통신선과 전선대 같은 통신시설을 제때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14조 체신기관, 기업소는 통신의 신속성과 정확성,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게 통신시설운영을 컴퓨터화하고 전화의 질과 봉사성, 전화회선의 이용률을 높이며 전보중계시간을 줄여야 한다

제15조 체신기관, 기업소는 국제전기통신의 방향별 회선수를 늘리고 새로운 통신방식을 받아들여 국제전기통신의 수요와 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6조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구내전화설비에 대한 계획적 예방보수와 정비사업을 실속 있게 하여 구내전화의 기술지표를 정해진 기준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17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전기통신시설, 설비를 정해진대로 이용하여야 한다. 해당 체신기관의 승인없이 전기통신시설, 설비를 설치하거나 철수, 이설, 폐기할 수 없다.

제18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하는 과정에 국가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제 3 장 우편통신

제19조 우편통신은 인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도모하는 봉사사업이다. 체신기관, 기업소는 편지, 전보, 소포, 정기출판물 같은 우편물의 배송과 전달공정을 합리적으로 맞물

리며 우편통신체계를 완성하여야 한다.

제20조 체신기관과 해당기관은 도시과 농촌의 실정에 맞게 우편국, 체신소, 체신분소를 배치하고 우편업종을 늘려야 한다. 우편업종에 대한 승인은 내각이 한다.

제21조 체신기관, 기업소는 우편물 취급공정과 배송수단을 기계화, 자동화하며 점차 전자우편을 실현하여야 한다.

제22조 체신기관, 기업소는 우편통신업무를 정규화하며 우편통신의 정확성과 문화성, 서신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우편용품은 규격화, 표준화하여야 한다.

제23조 체신기관과 교통운수기관, 해당기관은 철도우편차량, 우편자동차, 비행기 같은 우편수송수단을 늘려 우편을 제때에 수송하여야 한다.

제24조 세관과 검역기관은 국제우편물을 다른 짐보다 먼저 검사, 검역하여야 한다. 체신기관, 기업소는 국제우편물의 도착, 출발시간을 해당 세관이나 검역기관에 미리 알려야 한다.

제25조 교통운수기관과 해당기관은 우편통신원, 배송무원들의 사업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철도역, 무역항, 비행장 같은 데는 우편물을 싣고 부리는 장소와 우편물 통로를 정하며 우편수송수단을 제때에 통과시켜야 한다.

제26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정해진 우편물의 규격, 형식, 기준질량, 포장방법 같은 것을 지켜야 한다. 문건, 신분증명서, 화폐, 양곡, 폭발물, 독성물질, 부패 변질되기 쉬운 물품 같은 것은 우편으로 보낼 수 없다.

제27조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전달할 수 없게 된 우편물을 발송자에게 돌려보내야 한다. 전달할 수 없거나 돌려보낼 수 없는 우편물은 정해진 데 따라 처리한다.

제28조 국제우편통신업무는 해당 체신기업소가 한다. 해당 체신기관, 기업소는 국제우편통신수단을 현대화하여 늘어나는 국제우편통신수요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9조 교통운수기관과 체신기관은 배송, 전달도중에 생긴 우편물사고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자연재해, 발송자의 허물, 우편물자체 원인 같은 것으로 생긴 우편물사고에 대하여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 4 장 방송시설운영

제30조 방송시설운영을 잘하는 것은 체신기관의 중요업무이다. 체신기관, 기업소는 방송국, 방송중계국, 중계소의 방송기, 안테나, 중계기 같은 방송시설운영과 방송프로의 전송, 중계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제31조 해당 체신기관, 기업소는 방송시설에 대한 보수정비와 측정, 조정사업을 정상적으로 하며 최신방송기술수단과 새로운 방송방식을 받아들여 방송의 출력과 질을 높이고 주파수를 늘려야 한다.

제32조 체신기관과 해당기관은 텔레비전방송망과 그 중계체계를 완비하고 방송통로를 늘리며 텔레비전교육방송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텔레비전방송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체계를 세워야 한다.

제33조 체신기관, 기업소는 유선방송시설을 정상적으로 정비하여 정해지 기술기준치

를 보장하여야 한다. 유선방송시설을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 방송프로를 중계하며 그 중계시간을 지켜야 한다.

제34조 체신기관과 해당기관은 경보방송체계를 세우고 각종 경보방송을 원만히 할 수 있게 시험운영을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35조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유선방송시설을 갖추어 주민들이 살림집과 작업장, 공공장소에서 유선방송을 들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유선방송시설의 기술적 조건이 보장되지 않은 살림집과 해당 공공건물은 준공검사에서 합격시키지 말아야 한다.

제36조 체신기관은 주파수관리체계를 바로 세워 전파이용의 효과성을 높이며 여러 가지 전파장애를 제때에 극복하여야 한다.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장애전파설비를 기술 규정의 요구대로 운영하여 통신, 방송에 장애를 주지 말아야 한다.

제37조 우리 나라에 있는 국제기구대표부와 다른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무선방송설비, 위성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제 5 장 체신의 물질기술적토대 강화

제38조 체신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 것은 체신을 현대화하기위한 선결조건이다. 체신기관과 해당기관은 체신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는 사업을 인민경제계획과 국토건설총계획에 맞물려하여야 한다.

제39조 체신기관, 기업소는 국가지휘통신망을 현대적으로 꾸리며 전국적인 수자식 종합통신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전망성 있게 하여야 한다.

제40조 체신기관, 기업소와 해당기관은 우편국, 체신소, 체신분소 같은 우편물취급단위를 문화적으로 꾸리고 우편물취급시설을 기계화, 자동화하여야 한다. 중요철도역, 항공역, 무역항, 호텔 같은 데는 통신취급실을 설치한다.

제41조 체신기관, 기업소는 방송세력이 모든 지역에 미칠 수 있게 방송국과 방송중계국, 중계소를 건설하여야 한다. 방송국과 방송중계국, 중계소의 위치는 주민생활에 피해가 없는 곳에 정하여야 한다.

제42조 체신기관, 기업소와 해당기관은 체신설비, 자재, 부속품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생산을 정상화하여야 한다.

제43조 체신부문의 과학연구기관은 통신능력과 방송출력을 높이고 그 안전성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를 풀며 체신과학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여야 한다.

제44조 해당 교육기관과 중앙체신지도기관은 체신부문의 기술자, 기능공양성계획을 바로세우고 체신발전의 요구에 맞게 교육내용을 개선하여 기술자, 기능공양성의 질을 높여야 한다.

제45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연환경, 농업자원, 산림자원에 피해가 없도록 체신시설물을 건설하여야 한다. 체신시설물에 대한 준공검사는 해당기관이 한다. 해당기관의 입회 밑에 기관, 기업소, 단체도 할 수 있다.

제46조 체신시설물의 이용권은 체신기관의 합의 없이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에게 넘겨줄 수 없다.

제47조 국가계획기관과 노동행정기관, 전력공급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은 체신부문에 필요한 노력, 전력, 설비, 자재, 자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 6 장 체신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8조 체신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체신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 데서 나서는 필수적 요구이다. 국가는 체신부문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 세우고 이 부문에서 규율과 질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49조 체신사업에 대한 통일적 지도는 중앙체신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체신지도기관은 전기, 우편통신보장과 방송시설운영사업을 정확히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50조 체신기관은 방송전파설비, 장애전파설비의 등록, 운영허가질서를 세우고 전파감독장비를 현대화하여 전파감시의 주파수관리를 과학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51조 체신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체신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체신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체신활동의 신속성, 정확성, 안정성을 보장하며 비밀을 엄격히 지키도록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52조 이 법을 어기고 통신, 방송에 지장을 주었거나 비밀을 누설, 침해한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꾼과 개별적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부록 7) 북한의 국가규격 : 건반배열 부문

《정보기술-조선글자요소의 건반배열》 국규9265-97

적용범위 : 이규격은 컴퓨터건반에서 조선글자를 풀어쓰기로 입력하는 경우 건반배열에 적용된다. 조선글자요소의 건반배열은 다음 그림과 같다.

Q=ㅅ, w=ㅁ, e=ㅊ, r=ㄹ, t=ㅎ, y=ㅣ, u=ㅓ, i=ㅣ, o=ㅅ, p=ㅅ
A=ㅈ, s=ㅓ, d=ㅇ, f=ㄴ, g=ㅅ, h=ㅊ, j=ㅣ, k=ㅣ, l=ㅡ
Z=ㅣ, x=ㅓ, c=ㅊ, v=ㅅ, b=ㅓ, n=ㅊ, m=ㅅ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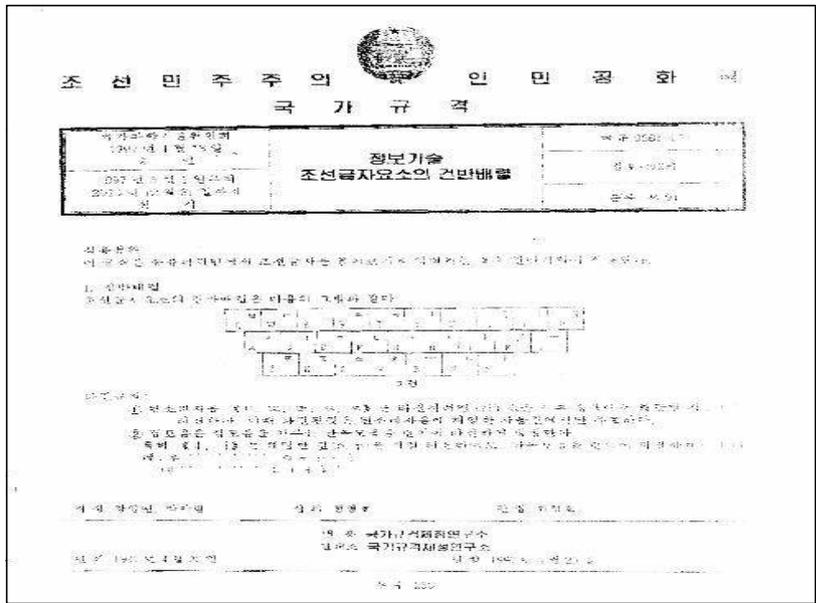
① 된소리자음 《ㄱ, ㄷ, ㅃ, ㅆ, ㅉ》를 타건하려면 shift건을 누른 상태에서 해당한 자음 건을 타건한다. 이때 타건된 것은 된소리자음에 해당한 자음 건에서만 유효하다.

② 겹모음은 겹모음을 이루는 단독모음을 련이어 타건하여 형성한다.

특히 《ㅅ, ㅈ》는 해당한 건(o, p)을 직접 타건하여도, 단독모음을 련이어 타건하여도 된다.

례 : 위 ㅅ+ㅓ+ㅣ

네..... ㄴ+ㅣ+ㅣ



※ “정보기술-조선글자요소의 건반배열” 해당 국규의 스캔이미지

《정보기술-전화기용 글자건반 배열》 국규12408:2009

이 규격은 전화기에서 조선어, 영어 및 기호 건반 배열을 규정한다.

조선글자모글자 :조선어의 소리마디를 적는데 쓰이는 음소단위의 소리글자

특수글자 :구분기호나 표식으로 쓰이는 특수한 도형을 가지는 글자

공백: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으면서 단어를 구분하거나 빈 자리를 메꾸는데 쓰이는 특수글자

변환건 :자모건에 련이은 타건으로 해당한 다른 자음으로 변환시키는 건

절환건 :조선어, 수자, 영어 및 기호입력방식절환기능을 수행하는 건

수자:수자건반배렬은 10개의 건으로 하며 [그림 1]과 같다.

조선어자모글자 :조선어자모글자건반배렬은 [그림 2]와 같다.

영어자모글자: 영어자모글자건반배렬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1]

1	2	3
4	5	6
7	8	9
*	0	#

[그림 2]

1 ㄱ ㅋ ㆁ	2 ㄴ ㄷ ㅂ	3 ㄱ ㆁ ㅈ ㅋ
4 ㄴ ㄷ ㅌ ㄷ	5 ㄴ ㄷ ㅌ ㅅ ㅆ	6 _ ㄱ
7 ㄴ ㅁ	8 ㄴ ㅎ	9 ㄴ ㄷ ㅌ ㅌ
*변환	0	#절환

[그림 3]

1	2 a b c	3 d e f
4 g h i	5 j k l	6 m n o
7 p q r s	8 t u v	9 w x y z
*	0	#

기호 : 조선표입력방식에서 건반으로 입력할수 있는 기호의 건반배렬은 [그림 4]와 같다.

[그림 4]

1	2	3
4	5	6
7	8	9
*	0 . ? ,	#

[그림 4]의 기호들은 절환건을 리용하여 기호입력방식으로 절환한 다음 전화기의 현시장치를 리용하여 선택방법으로 입력한다.

● 저 자 소 개 ●

최 성

- 연세대 전자계산학과 공학석사
- 강원대 컴퓨터과학과 이학박사
- 현 남서울대학교 컴퓨터학과 교수

우 성 구

- 방송대 경영학, 전산학, 영문학과 졸업
- 연세대 전자계산학과 공학석사
- 충북대 전자계산학과 이학박사
- 현 남서울대학교 컴퓨터학과 강사

유 갑 상

- 동국대 컴퓨터공학과 졸업
- 연세대 전자계산학과 공학석사
- 러시아 우랄대 수학과 공학박사
- 현 청운대학교 컴퓨터학과 교수

최 상 현

- 서울대 물리학과 졸업
- 연세대 전자계산학과 공학석사
- 일본국 오사카대학교 정보통신학과 공학박사

방통융합미래전략체계연구 지정2013-53

남북 방송통신 간접교류 협력방안 연구

2013년 11월 30일 인쇄

2013년 11월 30일 발행

발행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발행처 방송통신위원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Homepage: www.msip.go.kr, www.kcc.go.kr
